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I	글로벌 FDI 동향	7
II	국가별 투자유치 전략	15
	북미	15
	미국·캐나다	
	유럽	53
	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이탈리아·스위스·벨기에·오스트리아	
	아시아대양주	130
	중국·홍콩·대만·일본·싱가포르·호주·아랍에미리트	
III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191
	신산업	191
	의약/헬스케어·정보통신	
	기간산업	210
	에너지/환경·화학소재·전기전자·기계/로봇·항공우주·소비재	
	서비스산업	254
	물류/유통·부동산/관광레저·재무적투자/금융·문화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IV	Invest KOREA 투자유치 사업	287
	투자유치 기반조성	287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293
	외투기업 고충처리	296
	외국인 투자 종합행정지원	299
[첨부]	FDI 통계	305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305
	UNCTAD FDI 통계	319



I 전 세계 FDI 동향





1 글로벌 FDI 동향

■ 글로벌 FDI 동향

- 2019년 전 세계 FDI 흐름은 2018년 대비 소폭(3%) 증가한 1조5,400억 달러를 기록
 - UNCTAD에 따르면, 이는 2015년 FDI 2조 달러로 정점을 기록 후 3년 연속 (2016-2018년) 감소세에 이은 4년 만의 증가임
 -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은 5% 증가한 8,000억 달러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는 4,290억 달러로 18%가 증가한 유럽에 집중됨. 2018년 FDI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아일랜드와 스위스 등의 일부 국가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일부 유럽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은 감소함. 신규 지분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독일로의 유입은 절반으로 줄어 3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감소 폭이 작았음
 - 북미로의 FDI는 2,970억 달러로 변동이 크지 않았음. 최대 수혜국인 미국으로의 FDI 유입은 3% 하락하여 2,460억 달러를 기록함. 국경간 M&A 거래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1,560억 달러를 기록하여 FDI 감소에 영향을 미침
 -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2% 소폭 감소하여 6,850억 달러를 기록함. 2010년 이후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평균 6,750억 달러를 기록하며 변동 폭은 선진국보다 좁은 범위를 유지함
 -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에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5% 감소하여 4,740억 달러를 기록함
 - 아프리카로의 FDI 유입은 10%가 줄어 450억 달러를 기록,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로의 FDI 유입은 10% 성장하여 1,640억 달러를 기록함
-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MNE)의 해외 투자는 2019년 크게 증가함. 세계 개혁으로 2018년 대규모 네거티브 유출(negative outflow)을 초래했던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본국 송금이 둔화됨
 -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9,17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투자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18년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임. 최대투자국은 일본이었으며 하나의 대형 거래에 힘입어 2,270억 달러의 투자 유출을 기록

- 유럽 다국적기업의 FDI 유출은 13% 증가함.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기업의 대형투자와 독일 다국적기업의 재투자 수익이 2배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반면 프랑스와 스위스 다국적기업의 FDI 유출은 각각 63%, 82% 감소함
- 아시아로부터의 투자 유출은 원자재 가격 하락,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FDI 감소로 인해 19% 하락한 3,280억 달러를 기록. 아시아에 기반을 둔 기업에 의한 M&A는 52% 감소하여 430억 달러를 기록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유출 동향(2017-2019년)>

(단위 :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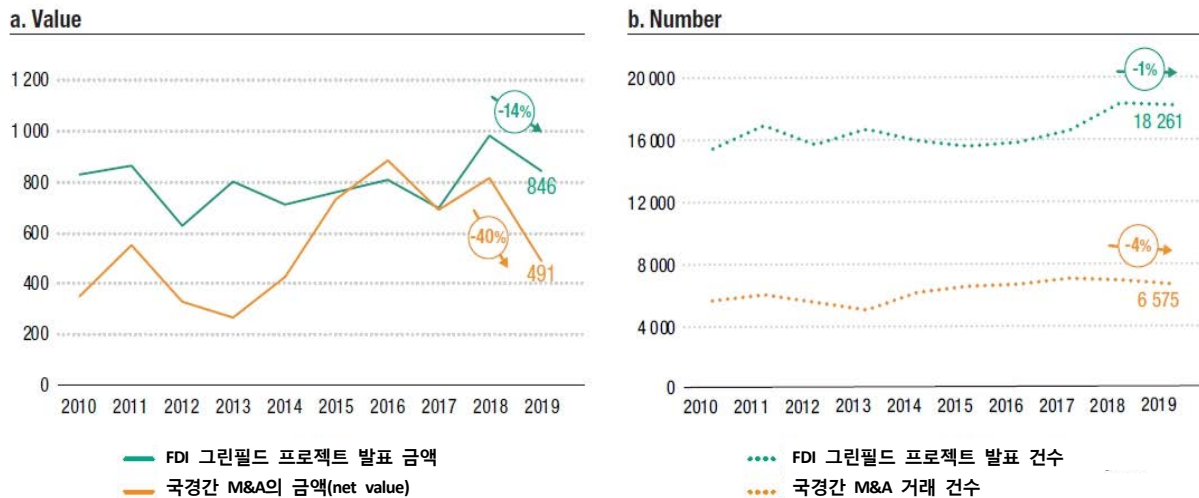
구분	FDI 유입(inflow)						FDI 유출(outflow)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세계	1,700	100	1,495	100	1,540	100	1,601	100	986	100	1,314	100
선진국	950	55.9	761	50.9	800	52.0	1,095	68.4	534	54.1	917	69.8
유럽	570	33.5	364	24.3	429	27.9	539	33.7	419	42.5	475	36.1
북미	304	17.9	297	19.9	297	19.3	379	23.7	-41	-4.1	202	15.3
개발도상국	701	41.2	699	46.8	685	44.5	467	29.2	415	42.0	373	28.4
아프리카	42	2.4	51	3.4	45	2.9	12	0.8	8	0.8	5	0.4
아시아	502	29.5	499	33.3	474	30.8	417	26.0	407	41.2	328	24.9
동·남동아시아	422	24.8	416	27.8	389	25.2	367	22.9	345	34.9	280	21.3
남아시아	52	3.0	52	3.5	57	3.7	11	0.7	12	1.2	12	0.9
서아시아	28	1.6	30	2.0	28	1.8	39	2.4	50	5.1	36	2.7
중남미·카리브연안	156	9.2	149	10.0	164	10.7	38	2.4	0.1	0.01	42	3.2
오세아니아	1	0.1	1	0.1	1	0.1	0.1	0.01	-0.3	-0.03	-1	-0.1
전 환경제국	50	2.9	35	2.3	55	3.6	38	2.4	38	3.8	24	1.8
기타	40	2.4	39	2.6	39	2.5	6	0.4	2	0.2	0.4	0.03

* 자료원 :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2020.6월)」

- 2019년 투자 형태별 FDI는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와 국경간 M&A에서 금액과 건수 모든 면에서 감소세를 보임
 -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의 금액 규모는 14% 감소하여 8,4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투자 건수는 1% 감소한 18,261건을 기록. 투자 금액의 감소는 프로젝트 평균 규모의 축소에 기인함
 - 국경간 M&A의 금액 규모는 40% 하락한 4,910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대형 거래(deal)가 감소함. M&A 건수는 4% 감소한 6,575건을 기록

<그린필드 FDI 발표 프로젝트 및 국경간 M&A 추이(2010-2019년)>

(단위 : 십억 달러, %)



* 자료원 :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2020.6월)」

-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FDI 흐름은 2019년(6개월 평균) 대비 49% 감소한 3,99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적 봉쇄로 인해 기존 투자 프로젝트가 둔화되고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다국적기업이 예정 프로젝트를 재검토
- 모든 형태의 FDI 실적이 하락했으며, 신규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의 발표는 37%, 국경 간 인수합병(M&A)은 15%, 인프라 투자의 중요한 원천인 국경간 프로젝트 금융 거래는 25% 감소
- 선진국은 2020년 상반기 FDI 유입실적이 980억 달러로 추정되어 2019년 대비 75%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을 보임. 유럽으로의 유입은 마이너스였고, 북미는 56% 감소한 680억 달러를 기록
-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예상보다는 적은 16% 감소를 기록. 중국에 대한 유입이 회복세를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 28%,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25%, 아시아에서 12% 감소함
-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은 러시아 연방의 급감으로 81% 급락함

<지역별 FDI 유입 동향(2020년 상반기 vs 2019년 6개월 평균)>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20년 상반기	2019년 6개월 평균	증감률
전 세계	399	777	-49
선진국	98	397	-75
유럽	-7	203	
북미	68	156	-56
개발도상국	296	352	-16
아프리카	16	23	-28
중남미·카리브연안	62	83	-25
아시아	217	246	-12
전 환경제국	5	29	

* 자료원 : UNCTAD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No.36(2020.10월)」

■ 글로벌 FDI 전망

- 2020년 전 세계 FDI 규모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UNCTAD는 2019년(1조5,400억 달러) 대비 2020년 세계 FDI가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최대 40%까지 하락 시 세계 FDI 규모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
 -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은 2019년 8,000억 달러에서 25~40%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중 유럽으로의 FDI 유입이 30~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미나 다른 선진국의 평균 20~35% 감소 전망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임
 - 유럽이 경제적 취약성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북미로의 FDI 유입은 35% 하락이 예상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급망 혼란 및 GVC 집약적 FDI의 비중,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세계적 압력으로 인해 FDI 유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FDI의 하락 규모는 30~4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아프리카로의 FDI 유입은 25~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부정적 추세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대한 FDI는 2020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난기류와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남. FDI 산업 프로파일도 취약성을 보임

-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은 30~4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하락폭은 수년 동안 침체기를 보이다가 2019년 59% 증가하며 550억 달러를 기록했던 FDI 증가 폭을 상쇄할 것으로 보임

<권역별 FDI 유입 동향(2017-2019년) 및 전망(2020년)>

(단위 :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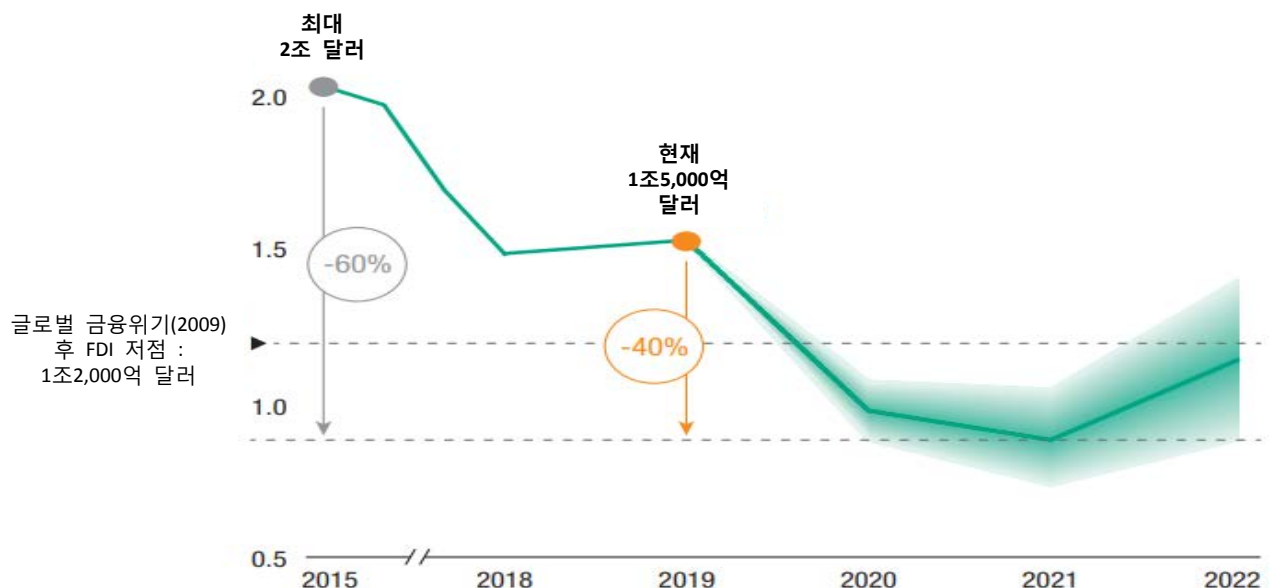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추정치)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전 세계	1,700	-14	1,495	-12	1,540	3	920~1,080	-30~-40
선진국	950	-25	761	-20	800	5	480~600	-25~-40
유럽	570	-16	364	-36	429	18	240~300	-30~-45
북미	304	-40	297	-2	297	0	190~240	-20~-35
개발도상국	701	7	699	0	685	-2	380~480	-30~-45
아프리카	42	-10	51	22	45	-10	25~35	-25~-40
아시아	502	7	499	-1	474	-5	260~330	-30~-45
중남미, 카리브연안	156	14	149	-5	164	10	70~100	-40~-55
전 환경제국	50	-25	35	-31	55	59	30~40	-30~-45

* 자료원 :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2020.6월)」

- 2021년 이후 전 세계 FDI 규모는 2020년의 대폭 감소(-30~-40%)에 이어 2021년 추가로 5~10% 더 하락한 후, 2022년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감소는 수년간 진행된 마이너스 성장 또는 성장 정체를 잇고 있으며, 장기적 하락 추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UNCTAD는 2021년 전 세계 FDI 규모를 2015년 2조 달러에서 60% 감소한 9,000억 달러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음

<전 세계 FDI 흐름(2015-2019년) 및 예상(2020-2022년)>

(단위 : 조 달러)



* 자료원 :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2020.6월)」

- 코로나19 팬데믹은 FDI에 대한 공급, 수요, 정책 차원의 충격임. 봉쇄 조치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경기침체 전망으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를 재평가할 것이며, 팬데믹 위기 시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포함됨
-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수요 충격은 FDI를 하락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FDI 추세는 GDP 성장 변화에 시차를 두고 반응하지만, 예외적으로 진행된 봉쇄 조치와 수요 충격의 조합은 투자 결정에 훨씬 더 빠른 피드백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탄력성, 자본재 보충,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 조정을 통해 2022년을 기점으로 투자 흐름은 서서히 개선될 전망
- 2022년의 반등 예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FDI 규모로 복귀도 가능하지만, 변수가 많아 전망은 매우 불확실함
- 주요 변수인 코로나19 및 보건 관련 위기의 지속기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개입의 효과성, 지정학적 위기와 재정 위기, 지속적인 무역 갈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임
- 현재의 위기로 인한 전 세계 FDI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서 국제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 전 세계 FDI 흐름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2019년 말 기준 36조 달러를 기록했던 기존 FDI 규모에 계속 추가될 것임



Ⅱ 국가별 투자유치 전략

북미	미국	15
	캐나다	42
유럽	독일	53
	프랑스	69
	영국	75
	스페인	82
	스웨덴	87
	덴마크	96
	네덜란드	100
	이탈리아	105
	스위스	111
	벨기에	117
	오스트리아	123
아시아	중국	130
	홍콩	142
	대만	147
	일본	152
	싱가포르	169
	호주	174
	아랍에미리트	181





1 미국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도 하반기 510억 달러 보다 약 23% 증가한 660억 달러 기록
 - * 미국의 '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 1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분기 671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 2분기 회복세는 미국 내 투자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등으로 오프셋 투자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파악
-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수혜국인 미국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50% 가량 감소
 - * '19년下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 1,270억 달러 -> '20년上 외국인직접투자 620억 달러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코로나19 백신 상용 보급화 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전망하나, 절대적으로 위축된 국가 간 해외직접 투자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국경 간 M&A 및 그린필드 투자 감소와 이익 하락에 따른 재투자 및 신규투자 약화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향후 팬데믹 극복 및 피해대책이 '21년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 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리쇼어링 및 자국민 보호 정책의 확대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1~2분기)	2021(e)
316,469	118,893	65,632	소폭 감소 또는 현행유지 예상

* 자료원 : OECD FDI In Figures(2020.10/), OECD FDI In Figures(2019.10)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통계적으로 매년 캐나다와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이 미국 최대 해외직접투자 국가 상위 순위에 있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네덜란드,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이스라엘 순으로 순서가 변동됨
- '20년 상반기 아시아 국가 투자로는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 중화권 투자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주요 우방국인 일본, 인도, 대만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
- 중국 및 홍콩의 경우 투자가 1/6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미-중 양국간 통상 분쟁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재국 최근 2개년 美 해외직접투자 최대 수요 국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美 해외직접투자 최대 수요국가					美 해외직접투자 최대 수요 아시아국가				
순위		2019년		2020년 상반기	순위		2019년		2020년 상반기
1	영국	32,010	네덜란드	24,086	1	싱가포르	27,798	일본	3,167
2	캐나다	29,889	바베이도스	8,728	2	중국	7,454	인도	1,868
3	싱가포르	27,79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7,581	3	일본	6,046	말레이시아	1,601
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1,252	이스라엘	7,528	4	인도	3,932	대만	1,321
5	독일	14,423	아일랜드	7,252	5	홍콩	2,786	중국	1,244
6	스위스	13,723	캐나다	4,516	6	인도네시아	1,922	대한민국	1,131
7	룩셈부르크	12,195	룩셈부르크	4,407	7	대한민국	1,413	싱가포르	614
8	중국	7,454	일본	3,167	8	태국	1,186	인도네시아	418

*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U.S. Direct Investment Financial Transaction

○ 산업별

- (금융) 미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산업은 금융업(은행제외 지주회사)으로 '19년 90억 달러 이상 금융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산업의 47%비중을 차지
- (제조업) 미국은 금융업 다음으로 제조업(15%)에 가장 많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며,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부 분야로는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제조 그리고 화학 제조로, 각각 44억 달러 및 39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 (IT) 미국 핵심 투자분야로 상품 수출 및 차세대 기술 R&D 협력 투자가 증가하였고, 미 정부는 6G 시장 선점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Next G Alliance 출범

* 2022년까지 5G 통신망 미전역 확대를 위해 미 핵심 통신사 3사 720억 달러 투자

- (바이오)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 시장이 본격 성장하여, '20년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은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 성장

*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최대 시장으로 전체의 60% 차지

-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 성장 본격화를 위해 그린뉴딜에 준하는 차세대 환경경제 융합정책을 제시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 1.2조 달러 투입 예정

<주재국 최근 2개년 해외직접투자 산업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금융업	컴퓨터및 전자제품 제조	화학 제조	도매업	정보 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식품 제조	금속 제조	기계 제조	전설비및 기전부품 제조
2018년	10,145	4,436	3,978	2,330	830	961	725	375	333	95
2019년	9,027	4,155	3,972	3,045	1,899	435	670	416	322	52

* 자료원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뉴욕】

○ 국제 금융의 중심지

- 뉴욕은 '세계 금융의 수도'라 불리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뉴욕시 맨해튼에는 세계주식거래의 중심인 월가에 미국증권거래소(SEC)가 자리잡고 있어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자금 조달은 물론 M&A산업이 발달해 있음

○ 글로벌 기업의 본사 소재지

- 2020년 Fortune 500내 뉴욕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65개로 가장 많은 Fortune 500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총 매출은 약 1조 8억 달러로 전체 500개 기업의 12.5%에 해당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J.P Morgan, KKR, BlackRock 등 굴지의 투자은행의 본사가 소재해 있고, Pfizer, Johnson&Johnson(뉴저지주)으로 대변되는 굴지의 유망 의료 제약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바이오/제약 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허브로 꼽힘

【로스앤젤레스】

○ 엔터테인먼트

-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밸류체인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망산업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이 발달함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테마파크, 극장 등의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수단이 대폭 축소되면서 침체기를 맞았으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디지털 포맷 콘텐츠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커머스 (E-Commerce) 및 물류 시장

- 로스앤젤레스 공항, 롱비치 항만으로 대표되는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권역 내 최대 클러스터를 구성중임
-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이커머스 시장에 맞춰 물류창고 및 콜드체인 관련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워싱턴】

○ 관할지역의 對韓 비즈니스 거래수요는 크지 않은 규모

- 관할지는 미국 행정부, 싱크탱크, 국제기구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중요한 지역으로 기업 대상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음

* 19년 워싱턴무역관 관할지 對韓 수입액은 미국 전체의 2.5% 기록

* 뉴욕 30.3%, 실리콘밸리 18.4%, LA 14.3%, 달라스 14% 대비 비즈니스 수요가 저조한 편

○ USPS, AMAZON 등 주요 물류, 유통사의 본사 위치로 물류, 유통산업과 정부 기관 컨설팅, 법률서비스가 비교적 발달한 편으로 해당 산업군의 對韓 투자 가능성이 있음

- 한국 내 법인설립 및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공동연구, 기술제휴 및 지분투자를 선호하는 경향 있음
- 비즈니스 서비스분야의 경우, 미국 내 대형로펌들이 한국 대형 로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미국법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음

【실리콘밸리】

-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IT기업(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전기차,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커머스 등)의 집결지임
 - 위 기업들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벤처투자를 받아 성장한 경우가 대다수로서, 실리콘밸리는 이와 같이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있는 곳임
 - * 주요기업 : Apple, Microsoft, Amazon, Google, Facebook, Tesla, nVidia, Adobe, Netflix, Intel, Salesforce 등

【달라스】

- 미 중남부 텍사스는 세계 에너지 산업의 수도인 휴스턴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이오, 첨단제조·방산, 항공, IT 산업이 두루 발달해 있음
 - 수년간 지속된 에너지 산업 불황으로 기존에 해당 분야에 집중되어있던 자금이 다른 산업 및 투자처로 분산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관련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비즈니스 합작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투자펀드 조성 움직임이 포착됨

【디트로이트】

- 바이든 당선인의 “Made in USA” 정책에 따라 제조업 리쇼어링 증가 예상
 - 바이든 당선인은 자동차 산업에서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으로 리쇼어링하는 제조기업에게 10%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
 - * 미국 기업이 국외로 이전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수립도 제안
- 2020년 7월 발효된 USMCA 규정으로 인해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역내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며 리쇼어링 현상 심화
 - USMCA하 완성차 무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75% 이상이 역내산 이어야하므로, 멕시코·미국·캐나다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역외산 부품에 대한 수요 감소
- 미국 자동차 산업, 차세대 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협력 증가
 - GM-LG화학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오하이오주 배터리공장 착공
 - LG화학-마그나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설립, 전기차 모터·인버터 생산 계획

【시카고】

- 美중서부 지역은 대표적 제조업 중심지로 미국 전체생산량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화학, 운송기기, 기계·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투자가 지속
 -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리쇼어링 압박으로 인해 해외투자 계획이 연기되는 등 투자유치 여건 악화
 - 그린필드 및 증액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반면, 제조 글로벌 기업들의 자체 CVC를 통한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대상 재무적 투자 증가 추세
- 전통 제조업 외에도 항공, 차세대 소재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등이 발달한 지역으로 R&D 투자가 활발하며, 특히 IT 관련 서비스산업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주요기업 : Boeing, United Continental, Caterpillar, Navistar, Baxter, Medtronic 등
 - * 주요 CVC기업 : Boeing, Caterpillar, AbbVie, Baxter, 3M, Abbott, Allstate 등
- 최근 물류 산업 성장에 따라 기업간 M&A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조인트벤처 형식의 투자 증가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년 11월 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신고 금액은 약 3,300만 달러로 전년도 투자신고 금액인 6,800만 달러의 절반가량까지 감소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발표한 미국의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유출/유입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년 미국의 대한 투자는 분기마다 급감하였음
 - * '20년 1분기 961백만 달러 -> 2분기 146백만 달러 -> 3분기 - 2,529백만 달러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3,873	4,710	5,879	6,849	5,301
신고건수	375	409	368	404	368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최근 미국의 대한 투자 산업별 순위 및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18년 최대 투자 산업	투자규모	순위	'19년 최대 투자 산업	투자규모
1	제조업	14,528(34%)	1	제조업	11,190(27%)
2	금융·보험업	10,145(24%)	2	금융·보험업	9,027(23%)
3	그 외 산업	2,615(6%)	3	도·소매업	3,045(8%)
4	도·소매업	2,330(5%)	4	그 외 산업	3,028(8%)
5	정보(IT)업	830(2%)	5	정보(IT)업	1,899(5%)

*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최근 미국의 대한 투자 제조업 분야별 규모 및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제조업 분야	컴퓨터·전자제품	화학	식품	기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전기설비 기구 및 부품	운송 장비	기타 제조업
2018년 (%)	4,436 (31%)	3,978 (27%)	725 (5%)	393 (2.7%)	375 (2.5%)	95 (0.6%)	-250 (-1.6%)	4,775 (33%)
2019년 (%)	3,169 (28%)	3,972 (35%)	670 (6%)	322 (2.8%)	416 (3.7%)	52 (0.4%)	-281 (-2.5%)	2,868 (26%)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주요 투자 분야

【뉴욕】

- 전미 금융 서비스 산업 고용규모 1위인 뉴욕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및 자산 운용사가 주둔해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거래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R&D의 중심지로 주 전역에서 관련 과학기반 산업이 잠재적 파트너십과 최신 기술에 접근 가능하여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실리콘앨리'라고 불리며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테크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

【로스앤젤레스】

- 과거 경기호조에 힘입어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개발, 리조트 개발 관련 투자가 집중되었음. 그러나 2020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소비가 대폭 낮아지면서 이 같은 증가세는 정체기를 맞고 있음
-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서비스업 및 이커머스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워싱턴】

- 물류/유통업, 비즈니스 서비스, 전기차·자율주행차 및 관련 부품, 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가 21년 투자유치, 진출에 유망할 것으로 전망

【실리콘밸리】

- 반도체, 전자제품, 클라우드 기업의 한국 투자와 벤처캐피털/재무투자자의 한국 스타트업/초기 단계 회사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달라스】

- (IT)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한국기업과의 기술합작 및 재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
· 오스틴 소재 VC들은 현지 진출이 가능한 유망 국내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관심이 높음
- (바이오/헬스케어) 코로나19로 동 분야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특히 K-방역 관련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현지의 인지도 상승과 맞물려, 신규 합작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예 : 투자가 P사는 국내기업과 항암분야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 협력 희망. 재사용 가능 PPE 제품 수입 및 합작법인 설립 등에 관심

【디트로이트】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타격,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난항, USMCA에 따른 리쇼어링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지역의 대한 직접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산업 전반적으로는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신기술에 대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발굴해야 함
· 전기차 배터리·충전기 제조업체, 전장 부품, 차체 경량화 신소재 등 전기자동차 관련 분야와 라이다·레이다 부품, AI 소프트웨어 등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 유망
* GM : 전기차에 5년간 30조원 투자 계획, VW : 미래모빌리티에 77조 투자 계획 등

【시카고】

- 중장비, 기계·부품, 항공 등 전통 제조업의 투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오·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물류, 부동산 및 재무적 투자 소폭회복 전망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미-중 통상 분쟁과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로 인해 중국을 첨단소재 및 제품 생산지로 활용했던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생산지를 이전 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 중장기 저금리 기조와 미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외 금융투자 및 직접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음
- 미 투자가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로 국내 드라마(K-Drama) 및 음악(K-pop)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한류가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K-방역 및 의료기기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미 그린사업에서 수소 경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 미래형 자동차 등의 높은 수준의 중간재, 소비재 생산기지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경제성장률) '20년 미국 경제는 - 5.3% 하락하여 지난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 되었는데, 특히 2분기 미국의 코로나 대응 긴급 경제 봉쇄로 - 33%의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였으나, 3분기 전분기의 기저효과로 31%의 급반등세를 보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임
 - * '20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 1분기 -5% → 2분기 -31.4% → 3분기 +33.1% → 4분기 +3.4%
- (실업률) 미국은 지난 '20년 4월 14.8%의 엄청난 실업률과 664만명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하며 실업률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양적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세로 '21년 1월 초 기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명 수준으로 회복
- (신정부 경제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초방향인 바이든노믹스는 제조 분야의 미국으로의 회귀(reshoring)를 강조하며, 특히 의약, 의약 기구 등 공공 보건 위기에 핵심적인 품목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더욱 반도체, 전기배터리, 5G 통신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Reshoring 가능 분야 : ① 자동차, 차체, 트레일러 및 부품, ② 기타 운송장비 (예: 보트, 레일), ③ 항법, 계측, 전자 및 제어기기, ④ 기초 화학물질, ⑤ 반도체 및 전자부품, ⑥ 의료장비 및 소모품, ⑦ 통신장비, ⑧ 항공·우주 제품
- (투자정책)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소재 미국 기업의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국내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뉴욕】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굴뚝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벤처기업 중심의 첨단 지식 산업으로 변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의료, 교육, 쇼핑 등 온라인 및 디지털 정보통신(IT) 분야에 투자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 '20년 5월 미 사모펀드 B사 국내 온라인교육 플랫폼 1500억 투자
 - * '20년 11월 미 사포펀드 K사 국내 온라인 쇼핑 T사 900억 투자
- 유망 투자분야였던 헬스케어/바이오/제약의 관심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상승하는 분위기이며, 특별히 우수방역국가로서의 한국 관련 투자도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 '20년 6월 의료기기 수입업체 S사 무역관을 통해 3억불 투자신고 완료

【로스앤젤레스】

- IT 관련 서비스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시대의 판로를 개척하면서 연관 업종의 Outbound FDI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
- Cloud Kitchens : 빅데이터를 활용한 레스토랑 솔루션 및 공유주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클라우드 키친은 한국의 발달된 음식 배달 인프라를 미국 다음으로 높이 평가하며 2019, 2020년에 총 2억 5천만불을 투자신고함. 아직 현금 결제가 익숙한 일본, 배달 인프라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에 비해 아시아권에선 한국 시장이 현재 가장 큰 수요를 보일 것으로 판단
- 이같이 I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대한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워싱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및 불확실성 증대로 對韓투자 논의건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A社 : '20년도 30천만달러 투자 최종단계에서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미진행
 - B社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력 감축을 실시하였으며 경영리스크 확대로 對韓투자 잠정 보류
- 일부 기업의 경우, 對韓투자를 매년 지속하고 있었으나 '20년은 증액투자 미진행
 - UA社 : '20년도 1천만달러 증액 투자 미진행

【실리콘밸리】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 증가로 반도체, 전자제품, 클라우드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한국투자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출입국의 제한으로 한국투자 발굴 및 진행에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달라스】

- 오스틴을 중심으로 다수의 IT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에 기 투자 진출한 대기업들이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 확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내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 및 증액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Apple 10억 달러 규모의 오스틴 캠퍼스 확장 계획 발표(2020.5), Tesla 10억 달러 규모 기가 팩토리 오스틴 설립 계획 발표(2020.7), HP Enterprise 본사 휴스턴 이전 계획 발표(2020.11), Oracle 본사 오스틴 이전 발표(2020.12)

【디트로이트】

- 차세대 자동차 분야의 투자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중국(전기차), 일본(소재·부품·기술), 동남아시아(저렴한 노동력) 등 주요 아시아 지역과 투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전통적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USMCA, “Made in USA” 정책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대형 기업 간 M&A, 투자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종산업 간에도 투자 협력의 기회가 늘어날 것
- * 현대자동차,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Aptiv와는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 출범

【시카고】

-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미·중 통상분쟁, GVC개편, 홍콩보안법 이슈 등으로 아태본부 유치를 통한 對韓투자 확대 가능성 존재
- * 금융기업의 경우 세일즈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어 본부이전 수요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제조라인을 설립하는 것 등에 대한 관심도 상승 전망
- 바이오·헬스케어, 항공, 서비스 산업의 한국 R&D 센터 설립 및 스타트업 투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 (바이오·헬스케어) Abbott Laboratories, AbbVie, Bayer, Eli Lilly 등 다수의 국내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및 해외 공동 진출 프로젝트 진행
- * (항공) Boeing R&D센터 설립 (서비스) Lam Research R&D 기능 이전

■ 투자유치 유망분야

【뉴욕】

(1) 금융

○ 선정배경

- 미국 금융서비스 산업 고용규모 1위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은 신규 투자 유입 및 해외진출이 활발하므로 금융 산업 경쟁력을 활용한 투자유치 기회가 많음
- 뉴욕시 맨해튼 월가에 세계주식거래의 중심인 미국증권거래소(SEC)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업들 투자 자금 조달 및 M&A 투자가 매우 발달되어 있음
- J.P. Morgan, Bank of America, Citi Group, KKR, Goldman Sachs, Bain Capital 등 글로벌 최대 규모 금융 투자은행 본사가 뉴욕시에 포진되어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최대 산업 분야는 금융 산업 지분투자로 전체 비중의 47% 차지
- 미국의 대한 투자 최대 산업 또한 금융업으로 '19년 약 90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미국의 대한 투자 산업 비중의 23% 차지
 - * 미국의 한국 금융투자 : 2019년-> 90억 2700만달러, 2018년->101억 4500만 달러
 - * 미 사모펀드 B사는 국내 교육플랫폼 회사에 1500억원 투자 및 국내 화장품 회사를 약 4300억원에 인수하였고, 현재 총 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음

(2) 바이오/생명공학

○ 선정배경

- 뉴욕주는 주 내 고르게 분포한 대학에서 균등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바이오 및 생명과학 R&D의 중심지로 주 전역에서 과학기반 산업이 잠재적 파트너십과 최신 기술에 접근 가능
- 뉴욕주 및 뉴저지주는 미 국립보건국 펀드 수요 규모 2위(20.1억 달러), 생명과학 연구시설 규모 3위, 벤처캐피털 규모 4위(10.7억 달러)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함

- 뉴욕주 인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캠브리지 지역은 미국 최대 바이오 및 제약 클러스터 지역으로 미국 상위 20개 바이오/제약 기업 중 18개사가 위치
-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생명공학센터(Center for Biotechnology)는 4개의 인큐베이터와 245에이커 규모의 연구단지 등 보유 자원을 활용해 생명공학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
- 뉴욕주 무역협회(NewYorkBio)에서도 뉴욕이 생명공학과 바이오의학 연구, 교육,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이오과학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미국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성장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원격진료 서비스 보편화가 진행 중이며, 관련 장비 및 플랫폼 등의 수요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
 - * '20년 미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 3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9.7% 성장
-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며, 의약품 수입확대 및 복제약 공급망 활성화 등도 추진 예정
- 의료기기는 시장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바이오가 주목 받으면서 시장 진입에 긍정적 여건 조성

(3) 반도체 소부장

○ 선정배경

- 미국 반도체 산업 규모는 475억 달러로 최대 수출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투자가 집중된 산업 분야임
 - * 비메모리 및 아날로그 반도체 완제품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60%로 세계 1위
 - * 반도체 소재인 미국産 반도체 웨이퍼 시장 점유율은 44.3%
-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디자인·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리더로 19개 주에 걸쳐 80개의 웨이퍼 제조 공장 보유

- 뉴욕주 알바니(Albany) 뉴욕주립대에 위치한 2015년에 설립된 나노과학기술 칼리지(CNSE)는 세계적인 나노공학 연구의 메카로 삼성을 비롯한 인텔, IBM,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등 300여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R&D 센터에 입주하여 13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공동 연구 진행 중에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20년 9월 기준 미국 반도체 수입은 50억 달러로 '20년 4월 대비 17%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이는 상시원격 근무를 도입한 기업 증가로 인한 회복으로, 개인은 컴퓨터 및 태블릿 등 IT기기 수요가 늘고,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수요도 증가
- 미 상원은 '20년 6월 반도체 산업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228억 달러 규모의 'Chips for America Act' 및 7월에는 R&D 지원책인 'American Foundries Act'를 발의
 - *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비용 또는 장비 구입비용의 40% 세금 환급
 - * 주정부 인센티브 지원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 반도체 연구 및 생산에 250억 달러 배정
- 한-일 반도체 GVC 재편을 기회로 삼아 미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의 한국기업 관심도 상승 및 대한 투자 확대 전망

【로스앤젤레스】

(1) 물류

○ 선정배경

- 코로나 사태 이후 통상적인 리테일 시장 대비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올해 미국 이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7,097억8,000만 달러로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1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작년 이커머스의 매출 비율인 1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SA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세계적인 건강 및 미용 전자상거래 업체 아이허브(iHerb)는 2020년 전 세계 배송망에 23개 나라를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는 동사 역사상 가장 큰 배송망 확대임

- 2018년도 CJ 대한통운과 협력하여 인천 글로벌 배송센터에 입주하였으며 매출 확대 시 한국에 현지 법인 설립 및 직접 물류창고 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음

(2) IT 관련 서비스업 투자

○ 선정 배경

- 미 서부지역은 대표적인 전자, IT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미 정부의 리쇼어링 (reshoring)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임
- 쉐컴 벤처스등 해당 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경우 해외 투자에 활발한 편으로, 최근 5G 네트워크 및 자율주행 기술 관련으로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음
-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 IT 부분은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의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해외 협력업체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앵커 역할을 해주고 있음
- 한국의 스타트업 또한 IT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현재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5G 네트워크 수요 공급을 위해 미국의 IT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음
- 특히 남가주 엘바인에 위치한 IT 기업인 M사는 현재 한국의 KT, 삼성등과 기술 제공 협의와 투자를 계획 중으로 5G 네트워크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국내 기업과 공동 R&D 센터 설립에 관심이 있음

(3) 일반 제조업 유턴 투자

○ 선정배경

- 캘리포니아는 미주 한인 최대 거주 지역으로 한국 연계 비즈니스 활동이 가장 활발함
- 특히 교포기업이 제일 많이 포진한 일반 제조업 분야가 현지의 높아지는 최저임금 및 기타 인프라 악화로 인해 쇠퇴기를 맞으면서 텍사스주 및 해외 지역으로 회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KOTRA가 시행하고 있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는 이 같은 기업들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 이미 북미지역 최초사례 포함 2차례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과 무역이 활발한 관계로 물류업 및 관련 서비스 부분 투자 관심도 높음

○ 관련 산업 동향

- 기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던 교포기업들도 다른 언어권에서의 애로사항 및 늘어나는 규제 등으로 한국 진출 선호

【워싱턴】

(1) 전자상거래/유통

○ 선정배경

- 아마존 제2본사 설립(2018) 이후, 2020년 제2본사 1,000명 추가 고용 등 관할 지역의 전자상거래/유통 업계 산업이 대폭 성장하였음
- * 관할지역 5대 산업군 중 매출 실적, 법인수가 두 번째로 많음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SKT-11번가-A사의 전략적 제휴 체결 이후, A사-SK웨이브, ADT캡스 등 A사-SK의 전략적 제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투자 증액 예상
-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식자재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쿠팡,마켓컬리 등 한국 유통시장에 대한 재무적 투자가 투자검토도 이어지고 있음

(2) 자율주행, 전기차

○ 선정배경

- 바이든정부 출범으로 자율주행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기대로 자율주행, 전기차 및 관련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 관련 산업 동향

- 수도인 워싱턴DC 지역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사용한 대중교통 시범 운영 계획 수립

- Aurora 등 주요 차량 서비스 업체는 Ford 등 차량 메이커와 협력하여 워싱턴DC,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운행 착수
- 전기자동차 판매는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를 차지할 예정이며, 2040년까지 58%로 확대될 전망(BloombergNEF)

(3) 비즈니스서비스(법률, 컨설팅, 회계)

○ 선정배경

- 워싱턴DC지역은 미국 정부,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가 발달한 지역으로 매출상위, 매출 성장률, 법인수 기준으로 3대 산업군에 포함되었음
- * 관할지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통계('18년 기준) : 매출액(11,480억달러), 법인수(79,175개) 등

○ 관련 산업 동향

- 한국의 ICT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M&A수요가 존재하며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의 한국기업 지분인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 증가 및 미-중 마찰 심화로 인해 현지 로펌, 컨설팅펌의 동아시아 거점을 한국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다수 대형 로펌이 한국 로펌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법률시장 개방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실리콘밸리】

(1) 반도체

○ 선정배경

- 실리콘밸리는 그 이름과 역사가 반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반도체산업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임
- * 주요기업 : Intel, AMD, nVidia,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등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며 반도체 장비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실리콘밸리 기업의 한국 유망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실리콘밸리 반도체 장비기업의 한국투자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데이터센터 / 클라우드

○ 선정배경

- 실리콘밸리는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관련 분야의 세계 최정상급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임

* 주요기업 : AWS, Microsoft, Google, Digital Realty, Equinix, Salesforce, ServiceNow 등

○ 관련 산업 동향

- 외부 데이터센터 사용에 대한 인식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리콘밸리 관련 기업의 한국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3) 스타트업 / 초기 단계 기업

○ 선정배경

- 실리콘밸리는 가장 많은 수의 스타트업, 유니콘이 있는 곳이며 가장 활발하게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임
-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이 세계 5위 유니콘 보유 국가가 되면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실리콘밸리 내 한국계 벤처캐피털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실리콘밸리 최정상급 투자회사들의 한국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달라스】**(1) 바이오·헬스케어**

○ 선정배경

- 텍사스주 남부 휴스턴에 세계 최대 의료단지인 “Texas Medical Center(TMC)”를 중심으로 대형 병원 및 연구소, 의과 대학 등이 대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 TMC : 연간 800만 명 환자 방문, 연간 18만회 수술진행(매 3분마다 수술 시작), 병상 수 9,200개, 직원 수 10만6천명, 세계 최대 소아병원, 세계 최대 암센터인 MD Anderson 소재

- '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의료업계에 지속적인 관심 및 투자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관련 산업 동향

-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함.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관할지의 의료산업을 감안할 때 향후 비즈니스 협력 수요 발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 고령화, 비만 및 각종 성인병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는 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술, 임상실험 관련 기업들과의 합작투자 및 M&A 등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2) IT

○ 선정배경

- 텍사스의 주요 6대 산업 중 하나인 IT산업은 주요 도시(달라스, 휴스턴, 오스틴)에 두루 발달해 있음. Dell, Microsoft, Google, Apple, HP, Facebook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수 소재
- 특히,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던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텍사스로 본사 이전 및 기존 텍사스 캠퍼스 확장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텍사스의 IT 산업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함. 대기업 이전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임

○ 관련 산업 동향

- AI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의 수요가 높으며, Deloitte는 '20년 기술산업 전망 보고를 통해 향후 미국 IT 기업들의 AI 분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디오 컨퍼런스, 재택근무로 리모트 콜라보레이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뉴노멀 시대의 도래, 재택근무 확대 등은 IT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합작 및 투자 니즈도 발생시킴에 따라 국내기업과의 합작 투자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3) 스타트업

○ 선정배경

-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오스틴 지역에 특히 스타트업이 발달했으며, 최근 글로벌 기업의 이전 및 기반확대로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매년 오스틴에서 3월에 개최되고 있는 대형 융복합행사인 SXSW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들이 참여, 현지 투자가들과 네트워킹 및 피칭기회를 가짐

* SXSW 2021 : 3월 16~20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

○ 관련 산업 동향

- 오스틴의 IT 산업 기반 확대 및 글로벌 기업 추가 유입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VC, VC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에너지 수도 휴스턴시는 오일/가스 산업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 정부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 개발 및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테크놀로지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펀드 조성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

【디트로이트】

(1)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 선정배경

-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과 관련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2040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57%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Bloomberg)되며 전기차 연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이미 가시화 중

○ 관련 산업 동향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패키징, 모터·인버터, 통합전력제어 장치, 전장 부품 등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중
-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7.2%, SNE리서치)로, 2020년 9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기차 전략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내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을 위한 해외 기업의 투자 가능성 존재
- * 디트로이트 소재 부품기업 A사, 한국 공장에서 전기차 관련 신부품 생산 계획중

(2) 자동차용 센서

○ 선정배경

- 센서 산업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화두인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임
- 자율주행레벨이 높아질수록 차량에 적용되는 센서 숫자도 늘어나 향후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련 산업 동향

- 글로벌 자동차 센서 시장은 2021년 208억 달러에 달할 것(미래에셋대우)
- 자동차용 센서 시장은 아직 신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미성숙 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또한 활발한 M&A·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흡수하고 있음
- *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 Continental, ASC의 3D Lidar 사업부 인수

(3) 물류/유통

○ 선정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 체인이 마비되며 제조업 전체에 영향, 물류/유통에 대한 중요성 부각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우수한 물류/유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강점을 어필 가능

○ 관련 산업 동향

-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투자가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하며, 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J사)
-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IoT, AI, 로봇틱스, 창고자동화,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등 물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폭이 넓어짐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IT기술력과 물류 시스템을 결합하여 물류 분야 투자 유치 가능

【시카고】

(1) 바이오/헬스케어

○ 선정배경

- 중서부 지역의 14.5%의 인구가 의료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Abbott Laboratories, Baxter, Eli Lilly, GE Healthcare, Medline, Medtronic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과 다수의 의료 클러스터가 소재
-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CB Insight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150개 스타트업 중 8개 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소재
-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오하이오, 일리노이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부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한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5개 지역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양성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계획
-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확대 및 세포배양배지 등 공정분야 원부자재 수급망을 강화하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미국 및 한국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CMO 등의 진출 관심도 증가 전망

○ 관련 산업 동향

- 미국 VC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2020년 3분기까지 195억 달러를 투자,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대폭 증가
- 2018년 기준 미국 중서부 헬스케어 부문 투자는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급증한 후 꾸준히 유지, 분야별로 헬스케어 IT/소프트웨어/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특히, 건강보험 서비스 플랫폼 제공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부문의 투자확대가 눈에 띄며, United Health Group, Medtronic, Abbott Laboratories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며 의료기기 산업을 크게 발전
- 잠재적 추가 팬데믹 위기,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확산, 혁신적이고 값비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의료 수요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향후 관련 투자자의 투자유치 및 헬스케어 IT 기업과의 기술협력 기대

(2) 물류

○ 선정배경

- 미국 물류의 중심지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해상, 항공 물류 운송의 허브로 최대 트럭운송 거점, 美전역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 지리적 강점으로 인해 소비재, 식품, 전자 등 분야별 대형 유통기업 본사가 다수 중서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1천 3백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비시장 형성
 - * 주요기업 : Target, Best Buy, Kraft Heinz, McDonald's, Kohl's 등
- 미국 주요 물류 기업인 C.H. Robinson이 중서부 미네소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전자상거래 기반 물류업체인 아마존은 일리노이주에 총 11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2개의 창고를 추가 설립 예정

○ 관련 산업 동향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최근 물류대란을 겪는 등 물류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물류 전문 기업 아마존은 2020년 9월에만 미국 전역에 100개 창고를 개설하는 등 사업 대폭 확장
- 콜드체인 운송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의약·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리포트링커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1,527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에는 3,272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뛰어난 물류 인프라 및 FTA 등을 활용한 물류센터 설립 및 투자 가능성 존재

(3) 일반기계

○ 선정배경

- 최근 수요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美 중서부 지역은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의 약 40%를 점유하는 만큼 여전히 가장 유망한 핵심 분야
- 포춘社 선정 100대 유망 기업 중 중서부 내 1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50%는 일반기계 제조업체
- 그린필드 및 증액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반면, 제조산업 글로벌 기업들의 자체 CVC를 통한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대상 재무적 투자 증가 추세
- 시카고시는 혁신화된 제조산업 지원을 위해 mHub라는 Hardtech 및 제조전문 혁신센터를 지원 중이며, Molex, Stratasys를 포함한 중서부 주요 제조 및 벤처기업 약 70개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련 분야 스타트업과의 연결 지원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제조산업 가속화에 집중

○ 관련 산업 동향

- 중서부경제지표(Midwest Economy Index)에 따르면 기계·장비 제조업은 저조한 성장세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 중서부경제지표(MEI) : 美 연방은행이 4개 분야(제조, 건설광산, 서비스, 소비지출)로 산출하는 경제지표
- 미국 수석 경제학자 Eric Winograd에 따르면 미-중 통상분쟁이 제조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실업증가로 연결
- 최근 저조한 성장세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미국 내 총생산의 11.3%를 차지하며, 향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경우 생산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일반기계 산업이 단순 기계에서 IT, 로봇을 접목한 신기술 기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재무적 투자 혹은 기업 인수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상승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뉴욕】

○ BIO Digital

- 개최시기 : 2021년 6월 10일~17일
- 규모 : Pfizer, Amzen, Merck 등 대기업부터 바이오 분야 VC까지 500여개사 참여
- 사업내용 : 세계 최대 바이오텍 투자 및 파트너십 행사 중 하나로 연계 IR 행사로 한국 투자 관심 잠재투자가와 1:1 상담 진행
- 특기사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

- The 15th Annual AVCJ USA Forum
 - 개최시기 : 2021년 7월
 - 규모 : 북미에 위치한 유망 LP(Limited Partner) 및 GP(General Partner) 180여개사 참여
 - 사업내용 : 미국 내 최대 아시아 투자 금융 행사로 1:1 투자 상담, 네트워킹, 기업 발표 세션 등 운영
 - 특기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가능성 있음
- BIO Investor Forum Digital
 - 개최시기 : 2021년 10월 19일~21일
 - 규모 : 350여명의 투자가, 712여명의 개발사, 3,150여개의 1:1 상담회 등
 - 사업내용 : 세계 최대 바이오텍 투자 및 파트너십 행사 중 하나로 연계 IR 행사 및 1:1 상담회 운영
 - 특기사항 :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뉴욕무역관은 1:1 상담회를 통해 한국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지자체 및 경자청 홍보 예정

【로스앤젤레스】

- 투자가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 사업내용 : 관할지 내 유망 분야 대형행사 연계 IR 개최
 - 대상분야 : ① 남가주 주요 산업(바이오, 영화), ② 한국 우위 산업(IT, 전자), ③ 스타트업 등

<연계 행사(안)>

행사명	분야	참가규모	시기	지역
BIO DIGITAL 2021	바이오, 헬스	6만명	6월	온라인
ACG LA Business Conference	금융, M&A	1천명	9월	LA
American Film Market	엔터테인먼트	7천명	11월	LA (산타모니카)

- 로스앤젤레스 투자 IR
 - 현지 주정부(World Trade Center LA), 지자체(San Bernardino, San Diego)와 협력하여 현지 투자유치기관과 관할지의 해외진출 희망기업, 국내 지자체/FEZ 담당자와 해외진출 희망기업 공동 IR 추진
- 한국 스타트업 쇼케이스
 - 현지 시드 투자가 및 엔젤 투자가 대상 한국 유망 스타트업 자료 공유 및 화상 쇼케이스 추진

【워싱턴】

- Select USA* 연계 투자유치, 유턴, 투자진출 지원사업
 - *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Select USA Investment Summit)
 - 개최시기 : 2021년 6월
 - 협업기관 : 미국 상무부, 전미 주지사협회, 주한미국대사관
 - 사업내용 : 관할지역 주정부 관계자 네트워킹, Select USA 투자협력 경제사절단 파견 및 투자상담회, 한-미 투자포럼, 현지 교포기업 유턴유치 간담회 운영
 - 특기사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업은 전면 취소 되었으며 2021년 사업도 추진 여부 미정
- Bio investment week(IR, 상담회)
 - 개최시기 : 2021년 7월
 - 협업기관 : NIH(국립의료원), 매릴랜드 주정부 등
 - 사업내용 : 관할지 주정부 및 국립의료원 협업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웨비나, 1:1 상담회 운영
- Invest in Korea 투자유치 설명회
 - 개최시기 : 2021년 10월
 - 협업기관 : ROI(Research On Investments), 한국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한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투자유치 인센티브 소개 세미나
- AI플랫폼(Gazelle) 활용 투자기반 확충사업
 - 개최시기 : 2021년
 - 사업내용 : AI 플랫폼 활용 동아시아 및 한국 투자 희망 투자가 및 프로젝트 발굴 사업

【실리콘밸리】

- K-Global 2021 (11월 중 예상)
 - 한국 정부 주도하에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테크놀로지 연례 컨퍼런스, 2012년 시작하여 2021년 10번째 행사 개최, 기술변화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향후 혁신기술의 트렌드를 재조명하고 한국테크기업 및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인/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파트너십/투자유치 기회를 제공

- TechCrunch Disrupt 2021 (9월 21-23일, 온라인)
 - 스타트업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가, 전문가들이 모여 컨퍼런스와 스타트업 피칭 행사 등 진행

【달라스】

- SXSW 2021 연계 스타트업 투자유치 피칭 콘테스트(3월)
 - 국내 유망 스타트업 온라인 코칭 및 피칭 콘테스트 개최
- 온라인 투자유치 지원사업(상반기)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화상 IR 개최
 - 미국업체와 협력의사가 있는 국내기업 3~5개사, 관할 지자체 혹은 FEZ

【디트로이트】

- 지자체·FEZ 연계 투자유치 사절단 IR(온라인)
 - 차세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유망 분야 온라인 IR 실시
- 북미 자동차 산업 시장 동향 세미나 개최·시장 자료 발간(연중)
- 유망 분야 재무적 투자가(VC, PE) 신규 발굴

【시카고】

- Chicago Venture Summit 연계 CVC, VC와 한국 스타트업 네트워킹 사업(잠정)
 - WBC(World Business Chicago)는 매년 글로벌 CVC 및 VC를 시카고로 초청, 스타트업 피칭 및 포럼 행사를 개최
 - * WBC : 시카고 소재 경제 개발 및 비즈니스 진흥 협회
 - 신규 CVC, VC 발굴 및 투자 수요에 따른 한국 스타트업 1:1 상담 지원
- 산업별 온라인 투자유치 TF 추진 (연중)
 - 중서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연관 산업 온라인 투자유치 TF 추진 및 프로젝트 발굴
- RSNA(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전시회 연계 IR(2020년 하반기)
 -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사선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약 5만 5천명 이상의 관련 기업이 참가. 해당 기업들 대상 한국 투자 환경 홍보

2 캐나다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년 3분기 기준,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324억 US달러로 전년 동기 (589억 US달러) 대비 45% 감소함
-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년 1분기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으며 2분기 △33%, 3분기 △22%로 점차 회복 추세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C\$백만)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2019년	32,802 (US\$백만 25,586)	22,863 (US\$백만 17,833)	19,858 (US\$백만 15,489)
2020년	10,741 (US\$백만 8,378)	15,210 (US\$백만 11,864)	15,516 (US\$백만 12,102)
증감	△ 67%	△ 33%	△ 22%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주 : C\$ 1 = US\$ 0.78 환율 적용(2020년 12월 외환은행 환율 기준)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20년 11월,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개발 이후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 중 하나로 발표되어 경제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해 '20년 캐나다의 GDP는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1년에는 백신 보급 등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National Bank of Canada)
- 이에 따라 해외투자심리도 회복되면서 '21년도에는 금융·보험, 천연·광물자원,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무역·운송, 기업경영 분야는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C\$백만)

2018년	2019년	2020년(1~3분기)	2021년(e)
74,402 (US\$백만 58,213)	104,681 (US\$백만 81,903)	41,467 (US\$백만 32,444)	N/A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주 : C\$ 1 = US\$ 0.78 환율 적용(2020년 12월 외환은행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19년 캐나다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45.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영국(7.7%), 룩셈부르크(7.3%) 순임
- 북미, 유럽 투자 비중이 약 86%이며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아시아/오세아니아 투자 비중은 '18년 7.9%에서 '19년 7.7%로 소폭 하락함
- 한국은 캐나다의 투자국 중 0.15%의 비중으로 전체 37위에 그치고 있음

<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19년)>

순위	국가	투자비중
1	미국	45.4%
2	영국	7.7%
3	룩셈부르크	7.3%
4	버뮤다	4.6%
5	바베이도스	3.6%
6	케이만군도	3.1%
7	호주	2.7%
8	네덜란드	2.6%
9	멕시코	2.0%
10	바하마	1.9%
11	칠레	1.6%
12	스위스	1.2%
13	페루	1.05%
14	중국	0.96%
15	브라질	0.88%
:		
37	대한민국	0.15%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CANSIM table 376-0051, December 31, 2020)

○ 산업별

-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보험(46.1%)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에너지·광업(20.2%), 기업경영(7.0)순임
- '19년 무역·운송 부문은 12.9% 비중을 차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년에는 3.4%로 해외직접투자비중이 크게 낮아짐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

산업	2018년	2019년	2020년(1~3분기)
금융·보험	41.0	28.0	46.1
에너지·광업	23.3	16.8	20.2
기업경영	13.3	16.5	7.0
제조	6.9	4.6	5.3
무역·운송	17.9	12.9	3.4
기타	-2.4	5.1	18.0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CANSIM 376-0122)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토론토】

○ 온타리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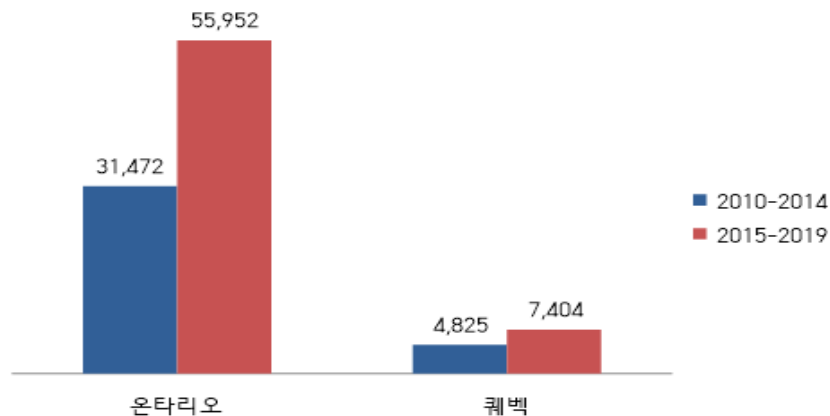
- '10~'14년 기간 對 아시아 투자는 C\$ 314억에 그쳤으나 '15~'19년에는 C\$ 560억으로 78% 증가함
- 분야별로는 산업수송(C\$ 138억), 대체에너지(C\$ 70억), 일반소매(C\$ 47억), 부동산투자·서비스(C\$ 27억) 분야가 아시아 투자를 주도함

○ 퀘벡주

- '10~'14년 기간 對 아시아 투자는 약 C\$ 48억이며 '15~'19년에는 C\$ 74억으로 54% 증가함
- 분야별로는 식료품(C\$ 10억), 전기·전자(C\$ 7.3억), 비지분투자(C\$ 6.7억), 지분투자(C\$ 3.4억) 헬스케어장비·서비스(C\$ 2.8억) 분야가 아시아 투자를 주도함

<최근 10년간 온타리오·퀘벡주 對 아시아 투자>

(단위 : C\$백만)



* 자료원: APF Canada Investment Monitor and fDi Markets(April 2020)

【밴쿠버】

- 서부 캐나다 지역은 천연자원 · 서비스업 중심 산업 구조 보유
 - 대외투자 역시 서비스업종 및 관련 분야 금융 투자가 주를 이룸
 - * 주 해외투자 업종 : 광업, 임업, 식품제조, 물류/유통, 상업/레저 부동산 개발 등
- 기존 IT · 첨단분야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점차 AI · 4차 산업, 블록체인, 차세대 전지 등의 글로벌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며 타국으로의 관련 분야 투자 역시 활발
- 문화콘텐츠 및 연관 교육 분야
 - 문화콘텐츠(영상) 분야 파격적 임금지원 혜택으로 세계적 클러스터 구축, 해외투자 및 기술교류 · 협력수요가 기대됨
 - * 영화/영상 제작 및 특수효과 후처리, 공연 콘텐츠 산업 등
- 의료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 코로나19 여파로 BT/의료기기/스킨케어 분야 업체의 사업활동 급증 추세
 - * 줄기세포, 신속진단키트, 항암 신약개발, 식품효소 분야 등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20년 1~11월 신고 기준, 對韓 투자 금액은 약 C\$ 11억 규모이며 캐나다연기금*(CPPIB) 투자가 2/3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하반기 온타리오교원연기금**(OTPP) 투자 유치에 성공

* '20년 4월, CPPIB는 싱가포르 E사, 네덜란드 A사와 함께 U\$ 10억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 했으며 10월, 약 U\$ 2억 투자신고 → 물류센터 전문 자산운용사인 E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 관련 부동산 펀드에 투자

** 온타리오교원연기금(OTPP)은 '05년 이후 국내기업 M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19년 V사 4호 펀드에 참여 이후 '20년 12월 U\$ 3.27억 추가 투자신고 → 인프라 및 PE 분야 간접투자 진행 중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

(단위 : US\$백만,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326	389	411	635	1,847
신고건수	72	81	43	32	49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T)

○ 주요 투자 분야

【토론토】

- 물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 캐나다 연기금 및 교원연금(펀드투자) 등 대형 투자가의 부동산, 상업용 건물 인수, 물류센터 설립 투자를 비롯하여 환경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진행됨

【밴쿠버】

- 금융(연금·사모펀드 등 펀드/지분 투자) 및 의료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대형투자 확대 추세
- 영상·문화콘텐츠, 상업/레저 (공유) 부동산개발, 물류·유통업 분야 등 기존 서비스산업 분야 대한투자 다소 감소

- 일반 제조업 분야 투자신고 건수 지속 증가
 - 특히 한-캐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사례가 많음
 - * 한-캐 FTA 관세혜택 활용가능 분야 : 소재부품, 식품제조, 연포장재, 자동차배터리 등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전 세계 자동차 부품 3위 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LG전자와 U\$ 5억 전기차 부품 합작투자 프로젝트 추진 발표('20.) → '21.7월 합작 투자 예정
- 對韓 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류·인프라 등 상업용 부동산 및 신재생 에너지 부문 투자가 '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20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가 지연되었으나 K-방역의 우수성이 알려진 하반기 이후 CPPIB 및 OTP의 인프라투자, 상업용 부동산투자, 지분투자 건이 추진됐으며 '21년에도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2-3년 전부터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장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재무적 투자가 외 신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분야도 투자 기회를 검토 중임
 - * 미국 등 다국적 투자가와 캐나다 투자가의 합작 투자 건도 진행 중임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캐나다 중앙은행은 백신 상용화와 점진적인 경제 반등세에 따라 '21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상('20.10월)
 - * 코로나19 이전 수준 경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21년에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 예정임을 발표함
- 코로나로 억제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21년 소비지출은 전년도 - 6.2%에서 5.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National Bank of Canada)
- 미국의 청정에너지 혁신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캐나다의 Keystone XL 프로젝트 등 주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타격이 예상됨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토론토】

- Magna International: '21년 7월, LG전자와 전기차 부품공장 합작 투자 프로젝트 추진
- 캐나다 연기금(CPIB): '20년 하반기 국내기업 E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에 약 U\$ 2억 투자
- 온타리오 교원연금(OTPP): '19년 상반기 V사에 U\$ 1억 투자이후 '20년 하반기 U\$ 3.27억 추가 투자 진행
- E사: '20년 하반기 국내 수처리·폐기물·자원순환 기업인 TSK코퍼레이션 (SK+삼양) 인수를 위한 U\$ 1.97억 투자

【밴쿠버】

- 이미지센서, 블록체인 등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 신규 투자
 - 휴대폰카메라 이미지센서 솔루션 N사 국내사업 확장 및 대한투자 발표
 - 블록체인 F사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 및 아시아허브오피스 역할 부여
 - * 서울시와 투자MOU 기체결.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활용 예정

■ 투자유치 유망분야

【토론토】

(1) 전기차 부품

○ 선정배경

- '20년 12월, 세계 자동차 부품 Top3 기업인 캐나다 Magna International은 LG전자와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합작 투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
- * Magna와 LG전자는 '21년 7월, 인천 서구에 전기차 동력장치분야 합작법인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Co.,Ltd)' 설립 예정(총 금액 U\$ 4.5억)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 가능성 : 上
- 캐나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기차 포트폴리오 구축 움직임
 - * Magna 등 캐나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전 세계 파워트레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LG전자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해외기업과도 협업을 모색하고 있음

(2) 물류·인프라

○ 선정배경

- 캐나다 연기금*(CPPIB)은 '20년 3분기 기준 4%대인 한국투자 비중을 향후 더 높일 계획임
- * CPPIB는 '14~'19년 대체투자 비중을 29.3%에서 58.7%로 두 배 이상 늘렸으며 향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 가능성 : 上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CPPIB는 아시아 물류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 *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공지능(AI), 의료·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3) 신재생에너지

○ 선정배경

- 캐나다 정부가 '20년 10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국가발전전략」에 따르면 신재생발전 등 5대 성장동력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투자자의 해외진출 또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 캐나다 N사는 남해 지역에 풍력발전투자를 진행 중이며 '21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됨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 가능성 : 中上
- 온타리오주가 '18년 녹색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을 폐지한 이후 캐나다 투자가는 아시아 등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음
- * 캐나다는 미국 투자가와 합작 투자 움직임도 있으며 '20년 한국 E사 및 T사 지분인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대한투자 가능성이 높음

【밴쿠버】

(1) 금융(연기금, 사모펀드, VC)

○ 선정배경

- '20년 중 서부캐나다 연기금들의 대한 투자 확대 추세 지속

* A社 : PEF 펀드를 통한 첫 대한 FDI 투자, B社 : 사상 첫 비상장기업 직접투자 진행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 가능성 : 中上

- 서부캐나다 연기금들은 아시아 사모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기존 PEF펀드를 LP 참여를 통한 간접투자 외 타 사모펀드/연기금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하는 비중을 늘리고자 함

* '20년 중 조성된 아시아/한국 PEF펀드에 참여를 결정. 향후 수년간 대한투자 지속 전망

(2)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스킨케어)

○ 선정배경

- 캐나다정부의 장기적 중점육성산업 중 하나인 의료바이오 산업이 성장세를 거듭하여 글로벌 투자협력을 희망하는 신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수요 증가

- '20년 중 항암 신약제조, 신속 진단키트 분야 등 업체들의 대형투자 발생

* O社 : 기술 국내이전, 연구개발 및 임상 3상 진행, D社 : 임상, 아시아 허브오피스 투자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 가능성 : 中上

- 중소 바이오업체가 주를 이루는 산업특성 상 상업화 이전 단계 공동연구나 임상센터 합작투자 등을 통한 기술협력 및 상업화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 서부캐나다 바이오 분야 업체들은 국내 의료임상, 연구개발 및 제조 기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스킨케어 시장을 주요 테스트마켓으로 여김

* 분야: 항암 신약개발, 신속진단키트, 줄기세포/스킨케어, 바이오엔지니어링(식품효소) 등

(3) IT(하드웨어, 문화콘텐츠, 4차 산업)

○ 선정배경

- 코로나19 상황 종결 전후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
- '20년 중 특히 AI, 핀테크 등 첨단신산업 연관 분야에서 대한투자 및 R&D 허브오피스 설립 사례가 있었음
- * F사 :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핀테크 서비스, N사 : AI 기반 휴대폰 이미지센서 시스템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 가능성 : 中
- '21년 하반기 이후 영상 후처리 분야 사업 및 (증액)투자 활성화 예상
- 서부캐나다 M2M, IoT, 블록체인,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기업/스타트업 업체들의 경우 동 분야 선도시장인 한국과의 교류 확대 희망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토론토】

○ IR

- (수시) 투자가 1:1 상담, 지자체 투자유치활동 지원

○ 조사

- (수시) 투자환경 조사, 투자유치정책, 현금지원 수요 조사 등

○ 전시회 연계 사업

- (6월) Collision 2021
 - 전세계 125개국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창업컨퍼런스로 '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진행 예정

○ 무역관 자체 사업

- (상/하반기) AI Open Innovation in Toronto 2021
 - 유력 엑셀러레이터인 DMZ 내 한국 기업을 위한 Open Innovation센터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북미시장 진출지원, 투자유치

【밴쿠버】

- IR
 - (수시) 통합 1:1 상담회, 산업 IR, 지자체 투자유치활동 대행
 - (9월~12월, 잠정) 지자체 투자유치사절단(면담, IR)
- 조사
 - (연중 수시) 관할지 투자유치 정책, 유망투자가, 현금지원 수요 조사 등
- 전시회 연계 사업 등
 - (5월, 11월, 잠정) 외투기업 대상 (화상) 채용박람회
 - (11월) 외국인투자주간(IKW) 및 연계 1:1 (화상) 투자상담회

3 독일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규모) '18년 총 1,480억 유로, '19년 총 1,200억 유로, '20년 3분기까지의 투자는 총 749억 유로이며, '18년 4분기부터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
- '20년 3분기까지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2%, '18년 동기대비 43% 감소한 수치, 특히 '20년 2분기의 투자가 크게 하락, 3분기에는 다소 회복 추세

* 연도별 (1~3분기) 총 투자규모 : '18년 1304억 유로→'19년 965억 유로→'20년 749억 유로

- (감소요인) '18년부터 지속되던 글로벌 무역분쟁 및 브렉시트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되던 추세에 '20년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및 투자환경 악화가 독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감소에 큰 요인으로 분석

- (형태별) 전체 해외직접투자금액 중, '19년부터는 이익을 재투자하는 형태의 투자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20년에도 이익 재투자 비중이 상반기에 총 206억 유로로 36%, 3분기까지는 총 310억 유로로 41.5%를 차지

* 연도별(상반기 기준) 이익 재투자 형태의 투자 규모 및 비중 : '17년 140억 유로 19%, '18년 194억 유로 18%, '19년 256억 유로 30%, '20년 206억 유로 36%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경제전망) 독일에서 '경제 현인'으로 불리는 '경제전문가위원회'는 독일경제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독일의 GDP성장률은 △5.5%로서 지난 금융위기에 육박하는 전후 최악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21년에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진정될 경우, 3.7%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경제전문가위원회는 '20년 4분기에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코로나19 2차 확산이 완화되고, 백신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21년에는 독일 경제가 글로벌 산업의 빠른 회복, 독일 정부의 재정정책, 독일의 디지털화 가속화로 인해 다시 '성장의 길'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보고서(2020.11)

- (경제지표) 독일의 IFO '기업환경지수'에 따르면,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다소 적응하여 '20년 11월 90.7에서 12월에는 92.1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9월 93.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며, 제2차 대유행에 따라 기업경영환경 위축과 생산, 소비, 설비투자, 고용, 수출입 등 모든 경제지표는 악화
 - * 독일정부는 '20년 민간소비 -6.9%, 설비투자 -15.8%, 수출 -10.3%, 수입 -7.1%, 실업률 5.9%로 전망, 기존 GDP -6.3%→-5.8%→-5.5%로 상황 조정 발표했으나 전후 최악의 경제성장 중 하나로 기록 전망
- (경기회복) '21년에는 코로나19의 회복 시나리오 하에서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도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더욱 신중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 특히 국가별 입출국제한 조치 및 백신이나 치료제 공급 상황과 시장수요에 따라 '21년 하반기 이후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 독일정부는 '21년 민간소비 4.5%, 설비투자 11.9%, 수출 7.1%, 수입 6.0%로 회복 전망 ('20년 10월 기준)
- (투자심리) 독일연방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진출 독일기업들의 83%가 매출이 감소되었으나 32%는 큰 타격 없이 해외 사업을 회복하고 있으며, 50%가 '21년에는 경기회복을 기대한다는 입장
 - * 독일연방 상공회의소의 해외진출 독일기업 35,000개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DIHK, 2020.10)
- 향후 해외 투자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5%, 하지만 '21년에 긍정적인 투자의향 기업은 '20년 4월 응답에서는 11%, 7월 응답에서는 10%로 감소했으며, 투자축소 의향기업은 '20년 4월 응답에서는 35%에서 7월 응답에서는 56%로 증가된 상황으로, 독일기업들의 투자 의향은 축소되는 추세
- 다만, 코로나19에 따라 38%의 기업은 해외에서 신규 공급처를 찾고자 하며, 67%는 기존에 진출해 있는 현지에서 신규 공급처를 찾겠다고, 18%는 아시아에서 신규 공급처를 찾겠다고 응답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유로, (백만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1~3분기)	2021(e)
148,042 (180,611)	119,972 (146,366)	74,872 (91,344)	NA

* 자료원 : 독일연방은행 통계, Deutsche Bundesbank, Statistische Fachreihe Zahlungsbilanzstatistik(2020.12.18)

** 주 : 1Euro = US\$ 1.22 환율 적용(2021.1.14일자 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독일 연방은행의 투자통계에 따르면, 독일 '19년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62%는 인근 유럽지역, 특히 EU국가로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미주지역으로의 투자는 미국의 무역정책과 통상분쟁으로 인해 '18년에 17%로 낮아졌으나 '19년에는 30%로 다시 확대
-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는 '18년 4%에서 '19년 7%로 확대, 이는 '18년 감소했던 중국으로의 투자가 '19년에는 BASF의 대형 화학공장설립 프로젝트 개시에 따라 크게 증가, 중국 이외에도 싱가포르나 인도로의 투자가 추진, 그동안 감소되던 일본으로의 투자도 '19년에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체 대비 1%인 수준
- 한국으로의 투자는 대형 화학공장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연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의 통계상으로 '18년에 비해 '19년에 크게 감소된 상황
- '20년은 3분기까지의 통계에서 지역별 투자비중을 보면, 독일 전체투자의 95%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만 집중, 이는 '20년 코로나19에 따라, '19년에 증가된 미국이나 아시아로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보다는 인근 유럽으로의 기존 추진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

< 독일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유로)

지역 및 국가 구분	2018년 (비중)	2019년 (비중)	'18-'19 YoY증감(%)	2020 1Q~3Q (비중)
전체	132,671 (100%)	119,972 (100%)	-10	74,872 (100%)
유럽	100,072 (75%)	73,935 (62%)	-26	70,848 (95%)
- 유럽연합(EU)국가*	91,146 (69%)	74,375 (62%)*	-18	58,190 (78%)*
북미	22,802 (17%)	36,319 (30%)	59	-863 (-1%)
- 미국	20,424 (15%)	34,495 (29%)	69	NA
아시아	5,784 (4%)	8,282 (7%)	43	2,515 (3%)
- 한국	755 (1%)	24 (1%)	-97	NA
- 중국	1,060 (1%)	4,396 (4%)	315	NA
- 일본	-745 (-1%)	846 (1%)	-214	NA
아프리카	1,940 (1%)	1,147 (1%)	-41	1,063 (1%)

* EU국가 : '19년, '20년 수치는 영국을 제외한 기준

** 자료원: 독일연방은행 해외직접투자 누계액(Zahlungsbilanz : Sektorale und regionale Gliederung) 및 국가통계정보 Destatis(Unmittelbare und mittelbare deutsche Direktinvestitionen im Ausland nach Wirtschaftszweigen), ('20.12월 기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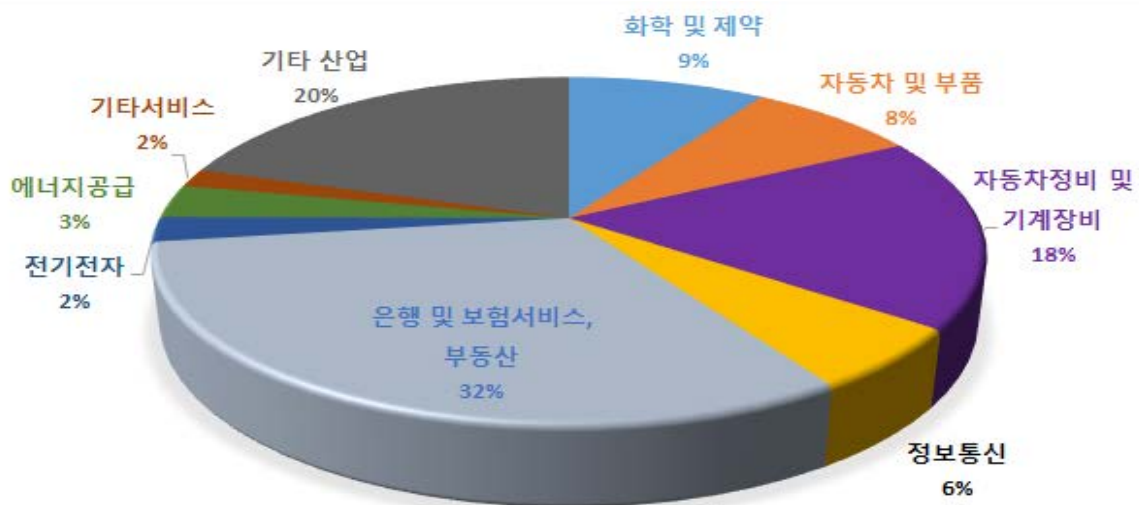
- 누적 투자규모 측면에서는 은행 및 보험서비스와 부동산관련 투자금액이 크지만, 독일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정비(15%), 자동차 및 부품(8%)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의 투자비중이 높고, 화학 및 제약업종의 해외투자는 7% 비중으로 지속, 정보통신과 기계장비 업종이 각각 6%, 3%로서 독일기업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분야
- 특히, '18년부터는 독일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정책 등에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가 8.8%의 급증세를 보이며 독일기업의 디지털화 및 산업재편을 위한 해외 투자 업종의 다변화와 해외 기술보유 스타트업 투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산업별 독일 해외직접투자 동향(누적)>

(단위 : 백만 유로)

산업구분	2017년		2018년		'17-'18 YoY증감율(%)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전체	1,206,473	100%	1,276,914	100%	5.8%
화학제품	84,964	7%	90,252	7%	6.2%
제약제품	28,419	2%	26,315	2%	-7.4%
기계/장비	40,661	3%	42,675	3%	5.0%
전기/전자 제품	28,713	2%	29,771	2%	3.7%
자동차 및 부품	98,624	8%	101,581	8%	3.0%
자동차정비	187,731	16%	186,181	15%	-0.8%
에너지공급	39,704	3%	39,128	3%	-1.5%
정보통신	68,186	6%	74,200	6%	8.8%
은행 및 보험서비스	367,220	30%	367,624	29%	0.1%
부동산	36,706	3%	38,977	3%	6.2%
기타서비스	18,501	2%	22,015	2%	19.0%
기타 산업	207,444	17%	258,195	20%	24.5%

<2018년 독일의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자료원 : 독일 국가통계정보 Destatis(Unmittelbare und mittelbare deutsche Direktinvestitionen im Ausland nach Wirtschaftszweigen), ('20.12월 기준)

- 독일 기계제조업협회 VDMA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3분기까지 EU 전체 생산량이 14% 감소했으며, 특히 독일은 15% 감소한 상황, 코로나19 외에 브렉시트, 미국의 정부전환 등 여전히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따라 독일 제조기업의 성장 시나리오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21년 중반 및 '22년 이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프랑크푸르트】

- 독일 중서부지역 연방주인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등 주요 5개주는 자동차, 화학-바이오, 기계장비, 전기전자, 금융업의 주요 기업들이 소재하는 경제 중심지로서, 독일 경제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이들은 전반적인 독일의 해외투자동향과 같이 주로 유럽, 미국, 중국지역으로 투자 진행
- 독일의 대표 자동차 대형기업인 Daimler와 Porsche와 자동차 부품 공급 주요 기업 Bosche, ZF, ElringKlinger 등이 분포, 화학 및 소재기업으로 BASF, Merck, Bayer, Lanxess, Henkel, Heraeus, Evonik 등과 산업용 제조장비 및 기계부품과 전기전자 분야 중견기업 'Mittelstand', 히든챔피언 기업들과 독일의 대표적 금융기업, 물류서비스, 에너지공급 관련 주요기업은 인근 유럽, 네덜란드나 동유럽에 추가투자 하거나 미국 및 아시아지역 등 신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추진
- * 관할지 주요기업의 최근 해외 투자 사례 : DHL(물류)의 소포분류센터 네덜란드 투자, Mercedes-Benz(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폴란드 투자, Continental(자동차부품)의 연구개발센터 루마니아 투자, Covestro(화학)의 네덜란드 DSM의 레진및기능성소재 사업부 인수, BASF(화학)의 중국 광둥성 잔장에 공장신설, Bayer(화학)의 인도 증설투자, Merck(화학)의 미국 반도체분야 Versum사 인수 사례 등

【함부르크】

- 독일 북동부지역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에너지, 온라인 비즈니스*(스타트업) 분야에 투자 집중
- 함부르크, 니더작센, 베를린,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 한국으로 투자 집중
- 그 외 북동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조선·해양, 물류가 주력 업종
- *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 '도이치텔레콤'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등

【뮌헨】

- 바이에른 주의 현재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5%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산업과 에너지 효율 관련 업종에 투자
- 바이에른 주정부는 EFRE(유럽 지역 발전 펀드)와 함께 환경 보호 관련 투자 장려 프로그램을 강화, 인공지능, 3D 프린팅, 5세대 이동통신, 자율 주행,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로의 전환 관련 분야에 바이에른 주정부의 재정지원 집중
- * 바이에른주 대표기업인 BMW는 뮌헨 공장 전체를 전기자동차 생산시설로 전환 중, Siemens Energy는 Porsche와 파트너십을 맺고 친환경 연료 개발 중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對韓 투자 동향

- '20년 對韓투자규모
- 독일은 한국에 누적 투자신고 금액기준, 국가전체 투자규모의 4%, 유럽지역 전체 투자규모의 13%를 차지하는 유럽 국가 중 3위권의 주요 투자국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8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속
- 글로벌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화학, 제약, 산업용 제조장비나 분석장비 분야 530여개 이상 독일계 외투기업이 한국에 진출
- 독일기업의 對韓 투자규모는 INSC 신고기준, '18년 4.7억 달러에서 '19년 3.9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년 11월말까지 4.2억 달러로 다소 회복
- '19년은 대외수요 저하와 독일의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투자신고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이는 기존 합작투자기업의 국내지분 확보를 위한 투자와 기진출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증액 투자 등의 사례에 기인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312	703	466	399	517
신고건수	52	79	57	53	51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자동차) Daimler, BMW와 같은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확장을 위한 투자, 특히, 전기차 수요확대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과 신소재, 전기전자 통신기술 관련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와 투자검토
 - Daimler의 전기차 등 신차판매나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투자 확대, BMW*도 한국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통해 혁신을 더욱 확대
 - * BMW는 센서 기술, 인공지능, 머신러닝, 배터리, 스마트 소재분야 등 스타트업에 관심
 - Dekra는 전기차 관련부품의 시험인증 및 분석 서비스를 위해 국내기업 인수
- (부품·장비) 자율주행 및 친환경 자동차로의 글로벌 수요전환에 따라 자동차 부품과 정밀기기 및 전자부품 독일기업의 첨단화를 위해 한국에서 새로운 밸류체인 구축, 파트너사 및 합작기업 M&A, 신기술보유 스타트업 투자
 - Continental은 합작투자 지분인수, Webasto의 전기차관련 신사업 투자확대 등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 미래차분야 신사업 재편을 위한 투자 추진
 - 산업용 기계장비의 압력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독일 V사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공정 자동화, 핵심 기계장비의 첨단기술 수요에 주목하며 한국에 신규법인 설립
- (신재생에너지)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관련,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사업 기회 확대에 따라 독일의 에너지기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 투자 관심,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로젝트가 다소 지연·축소 되었으나 국내 사업 착수
 - 최근 Siemens에서 독립분사한 Siemens Energy가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독일의 대표 에너지기업 R사의 한국에 신규 법인 설립 진출
- (헬스케어) 고령화에 따른 첨단 의료기술 수요가 높고, 한국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육성 의지, 최근 K-방역 사례 등으로 독일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도 한국시장에 관심
- (온라인기반 비즈니스 서비스) '19년에 이어 베를린 소재 유니콘*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 시장진출에 지속적 관심으로 배달의민족 인수
 - * 유니콘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 ** 딜리버리히어로는 '21년에 자회사 '요기요' 매각 및 배달의 민족 인수 절차 진행 예정

- (스타트업) 독일 대표 통신기업, Deutsche telekom은 '19년 한국에 신규 진출 이후 합작펀드를 조성하고, '20년에 동영상 미디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카테노이드에 지분투자

○ 주요 투자 유형

- (사업확장 증액투자) '20년에는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객 수요와 시장 확장에 따라 기진출 외투기업의 추가적인 증액 투자는 지속
 - (물류) 기진출 물류기업 D사는 국제배송 화물량 증가에 따른 고객서비스 설비확장을 위해 인천에 증액 투자, 향후 다른 지역도 추가 예정
 - (자동차) 대표적 독일 자동차기업인 M사도 국내에서 신차 판매와 임대사업 확대를 디지털 서비스 확대 수요 충족을 위한 증액 투자를 진행
 - (소비재) 화장품 유통 독일기업 L사는 '19년 신규 진출 이후, '20년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추가 증액투자 지속
- (신시장진출 신규투자) 아시아 및 한국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분야 독일기업들의 신규투자 진행
 - (인증서비스) 자동차 시험인증 전문기업 D사는 오랫동안 주목하던 자동차 전장품 EMC(전자기적합성) & RF(무선기기) 시험 및 인증 국내기업을 전략적으로 인수하여 자동차 IT 양방향 통신, 자율주행, 전기 구동 주행기술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향후 한국 및 주변국 OEM의 전기차 시장확대 수요에 대응할 계획

■ 對韓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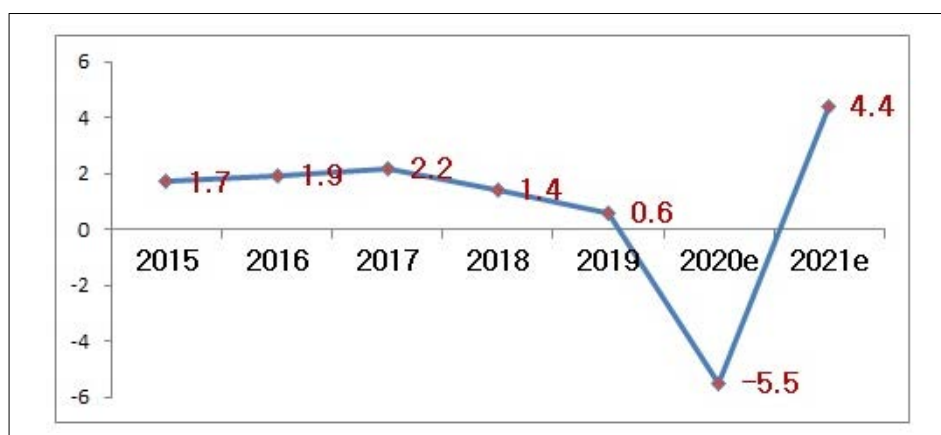
○ 對韓 투자 전망

- '21년 독일의 경기회복과 성장가능성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백신접종 상황과 브렉시트 하방리스크 및 통상분쟁 이슈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독일기업의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의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될 전망
- 특히, 독일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업계 구조재편, 화학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소재 전환, 생산공정 및 사업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대내외 이슈로 해외 투자는 양극화 전망

- 독일 본사 및 미진출 독일기업의 직접적인 한국 투자 활동은 둔화되었지만, 해외시장에서의 파트너 발굴과 협력 수요나 관심은 여전히 지속
- 한국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신시장 확보, 비용절감, 협력기술 및 파트너확보 측면에서 독일기업에게 한국 투자 기회를 제시한다면 증액 투자 지속 기대, 특히, 기존 합작투자나 파트너사에 대한 전략적 증액 투자 확대 예상
- 한국에서의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확대,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부품기업과의 협력기회, 수소경제 및 해상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첨단 신소재와 생산공정 관련 기계장비 수요 확대 등 산업 재편과 국내 사업기회에 따라 관련 독일기업의 투자관심 고조
- 또한 '20년에 지연되었던 화학분야 투자, 포스트코로나로 확대된 헬스케어, 식품, 소비재·온라인 유통산업과 물류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한국 투자 기대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경기위축) '20년 3월 이래 독일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고용, 수출입 등 주요 지표 악화 및 경기 위축 지속, 세계대전 후 제2의 최대 마이너스 성장률인 Δ 5.5% 예상
- (경기부양) 기업에 유동성 제공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차 경기부양책과 실물 경제를 위한 단축근무지원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20년 3분기 이후 본격화, 하지만 4분기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미국,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역외 주요국 상황으로 부정적 영향 지속



*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20.11월), '20년은 추정치, '21년 수치는 전망치

- (금리·환율) 유럽중앙은행(ECB)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총 1조3,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자산 매입 프로그램 및 정책금리 동결 조치를 하였으나, 글로벌 재확산 및 유로존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유로화 환율변동 예상
- (디지털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 수요 증가가 코로나19에 따른 기존 관광·서비스·제조업의 수요 및 매출 감소세를 다소 상쇄할 전망, 정부차원의 5G인프라 구축 가속화 등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신규 시장 부상을 견인, 이에 독일 기업들도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디지털 사업전환 가속화
 - * 메르세데스 벤츠는 신 E-클래스 모델을 가상으로 소개, 폭스바겐 역시 최초로 가상 모터쇼 개최('20.4.17), 특히 아우디는 코로나19 위기 속 VR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라이브 컨설팅을 선보이며 새로운 언택트 서비스 첫 선, 이를 통해 자사 자동차 대리점을 네트워크화하여 VR스토어 기능 부각
- (통상분쟁) '20년 11.3일 美 대선이후에도 'America First'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8.22일의 일부 관세완화 동의에 따라, 미·EU간 무역분쟁 관련 긴장 완화 조짐, 하지만 미국의 독일·프랑스산 항공부품과 와인에 추가 보복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갈등 우려
-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독일경기에 하방리스크 우려, 특히 독일의 5위 수출대상국인 영국으로의 수출산업*에 타격이 크고, 영국과 EU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라 독일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예상
 - * 독일산업협회(BDI)는 자동차, 에너지, 통신, 기계 제조 및 철강 산업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
- (수소경제) 독일연방정부의 '20년 6월 '국가수소전략' 발표에 따라, 수소 생산과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과 국제협업 확대 등 수소산업 육성과 사업화*에 투자를 집중
 - * 독일은 '30년까지 5GW, '40년까지 10GW의 수소에너지 생산설비 구축을 목표로 수소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에 70억 유로, 국제 협력 촉진(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20억 유로 투자, 특히 독·프는 유럽 배터리제조 협업 외에도 EU집행위 지원 하에 수소기술 협업을 위한 논의('20년 9.11일 협의에 착수), 독일 90억 유로와 프랑스 70억 유로 투자 계획 결정
- (녹색환경) EU차원의 지속가능 환경정책에 따라, 독일은 유럽 그린딜 관련하여 '21년부터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 실시,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 감소로 관련 화학 기업의 전반적 매출 감소 영향 및 신소재 개발 등으로 투자전략 변화 전망
 - * 독일정부, 지속가능성유 'Gruner Knopf(그뤼너 크노프, 녹색단추)' 인증제도('19.9월 도입), 플라스틱봉투 사용금지('21.1.1부터 시행), 플라스틱세('21.1.1부터 시행) 도입

- (외투제한)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의 M&A투자 심사강화 추세, 독일은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국가이나, '17년 7월부터 독일 대외경제령 (Außenwirtschaftsverordnung; AWW) 개정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독일 정부는 '20년 4월부터 헬스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성질환 치료관련 의료제품 등) 및 안전관련 기업에 대한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외국자본의 투자(10%이상)의 경우,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가 의무적으로 폭넓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

*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할 권리가 있음. 특히, 국가인프라 및 첨단기술분야 독일기업의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게 됨

- (Reshoring)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제약/의료 등 필수산업에 대한 자국 기반 필요성과 글로벌 공급망(GVC) 위험성에 따라, 자국기업의 국내 복귀 (reshoring) 및 자국 기술기업 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 독일기업도 독일내 및 EU차원의 공급망 구축에 초점

- (EU-중국) '20.12.월 EU-중국간 투자협상(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 타결*에 따라, EU는 중국 시장내에서 EU투자기업의 불평등 해소와 양측 통상 및 투자 관계의 재균형 회복을 기대, 이후에 EU-중국 간 투자협력 강화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의 투자유치와 수출에도 경쟁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또한 중국의 차세대 기술분야에 유럽 투자진출·M&A 확대 전망

* EU집행위는 EU-China 투자협정 타결 발표('20.12.30)를 통해 대중국으로의 EU기업 진출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공정경쟁 및 기술이전 강제금지 등 중국시장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전기차) 독일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 개발을 위한 자동차업계 사업구조 재편과 독일 내 설비 투자 가속화와 배터리 및 배터리셀 등 주요 부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합작투자와 외부협력 강화
- 독일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Daimler·Mercedes-Benz는 '22년까지 전기차 EQ라인 외에 10개의 전기차 제품라인업을 출시 예정으로 '25년까지 전기차로 전체 라인업의 15~20%까지 채울 계획, 독일 본사 스투트가르트 인근에 배터리 공장설립 계획하고, 중국 배터리 공급업체 CALT와의 협력강화 및 배터리 셀 제조를 위한 중국 Farasis에 투자협력 계획

- VW는 10억 유로 투자로 기존 엠덴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 LG 화학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기로 계약 체결 발표
- Porsche는 라이프치히 공장에 6억 유로 투자하여 전기차 조립시설 확장을 '21년에 완료할 계획, 독일 배터리 셀 제조업체 Custom Cells Itzehoe GmbH와 JV를 설립하여 자체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중
- BMW는 4억 유로를 투자하여 뮌헨의 메인 공장 엔진공정을 폐쇄하고 전기차 공정으로 '26년까지 전환할 계획을 20년 11월에 발표
- * 독일 전기차 신규등록 '19년 303,000대, '20년 394,940대로 증가하였고, 신규등록 점유율은 VW 17%, 메르세데스 15%, 아우디 9%
- (첨단소재)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 BASF, Henkel, Bayer, Covestor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에서 '20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친환경 및 지속가능 자원화 추세로 사업구조 전환 중
- Merck은 반도체 소재사업 강화를 위해 미국의 Versum materials인수, Evonik은 플라스틱 사업부를 매각('19.3월 발표)하고 중국의 3D printing기업 UnionTech에 지분투자('21.1월 발표)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전환 가속화
- S사는 반도체 소재 생산을 위한 아시아지역에 그린필드 투자 관심
- (에너지) 독일은 EU의 그린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탄소저감화 사업전환 등 독일기업들의 투자 활발
- 독일기업 RWE와 EnBW는 유럽전반 에너지 산업,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에 스페인 Iberdrola사, 이탈리아 Enel사와 함께 참여하여 최대 1조유로 규모 투자 추진
- 바이에른주의 L사는 수소관련 기존 투자에 이어 한국에 활발한 추가 투자
- 작센주의 V사 한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진행, W사 한국법인 신설
- (헬스케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의 대형 헬스케어기업 Bayer, Merck, Siemens Healthineers, Bosch Healthcare solution 등을 비롯하여, Biontech과 같은 연구개발 바이오 기업들은 적극적 백신 및 진단키트를 출시,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도 바이오의약품과 첨단 헬스케어기기의 연구개발 협력 및 합작투자 기대, 특히 IT 기술과 융합된 헬스케어 분야 성장 전망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미래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프랑크푸르트, 뮌헨)

- 선정배경
 - 탄소절감 정책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e-mobility 등 미래차로의 글로벌 수요 전환에 따라, 독일 자동차기업도 사업방향 재편, 외부 협력 활동과 투자전략 변화 뚜렷
 - 미래차 관련 부품·소재나 IT·전자부품·장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독일 부품·장비 기업도 한국에서 새로운 밸류체인 구축, 파트너사 및 합작기업 M&A, 신기술보유 유망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고조
 - 한국의 전기차 판매 성장,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사업확대 발표 등 시장성 주목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생산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고, 내수 증가세를 보인 유망시장, 특히 전기차 판매 증가와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수요확대,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 고도화 추세로 부품·장비 시장 확대
 - 한국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 보급과 충전소 확대, 현대·기아차 EV모델 등 친환경차 44종 출시 예정 등 한국에서의 자동차 부품 분야 사업기회 확대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프랑크푸르트, 뮌헨)

- 선정배경
 - 독일은 유럽 그린딜 정책 및 국가수소전략 등에 연계한 에너지절감, 지속가능 자원화 등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선진 기술 및 경험 보유 기업 다수
 - 독일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기업의 해외시장, 특히 아시아시장 개척 추세 뚜렷
 - 한국도 '20년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 수송 및 신재생(태양광·풍력)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 적극 육성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가속화에 주목
 - 독일기업도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풍력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 연구개발 실증 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에 관한 국내 프로젝트에 참여 관심

(3) 첨단소재 (프랑크푸르트)

○ 선정배경

- 환경규제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전염병 대응 관련, 기존 수요제품 구조의 변화가 큰 화학기업들의 사업재편 필요성 고조
- 독일 및 유럽에서의 탄소저감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아시아 시장 확보 필요
- 전자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는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며 수요 대기업이 국내에 소재하여 독일기업도 한국 투자에 지속적 관심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석유화학분야는 하락세이었으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정밀 화학소재 시장은 '21년에 수요산업의 경기회복으로 수요확대 전망
- 한국은 국가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전략으로 독일기업도 신규 수요처 확보 사업기회 기대
- 기진출 화학소재기업의 신사업 전환 및 증액투자 진행 예상

(4) 바이오·헬스케어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 선정배경

- 독일은 세계 2위 규모의 의료바이오 강국, 독일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매출의 9%를 R&D에 투자,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독일의 주요 의약·헬스케어기업 과 Biontech과 같은 연구개발 바이오 기업들은 적극적 백신 및 진단키트를 출시
- 독일시장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입 교역국이므로 한국기업과의 바이오 의약품과 첨단 헬스케어기기의 연구개발 협력 및 합작투자 기대, 특히 I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도 성장 전망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코로나19 대응관련 한국의 진단, 방역, 헬스케어 시스템 등 관심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과 진단분야 한국기업의 성장세 뚜렷
-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등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분야 수요 확대 전망
- AI기술, IoT 등 융합기술보유 스타트업과의 첨단 헬스케어 기기 투자협력 예상

(5) 식료품 (뮌헨)

○ 선정배경

- 독일도 코로나19에 따라 간편식품, 식품포장, 배달서비스 등으로 시장 급격히 성장, 식품기업의 매출확대로 해외 투자 관심 예상
- 식품관련 생산설비, 색소 등 첨가제 분야도 투자 발생 가능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인 인스턴트 식품 틈새 시장에 독일 기업들 투자 가능

(6) 스타트업 (함부르크-베를린)

○ 선정배경

- 독일(베를린)의 스타트업은 '19년 투자유치 신기록을 경신하며 모빌리티, 핀테크, 소프트웨어 및 분석, 이커머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VC 투자유치에 성공
- * '19년 독일 스타트업 총 투자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62억 유로로 '18년에 이어 새로운 기록을 세움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독일 CVC, AC의 한국 스타트업에 높은 관심*으로 투자·협업 가능성 다대
- * 독일 최대 통신사 'Deutsche Telekom'의 벤처캐피탈의 공동 투자 펀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완료, 독일 니베아로 잘 알려진 'Beiersdorf AG'사는 국내 뷰티 스타트업 '라이클' 투자로 제2대주주 등극 사례 창출
- 독일 유니콘들의 한국시장 진출 및 투자 본격화 기대
- * '20년 공정위 결정사항에 따라 '21년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 본격투자 진행 예상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안)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IR 및 사절단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독일 수소 컨퍼런스 - 한국 수소산업육성정책 및 투자환경소개
-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무역관] 독일 CVC 및 AC대상 스타트업 투자유치 워크숍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미래차관련 소재부품장비 투자 세미나
- [뮌헨무역관] 식품산업 전북 익산 투자사절단

○ 조사

- 중점 유망 산업별 잠재투자가 조사
- 기진출기업 증액투자 가능성 조사
- 글로벌기업 수요기술분야 한국기업(스타트업 등) 조사

○ 전시회 연계 사업 등

-[뮌헨무역관]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바이에른주 투자가 초청 ('21.5월, 서울)

-[함부르크무역관] IFA연계 스타트업 한국관 운영 및 기업IR ('21.9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환경 홍보

- * Energy Conference (다름슈타트, '21.2.23), European Chemistry Partnering (프랑크푸르트, '21.2.23), Automechanika (프랑크푸르트, '21.9.14-18), MOTEK (슈트트가르트, '21.10.5~8), MEDIKA (뒤셀도르프, '21.11.15-18), Formnext (프랑크푸르트, '21.11.16-19), SPS (뉘른베르크, '21.11.23-25)

4 프랑스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11월까지 누적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710억 유로로 집계되며,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의 거시경제 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 힘입어 기업 및 정부투자는 '21-'22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 자료원 : Banque de France. Macroeconomic Projections France(2020.12.14.)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십억 EUR, (십억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11월까지)	2021(e)
118.3 (US\$ 144.32)	49.8 (US\$ 60.75)	27.1 (US\$ 33.06)	NA

* 자료원 : Banque de France, Balance des paiements de la France 2020.11 (2021.1.8.)

** 주 : EUR 1 = US\$ 1.22 환율 적용(2021.1.11 하나은행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경제구역별 통계의 경우, '18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19년도 Outbound FDI에서 유럽연합 및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타 지역으로의 투자가 크게 증가함

지역	2017 (r) (10억 유로)	2018 (r)		2019	
		10억 유로	비중	10억 유로	비중
유럽연합(28개국)	25.3	65.1	72.83%	13.5	39.12%
유로존(19개국)	11.3	57.4	64.15%	10.8	31.14%
비 유로존(9개국)	14.0	7.8	8.68%	2.8	7.99%
그외 공업국가 (미국, 일본 등)	0.7	7.7	8.59%	6.6	19.18%
기타 국가 (중국, 러시아 등)	5.8	16.6	18.58%	14.4	41.70%
전체	31.9	89.4	100%	34.5	100%

* 자료원 :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연구소(INSEE), Flux d'investissements directs selon le pays de première contrepartie

- UNCTAD 세계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8년도 FDI Stock 규모 기준 아프리카 대륙의 Inbound FDI에서 프랑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의 Choose Africa 이니셔티브*가 '22년까지 적용됨에 따라 對아프리카 FDI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Choose Africa : 아프리카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 프랑스는 남미 Inbound FDI의 주요 투자국 중 7위로서 '19년도 그린필드 투자액 5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18년도 27억 달러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금액임. 크로스보더 M&A의 경우 '19년 약 91억 달러 규모로 이뤄졌음

<국가별 FDI 통계>

(단위 : 십억 EUR)

지역	연도			지역	연도		
	2017(r)	2018(r)	2019		2017(r)	2018(r)	2019
유럽연합(28개국)	25.3	65.1	13.5	그 외 공업국가	0.7	7.7	6.6
유로존(19개국)	11.3	57.4	10.8	호주	1.6	7.2	-2.2
독일	8.0	-22.8	1.3	캐나다	1.6	-1.8	0.0
벨기에	-18.3	4.3	0.7	미국	-3.4	-0.6	8.7
스페인	1.7	1.7	-2.5	일본	2.4	0.5	1.4
이탈리아	3.1	26.2	2.8	스위스	0.2	2.8	-1.6
룩셈부르크	9.9	4.0	6.2	기타 전세계	5.8	16.6	14.4
네덜란드	2.8	39.5	5.6	버뮤다	0.1	13.6	2.4
유로존 외의 EU국가	14.0	7.8	2.8	브라질	2.6	1.4	2.3
폴란드	-0.4	1.4	0.0	중국	0.8	0.7	0.1
체코	0.4	0.7	0.3	홍콩	-0.4	0.1	-1.3
영국	10.7	0.5	7.6	인도	0.4	0.5	0.3
스웨덴	3.2	0.2	0.1	러시아	1.5	0.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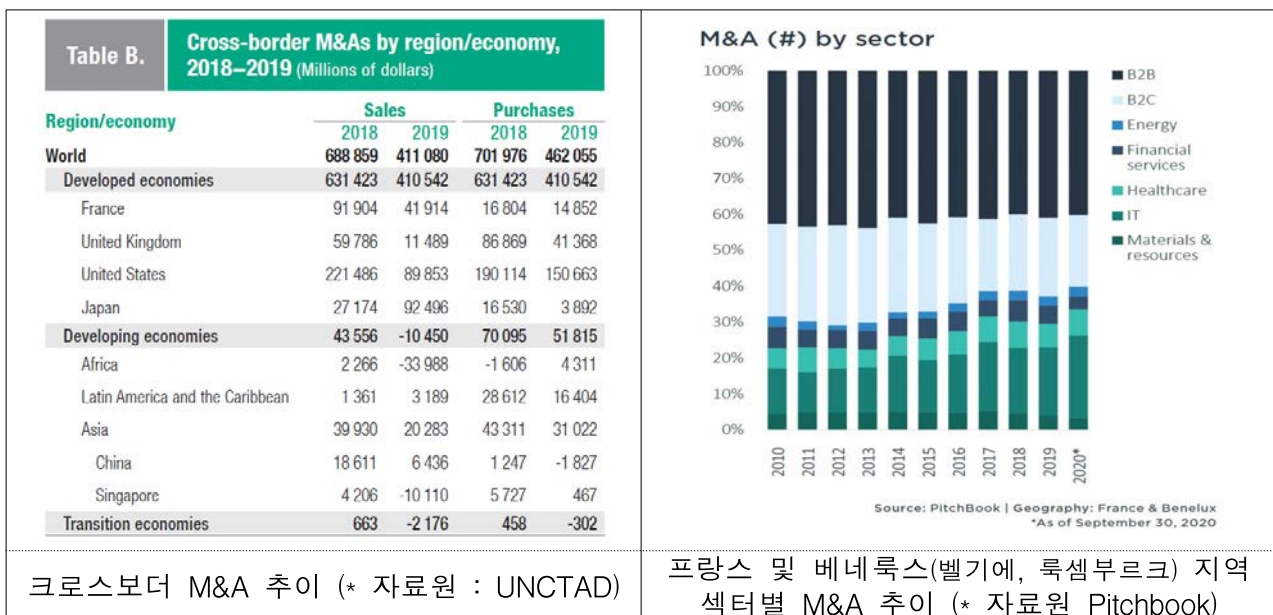
* 자료원 :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연구소(INSEE), Flux d'investissements directs selon le pays de première contrepartie

○ 산업별

-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년도 기준 Outward FDI에서 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업 중에서는 식품, 화학 분야 투자가, 서비스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및 부동산 분야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UNCTA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M&A와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크로스보더 M&A의 경우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며 크게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20년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음
- 피치북(Pitchbook)은 프랑스 및 베네룩스 지역에서 IT 분야의 M&A 비중이 커지는 부분을 주목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헬스케어 분야 및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은 환경 분야 M&A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및 Pitchbook, European M&A Report Q3 2020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랑스 유틸리티 기업 Engie社 및 건설사 Vinci社 등의 기업이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음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20년도 프랑스의 대한 투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신고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규모가 큰 투자프로젝트 건으로 인해 총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음
- 최근 5개년 동안 투자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194	280	687	147	201
신고건수	44	41	37	35	38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에너지) '20년도 최대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로 에너지기업 T社가 영국의 G社와 합작한 국내 해상 풍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투자 건이며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의 크고 작은 투자가 연중 이뤄졌음
- (서비스 및 유통) 금융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에 투자, 화장품 유통사인 SEPHORA 등의 기업이 투자를 진행함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투자추이) 코로나19 확산세 및 관련 방역조치 추이에 따라서 투자규모 또한 변동될 것으로 전망됨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GDP 9% 감소)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이 발표한 거시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차례의 전면 봉쇄로 인해 경기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져 GDP는 9% 감소할 것으로 하고 있음
- ('22년 중순 19년도 수준으로 회복) 동자료에 따르면, 방역 지침 완화 시점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21년도 '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2년 중반에 '19년도 경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외국인투자 사전허가제)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기업혁신과 성장 촉진 전략 실행법안'인 팩트법(loi PACTE)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여 치안, 안보 등 특정 산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규정함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제도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방한 및 대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에너지

○ 선정배경

- 유럽연합 및 프랑스 정부의 잇따른 친환경 정책으로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임
- '20년 4월 발효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발전전략 법령에는 관련 전략이 담겼으며, '20년 9월에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에 300억 유로를 투입할 것으로 발표
- * 2030년부터 한 해 그린수소 60만톤 생산 목표로, 이를 위해 프랑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수요가 확대될 전망

○ 관련 산업 동향

- '20년 T社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 개발 건 관련 지속적 투자가 예상되며, 에너지 분야 다른 기업들 또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투자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그린에너지 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동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 또한 제고됨

(2) 소비재/유통

○ 선정배경

- 프랑스는 세포라, 로레알, 데카트론 등 글로벌 유통 및 제조사가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K팝,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의 식문화 및 K뷰티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음
- * 구글 트렌드, 2020년 구글 프랑스 영화 부분에서 <기생충>이 검색어 순위 7위를 기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온라인 유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LVMH, 로레알과 같은 기업들은 액셀러레이터로서 스테이션F*에 입소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음

* 스테이션F(Station F)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큐베이션 센터

(3) 서비스(금융, 산업 서비스 등)

○ 선정배경

- 프랑스 정부는 핀테크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채택하여 동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 기관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에 따르면, BNP파리바(132건 투자), 크레디아그리콜(106건), 소시에테제네랄(43건), 약사(27건) 등 금융 분야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등으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A사 및 T사 등 산업 서비스 분야의 프랑스 기업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 인수를 진행한 이력이 있음
-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제2의 금융 허브로서 자리매김 중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안)

- (IR) 수소 분야 GP 산업('21.10월) 연계 IR 행사 개최
- (전시회 연계) 스타트업 전시회 Viva Technology 2021('21.6.17~19, 온오프라인)와 연계 투자유치 행사

5 영국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fDi Markets의 해외직접투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영국의 그린필드형 아웃바운드 FDI 프로젝트는 총 972건으로, 자본적 지출(Capex) 약 55억 달러, 창출한 일자리 수는 13,864개로 집계
- '18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브렉시트 협상으로 국가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활동까지 위축되면서 '20년 영국의 해외투자는 프로젝트 및 일자리 창출 건수, 자본 지출액 등 모든 요소에서 하락세를 나타냄(자본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약 60% 감소)

<'18-'20년 영국 FDI 투자 동향 (그린필드형 투자기준)>

연도	프로젝트(건수)	자본지출(백만 달러)	일자리 창출(건수)
2020	972	5,550	13,864
2019	1,584	13,773	27,886
2018	1,493	11,146	31,809

* 자료원 : fDi Markets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IMF에 따르면 영국의 '20년 GDP 성장률이 브렉시트 불확실성 및 팬데믹 효과로 인해 10.2% 감소하는 반면, '21년 성장률은 5.7%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일 전망, 그러나 기업의 자본축적 및 생산성 저하 기조, 실업률 등은 중기 GDP 성장률을 3~6% 수준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영란은행 분석에 따르면 '20년 기업투자가 약 19% 감소한 데 비해 '21년의 경우 5.75%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은 '21년 경제회복은 정부소비지출(+12.7%)이 견인하고, 기업투자는 '22년이 되어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봄

- '20년 12월 영국 하원은 UNCTAD의 자료를 인용,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글로벌 FDI 투자가 49%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1년에는 팬데믹 소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영국과 EU 간 무역협정이 극적으로 타결('20년 12월)되고, 따라서 그간 지속되어 온 브렉시트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은 해외직접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e)
11,146	13,773	5,550	6,300

* 자료원 : fDi Markets ('21년 기업투자 및 글로벌 FDI 전망치 등을 종합한 무역관 자체 예상치)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자료 작성 시점 기준 확인 가능한 최신 통계 기준치('20년 1-3분기)

○ 국별

- 영국의 투자대상국별 그린필드 해외투자(Outbound FDI) 통계 분석 결과, 자본지출(Capex) 기준, 미국이 약 11억 달러로 1위, 호주가 약 1억 4,200만 달러로 2위, 프랑스가 약 1억 3,900만 달러로 3위로 나타남

<2020년 영국의 국가별 주요해외투자 (1-3분기, 그린필드형 투자기준)>

투자대상국	프로젝트 건수	일자리 창출	자본투자액(백만 달러)
미국	240	1,604	1,105.50
호주	48	257	142.70
프랑스	34	229	139.30
독일	53	392	19.90
아일랜드	32	184	15.80

* 자료원: fDi Markets

○ 산업별

- 자본지출 기준 식·음료업이 약 3.2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 1위 산업이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약 2.7억 달러, 금융서비스산업 약 2.1억 달러, 산업기기 약 5,800만 달러,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산업이 약 5,700만 달러 순으로 집계됨

<2020년 영국의 산업별 주요해외투자 (1-3분기, 그린필드형 투자기준)>

산업	프로젝트 건수	일자리 창출	자본투자액(백만 달러)
Food & Beverages	26	420	325.20
Renewable energy	21	4	270.40
Financial services	74	3,020	213.90
Industrial equipment	36	153	58.70
Software & IT services	155	635	5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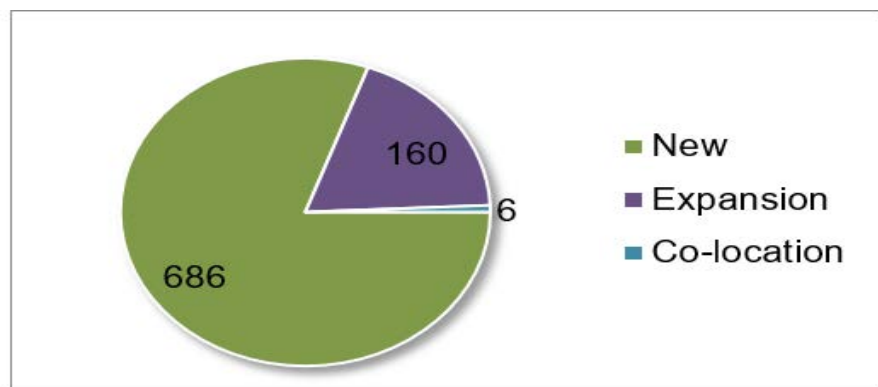
* 자료원: fDi Markets

■ 영국의 투자유형 및 특징

○ 투자유형별 특징

- '20년 1-3분기 영국의 그린필드형 해외투자프로젝트 건수는 총 852건으로 투자유형별 특징은 신규투자가 전체 프로젝트의 80.5%인 686건, 확장투자가 160건, 공동설립투자가 6건으로 전체 투자프로젝트 중 신규설립투자 비율이 가장 높음

<유형별 프로젝트 건수 ('20년 1-3분기 그린필드형 투자기준)>



* 자료원: fDi Markets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영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20년 1-11월 누적통계 기준, 영국발 대한 투자신고는 총 51건, 약 5억 3,500만 달러로 집계

- 주요 대형 투자프로젝트는 영국 A社の 반도체부품제조시설 증액투자 약 1억 2천만 달러, B社の 국내기업 인수 증액투자 9,900만 달러, 부동산 사모펀드 C社の 국내 증액투자 약 1,100만 달러 등이며, 이외 미국 리조트 전문 운영기업 D社사가 국내개발 투자를 위해 영국을 거쳐 2억 달러 우회투자 신고함

<영국의 최근 5년 대한투자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360	2,218	1,172	2,088	727
신고건수	66	88	77	90	59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20년 영국의 대한투자 주요 산업분야는 1위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약 1억 4,500만 달러), 2위는 화공 분야(약 1억만 달러), 3위는 금융·보험 분야(약 5,100만 달러), 4위는 기계장비·의료정밀(약 1,500만 달러), 5위는 전기·전자분야(약 350만 달러)임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21년 영국의 대한투자는 첨단소재(V社), 부동산 재무적 투자(F社), 신재생 에너지(M社), 조선해양(K社), IT·소프트웨어(S社), 비즈니스서비스(X社) 등의 분야에서 신규·증액투자가 전망됨

○ 영국 경제 동향

- (경제성장) '20년 11월 발간된 영란은행의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년 GDP 경제성장률은 -11%로, '21년 경제전망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가계, 기업 및 금융 시장의 반응 향방에 따라 결정, 상황이 진정될 경우 '21년 GDP 경제성장률은 7.25%로 전망
- (기업투자) 기업투자는 '20년 19% 하락 이후 '21년 5.75% 성장이 전망되나, 팬데믹발 경제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기업 지출 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 증가율(약 8.25%) 대비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금리) 팬데믹 기간 영란은행은 두 차례 금리인하(0.25%→0.1%)를 단행하였으며, 11월에는 양적완화(QE) 규모를 7,450파운드에서 8,950파운드로 확대 결정, 기업의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	백만 명	65.4	65.8	66.7	67.1	67.5	67.9	68.2
명목 GDP	십억 달러	2,930	2,704	2,671	2,864	2,831	2,605	2,748
1인당 명목GDP	달러	42,334	44,042	45,516	46,481	48,239	43,577	47,107
실질성장률	%	2.4	1.9	1.9	1.3	1.5	-9.5	6.9
실업률	%	5.4	4.9	4.4	4.1	3.8	10.4	9.0
소비자물가상승률	%	0.4	1.0	2.6	2.3	1.7	0.8	0.5
재정수지(GDP대비)	%	-4.6	-3.3	-2.5	-2.2	-2.1	-18.2	-7.1
총수출	백만 달러	459,778	408,946	441,143	486,586	469,099	N/A	N/A
(對韓 수출)	"	6,926	5,765	7,434	7,741	4,665	N/A	N/A
총수입	"	626,653	636,904	643,721	673,640	689,576	N/A	N/A
(對韓 수입)	"	6,278	6,069	5,417	5,337	5,119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66,875	-227,957	-202,578	-187,053	-220,477	N/A	N/A
경상수지	"	-143,600	-141,800	-93,000	-110,200	-113,300	-43,900	-73,0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53	1.35	1.29	1.34	1.28	1.28	1.28

* 주 : 2020년은 추정치, 2021년은 전망치 기입

** 자료원 : Economic Intelligence Unit, OECD, Global Trade Atlas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 첨단소재개발 기업 V社사는 국내기업의 관련 사업부문 인수를 마치고 국내 사업장설립운영 투자 예정
- 인적자원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M社는 최근 인수 완료한 한국자회사 인수후통합(PMI)을 마무리 하고, 추가 기업인수 대상 검토 예정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그린산업

○ 선정배경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과 울산, 광주, 새만금 등 지자체의 활발한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으로 투자 홍보에 적극 판단

- 영국은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그린산업 (해상풍력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의장국으로서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주최할 예정
- 2020년 12월 에너지백서 발표 주요내용 (관련 산업 동향)
 - (해상풍력) '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약 4배 수준인 40GW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정부는 같은 기간 해상풍력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수출 £26억 목표
 - (모빌리티) 영국 정부는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당초 계획이었던 가솔린 및 디젤 사용 차량 판매 전면 중단을 10년 앞당긴 '30년까지로 설정
 - (수소·탄소포집저장) '30년까지 탄소포집 10Mt 달성을 목표로 영국 북동, 북서지역 등 4개 산업단지에 총 £10억 투자 예정, 아울러 같은 기간 저탄소 수소 발전량 생산 목표를 5GW로 세우고 업계 지원에 나설 예정(2021년 수소산업 전략 발표 예정)
- 대한투자 가능성
 - 그린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전략적 육성이 관련 업계 기술개발 유도 및 국·내외로 사업확장 등 민간투자 가속화 전망

(2) 재무적 투자

- 선정배경
 - 영국은 유럽 최대 사모펀드 투자산업 중심지로, '17-'19년 영국발 대한투자 실적의 약 60% 이상이 사모펀드 기업의 한국기업 지분인수를 통해 이루어짐
- 관련 산업 동향
 - IBIS World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사모펀드 산업의 '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23억이며, '14-'19년 연간 평균성장률은 약 4.8%임
 - * 영국 내 약 250여개의 영국 및 글로벌 사모펀드 기업이 활동 중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The Blackstone Group(영국 내 시장점유율 8.7%), BC Partners(5%), Apollo Management International(4.8%), KKR(4.8%) 등이 있음
 - 한편 '20년 Mergermarket이 발간한 2021 글로벌 PE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1-3분기 아·태지역에서 총 \$805억 규모의 바이아웃 거래가 발생,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함, 이는 바이러스 방역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평가
 - * 동기 아·태지역 내 PE투자 1위 산업은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 분야로 약 \$330억이 투자되었으며, 2위는 제약,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로 약 \$134억으로 추산

○ 대한투자 가능성

- 금번 팬데믹 기간 한국의 방역 수준이 해외에 알려지고, 국내외 사모펀드들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국발 해외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 선정배경

-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최근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에는 민간 업계에서도 소비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AI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타 IT인프라를 접목한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관련 산업 동향 및 대한투자 가능성

- 시장조사기관 Pitchbook의 헬스케어 투자동향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책임투자 트렌드 및 산업의 디지털화 확대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거래가 급속 증가
 - *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글로벌 PE투자 딜 규모는 2019년 \$1,927억으로 5년전 대비 약 2배 증가
- 영국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은 아직까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국내 직접 투자보다는 우리 유망 기업의 해외진출 파트너로서의 전략투자 유치(벤처투자 포함) 또는 양국 간 기술협력 관점에서의 사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20년 국내 복수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영국 현지 벤처투자기업 관심 확인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London Games Festival 연계 투자유치 상담회(잠정)
 - 시기 : '21년 3월 4주
 - 내용 : 투자자-국내게임개발사 간 1:1 온라인 상담회 및 부대행사
- 英자동차산업협회 컨퍼런스 연계 한국 E-Mobility 투자환경 프로모션 사업(잠정)
 - 시기 : '21년 3월 4주
 - 내용 : 한국 투자환경 웨비나 및 1:1 온라인 상담회
- 한-영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파트너링 사업 (잠정)
 - 시기 : '21년 2분기
 - 내용 : 온라인 1:1 상담회, 피칭 행사, 투자환경 홍보 웨비나 등
- 하반기 전시회 연계사업 및 투자사절단 등 : 추가 검토 진행

6 스페인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스페인의 해외직접투자는 '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 지속
 - * 스페인 연간 해외직접투자 추이 : 336.0억 유로('16), 335.7억 유로('17), 367.0억 유로('18), 219.6억 유로('19)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년 1~3분기 중 스페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 다만, 분기별 해외투자액은 점차 감소 추세
 - * '20년 1~3분기 스페인 해외투자금액(전년동기대비) : 142.1억 유로(+2.7%)
 - * '20년 분기별 스페인 해외투자(금액/전년동기대비) : 1분기(81.6억 유로/+138.6%), 2분기(38.1억 유로/-42.9%), 3분기(22.4억 유로/-40.3%)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세계 경제가 '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 회복세로 전환 예상됨에 따라 스페인도 소폭이지만 성장세 기대
 - * '21년 세계경제전망(IMF) : 세계(5.4%), EU(6.0%), 스페인(6.3%)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스페인 기업의 글로벌 수익 하락, 포스트-브렉시트 시대 적응, 미·중 무역전쟁 지속과 같은 불안요소로 인해 '21년에도 스페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2018년	2019년	2020년 1~3분기	2021(e)
36,701 (US\$ 44,775)	21,958 (US\$ 26,789)	14,213 (US\$ 17,340)	14,924 (US\$ 18,207)

* 자료원 :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해외투자통계(Datainvox)

** 주 : EUR€1 = US\$1.22 환율 적용(2020.12월 Morningstar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최근 3년간 EU와 미주 지역에 투자 집중
 - 지역별 해외투자비중('18년 1분기~'20년 3분기) : EU(36.4%), 중남미(28.2%), 북미(21.4%), 아시아·오세아니아(5.3%), 아프리카(0.6%)

- 단일 국가로는 북미 지역에 속해 있는 미국과 멕시코가 최대 투자대상국임
- * 스페인 국별 투자대상국('18년 1Q~'20년 3Q) : 미국(21.3%), 멕시코(11.7%), 네덜란드(8.1%), 룩셈부르크(7.5%), 프랑스(6.9%) 순

<'18년 1분기~'20년 3분기 누적 국가별 스페인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

순위	국가명	금액(백만유로)	비중(%)
1	미국	15,535	21.3
2	멕시코	8,512	11.7
3	네덜란드	5,928	8.1
4	룩셈부르크	5,443	7.5
5	프랑스	5,043	6.9
6	영국	4,574	6.3
7	브라질	4,484	6.2
8	독일	3,591	4.9
9	아르헨티나	2,719	3.7
10	포르투갈	2,300	3.2
94	한국	0.4	0.0005
	기타	14,742.6	20.2
	해외직접투자 총합	72,872	100

* 자료원 :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해외투자통계(Datainvox)

○ (산업별) 금융서비스, 통신, 화학, 에너지공급 등 스페인의 기존 주력 산업에 투자 집중

- 최근 3년간 스페인 기업의 최대 투자 분야는 금융서비스(금융, 보험·펀드)로 전체 투자의 27.2% 차지

* 스페인 기업의 금융서비스 주요 투자국 : 미국(30.4%), 멕시코(20.8%), 룩셈부르크(17.3%)

- 금융 외 스페인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통신, 화학,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이뤄짐

* 주요 산업별 스페인 대기업 : Banco Santander(금융), 통신(Telefonica), 화학(Pepsol), 에너지공급(Iberdrola)

<'18년 1분기~'20년 3분기 누적 국가별 스페인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

순위	산업명	금액(백만유로)	비중(%)
1	금융	11,822	16.2
2	보험·펀드	8,020	11.0
3	통신	5,272	7.2
4	화학	3,840	5.3
5	에너지공급	3,762	5.2
6	농축산	3,469	4.8
7	도매	3,449	4.7
8	부동산	3,105	4.3
9	자동차제조	2,809	3.9
10	소매	2,719	3.7
	기타	24,605	33.8
	해외직접투자 총합	72,872	100

* 자료원 :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해외투자통계(Datainvox)

■ 주재국 투자유형 및 특징

-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기업의 대영 투자 확대 추세
 - 최근 3년간 스페인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중 대영 비중 증가
 - *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대영 비중 : '18년(5.2%), '19년(5.1%), '20년 1~3분기(10.8%)
- 최근 3년간 EU역내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투자 확대 반면 미주지역 투자 축소
 - 대EU 투자 비중 : '18년(36.4%), '19년(34.5%), '20년 1~3분기(39.3%)
 - 대아시아·오세아니아 투자 비중 : '18년(1.8%), '19년(5.9%), '20년 1~3분기(13.1%)
 - * '20년 1~3분기 대아시아·오세아니아 투자 중 중국 비중 96.9%
 - 대북미 투자 비중 : '18년(25.2%), '19년(20.8%), '20년 1~3분기(12.6%)
 - 대중남미 투자 비중 : '18년(29.0%), '19년(30.0%), '20년 1~3분기(23.4%)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 규모
 - 최근 5년간 스페인 기업의 대한투자는 큰 폭의 등락 반복
 - '20년 1~3분기 중 스페인 기업의 대한투자 신고금액은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전년동기대비 96.7% 감소한 102만 달러 기록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220	55	1,420	73	111
신고건수	9	8	9	9	10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최근 5년간('16.1Q~'20.3Q) 자동차제조(운송용기계) 산업에 스페인 기업의 대한 투자 집중
 - * 최근 5년간 스페인 기업의 대한 투자 중 자동차제조 부문 비중 : 78.8%
 - 기타 주요 투자분야는 부동산(15.0%), 전가가스(5.1%), 공공기타서비스(22%), 전가전자(1.4%) 순
 - '20년 1~3분기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분야는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과 도소매 유통으로 각각 66.8%, 16.8%의 비중 차지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스페인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들 기업의 한국정부 그린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O社 등 대규모 한국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타 에너지기업의 대한 투자 증가 기대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스페인 경제는 EU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가장 큰 국가로 '20년 12.4% 하락 후 '21년 5.4% 소폭 반등하는 '나йки형' 회복세 전망(EU 집행위)
 - 스페인 해외투자관련 정책 : 스페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소속의 무역투자진흥청(ICEX)에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 지원
- 투자가 동향
 - 에너지 그룹(E사)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추가 프로젝트 발굴에 관심이 많음
 - 선박 엔지니어링 분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 착안, S사의 한국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K-Beauty가 널리 알려지면서 종합뷰티 관련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분야 관심 투자가 증가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신재생에너지

- 선정배경
 -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세계 10위 강국
 -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 보유
 - * 신재생에너지 부문 스페인 주요 기업 : Iberdrola(풍력), Gamesa(풍력), Acciona(태양광)
- 관련 산업 동향
 -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활용한 스페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수요 확대
 - 종합 에너지기업 Iberdrola사는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분 40%를 호주 기업에 매각하는 등 브렉시트 이후 영국 프로젝트 취소 사례 속출

(2) 수소에너지

○ 선정배경

- 스페인, '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일환으로 그린수소 육성 희망
 - * 스페인 정부는 그린수소 육성에 '23년까지 15억 유로 투자 발표
- 한국은 수소 분야에서 스페인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스페인은 '30년까지 스페인 내 4GW 규모의 전기분해 시설 마련 및 전체 산업용 수소의 25%를 그린수소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스페인 주요 에너지 기업, 그린수소 프로젝트 개발 준비 중
 - * Repsol(정유), '26년까지 최대 29억 유로를 그린수소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 예정
 - * Enagas(천연가스), '23년까지 최대 15억 유로를 그린수소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 예정

(3) 서비스

○ 선정배경

- (선박엔지니어링) 조선업 회복세로 선박 관련 엔지니어링 수요 확대
- (뷰티)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한국 뷰티 프랜차이즈 사업 지분 투자 수요 증가

○ 관련 산업 동향

- 스페인은 건설, 선박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 세계 건설분야 프로젝트 수주 1위 기업 스페인의 ACS사
- 관광업,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1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해외 투자진출 프로젝트 증가 기대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신재생에너지 특화 IR 개최 (마드리드, '21년 9월 잠정)
- 유럽 자동차 생산국 2위인 스페인에서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 기업군 조사 강화 ('21년 상반기)
- World Mobile Congress 2021(6월), Smartcity Expo 2021(11월)과 연계한 투자 IR, Korean Day 등 개최

7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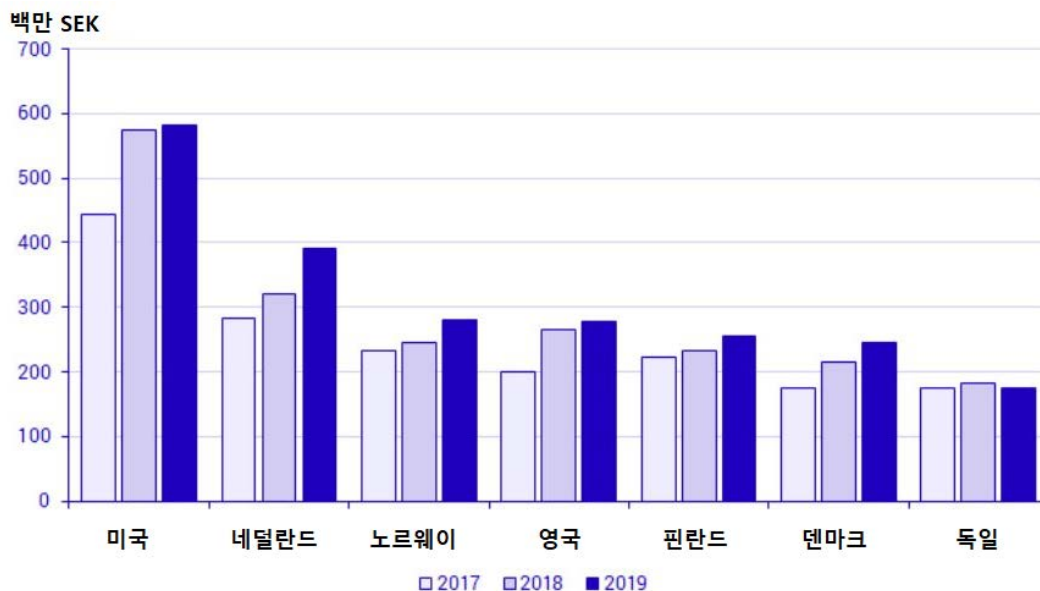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최근 10년간 스웨덴 순유출량 기준 '16년에 최저치(48억 달러)로 떨어졌던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듬해 '17년에 279억 달러로 무려 5.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8년 185억 달러, '19년 175억 달러로 감소함
- 그러나 KIX 지수에 따르면 스웨덴 크로나는 '19년 미국 달러화 대비 3.9%, 유로화 대비 1.5%가 하락하였고, 이러한 스웨덴 크로나의 평가절하가 해외 직접투자의 자산가치와 수익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는 자산 기준 '19년 3,783억 달러(3조1,700억 크로나)로 전년 대비 143억달러가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87억 달러가 증가한 네덜란드가 개별국가 중 가장 많이 증가함

<자산 기준 스웨덴의 최대 FDI 대상 7개국에 대한 투자금액 추이>



* 자료원 : 스웨덴통계청(www.scb.se)

- '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경간 이동 제한을 비롯한 불확실성 증대로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도 '20년 2분기에는 13.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음. 그러나 '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한국을 포함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이던 '20년 1분기에 스웨덴은 263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여 '20년 3분기 동안 총 투자액은 314억 달러에 달함. 이는 투자금액이 몰리는 4분기 투자액이 제외된 9개월간의 투자 합계이나 '19년 175억 달러 대비 1.8배가 증가한 것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웨덴 해외직접투자의 분기별 추이>

(단위 : SEK, (백만 달러))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1~3분기 합계
220,391 (US\$ 26,304)	11,529 (US\$ 1,376)	31,404 (US\$ 3,748)	263,324 (US\$ 31,428)

*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www.scb.se)

<스웨덴의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SEK,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1~3분기)	2021(e)
155,026 (US\$ 18,502)	146,779 (US\$ 17,518)	263,324 (US\$ 31,428)	373,324 (US\$ 44,556)

* 자료원 : 스웨덴통계청(www.scb.se),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19

** 주 : US\$ 1 = 8.3787 SEK 환율 적용(2020.12월 평균환율)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en) 환율 기준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제조업과 수출입에 큰 타격이 생기면서 기존 시장에 투입되지 못한 잉여 자본이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유망 투자처를 찾아 해외직접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21년에도 '19년~'20년간 연간 증가액 139억불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가 이루어져 약 445억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는 전통적인 제조강국으로서 글로벌기업의 해외진출과 맞물려 산업군별로는 제조업이 총 투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19년부터 법률, 회계 및 기술 등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전통적인 수출입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앞서고 있으며, 기존 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 시대의 등장으로 스웨덴 투자자의 관심은 금융 및 보험, 물류와 유통 등에 몰리게 될 가능성도 높음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19년도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집중현상의 완화와 투자처의 다변화임. 유럽내 90%의 투자가 몰렸던 '17년에 비해 '18년엔 對유럽 투자가 83%로 다소 감소하더니, '19년에는 47%로 크게 감소함. 특히 EU 27개 회원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49%가 감소한 54억불로 16%를 차지하며 크게 감소함

- 對유럽 최대 투자국가도 '18년에는 아일랜드 103억 달러(41%), 덴마크 38억 달러(15%) 순이었으나, '19년에는 노르웨이 29억 달러(16%), 네덜란드 28억 달러(16%)로 변동이 있었음
- 반면, 對아시아 투자는 '17년 9억 달러(4%), '18년 15억 달러(6%)에서 '19년 40억 달러(23%)로 크게 증가함. 홍콩이 중국(6.7억 달러, 4%)을 제치고 24.4억 달러(14%)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對한국 투자는 '17년 - 2.6억 달러, '18년 - 0.3억 달러였으나 '19년 처음으로 3.3억불, 2%를 차지함
- 對미국 투자 역시 '17년 9억 달러(4%), '18년 15억 달러(6%)로 상승세에서, '19년에는 24.9억 달러(14%)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산업별

-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제조사를 중심으로 금속, 기계, 전자 등을 포함한 제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18년 제조업 투자는 전년 보다 87억 달러가 증가해 185억 달러(74%)였으나, '19년에는 35%가 감소한 121억 달러로 전체 산업 중 68%를 차지함
- 제조업에 이어 운송산업이 51.8억 달러로 해외투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 경제, 과학 및 기술 등 지식집약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8년 - 7억 달러에서 '19년 42.6억 달러로 '17년도 절반 수준으로 회복함
- 특히, 은행 및 보험사, 기타 신용기관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17년 4.3억 달러, '18년 - 29억 달러였으나 '19년 1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투자 안정성에서 수익 최대화를 위한 투자국가 다변화

- 스웨덴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제조업체부터 스타트업까지 'Born-to-be-global'을 기업의 생리로 하는 특징이 두드러짐. 글로벌 기업들을 필두로 해외진출에 매우 적극적이며, 보다 큰 시장을 찾아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유럽 금융위기가 있었던 '16년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가 투자 유입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반면, 유럽 특유의 보수성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스웨덴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해 그동안의 해외직접투자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및 EU 회원국 포함 유럽국가에 대한 투자가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였으나, 계속된 스웨덴 코로나의 가치하락에 힘입어 해외투자자산의 증가세가 확대되자 고수익을 찾아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국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OECD	5,535 (115%)	22,239 (80%)	14,204 (77%)	14,304 (80%)
EU회원 (27개 국)	-1,981 (41%)	17,753 (64%)	651 (4%)	2,863 (16%)
비EU 유럽국가	3,273 (68%)	6,278 (22%)	9,975 (54%)	5,398 (31%)
미국	244 (5%)	2,776 (10%)	5,071 (27%)	2,485 (14%)
아시아	249 (5%)	1,168 (4%)	1,202 (6%)	3,955 (23%)
한국	162 (3%)	-264 (1%)	-245 (1%)	2,485 (14%)

*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www.scb.se)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스웨덴의 대한투자는 유럽의 불황 및 스웨덴 국내 경기 침체로 '16년 7백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17년과 '18년 2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고, '19년에도 법인세 절감을 위해 네덜란드에 법인을 등록한 이케아가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20년 1월부터 중국 이후 한국이 코로나19 초반 확산의 주요 국가가 됨에 따라 FEZ에 추진 중이던 제조공장 건설 및 부동산 개발 투자프로젝트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2분기에는 투자 철회 건이 잇따름

- 한국은 외국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지보다는 국내 시장 및 매출 규모의 중요성에 의해 기투자자의 증액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미 스웨덴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120여개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으로 최근 소액의 전략산업분야(캠핑기어, 모션캠처, 무역업 등) 기업의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으나 물류, 인적 이동의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투자는 6건, 5.4백만 달러에 그침
- 스웨덴 코로나의 유례없는 약세에 힘입어 스웨덴은 유럽 유일의 수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속되는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기업들은 시장 확대 및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진출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액의 신규 진입 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9년 상반기내 대한투자는 9건, 7.3백만불이었으나, 한국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모범사례로 소개되면서 하반기에 8건, 36.7백만불이 투자됨.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7	203	285	47	42
신고건수	11	15	12	11	17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상용차 및 운송) 아시아 판매시장 중 한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볼보 트럭과 스카니아에서 경쟁적으로 한국 고객 확대 및 시장 점유력 강화를 위해 구매자를 위한 할부금융에 증액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스카니아는 '20년 중국에 제조공장을 오픈하였지만, 한국 구매자 지원을 위해 볼보트럭에 비해 2년 뒤쳐지긴 했으나 할부금융 지원을 위한 증액 투자를 시작함
- (기계, 제조업) 중공업용 특화 기계류 제조에서 솔루션 제공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A사는 한국지사와 최근 합병하여 한국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국내 브랜드업체에 증액 투자. 이외에도 철강 및 특수강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S사가 신규 등록에 이어 증액 투자

- (문화 및 IT 기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콘기업으로 음악 스트리밍 분야의 최강자인 스포티파이가 한국 서비스 개시를 추진, '20년 1월 한국법인 설립에 이어 저작권 협의를 위한 한국 인력 채용을 마치고 8월에 증액투자를 완료함. 아직 투자금액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시장의 급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콘텐츠 및 IT기술 플랫폼 등 관련 투자 유도에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스웨덴은 현재 140여개사가 한국에 진출해있으며 기존 투자자가 3~7년을 주기로 재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불황과 경기침체 가중으로 주기적인 증액 투자의 흐름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투자자의 진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한-EU FTA 체결 10년차로 양국간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EU-중국 간의 FTA 체결 이슈 등 다양한 변수 발생 가능. 최근 스웨덴이 유로대비 스웨덴 크로나의 약세에 따라 투자지역의 탈유럽화 및 투자분야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투자유치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단순 제조업 및 판매유통에서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 바이오 및 첨단 기계, 정밀화학, 소재산업, 관광 부동산 개발 등 전략산업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스웨덴 정부는 '19년 12월 언론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불황이 3분기에 접어들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이는 국경 및 도시폐쇄를 단행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국민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하는 방역정책으로 경제활동의 중단이 없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3분기 GDP는 2분기에 비해 4.9% 상승하였으나 '20년 평균 GDP는 -3.9%, '21년에는 3% 상승이 예상됨.
- 그러나 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로 '20년 8.5%, '21년에는 9%로 증가될 전망으로 스웨덴 정부는 적자예산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계획임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IKEA는 한국진출 5년만에 연매출 5천억원을 돌파하며 '20년까지 4호점 오픈하였음. 당초 '이케아 2020 플랜'에 의해 '20년까지 6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경기침체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심형 소형매장 오픈 및 가구 대여사업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 투트랙 전략을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며 홈퍼니싱시장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임
- Volvo Truck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자동차산업계의 큰 타격으로 긴축경영에 들어갔으나, 물류시장의 확대에 따라 로열 고객층 유지 및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고객 지원용 할부금융서비스와 AS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기존에 추진해오던 물류센터와 서비스센터의 통합형 센터 건설은 중단된 상태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낮음
- 국내 FEZ와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분말 제조공장 건설에 돌입했던 H사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계약과기 패널티를 지불하고 투자를 철회한 상황. 당초 사업확장 계획으로 한국기업 인수와 생산공장 건설 중 후자가 최종 결정되었던 것으로 차기 투자는 M&A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음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유통업

○ 선정배경

- 스웨덴은 국내시장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력과 창의적인 제품개발로 북유럽 최대규모의 유통산업 보유
 - * 북유럽지역 최대 유통사 100개 중 44개사가 스웨덴 기업
- 특히, IKEA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홈데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스웨덴에서만도 창업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함. '14년 한국 진출 이후 국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5%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코로나19가 초기 확산세에 있던 '20년 2월, 예정대로 동부산점을 오픈함
- 지역별로 분산된 대형 유통매장의 유치는 양질의 안정적인 대규모 고용창출로 이어지므로 한국경제 견인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바이오/의료기기

○ 선정배경

- '19년 한-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외 상호 공식 방문을 계기로 산업부와 KOTRA,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는 아스트라제네카와 6월 R&D 포함 6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인 개발투자를 위한 LOI 체결, 12월에는 KOTRA,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MOU를 체결함
-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중 가장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한 백신 개발로 수혜범위를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생산될 예정임

○ 관련 산업 동향

- 산업특성상, 개발 초기 글로벌 R&D 협력 및 상업화 단계에서 합작투자를 통한 상업화, 기술교류·협력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 기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신사업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해 긴밀한 인적교류 및 투자협력, 기술개발 논의

(3) 기계 및 부품

○ 선정배경

- 스웨덴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기계 및 부속품 제조 글로벌회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동화, 경량화, IoT, AI 관련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으로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 '13년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 "Produktion 2030"을 발표, 차별화된 정책수단과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한국정부도 '14년 이후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생산현장과 제조산업 전반에 혁신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수립, 관련 정책을 통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 글로벌 수준의 투자기업이 이미 진출하여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글로벌기업의 신규사업부나 기술 강소기업의 소규모 신규투자 또는 합작투자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투자가 맞춤형 전략적 IR 개최

- 대면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투자가의 증액투자 프로젝트 파악을 위해 IR 행사 계기 투자가 접촉을 활성화할 필요성 다대
- 스웨덴 투자가는 네트워킹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와는 달리 아젠다가 없는 상담이나 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프로젝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테마별 전략 IR을 개최하여 투자가와 후속 접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테마별 IR 예시 : 한국 정부의 전략 육성 산업 프로젝트 소개 또는 FEZ의 중점유치 산업 소개, 투자 인센티브 상담회 등

○ 대외협력기관과 공동 웨비나 개최

- 투자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Business Sweden 또는 Invest Stockholm과 같은 스웨덴 현지 유관기관 및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상호교차 국가 투자 IR 개최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한국 지자체의 온라인 투자유치사절단을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 투자가와의 비대면 네트워크 확대

8 덴마크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세계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재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투자계획 연기 등에 따라 2020년 FDI 실적은 2019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 예상
- * 2020년 1분기(144억 DKK), 2분기(128억 DKK), 3분기(94억 DKK) 등 매분기 감소 추세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2021년 덴마크의 해외 FDI 전망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몇몇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21년 2분기 이후)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21.4분기부터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 회복은 2022년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DKK 백만,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전망치)	2021(e)
83,900 (13,840)	103,800 (17,123)	46,600 (7,687)	50,000 (8,248)

* 자료원 : Danmarks Nationalbank (2020.11)

** 주 : US\$ 1 = 6.0620 DKK 환율 적용 (2021.1.5. Danmarks Nationalbank)

1 DKK = US\$ 0.1650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지역별) 주요 투자지역으로는 80% 이상이 유럽지역에 집중

- 과거 덴마크 제조업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로 인해 대중국 투자 등 아시아 지역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있으나, 최근 5년전부터 대아시아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덴마크의 풍력관련 글로벌 기업(Orsted, Vestas 등)의 대 아시아 지역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지로는 대만,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중심

- (산업별) 주요 투자산업으로는 제조업, 서비스 분야, 운송, 부동산에 집중
- 제조분야에서는 풍력발전, 제약 기계산업 분야가 해외직접투자에서 큰 비중 차지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덴마크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M&A 거래를 통한 투자형태를 보이며,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풍력발전 기업은 최근 몇 년간 관련 산업 수요가 높았던 영국, 대만, 미국에 투자를 하였으나, 최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 투자국을 확대하는 추세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계획을 미루면서 2020년 대한국 투자는 예년과 유사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
 - '20.1~11월까지 28백만 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급감
 - * 단, 연말에 1사가 65백만 달러 투자신고 예정으로 '19년과 유사한 실적 예상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62	65	38	72	94
신고건수	11	10	12	11	8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주로 제조업(풍력발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판매법인 유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덴마크 전력업체인 O社에서 최근 한국(인천)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8조원 규모)하는 등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정부의 대규모 그린뉴딜 정책사업 발표를 통해 덴마크의 글로벌 해상 풍력 발전 기업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수년 내에 풍력발전 부품과 기술개발에 덴마크 기업의 대한국 투자 기대
- 프로젝트 규모가 방대한 만큼 투자규모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예상
- 다만, 코로나 상황의 개선속도에 따라 투자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덴마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에 대한 보상과 해고직원에게 대한 급여 지원 등으로 인해 기업과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GDP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봉쇄정책을 다시 펼치면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
- 덴마크는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덴마크 무역 협의회(Danish Trade Council)에서 덴마크의 해외투자를 지원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 (Ø社) 인천 근교에서 1.3GW 규모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2023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C社) 울산 인근 부유식 해상 프로젝트 200MW를 확보하여 2021~2022년 내에 투자 가능성
- (E社) 200 MW의 프로젝트를 계획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투자 예상
- (V社) 한국에서 풍차 조립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풍력산업

- 선정배경
 - 한국정부의 관련 정책발표를 통해 전세계 풍력산업 선도기업이 대한민국 투자에 적극적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한국의 풍력 산업단지 개발 계획 속도에 따라 이들 기업의 투자계획도 빨라지거나 늦어질 것으로 전망

(2) 바이오

- 선정배경
 - 덴마크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글로벌 기업(특히 Novo Nordisk사)은 한국의 신생 제약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관련 산업 동향
 - 현재까지는 M&A 등 투자계획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대한 투자관심을 제고할 필요 있음

(3) 기계부품

- 선정배경
 - 기계부품 산업은 전통적으로 덴마크의 주요 투자산업으로 대한민국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분야임
- 관련 산업 동향
 - AVK, Danfoss, Grundfos 등 덴마크 리딩 기업에서 과거 대한민국 투자 경험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해상풍력 세미나 및 GP 상담회 (2021.3월, 예정)
 - V社は 풍차 조립공장 등 대한민국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 국내 기업으로부터의 부품조달 및 기술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유치와 GP 사업을 병합한 세미나/상담회 개최
- 전시회 연계 투자유치 IR 및 상담
 - 4월 개최 예정인 Wind Europe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련 기업 대상으로 대한민국 투자유치 활동

9 네덜란드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최근 3년간 비슷한 규모의 OFDI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해외투자의 주요 수혜국임
 - 네덜란드 통계청은 '20년 해외투자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4분기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이 증가세에 있어 투자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음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현재의 팬데믹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10월 이후 2차 봉쇄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단위 : EUR /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UR 4,784,226 백만 (US\$ 5,815,227백만)	EUR 5,105,871 백만 (US\$ 6,206,186백만)	EUR 5,177,022 백만 (US\$ 6,292,670백만)	EUR 5,027,193 백만 (US\$ 6,110,553백만)

* 자료원 : 네덜란드 중앙은행('20년 8월 업데이트 기준)

** 주 : EUR 1 = US\$ 1.2155 환율 적용(2021.1.12 외환은행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세제혜택이 유리한 유럽국가로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이 최대 투자국('15-18년)으로 자리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이 대체로 한국을 앞서고 있음

<지역별 네덜란드 해외투자>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순위	투자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 상위 10개 국	1	미국	484,410	553,797	679,171	775,270	774,902
	2	영국	591,028	445,252	554,232	544,967	564,616
	3	스위스	290,652	293,592	397,417	399,215	433,405
	4	독일	304,431	279,575	248,806	297,990	289,629
	5	룩셈부르크	520,660	490,105	448,917	410,068	266,435
	6	캐나다	115,944	126,414	140,650	129,664	244,186
	7	아일랜드	146,671	159,682	171,936	189,891	176,636
	8	프랑스	199,999	173,027	164,963	177,015	176,631
	9	브라질	176,100	175,967	192,890	163,487	147,863
	10	스페인	166,373	158,250	154,637	155,019	144,091
아시아 지역	21	일본	26,085	30,400	44,415	48,757	52,856
	24	싱가포르	82,226	99,903	65,413	69,792	47,690
	31	중국	24,079	29,562	28,426	26,115	24,478
	32	홍콩	29,826	25,919	24,941	22,310	24,133
	34	인도	7,882	14,958	17,047	18,736	22,135
	39	인도네시아	14,741	18,035	21,588	20,021	19,703
	40	한국	15,776	15,329	17,475	19,359	19,187

* 자료원 : 네덜란드 중앙은행

○ 산업별

- 상품 산업 중 광업·정유·화학산업의 해외투자가 상품산업 투자의 45% 수준으로 가장 활발하며, 금속·전기·전자, 식음료·담배 산업이 뒤따르고 있음
-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인 상품 산업에 대한 투자의 70% 수준이며, 특히 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크며 증가세에 있음

<산업별 네덜란드 해외투자>

(단위 : 백만 유로)

산업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상 품	광업, 정유, 화학	1,323,135	1,439,082	1,376,864	1,468,396	1,404,946
	금속, 전기, 전자	614,140	622,358	626,938	645,729	626,901
	식음료, 담배	408,897	446,798	610,212	544,196	519,377
	기타	408,306	538,873	540,356	600,128	601,005
	소계	2,754,478	3,047,110	3,154,369	3,258,449	3,152,229
서 비 스	금융, 보험	670,810	868,391	1,083,322	1,039,296	1,037,974
	수송, 저장, 통신	665,401	583,690	544,070	606,360	635,898
	무역	334,672	317,842	377,189	295,365	277,433
	기타	248,120	329,987	313,340	342,374	308,595
	소계	1,919,003	2,099,909	2,317,921	2,283,395	2,259,901

* 자료원 : 네덜란드 중앙은행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광범위한 국제적 과세협약 네트워크 보유
 -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진 거주자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60여 개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투자 비중이 큼
-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 영국, 아일랜드와 함께 가장 투자제한이 없는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팬데믹 이후에도 리쇼어링 및 자국 보호주의 기류에 따른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투자 신고건수가 '16년 이후 '19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년 다소 증가함
 - '19년까지 신고금액이 연간 평균 1,570백만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년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평년의 37% 수준인 588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음
 - 한편, '16년 이후 '19년까지 신고건당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70% 이상 증가함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1,547	1,715	1,364	1,666	588
신고건수	90	61	29	29	50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최근 5년간 네덜란드의 투자 분야는 주로 반도체 및 컴퓨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원유정제업 중심의 화공, 발전업 중심의 전기·가스 분야가 뒤를 이음
 - * 전기·전자(1,536)> 화공(1,415)> 전기·가스(819)> 금융·보험(440)> 운수·창고(238)> 기계장비·의료정밀(229) 순 (단위 : 백만 USD, 자료 : INSC)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21년 연중 점차 팬데믹 상황이 통제 가능하고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갈 경우 유보되어 있던 투자 건들에 대한 투자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년 대한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대체 에너지, 의약품 제조·유통업 중심으로 투자 건수가 늘고 있어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성장이 기대됨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경제정책기획국(CPB)은 팬데믹이 통제 가능하고 대규모 백신접종이 올해 중반까지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하반기 경제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2차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힘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협력사들의 한국 진출이 확대되는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한국 투자 가시화
 - 최근에는 국내 증권 및 물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도 이어지는 등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유망산업 내 생산 및 소비시장과 인접한 한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진출이 목격되고 있음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반도체

- 선정배경
 - 반도체 시장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메모리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21년에는 세계경제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공급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의 지속 성장이 예상됨
 - 네덜란드는 모든 반도체 제조 과정에 주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개국 중 하나로 ASML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노광장비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전자기기의 소형화, 고성능화, 다기능화에 따른 반도체 테크놀로지 노드 감소와 이를 위한 공정 기자재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함
 - 노광공정 장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들과 한국 반도체 생산기업 간 긴밀한 협력 기회가 상존하고 있음

(2) 신재생에너지

- 선정배경
 - 네덜란드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탈탄소, 기후 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네덜란드는 유럽 2위 수요 생산국으로 산업 전반에 탄탄한 공급망과 가스자원을 보유하여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전력 소비량의 40%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스타트업

- 선정배경
 - 암스테르담은 유럽 스타트업 생태 3위 도시로 선정될 만큼 친스타트업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큼
- 관련 산업 동향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음
 - * 시장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처 탐색 수요를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원격 교육 및 근무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와 연계해 스타트업 투자로 연결 가능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안)

- 네덜란드 주요 산업 조사 및 투자 IR
 - 반도체, 수소 등 성장 및 협력 가능성이 큰 주요 산업들의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국가 간,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점검
 - 조사 과정에서 주요 네트워크 확대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 현지 유관기관 사업 참가
 - 네덜란드 기업청 주관 한국 비즈니스 워크 연계, 한국관 운영 등으로 투자 네트워크 확대
- 스타트업 웨비나 및 상담회(잠정)
 -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 투자가 초청 한국 유망 스타트업 소개, 1:1 상담주선 등

10 이탈리아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
 - 이탈리아의 해외직접투자는 '19년 유량(flow) 기준 24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4년~'19년 평균 243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별, 권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부터 명품 소비재 시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해외 에너지 관련 대형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감에 따라 '20년 대형 프로젝트 취소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21년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경우 해외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20년 UAE 천연가스 생산시설 가사 프로젝트 수행중인 英ADNOC과 伊ENI사 사업 재검토 등
 - 비대면, 언택트 등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따른 伊기업의 새로운 유통·판매 활로 개척노력에 따라 명품 소비재 생산기업의 해외진출은 활발할 것으로 전망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4,531	32,692	24,934

*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2020.6)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이탈리아의 유량 기준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 '19년 이탈리아의 최대 투자국은 칠레로 총 27.29억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현지에서 이탈리아 발전사인 ENEL Green Power의 4.72GW 규모 총 37개 사이트의 친환경 발전소 운영 및 신규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19년 투자액 유량 기준 상위 10개국 중 미국 및 EU 외 국가는 칠레, 러시아, UAE로 해당 지역의 경우 대형 건설·에너지 프로젝트 위주 진출이 많음

< 2019년 Outbound Flow 기준 이탈리아 해외투자 상위 10개국 >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국가	투자액 (2019)	투자액 (2018)	순위	국가	투자액 (2019)	투자액 (2018)
1	칠레	2,729	141	6	러시아	1,574	559
2	스페인	2,422	6,926	7	미국	1,558	3,362
3	벨기에	2,183	-1,959	8	프랑스	1,232	2,203
4	스위스	2,143	-362	9	폴란드	1,201	-9
5	룩셈부르크	1,592	378	10	UAE	871	978

* 자료원 : 이탈리아 중앙은행 통계자료(2020.12.11)

○ 산업별

- (친환경 프로젝트) ENEL Green Power는 칠레 Domeyko 지역 204MW급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총 164백만 달러 규모, '21년 완공예정)를 포함한 총 37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칠레정부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맞춰 이탈리아 기업의 친환경 프로젝트 진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형 에너지프로젝트) 에너지 개발업체 ENI는 UAE에 연간 18백만 배럴 석유 생산시설을 포함 E&P, 석유화학 생산시설 등 에너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나 '20년 유가하락 및 국제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라 투자규모를 조금씩 축소한 상황임
- (생산기지 확충) 폴란드, 세르비아를 포함한 동구권 유럽 지역에 이탈리아 제조업 생산기지 진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伊산업협회 세르비아 지부에 따르면 FCA그룹을 비롯한 600여개의 伊기업이 세르비아에 진출한 상황으로 판단됨(총 투자규모 3억유로 수준)
- (제약·바이오 산업) 伊대표 제약사 메나리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년 6월 이탈리아내 150백만 유로 규모의 제약 생산시설을 확장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사 해외진출 법인 증액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명품 패션·소비재) 이탈리아 정부도 소비재 제품의 진출 확대를 위해 소비재 판매 주요시장의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품 브랜드의 시장확대를 위한 해외진출도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

* 이탈리아 무역공사 협업 온라인 플랫폼 : 韓 G마켓, 中 알리바바 / JD.com, 폴란드 Frisco 등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이탈리아의 대한투자는 '18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계류, IT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내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19년부터 예년수준을 회복, '20년 최고치를 기록함
- 코로나19에도 한국 고급소비재, 명품 패션시장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국내 진출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 하여 '20년 하반기에 伊명품 브랜드(E社, Z社 등) 등 주요브랜드 투자가 증가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41	54	5	55	93
신고건수	14	15	10	12	13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석유화학) 롯데케미컬과 합작법인 설립한 베르살리스사(ENI 자회사)의 합성 고무 생산시설 경영과 관련된 증액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인 설립이후 꾸준히 논의되어온 핫멜트(접착제) 생산시설 증액투자 논의도 진행중
- (명품소비재) 신세계와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국내 단독 진출한 G社('19년)를 비롯 남성복 전문브랜드 Z社 및 패션 악세사리 전문 기업 E社 등 이탈리아 명품 소비재 기업은 '19년말부터 꾸준히 대한투자를 늘려왔고, 한국 매출액 개선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기업 : 명품 악세사리 E社 4.7백만 달러, 남성복 브랜드 Z社 2.6백만 달러

- (화장품) 코로나19발 재택근무 확산과 마스크 착용확대로 이탈리아 주요 생산 화장품인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매출이 감소하였고, 개인위생 및 보전에 중점을 맞추는 화장품 트렌드로 인해 한국이 강점을 지닌 스킨케어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력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됨

* I社 14백만 달러 규모 투자 통해 한국을 글로벌 스킨케어 연구개발·생산 허브로 육성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년 2차례 락다운(3월, 11월)을 실시한바 있으며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伊현지시장 특성상 다수의 브랜드들이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새로운 해외시장 활로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형 M&A 등 기업재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패션업계 M&A 상황 : 몽클레어의 스톤아일랜드 인수, 인수금액 1조 5천억원

- 코로나19로 한국 소비자들의 이탈리아 관광 명품 구매 활로가 막히고, 비대면 판매가 용이한 한국 시장 특성으로 인해 이탈리아 명품 패션·소비재 브랜드의 국내 투자진출은 확장 추세이며, '21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이탈리아 GDP는 伊통계청(ISTAT) 기준 전년대비 -8.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1년은 기저효과 및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으로 인한 긍정적 전망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년 이탈리아 무역수지는 각각 수출 -16.4%, 수입 -1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나 '21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 경제 전망 수치 >

(전년대비, %)

계정명	2018	2019	2020	2021
국민총생산	0.9	0.3	-8.9	4.0
상품 서비스 수입(FOB)	3.5	-0.6	-14.0	10.0
상품 서비스 수출(FOB)	2.2	1.0	-16.4	10.2
국내수요	1.3	-0.1	-8.0	3.9
가계지출	0.9	0.4	-10	4.5
정부지출	0.2	-0.2	2.0	0.1
총고정자본형성	3.1	1.6	-10.1	6.2

*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20.12.3. 발표자료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한국을 글로벌 스킨케어 연구개발·생산 허브로 육성 중인 伊 I社와 경기도청 간 투자협약 MOU 체결('20.9.22),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및 생산시설 증액 투자(제2생산시설 5,132m² 규모) 관련 협의

* I社 : 화장품 OEM/ODM 생산업체로 '15년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형태로 경기도 오산 가장2산업단지내 5,144m² 규모로 투자, 연매출 500억 규모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명품패션

○ 선정배경

- 이탈리아는 Dolce & Gabbana, Fendi, Gucci 등 명품 패션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마랑고니 패션스쿨 등 유력 패션스쿨을 통해 유력 디자이너를 양성 중인 명실상부한 세계 패션의 중심지임

- 밀라노 무역관은 '18년 정상순방을 계기로 마랑고니 패션스쿨과 협업하여 Unica 섬유전에 마랑고니 특별관을 운영 중이며, 마랑고니 패션스쿨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섬유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음

* ('18.10.17) KOTRA - 마랑고니 패션스쿨 패션협력 업무협약 체결, '19년부터 2회 사업수행

* 협업내용 : 국내기업 직물 무상제공을 통한 학생 의상 제작, 우수작 시상 및 특별관내 전시

○ 관련 산업 동향

- 명품패션기업 G社가 국내 파트너사와 파트너십 종료에 따라 국내 직접투자로 진출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탈리아 명품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19.2월) D社 5.3백만 달러 증액투자, ('20.12월) 명품제조 E社 4.7백만 달러 증액투자 등

(2) 뷰티/화장품

○ 선정배경

- 유럽 및 이탈리아는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스킨케어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해 스킨케어 제품 개발 경쟁력이 높은 국내 화장품 제조사와 협업이 유망함

- 한류 열풍과 이에따른 K-Beauty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식 화장법과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색조화장 위주의 주요 화장품 생산 기업들의 국내 진출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

○ 관련 산업 동향

- 색조분야 화장품 OEM/ODM 세계 1위 기업인 伊 I社 한국을 자사의 스킨케어 연구개발·생산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증액투자를 시행함(14백만 달러 규모)
- 또한, KOTRA와 협업으로 증액투자에 따른 신규 인력채용(10명 내외)을 함께 진행 중이며, 경기도청과 투자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협력 등을 강화

(3) 제약/바이오

○ 선정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단키트, 백신 및 치료제 등 방역관련 제약/바이오 분야 협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제약분야에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기술력이 높아 적합한 파트너로 파악됨
- 현재 伊 1위 제약사인 Menarini SpA가 국내 투자진출 하여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높은 매출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Chiesi SpA, Angelini SpA 등 유력기업이 다수 있어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산업 동향

- '19년 伊 제약사 의약품 생산액은 340억 유로로 EU내 1위를 기록하였고, 수출액은 340억 유로, 수입은 289억 유로를 기록
- 현재 이탈리아 제약사는 전세계 신약개발 건수의 7,000여건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암치료제, 알츠하이머 분야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21년 개최 주요 전시회 한국관 연계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밀라노무역관 운영예정, 한국관 개설 전시회 대상 투자유치 활동전개

<'21년 이탈리아 내 KOTRA 한국관 참가예정 전시회>

연번	전시회명	개최지	개최기간	분야
1	볼로냐 뷰티 전시회	볼로냐	5월중(잠정)	미용/화장품
2	밀라노 소비재 전시회	밀라노	9월중(잠정)	고급소비재
3	밀라노 광학 전시회	밀라노	6월중(잠정)	안경/선글라스
4	밀라노 추계 유니카 섬유 전시회	밀라노	7월중(잠정)	섬유
5	밀라노 춘계 유니카 섬유 전시회	밀라노	1월중(잠정)	섬유
6	밀라노 공작기계 전시회	밀라노	10월중(잠정)	공작기계
7	세계 원료의약품 전시회	밀라노	8월중(잠정)	제약/바이오

* 주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개최기간 변동 가능

11 스위스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스위스의 해외직접투자는 '19년 들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 차관 회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하였음(- 421억 스위스프랑 (약 - 476억 달러 규모))

* 1 스위스프랑(CHF) = 1.13미불 (US\$) 적용 (2020.12.28일 UBS은행 환율 기준)

<스위스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단위 : 스위스프랑,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Flow	196억 (US\$ 222억)	437억 (US\$ 494억)	-421억 (US\$ -476억)
Stock	13,845억 (US\$ 15,645억)	14,603억 (US\$ 16,501억)	14,451억 (US\$ 16,330억)

* 자료원 : 스위스 중앙은행 (SNB)

** 주 : 동 조사 내 스위스프랑(CHF)과 미달러(USD) 환율은 다음의 수치를 적용 → CHF 1 = US\$ 1.13 (2020.12.28일 UBS은행 환율 기준)

- '20년 통계는 '21년 연말에야 공식 발표될 예정이나, 스위스 중앙은행(SNB)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국제수지 자료에 입각하면 3분기까지 - 608억 스위스프랑 (약 - 687억 달러)까지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함(잠정수치)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스위스 경제청(SECO)은 '21년 3%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으로 해외투자 위축 추세는 '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스위스 중앙은행(SNB)에 따르면, 스위스기업들의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 내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362억 스위스프랑(약 - 409억 달러)). 특히 룩셈부르크(-440억 스위스프랑 (약 - 497억 달러))와 아일랜드(-353억 스위스프랑(-399억 달러))에서의 투자 철회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아시아(-78억 스위스프랑(약 -88억 달러)), 중남미(-112억 스위스프랑(약 -127억 달러))로의 투자도 감소함. 아시아지역에서는 싱가포르(-49억 스위스프랑(약 -55억 달러))에서의 투자가 특히 감소함
- 반면 북미로는 107억 스위스프랑(약 121억 달러)의 투자 증가가 있었음
- 산업별
 - 특히 서비스업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지분투자 회수로 투자 감소가 컸음 (-527억 스위스프랑(약 -596억 달러)). 그 밖에 무역업의 경우 -270억 스위스프랑(약 -305억 달러), 금융업 및 지주회사분야 -200억 스위스프랑(약 -226억 달러) 등의 해외투자 감소가 있었음
 - 반면 제조업은 106억 스위스프랑(약 120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증가세를 보임

■ 스위스 투자유형 및 특징

- 스위스는 EU 등 인근 유럽국가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바,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유럽내 투자가 선호됨. 유럽내 투자는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19년 해외투자 누계(Stock) 통계 기준으로 57%에 달함
- 기타 지역 비중 : 북미(23%), 남미(10%), 아시아 비중(7.7%)
- 또한 스위스는 금융계가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서, 금융 및 지주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음. '19년 스위스 해외투자 누계(Stock) 총 금액(14,450억 스위스프랑(약 16,329억 달러)) 중 금융 및 지주회사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함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스위스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20년 스위스 기업들의 대한투자는 11월까지 누적기준, 86.4백만 달러 투자 규모를 감안할때 '19년 대비 약세가 예상됨
 - 지난 5년간 투자규모의 등하락세가 격년주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20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위스 기업들의 해외투자 심리 위축이 투자 감소의 주원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상됨

<스위스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75	226	107	185	87
신고건수	39	35	29	34	22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스위스기업의 대한 투자는 도, 소매 유통업, 의약, 화공, 연구개발, 기타 제조업,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정보통신, 전기 및 전자, 기계장비 및 의료정밀 등 특정분야로의 집중 없이 매우 분산되어 있음
- 투자금액으로 볼때 '20년의 주요 투자분야는 화공(59백만 달러), 전기, 전자(11백만 달러),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6백만 달러), 기계장비 및 의료정밀(5.8백만 달러), 연구개발(3.8백만 달러) 등임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대외경제 의존도가 큰 스위스산업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1년에도 경영여건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한투자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전반에 걸친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보편화되고 스위스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상황이 안정 추세로 접어들 경우, 특히 제조업분야 위주로 대한 신규 투자 및 증액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스위스의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한해 내내 지속되는 가운데서, 내수, 국내외 투자, 국제교역, 고용 등 경제전반에 걸쳐 성장 감소세를 보임
- 스위스 경제청(SECO)은 스위스경제가 '20년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도 국가의 경제개입이 가장 작은 시장 중 하나로, 자유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투자 관련 스위스 정부의 특별한 정책은 관찰되지 않음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 스위스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기인한 스위스 및 국제경제 위축에 따라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제조업 위주로 점차적인 회복세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임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재무투자

○ 선정배경

- 스위스는 금융산업이 전통적으로 매우 발달한 국가로, UBS, Credit Suisse 등 국제적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프라이빗 뱅킹,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지주회사 등 재무투자가가 입지에 있음
- 이들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투자 혹은 스위스를 거쳐 제3국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활발함
- 또한 자본력이 막강한 다수의 스위스 연금재단들이 연금 비축금을 증액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등 스위스 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스위스 중앙은행(SNB)에 따르면, 스위스의 해외 재무투자는 '20년 들어 3분기까지 189억 스위스프랑(약 2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경제에 있어 스위스는 인근 유럽국가에 의존도가 높아, 재무투자의 선호 대상지는 아직은 유럽임. 그러나 투자대상지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의 측면에서 정치 및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경제 및 산업발전이 꾸준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임

(2) 바이오

○ 선정배경

- 스위스는 노바티스, 로슈, 론자 등 세계적인 의약품 제조사들과 관련 바이오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보유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임
- 코로나, 에볼라 등 팬데믹의 영향, 바이오 및 IT 기술의 융합에 따른 시장 여건의 급속한 변화, 세계 각국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기반한 국제경쟁 강화에 기인하여 스위스 바이오산업의 유망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공개 발표된 가장 최근 수치인 '18년 및 '19년 의약품이 주를 이루는 화학분야 해외투자는 각각 145억 스위스프랑(약 164억 달러) 및 123억 스위스프랑(약 139억 달러)에 이릅니다
- 누적기준으로는, '18년 및 '19년 각각 1,863억 스위스프랑(약 2,105억 달러) 및 1,769억 스위스프랑(약 1,999억 달러)으로, 스위스 전체 해외투자의 12.8% 및 12.2%에 달함
- 스위스시장에서 우리 바이오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어 '20년 N社 바이오 벤처의 국내 업체 큐어바이오 지분취득과 같은 대한투자가 '21년에도 계속 예상됨

(3) 핀테크/블록체인

○ 선정배경

- 막강한 자본력에 힘입어 스위스에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특히 Crypto Valley인 칸톤 Zug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산업 클러스터가 급성장하고 있음. Fintechnews.ch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약 750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으며, 이 중 51%인 383개의 업체가 칸톤 Zug에 소재하고 있음
- 또한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가치의 20%가 스위스 50대 블록체인 기업들로부터 창출된다고 함

○ 관련 산업 동향

- 스위스 블록체인 기업들 중 점차 스위스 및 유럽을 넘어서 제3국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ICT 인프라가 훌륭하고 우수인재가 풍부한 만큼 스위스기업들의 투자 관심은 존재하며,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질지는 국내의 관련 규제완화 동향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잠정)

○ O2O 재무투자 웨비나

- 스위스 내 사모펀드, 연금운영기관 등 재무투자자와 국내 유망 사모펀드간에 세미나와 화상상담을 연간 약 2-3회에 걸쳐 개최
- 국내 신성장동력산업 등 자본 유치 계기 마련
-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 추진 예정

○ 스위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사업

- 오픈 이노베이션을 운영하는 스위스 대기업 벤처캐피탈(CVC)을 접촉하여 수요 파악후, 관련분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피칭 및 화상상담 개최를 예정 중

○ Impulse Korea(잠정)

- 한국산업 홍보 및 투자 IR 설명회로, '18년 및 '19년 2회에 걸쳐 스위스 무역투자진흥기관(S-GE)과 공동 개최함
- '20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함
- '21년 개최여부, 일정 및 주제는 스위스 무역투자진흥기관(S-GE)과의 논의 이후 확정 예정

12 벨기에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벨기에의 해외직접투자는 '17년 250억 유로에서 '18년 318억 유로, '19년 321억 유로로 상승세를 보임
 - 다만 '20년 3분기 기준 투자액은 211억 유로로, 전년 동기(243억 유로)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벨기에 경제는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 감소, 공급망 훼손,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금년 8.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투자는 금년 중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요 불확실성, △영국과의 호혜적인 무역관계 약화, △공급망 재구성 등으로 기업투자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 다만, 주택 및 공공투자 중심의 반등세 전망
- * 자료원 : EU집행위 추계 경제전망, 벨기에중앙은행(NBB) 보도자료, 대사관 경제전망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3분기)
25,035 (US\$ 30,893M)	31,888 (US\$ 39,350M)	32,169 (US\$ 39,697M)	21,107 (US\$ 25,962M)

* 자료원 : 벨기에중앙은행(NBB)

** 주 : 1EUR = 1.23USD 환율 적용(2021년1월 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벨기에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럽지역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음. 이외에 미주 투자는 무역분쟁 동향에 따른 편차가 크나, 아시아·아프리카 투자는 안정적임
 - '19년 기준, 유럽 내 주요 투자처는 영국(88억 유로) 룩셈부르크(67억 유로), 네덜란드(58억 유로), 프랑스(22억 유로), 독일(13억 유로) 순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아시아의 경우, 홍콩(3억 유로), 일본(2억 유로), 중국(5천만 유로) 순으로 투자
- * 한국 등 그 외 아시아 국가는 벨기에 은행 FDI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파악 불가

<대륙별 해외직접투자(FDI outward) 금액>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	유럽	21,825	30,457	29,082
2	아시아	1,211	1,505	1,410
3	아메리카	1,176	-457	1,315
4	오세아니아	598	26	216
5	아프리카	225	357	146
총합계		25,035	31,888	32,169

*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NBB)

○ 산업별

- 벨기에는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OECD 평균치 57%를 상회. 벨기에 내 수출주도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는 해외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서비스 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70% 이상을 차지
- 서비스 산업 내에서는 부동산 임대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투자가 123억 유로(54%)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금융 73억 유로(32%), 도매 및 수리 25억 유로(11%), 정보·통신 2억 유로(0.8%) 순임
- 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건축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10월 출범한 벨기에 신정부는 코로나19 경기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에너지 전환 부문의 공공 투자를 확대할 전망

* 자료원 : OECD 벨기에 경제전망 보고서('20.12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FDI outward) 금액>

(단위 : 백만 유로)

산업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임업·어업	4	2	-1
광업	1,423	766	2,109
제조업	-624	3,074	3,720
에너지	723	1,117	1,804
건설	89	201	69
서비스	21,936	24,295	22,731
기타	1,484	2,433	1,737
총합계	25,035	31,888	32,169

*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NBB)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벨기에의 대한투자는 인근국(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을 경유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직관적인 확인이 어려우나, 통계상 '20년 3분기까지의 벨기에 투자신고액은 80만 달러로, 전년에 이어 큰 감소폭을 보임.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92	58	178	70	1
신고건수	5	10	8	2	5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벨기에의 주력 산업은 화학과 제약·바이오 분야로, 최근의 대한 투자는 화학 소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짐
- '20년의 경우, 이차전지 원재료 분야를 중심으로 물류,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짐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벨기에 기업은 화학·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양질의 중·대형 투자가 지속되어 왔음
- 다만, 전략 기술 및 핵심 자산의 역외 유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역내 투자 압박이 가중되어, 역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벨기에는 유럽재정위기('08) 이후 처음으로 8.4%의 역성장 예상, '21년 성장률 전망치는 4.1%로 '21년~'22년에도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

- 벨기에 중앙은행은 기업 투자가 '20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4 수준으로 감소했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회복세는 매우 더딜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최근 합의된 EU-중국의 투자협정('20.12.30) 발효 시 통신·바이오·금융·전기차 등 부문에서 EU의 對중국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으로, 아시아 내 투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 상존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제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하거나 아시아 시장의 진출 거점 구축을 염두에 둔 투자가 주를 이룸
 - '20년의 경우,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유미코아(Umicore)사에서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약 3,000만 달러를 투자, 연구·개발 센터 신축. 유미코아사는 1999년에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후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으며, 폭증하는 전기차 및 수소차 수요를 감안하여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밝힘. 향후 첨단산업 밸류체인 편입을 위한 투자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화학

- 선정배경
 - 벨기에의 대한민국 투자는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첨단 소재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화학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밸류체인 확대가 예상됨
- 관련 산업 동향
 - 벨기에 관련 산업클러스터에 전 세계 글로벌 화학 기업의 3/4이 소재해있으며, 720개 이상의 진출 화학기업이 약 30만명을 고용 중. '19년 기준, 벨기에 화학 산업의 총 매출액은 651억 유로로, 국민 1인당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판매량은 세계 1위를 기록
 - 전 세계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5년 경, 약 71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10대 제조사 중 한국 기업이 3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Statista, Projected size of the global lithium-ion battery market(2018)

** Statista, Lithium-ion battery production capacity by 2028(2019)

(2) 의료바이오

○ 선정배경

- 동 산업계 글로벌 30대 기업 중 29개사가 벨기에에 진출해있으며, 유럽 내 바이오테크기업 시가총액의 약 23%를 점유. '19년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액은 466억 유로 규모로,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벨기에의 전략 산업임

○ 관련 산업 동향

- 벨기에의 의료바이오(제약) R&D 투자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년 주요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38억 유로 이상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2018) 대비 7.7%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금액
- 아울러 벨기에에는 유럽 내 의료바이오 중심 국가로,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추가 유치했으며, 생산설비 증대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 역시 증가 추세임
- '18년 기준, 한국은 세계2위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180만L)을 갖추고 있으며, 신약 기술 수출액은 약 5조3천억원에 이름. 한국 정부는 2021년에 1조 7천억원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비로 투입할 예정. 이처럼 K-바이오 육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시장 진출 및 적격 파트너 발굴, 공동R&D 등을 위한 투자 수요가 예상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3) 금융

○ 선정배경

- 벨기에 투자는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19년 기준, 금융 산업 투자액은 73억 유로로, 전체 서비스 산업 투자액의 32%를 차지
- 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아시아 시장은 유럽 재무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여 최근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기업이 한국 내 자산운용사를 통한 리츠·여신금융 투자 증가

○ 관련 산업 동향

-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에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유럽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 원동력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강조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 등 그린 투자 활성화 기대

* ('20.12) EY한영, 韓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 지수(RECAI) 2020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주요 40개 국가 중 투자 매력도 13위 기록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잠정) [한-EU 그린 커넥션] 벨기에 화학·투자 유치 세미나

- 시기 및 형태 : '21년 2분기 / 웨비나 및 화상상담
- 내용 : 한국 투자환경 및 화학산업, 저탄소 전환 추진 동향 소개
- 협업 : 벨기에화학바이오협회(에센시아) 등
- 참석 : (국내) InvestKorea, 지자체, 유관 협단체
(해외) 벨기에화학바이오협회, 해당산업 기업 및 잠재투자가 50개사
- 프로그램(안)

시간	주요내용
5'	• 개회사
5'	• 축사
20'	• 한국 투자환경 및 화학산업 동향
20'	• 유럽 그린딜과 지속가능한 화학전략
20'	• 한국 탄소중립 추진전략 - 화학산업 저탄소 전환 촉진 전략
20'	• 한국 수소경제 로드맵과 추진전략
20'	• 수소연료전지산업클러스터 추진현황
5'	Q&A

13 오스트리아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2019년까지의 Outbound FDI 수치만 공개
 - '19년까지 Outbound FDI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지배적
 - 상반기에 1차, 하반기에 2차 락다운을 실시하는 등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이 중단된 점 감안시, '20년 OFDI의 기록도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유럽 투자은행(EIB)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기업의 54%가 팬데믹 이후 투자를 전년대비 감소시켰다고 답변
 - 동일답변을 한 유럽기업 평균치가 45%임을 참고 시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투자가 EU 내에서도 적은 것으로 확인
 -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기업들은 혁신보다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IB는 이러한 투자 감소세가 기업들의 미래전망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
 - 백신접종이 '20.12.27일자로 개시되어 위기극복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으나, 타국에 비해 접종 속도가 느려 우려의 목소리 공존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유로,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e)
EUR 199,122 (US\$ 162,974)	EUR 209,177 (US\$ 171,204)	N.A.	N.A.

* 자료원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

** 주 : US\$ 1 = EUR 0.82 환율 적용(2021.1.5. Bank Austria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지역별 Outbound FDI Stock						채용인원	
지역	2018	2019	+/-	비중 2018	비중 2019	비중 2018	비중 2019
유럽	163,958	167,460	3,502	82.34%	80.06%	721,385	78.98%
아메리카	15,583	16,694	1,111	7.83%	7.98%	108,838	11.92%
아시아	15,504	20,691	5,187	7.79%	9.89%	65,446	7.17%
아프리카	903	987	84	0.45%	0.47%	15,937	1.74%
오세아니아	3,174	3,345	171	1.59%	1.60%	1,749	0.19%
글로벌	199,122	209,177	10,055	100.00%	100.00%	913,355	100.00%

* 자료원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

** 단위 : EUR 백만(FDI Stock)

국가별 Outbound FDI Stock - 상위 5개국						채용인원	
국가	2018	2019	+/-	비중 2018	비중 2019	비중 2018	비중 2019
네덜란드	29,431	36,626	7,195	14.78%	17.51%	3,151	0.44%
독일	28,939	31,554	2,615	14.53%	15.08%	73,846	10.24%
체코	12,768	13,417	649	6.41%	6.41%	96,931	13.44%
미국	11,559	12,284	725	5.80%	5.87%	48,777	6.76%
UAE	6,118	8,859	2,741	3.07%	4.24%	4,786	0.66%

* 자료원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

** 단위 : EUR 백만(FDI Stock)

- 유럽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은 Outbound FDI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 독일, 체코가 38%로 단일국 순위 선두
- 비유럽 국가로 미국 및 UAE가 유의미한 실적 기록
- 네덜란드는 근무인력 비중이 Outbound FDI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동유럽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세 돌입

○ 산업별

산업별 Outbound FDI Stock				
산업군	금액		비중	
	2018	2019	2018	2019
농업, 광업	6,137	8,793	3.08%	4.20%
식음료, 담배	1,604	1,546	0.81%	0.74%
의료, 가족	539	672	0.27%	0.32%
임업, 제지업, 인쇄업	6,779	7,213	3.40%	3.45%
화학, 플라스틱, 제약	12,701	13,536	6.38%	6.47%
유리, 석재	4,258	4,474	2.14%	2.14%
철강	4,140	4,143	2.08%	1.98%
전기전자, 광학	3,377	3,826	1.70%	1.83%
기계	4,170	4,015	2.09%	1.92%
자동차	4,483	5,030	2.25%	2.40%
수리 등 기타 제품	967	776	0.49%	0.37%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2,569	2,780	1.29%	1.33%
건축	3,826	4,225	1.92%	2.02%
무역	27,509	25,955	13.82%	12.41%
교통, 물류	1,490	1,353	0.75%	0.65%
호텔, 식당	358	441	0.18%	0.21%
IT	2,924	3,279	1.47%	1.57%
금융, 보험업	64,508	61,241	32.40%	29.28%
부동산, 토지	6,249	6,631	3.14%	3.17%
전문 서비스업(과학, 기술)	34,816	42,995	17.48%	20.55%
기타 서비스업	2,486	2,699	1.25%	1.29%
공공, 민간 서비스업	3,233	3,449	1.62%	1.65%
기타	0	104		
총계	199,122	209,177	100.00%	100.00%

* 자료원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

** 단위 : EUR 백만(FDI Stock)

- 금융 및 보험업이 29.28%로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해외 투자산업으로 분류
- 전문 서비스업, 무역, 화학산업 상위권 차지
- Schramboeck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에 “디지털화 마스터플랜”을 완성했으며 디지털화가 현 정부의 핵심분야이므로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디지털화, 자동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중요한 분야로 판단 (Boston Consulting 보고서(2020.9월))
- 구조적으로 전통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분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IT와 같이 프로젝트 중심 및 공동사용 서비스센터 아웃소싱 투자활동 증가

* 자료 : WIIW(국제경제비교연구소) '19년 조사내용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판매법인 설립 및 소액 확장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형태 다수
 - 물류기업 G사, IT기업 C사 등 신규법인 설립 또는 증액투자 감행
- '18년 B사(화학) 대형 M&A, '19~20년 Z사(헤드라이트) R&D센터 투자
 - 분야 불문 글로벌 대기업 중심 對韓 대규모 투자 소수 집계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규모면에서 對韓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글로벌기업 중심의 대형 투자신고건 확인
 - 최근 5개년 기준 B사의 USD 4.9천만 M&A는 역대 최고액 기록
 - 대부분 판매법인 설립 등 1백만불 이하 투자신고건 중심의 동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세 예상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1	8	50	5	26
신고건수	6	5	4	6	11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자동차/부품) 오스트리아 핵심산업으로 최근 LG전자에서 인수한 Z社(헤드라이트)와의 연구개발 소통강화를 위해 인천에 Z社 설립
 - (물류) 동유럽 물류허브로 물류/유통산업 발달
 - Cargo Partner사, Gebrueder Weiss사 등이 아시아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관심 다대
 - (소비재/기타) 최근 한국 내 오스트리아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진출 예상
 - 오스트리아산 맥주, 조미료, 제빵 등 매출액 증가로 한국시장 진출 검토 기대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투자추이) 오스트리아의 대한 투자는 '18년의 B社 M&A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천만불 이하의 금액 유지
- 법인설립 및 소액 증액투자 중심의 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나, B社 M&A 및 Z社 한국 R&D 본부 설립 이후 후속투자 차원의 1백만불 이상 투자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1년 전망) 주재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그린에너지 분야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대형 투자건의 후속투자 기대
- 미처분이익잉여금 법률 제정으로 한국법인 cash flow로 공장증축에 투자한 기업의 내역도 집계될 경우 투자건수/신고금액 증가 예상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 관련 정책

- 주재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T와 기후보호 중점의 정책추진
- 환경교통부는 특히 2021년 기후보호 예산에 역대 가장 높은 금액 배정하여 현지언론에서 주목
- 정부는 또한 환경보호, 디지털화, 건강과 라이프 사이언스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발표해 추후 주재국의 국가전략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당관이 접촉한 바,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업들은 단축근무 보조금 및 기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AT&S사(반도체), Semperit사(고무 및 고무장갑) 등 일부 기업은 매출 증가를 경험하며 투자 증가 확인
- (화학/소재) 고무기업 Semperit사는 '19년까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회생
 - * '20.12월 독일 플라스틱 마감재 기업 M&R사 인수 발표
- (화학/소재) 소재기업 Lenzing사, '19년 태국에 세계 최고규모의 라이오셀 생산공장 설립
- (반도체) AT&S사, 사업환경 호재로 중국 상하이와 충칭 제조시설 확장투자
 - * 중국공장에 4천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안산공장도 '20년 제2공장 증축 완료('19.12월, 약 USD 3천만 규모의 투자 발표)
- (물류) G社 '18년 투자가 방문상담 시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나, '20.6월에서야 서울법인을 개설하며 본격 진출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로봇/산업자동화

- 선정배경
 - 국제로봇협회(IFR)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전세계 밀집도 순위에서 14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내 상위권 차지
 - * 특히 산업자동화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분류
 - 현 정부는 디지털화를 전담하는 부처(디지털경제부)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어 미래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산업자동화 선도기업 B사와 S사는 경제위기 속에서 타격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사업확장 추진
 - * 양사 모두 IKW 2020 온라인 상담에 참가하며 국내 파트너 발굴 및 지원기관 모색
 - * 다양한 국내파트너와의 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투자진출 전망 긍정적
 - 현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EU 차원의 경제 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마련으로 동 산업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2) 자동차(자율주행, e모빌리티 등)

- 선정배경
 - 현 정부의 2021~2024 예산안 내 육성계획이 반영되는 등 전략산업으로 분류
 - 자동차산업은 오스트리아 대표 산업으로 Magna Group, ZKW 등 다양한 기업 소재
 - 지난 20년간 생산량은 3배, 종사자수는 55% 이상 증가했으며 차량 수출비중은 90% 이상(자국 2번째로 큰 수출산업)을 차지하는 등 주재국 핵심산업
- 관련 산업 동향
 - Fisker, 자사 E-SUV 오스트리아 그라쯔에서 연 5만대 생산 확정
 - BMW, 모터장비 생산시설 오스트리아 Steyr시로 이전 발표
 - M社의 한국 합작법인 위아마그나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사업 확대 시 투자 가능성 높음
 - Z社, '19년 인천에 R&D법인 설립 및 확대투자 지속

(3) 화학

○ 선정배경

- 화학산업은 오스트리아 전체 근무인력의 11.4%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 GDP 내 14.8%의 가치창출, 전체 R&D 지출의 18.3%를 차지하는 대표산업임
- 오스트리아 화학산업협회(FCIO)에 따르면, 약 250개사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70% 이상의 높은 수출비중은 해당산업의 글로벌 협력수준을 잘 드러냄

○ 관련 산업 동향

- 글로벌기업 B社は '18년 한국기업 M&A를 통해 동북아 거점을 한국에 설립하여 지속적인 후속투자 진행
- 스마트한 제품과 원재료 공급을 목표로 하는 "Smart Chemistry"와 바이오 매스에 집중하는 "Green Chemistry" 트렌드가 최근 핵심 키워드
- 주재국의 전체 수출 중 약 66%는 유럽이 차지하며 특히 독일에 의존적인 수출구조 보유(CHEManager 분석자료)
- 두 번째로 큰 주재국 주요 산업으로 지속적인 R&D 투자 및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책에 힘입어 향후에도 해외투자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정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Linz Exporttag 연계 라운드테이블('21.11월(잠정))

- 매년 정기적으로 Upper Austria주 내 최대 기업인 행사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로 협업 지자체에 따라 타겟기업 변경

☞ Linz Exporttag 기업인행사 개요

- 일시/주관 : 매년 11월 / WKO OOE(Upper Austria주 상공회의소)
- 규모 : 수출기업인 1,000명 등 Upper Austria주 최대의 기업인 행사
- 프로그램 : 현지 수출기업인 대상 각국 파견 상무관의 1:1 수출컨설팅, 수출지원 기관 부스전시 등 현지기업 해외진출지원 전반

○ Top 500기업 DB 구축(연간)

- 현지 산업잡지 Trend에서 발표하는 자국 최고기업 Top 500 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담당자와 아시아시장 진출의향 조사 진행

○ Wien Exporttag 내 현지기업 화상상담 컨설팅('21.6월(잠정))

- 코로나19로 온라인 진행이 예상되는 오스트리아 내 최대 기업인 행사로 주최 기관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킹 기능과 화상상담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모션 추진

14 중국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년 1~11월 중국 해외 직접투자 총액은 US\$ 950.8억(전년대비 30.6%감소)
 - 그 중 對 해외기업 투자는 3.7% 감소 (169개국(지역)의 6,212개 해외기업)
 - 제조업 투자금액은 US\$ 157.6억으로 총 투자액의 16.6%를 차지하며 도소매, 전/열력생산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업은 각각 전년대비 28.4%, 12.2%, 7.4% 증가
 - 지방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US\$ 698억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그 중 동부, 서부지역은 전년대비 각각 16.3%, 4.3% 증가
 - 일대일로 연선 57개 국가에 대한 비금융 분야 투자액은 US\$ 159.6억으로 총 투자액의 16.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4.9% 증가. 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레이트, 방글라데시 등에 투자함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중국의 경제 회복과 해외 밸류체인 재구축·확장 전략에 따라 해외 투자도 2019년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분야인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오락 등 투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1~11월)	2021(e)
US\$ 1,430.4	US\$ 1,369.1	US\$ 950.8	US\$ 1,400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 공보

** 주 : RMB 1=US\$0.1549 환율 적용(2020.12월 중국은행 환율기준)
('18~'19년)주재국 발표 통계자료는 달러 표시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9년 기준)

○ 국별

- 홍콩에 대한 투자액이 905.5억 달러(비중 66.1%)로 1위이며, 이어서 버진아일랜드(86.8억 달러, 6.3%), 싱가포르(48.3억 달러, 3.5%), 네덜란드(38.9억 달러, 2.8%), 미국(38.1억 달러, 2.8%) 순서로 이루어짐

○ 산업별

- (임대/비즈니스 서비스) 투자규모는 US\$ 418.8억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총 투자액의 30.6% 차지
- (제조업) 투자규모는 US\$ 202.4억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액의 14.8% 차지. 주로 자동차 제조, 화학 및 제약, 통신설비 제조, 전기 기계 및 설비 제조, 철도/선박/항공 설비 및 운송 설비 제조 등 분야에 집중
- (금융업) 투자규모는 US\$ 199.5억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하였으며, 총 투자액의 14.6% 차지
- (도소매) 투자규모는 US\$ 194.1억으로 전년대비 59.1%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액의 14.2% 차지
- (기타산업) 광업, 교통운송 창고, 전력/열력/수력/가스의 생산 및 제공업, 건축업,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농/임/목/어업 분야의 투자액은 각 US\$ 51.3억, US\$ 38.8억, US\$ 38.7억, US\$ 37.8억, US\$ 34.3억, US\$ 34.2억, US\$ 24.4억임

* 자료원 :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베이징】

- 중국의 해외투자 형태는 지분투자, 수익 재투자, 채권투자 등으로 분류
- '19년 베이징 지역의 해외투자액은 82.7억 달러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전국 총 투자금액의 6.6% 차지
- '20년 1~11월 베이징시 신규 해외직접 투자액은 37.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

* 자료원 :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고, 베이징시상무청

【상하이】

- (투자 규모) 2020년 상반기 기준 상하이시 정부가 허가한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463건, 82.78억 달러임
 - (투자 형태) 지분인수(51.91억 달러(62.7%)), 법인신설(7.67억 달러(9.3%)), 해외 법인에 대한 증액투자(23.2억 달러(28%)) 순으로 이루어짐
 - (투자기업 유형) 해외투자는 국유기업과 외자기업보다 주로 민영기업 위주로 이루어짐(투자금액의 59.2%)
 - (지역) 동남아 국가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7.5억 달러, 해외투자 총 금액의 9.1% 차지)
- * 출처 :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광저우】

- 2020년 1~9월 광둥성 신규 협의 해외투자액은 9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15% 증가. 실질투자액은 1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08% 증가

【칭다오】

- 11월까지 산둥성 대외 투자는 안정적인 상승추세
 - 1~11월 산둥성은 “일대일로”, “신(新)·구(旧) 발전동력 전환”을 중심으로 대외투자 안정화 추진
 - 11월 기준 누적 투자 508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 그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 대상 실제 투자금액은 150.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 전체의 29.5% 차지
 - 국제 경제무역협작구를 구축 중이며, 13개 국제경제무역협작구에 31.2억 위안 투자
 - 1,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 131개 계약, 계약액 563.8억 위안
- * 자료원 : 산둥성 상무청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2020년(1~11월) 대한투자규모는 16억1320만달러 기록
- 주로 제조업, IT서비스업, 소비재, 문화콘텐츠, 물류업 등 분야에 투자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2,049	809	2,743	975	1,991
신고건수	770	564	508	548	397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베이징】

- '20년 베이징 관할지 소재 중국기업은 주로 IT서비스, 소비재, 방역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

① (프리미엄 소비재) 건강식품, 화장품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

* F社(화장품, 애완용품), H社(화장품), B社(건강식품) 등

② (비즈니스 서비스) 온라인 상품 판매 플랫폼(여행, 소비재) 및 IT 서비스(교육, 결제 시스템) 관련 투자 프로젝트

* F社(교육, 결제용 IT 서비스), X社(온라인 플랫폼), S社(온라인 플랫폼) 등

③ (방역·보건) 마스크용 부직포 공장 설립 투자 프로젝트 (T社)

【상하이】

- 제조업

① 상하이 인근 화동지역(상하이, 저장성, 장쑤성)은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로 최근 중국 제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이전, GVC 재편에 따른 한국기업과의 합작 수요 등 여러 요인으로 한국 제조업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② 2020년 MJ Technology의 한국 반도체기업 지분 추가인수, Jiangsu yoke Technology의 반도체 현지법인 인수 등 대규모 투자유치 사례가 있음

- (코로나 19 관련) 핀테크, 문화콘텐츠

- ① 상하이는 구매력이 가장 높아 금융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임. 금년도 코로나19를 계기로 핀테크,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였음
- ② 2020년 카카오페이-알리페이로부터 1600억원 투자유치, 청담러닝-신남양으로부터 70억원 투자유치를 받은 사례가 있음

【광저우】

- (문화콘텐츠) 텐센트는 ‘이미지프레임인베스트먼트(ImageFrame Investment (HK) Limited)’를 통해 ‘20년 9월 증액신고했으며, ‘21년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지속적인 증액투자가 예상됨
- (신소재) G社는 ‘20년 12월에 3천 8백만 달러 투자신고

【칭다오】

- 미중 무역분쟁으로 석유장비, 공구류, 파이프라인 등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제조공장 건설 검토 및 가동
- 반도체,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 등은 연구센터 설립 또는 인수합병 방식의 대한 투자 증가 추세 보임
- 물류/유통업 對韓 투자 여전히 강세 유지, 소액 투자 위주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 분야인 ICT, 하이테크제조 등의 분야에 투자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의 쌍순환 전략 하에서 중국 내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이후 해외 투자 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시장 재진입 및 중국 내 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하고자 하는 수요 예상 → 한국 기업과 중국 시장 진출을 전제로 한 기술협력 및 R&D 방식의 대한 투자 전망
-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따라 일부 중국 내 기업이 미국 이외의 제3국 시장을 찾고 있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1~3분기 중국 GDP는 72조2,786억 위안(약 11조1,9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성장하였으며, 이 중 55%의 비중을 차지한 3차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
- 사회소비재 매출은 27조3,324억 위안(약 4조2,3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하락
- 수출입 교역액은 23조1,200억(약 3조5,81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7% 성장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출이 12조7,100억 위안(약 1조9,68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 수입이 10조4,100억 위안(약 1조6,12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이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중국의 쌍순환 전략 및 RCEP 체결)
- *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상무부, 중국해관총서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베이징】

- (바이오분야) H社는 한국의 줄기세포 관련 분야에 투자 모색 중. 코로나19로 투자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2021년 상반기 내에 투자신고 예상
- (기계) N社(방사선 이용 수화물 검사 및 의료용 검진 장비 등 제조)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추진 중. 현재 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한국기업 물색, 2021년 상반기 투자신고 예상
- (소비재) 중국 내 에스테틱 체인 운영 및 화장품 판매를 하는 A社는 중국 내 판매를 위하여 기술이 우수한 한국 화장품 회사와의 협력을 희망, 유망 한국 화장품 회사에 투자 가능성 높음
- (IT서비스) B社는 한국과 중국의 관광 명소 입장권 및 체험권을 온라인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추진 중. 국내 법인 설립 혹은 국내 회사에 투자 할 의향이 있어 2021년 중 투자신고 예상

【상하이】

- L社(부동산 분야) : 제주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장기차관 프로젝트, C社 한국 자회사 증액, P社 한국 서울 남산인근 호텔 지분인수 프로젝트 진행 중
- J社(제조업 분야) : 한국 반도체산업 투자 프로젝트, H社의 한국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지분인수, 합작 프로젝트, K社 한국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진행 중
- T社(문화 콘텐츠 분야) : 한국 자회사 증액 투자 프로젝트, H社 한국 카툰 관련 법인 설립 및 카툰 산업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

【광저우】

- 최근 중국 기업의 대한투자는 게임, 문화콘텐츠, 핀테크 등의 분야가 활발하며 기존투자가 부동산 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데 비하여 그 영역이 광범위화 되고 있음
- 광둥성, 복건성 등지의 의료/바이오, 풍력발전, 광물 제련공장 등의 관련 잠재투자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한 제한으로 인해 대한투자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발전소 설립, 공장설립 등의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큼

【칭다오】

- 코로나19로 인한 방한 제한으로 투자유치 여건 악화, 그러나 일부 기 투자기업은 증액투자 지속
- (반도체) E社는 국내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2,000만 달러 규모 투자 추진 중
- (기계부품) M社는 외투설립 후 공장 가동 준비 중, 공장 가동 후 증액 투자 추진
- (소비재) J社는 국내에 분유제조 기업 설립 완료, 내년 증액투자 예정

■ 투자유치 유망분야

【베이징】

- 의약, 헬스케어(바이오)
 - 선정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헬스케어 육성정책 등 정부에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중

- 관련 산업 동향(대한투자 가능성 등) : 현재 중국 의료 관련 기술의 경우 일반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첨단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품질과 기술에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선진 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음
- 첨단 제조업(미래차)
 - 선정배경
 - ① 중국정부 측면에서 무인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②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중국 내 제조 기업들 중 해외 투자 이전 계획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관련 산업 동향(대한투자 가능성 등) : 전기자동차 및 부품, 리튬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등 협력이 진행 중이며 많은 현지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이 대한 투자관심도 많음
- IT 서비스업
 - 선정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도 크게 발전. 특히 온라인 교육, 온라인 상담 관련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음
 - 관련 산업 동향 : 모바일 페이나 알리페이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협력 투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상하이】

- 첨단 제조업
 - 선정배경 : 중국 제조업의 발달로 인한 선진기술을 도입코자 하는 투자수요가 높으며 실제 관련 무역관 문의도 다수 발생 중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① 중국 화동지역(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은 중국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며 다수 첨단장비, 자동차, 소비재 제조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 ② 특히 장쑤성의 경우 첨단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도 반도체, 첨단장비 제조기술 기업의 도입형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③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타 소비재 순으로 한국으로의 투자에 관심도가 높음

○ 헬스케어·바이오

- 선정배경 :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의 의료보건 인프라에 대한 정부, 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함
- 관련 산업 동향
 - ① 중국의 중산층 증가,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 노력으로 중국 의료 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며 2021년 시장가치는 8.2조 위안으로 전망됨
 - ② 대형 의약기업의 시장규모, 제품라인 확대를 위한 해외 직접투자(기술도입) 위주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핀테크, AI

- 선정배경 :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핀테크 도입에 성공하며 글로벌 기업이 된 두 기업은 최근 핀테크, 신물류, AI분야 등 미래산업분야에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2020년 상하이의 정보통신, 소프트 및 정보기술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최고치를 기록함. 상하이시 해외투자총액의 18.2% (15.09억 달러)

【광저우】

○ 문화콘텐츠

- (선정배경) 광둥성은 중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심지일뿐 아니라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 해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관련 산업 동향) 국내기업의 콘텐츠는 중국시장에서 오랜동안 시장경쟁력을 인정받아 왔기에 웹툰 플랫폼 등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협력투자 수요가 있음

○ IT

- (선정배경) 광둥성은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선전, 광저우, 둥관,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산업기지가 형성되어 신소재 및 광전기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중임
- (관련 산업 동향) 투자자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업 인수, 해외산업 구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바이오

- (선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헬스케어 육성정책 등 성 정부에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중
- (관련 산업 동향)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제조 등과 같은 첨단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칭다오】

○ 첨단장비

- 선정배경 : 산동의 첨단장비 제조업은 중국의 1/10을 차지하고 중치그룹(중형 자동차), 웨차이동력(디젤기관), 중차그룹(기차), 옌타이라이프스(선박) 등 대표 기업들은 다국적기업으로 많은 해외지사를 설립했음.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장비, 친환경장비 등 핵심기술과 부품 분야에 對韓 투자 가능성이 보임
- 관련 산업 동향
 - ①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를 보면 산동 소재 S社는 SKD방식으로 한국에 조립공장 설립, 한국 내수시장을 위주로 진행함
 - ② 석유장비, 금속 제품, 설비기기 등 제조 기업은 미중무역 분쟁을 피하고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생산공장 건설 검토 및 실시 중

○ 화학공업

- 선정배경 : 산동정유는 생산능력이 2억1,000만 톤으로 중국 정유산업의 28%를 차지하며 세계 3위의 산업단지임. 한국은 아시아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으로 세계 10대 정유공장 중 3곳이 한국에 있음. 산동성은 한국기업과 미세화공, 고분자재료 등의 분야에 협력을 통한 중고급 산업가치로의 도약 가능성 보임
- 관련 산업 동향
 - ① 산동 소재 H社는 국내 활성탄, 소프트카본 분야 기업 인수합병 후 증액투자 중, 추후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예상됨
 - ② 산동 소재 화학 신소재 분야 W社는 미중통상 분쟁으로 한국에 제조공장 설립 계획 검토 중

○ 의료건강

- 선정배경

- ① 산동성 인구는 1억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인구가 15.8%를 차지
- ② 고령화 및 소득증대에 따라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건강헬스 등 분야에 대한 합작 투자가 빠르게 증가

- 관련 산업 동향

- ① 일회용 주사기를 취급하는 W社は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에 무역법인 설립, 지속 증액투자 중
- ② 바이오 제약 분야에 Q社は 한국 합작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기술 지분 합작을 희망함
- ③ J社は 러닝머신을 취급하는 회사로 한국 FTA를 활용하여 한국 조립공장 설립 검토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베이징】

○ IR (온라인)

- 지자체 및 FEZ 협업을 통한 IR 개최, 중국 투자자에게 투자환경·정책·후속 지원 등을 소개하고, 기업 투자 상담 진행 예정

○ 전시회 연계 사업

- 제13회 중국대외투자협력상담회(일시 미정) 등 전시회와 연계 투자환경 홍보 및 잠재 투자를 발굴 예정

○ 온라인 투자홍보 및 정보 전파

- 위챗 및 하오칸 계정을 활용한 대한 투자 홍보 및 투자 관련 정보 전파

【상하이】

○ 주요 잠재 투자가 관련 조사

- 상하이 최신 투자동향 및 주요 투자가 DB 조사 수행

○ 전시회 및 박람회 연계 사업

- 2021년 상하이 반도체 전시회, 의약품 전시회, 플랫폼 디스플레이 전시회 등 세계적인 대규모 전시회 개최시 동 행사와 연계한 한국 투자환경 홍보 및 동행사 연계 투자행사 개최를 통한 주요 산업 투자가 전략적 발굴

○ 온라인 행사 1:1 상담회

- 코로나19 여파로 현장행사 개최의 한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투자 상담회 개최

【광저우】

- (IR) IK, 지자체, FEZ 협업을 통한 IR 개최, 중국 잠재 투자자에게 국내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향후 투자유치 달성으로 연계할 계획
 - 프로그램은 기업피칭, 지자체 발표 등으로 구성, 온라인으로 개최추진
- (해외전시회 연계사업) 광저우 국제금융교역회('21.6월), 2021 중국국제투자무역 상담회('21.9월) 등의 전시회와 연계 투자환경 홍보관 운영 및 잠재투자가 확대 발굴 예정

【칭다오】

- Global Health Forum of Boao Forum For Asia, Fair 연계 투자유치 활동(잠정)
 - (시기/타깃산업) 2021년 6월 / 의료기계, 바이오, 건강헬스 등
 - (내용) 지자체 홍보부스 및 국내 기업별 온라인 면담부스 운영
- 중일한 산업 박람회 연계 투자유치 활동(잠정)
 - (시기/타깃산업) 2021년 9월 / 소비재 위주
 - (내용) 국내 기업별 온라인 상담부스 운영

15 홍콩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UNCTA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홍콩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5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17년) US\$ 867억 → ('18년) US\$ 822억 → ('19년) US\$ 593억

- 이는 미중분쟁으로 인한 홍콩 경유 중국 본토 투자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홍콩 정부통계처에 따르면 '20년 1~3분기 홍콩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5조 4321억 홍콩달러를 기록해 '19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심리가 상당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9년 1~3분기 해외투자금액 : HK\$ 160,054억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중국 상하이, 선전 금융 시장의 점진적 개방으로 기존 홍콩을 경유해 해외로 나가던 중국 자본이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투자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홍콩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웨강아오대만구* 개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중-홍간 CEPA 등으로 홍콩은 향후에도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주요 투자국 지위는 유지

* 웨강아오대만구 : 웨(粵), 강(港), 아오(澳)란 각각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지칭하는 말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묶어 하나의 메가 경제권으로 조성하는 국가급 개발사업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HK\$백만)

2018년	2019년	2020년(1~3분기)	2021(e)
17,120,684 (US\$ 2,199,584백만)	16,186,933 (US\$ 2,079,620백만)	15,432,087 (US\$ 1,982,641백만)	N/A

* 자료원 : 홍콩 정부통계처 (<https://www.censtatd.gov.hk>)

Balance of Payment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nd External Debt Statistics of Hong Kong (2020.12.22)

** 주 : HK\$ 1 = US\$ 0.1285 환율 적용(2021.1.7 HSBC T/T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홍콩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최대 투자지역은 중국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44.7%를 차지. 이어서 버진아일랜드(34.8%), 케이만군도(4.1%), 버뮤다(3.1%) 순으로 해외 투자가 이뤄짐

○ 투자주체별

- 업종 중으로는 투자지주회사,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 업종이 총 10조 9천억 홍콩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77.6%를 차지했으며 무역, 유통업(8.6%), 은행업(3.1%), 보험업(2.9%), 제조업(2.4%)이 뒤를 이음

○ 산업별

- 해외에 투자한 산업으로는 ICT가 1조8천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29%를 차지했으며 투자지주,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업(24.55%), 은행업(12%), 제조업(11%), 무역업(9.67%)이 뒤를 이음

* 중국 본토 투자 기준만 집계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에 따라 광둥-홍콩-마카오 일대에 메가 경제권을 형성, 세계적인 IT·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실시 본격화
- 최근 웨강아오대만구는 연평균 7%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GDP의 13%, 수출량의 25%, 외국인 투자의 20% 점유
-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 및 광저우-선전-홍콩을 연결하는 광선강(廣深港) 고속철도 개통으로 경제통합 가속화
- 중국 일대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 성숙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중요 역할 수행 및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주력

*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잇는 슈퍼커넥터(Super Connector)로서의 입지 강화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홍콩의 대한투자 금액은 2017년 17.9억 달러, 2018년 15억 달러 2019년 19.1억 달러로 2016년 21.2억 달러로 최고금액을 경신한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9년도의 대한투자 금액은 27% 상승하였음. 반면, 투자 건수는 5개년 연속 감소함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2,118	1,792	1,503	1,912	1,117
신고건수	278	240	238	229	177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홍콩의 대한투자는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제조업이 뒤를 이음
 - * '20년 3분기 기준, 홍콩의 對韓 서비스업 투자 신고금액은, 745,233천 달러, 신고건수는 109건을 기록하였고, 제조업 투자에 대한 신고금액은 191,533천 달러, 신고건수는 24건을 기록함
- 서비스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부동산 순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2019년도 도·소매(유통) 산업에 대한 신고금액은 216,817천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네 배가 상승한 수치를 보였음
 - * 홍콩의 해외투자 77%가 투자지주,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업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대한투자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인 것으로 추정됨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홍콩 소재 글로벌 벤처캐피털, 사모펀드의 국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핀테크(예,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 전자상거래(무신사, 마켓컬리, 당근마켓), 물류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또 코로나 이후 우리 기업의 제조 역량, 기술에 대한 세계적 인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제조기업, 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홍콩정부는 기업의 재무센터에 세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국 본토기업의 홍콩을 경유한 제3국 투자진출이 장려됨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홍콩發 대한투자 중, A社-비바리퍼블리카, A社-카카오뱅크 등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가 늘고 있음
 -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해당 산업 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D社)
 - 국내 수도권 일대의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K社)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소비자 관련 기술 (Consumer Tech)

- 선정배경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핀테크 관련 기술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 현지 재무적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음
- 관련 산업 동향
 - 최근 비바리퍼블리카 '토스'의 증권업, 은행업 진출에 따른 외자 유치에 글로벌 재무적투자자의 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망 기술 보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음

(2) 콘텐츠산업 (Contents Industry)

- 선정배경
 - 한국 드라마, K-Pop, 게임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 국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의 넷플릭스 방영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수요 증대 및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내 한국 게임, 콘텐츠 수요 증가
- 관련 산업 동향
 - 국내 게임 스타트업 N사에 대한 투자 2천만달러 신고('20년) 등 신규 콘텐츠, 게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투자유치 행사
 - Asian Financial Forum, AVCJ Forum 등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금융, 투자행사에 참가하여 신규 글로벌 투자가 대상 대한 투자환경 홍보 및 추후 네트워킹을 통해 대한 투자 유도
- 전시회 연계 사업 등
 - 헬스케어, 바이오, IT 등 대한투자 관심도가 높은 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투자유치 IR 개최, 참가기업/투자가들의 대한투자 관심도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 고취

16 대만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투자액(1~11월)은 1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 '18년 227억 달러에서 '19년 110억 달러로 50% 이상 감소했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0년 회복세
 - * '20.12월 USD 35억 규모의 TSMC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년은 USD 170억을 상회할 전망
- 對중국 투자액(1~11월)은 56억 달러로 41% 차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
- 미국에 대한 투자액(1~11월)은 6.8억 달러로 중국, 홍콩, 영국령 카리브해 지역 다음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전년동기대비 60% 증가)
- 신남향 국가에 대한 투자액(1~11월)은 26억달러로 19%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대만은 양안관계 냉각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심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대만 정부에서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 체결 추진 의향을 적극 표시하고 있으며, '20.9월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경제번영네트워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
-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신남향정책' 기조 속에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대만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1~11월)	2021(e)
22,792,292	11,024,244	13,528,844	N/A

* 자료원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2021년 해외직접투자금액 전망치 발표자료는 없음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20.1~11월 기준)
 - 중국(56억 달러, 전체 41% 비중), 영국령 카리브해 지역(10억, 7%), 홍콩(9억, 6%), 미국(6.8억, 5%), 베트남(6.5억, 4%) 순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짐
 - 특히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면서 대만-미국 간 경제협력 강화추세를 반영
- 산업별('20.1~11월 기준)
 - (금융보험업) 투자규모 42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53% 비중 차지
 - (제조업) 투자규모 20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26% 비중 차지하며, 그 중 기계설비(2.6억), 컴퓨터·전자·광학제품(2.6억), 비금속광물제품(2.5억)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큼
 - (도소매업) 투자규모 8.9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11% 비중 차지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전통적으로 대만의 주요 투자처는 중국
 - '20년 1~11월 대만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56억 달러 중 31억 달러(56%)가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전자부품제조업이 14.9억 달러로 전체 중국 투자액에서 27% 비중 차지
 - * 1991년 對中 직접투자 허용 이래 2020년 6월까지 대만의 對中 투자액(누적)은 1,897억 달러로 같은 기간(1991~2020.6)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투자액(1,475억 달러)보다 많음
 -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유인은 노동력 수급과 조세 인센티브이며, 최근 중국의 조세 인센티브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 대만 정부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18년, 대만 해외투자기업 대상 실시)
- 대만 해외직접투자에서 금융보험업의 투자 비중이 50% 이상
 - '20년 1~11월 대만의 금융보험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별로 홍콩(7.2억 달러), 사모아(3.8억), 싱가포르(0.9억) 순으로 투자됨
 - 최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로의 업계 진출이 활발
 - * 대만 경제 일간지 공상시보가 조사한 '2020 아세안 1000대 대만 기업(2020版東協台商千大排名)' 리스트에 포함된 금융업 타이상(해외진출 대만기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114% 증가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1~11월 대한 투자규모는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13% 증가
- 최근 5년간 대만으로부터 신고금액 1억 달러 이상 유입된 해는 '16년(1.2억 달러)과 '18년(2.3억 달러)이며, '17년과 '19년에는 각각 3천만, 1천만 달러 기록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125	34	234	16	32
신고건수	35	30	49	24	31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금융보험) 대만 금융보험업계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증액투자 지속
 - * U社에서 한국 자회사 운용 목적으로 1천만 달러 증액투자
- (반도체) 반도체 부품의 한국 유통을 위한 지분투자 또는 신규회사 설립
 - * W社에서 한국 반도체 IC 유통업체 아나로그월드에 1천만 달러 지분투자
- (바이오) 한국 제약, 의료기기 시장을 타깃으로 신규 회사 설립 또는 지분투자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미국, 동남아에 대한 투자 관심도 대비 한국 투자 관심도는 상대적 약세
- 한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대만 정부의 국내 유턴 투자 우대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투자는 감소 예상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대만 경제는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민간 소비와 수출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2.54% 달성 예측
- 최근 국내외 기관별로 제시한 '21년 대만 경제성장률은 3% 초반~4% 초반대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대만 정부에서는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국내 투자확대를 위한 우대정책을 제시
 - * '해외진출기업 유턴 투자' 정책을 통해 중국 진출 업력 2년 이상, 미중 무역분쟁 피해업종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 확대 지원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 (U社) '19년 2억 달러 규모로 한국 응진식품을 인수한 대만 식품·유통 분야의 U社에서 한국 자회사 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중
 - * 사무소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로 인해 대만 본사에서 증액 투자할 가능성 있음
 - (G社) 한국 문화계정 모태펀드인 미시간팬아시아콘텐츠투자조합에 지분투자하는 유일한 외국계 기업으로, '19년~'20년간 1.6백만 달러 투자 신고
 - * 미시간팬아시아콘텐츠투자조합 펀드 만기는 '27.3월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금융보험업

- 선정배경
 - 최근 5년간 대한투자 규모가 가장 크고 꾸준히 증액투자가 이루어진 분야
- 관련 산업 동향
 - 대한투자는 인수합병보다는 사업 안정화를 위한 운용자금 투자 가능성이 큰 편

(2) ICT(정보통신기술)

- *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업, 통신업, IT서비스업을 포함
- 선정배경
 - 대만 전체 GDP의 18%를 차지하는 분야로, Quanta, Compal 등 글로벌 기업의 위탁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많음
- 관련 산업 동향
 - 한국 기업에 대한 판매, 유통, A/S 목적의 회사 설립 건이 다수

(3) 도소매업

- 선정배경
 - 한-대만 간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됨
- 관련 산업 동향
 - 한국 내 대만 식품 브랜드 유통을 위한 회사 설립 또는 지분투자 가능성 있음
 - * 대만 투자가로 구성된 밀크티 프랜차이즈(브랜드이니셜 :A) 기업의 한국 진출 검토중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한국투자설명회
 - 한국 투자 환경, 한국 투자 실무(법인설립·노무·세무), 추천 입지 소개
 -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가 다수를 초청하여 한국 투자유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타이베이무역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조사
 - 주재국 투자환경, 투자가 동향 등 투자유치 관련 지시조사 수행
- 스타트업 연계 사업
 - 한국 스타트업 참가 사업과 연계해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스타트업과 대만의 재무적 투자가간의 미팅기회 마련

17 일본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1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19년 일본의 대외직접 투자는 전년대비 57.1% 증가한 2,516억 달러로 기존 최대치인 2016년 1,785억 달러를 크게 경신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
- 투자형태별로 보면, 대외 인수합병 및 그린필드 투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식 자본'이 1,761억 달러로 전년대비 2.8배 규모로 급격히 확대됨
- 한편 해외 자회사의 내부유보에 해당하는 '수익 재투자'는 0.5% 증가한 644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2016년 이후 수익 재투자는 600억 달러 대를 유지 중임

○ 202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최근동향) 2019년 일본의 대외직접 투자의 급격한 확대에는 다케다약품공업의 샤이어 인수(769억 달러로 2019년 세계 최대규모 국제 M&A 사례)라는 특정 대형 M&A의 영향이 컸음. 해당 안건 효과가 사라진 2020년 1~9월 기간의 전체 대외 직접투자는 1,433억 달러에 머무름
- * 특히 하반기 이후로는 코로나 이슈가 본격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기 시작하며 1분기 501억 달러, 2분기 573억 달러이던 대외 직접투자가 3분기 들어 360억 달러로 급감함.
- (추후전망)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의 EU 탈퇴 마무리 절차 등 기존의 부정적 이슈 이외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초대형 장기 악재가 더해지며 '21년 이후 투자 전망은 불투명성이 크게 가중된 상황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9월)
173,768	160,147	251,550	143,343

* 자료원 : JETRO 직접투자 통계, JETRO 세계무역투자보고 2020

* 일본은행(BOJ)의 국제수지통계 수치(JPY 베이스)를 분기별로 BOJ 인터뱅크 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환산한 수치임.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지역별

- (유럽) 2019년에는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가 1,138억 달러로 전년대비 배증하며 전체 대외투자 중 45.3%를 차지함. 특히 아일랜드와 스위스에 대한 투자액이 급증했는데, 각기 다케다 제약의 샤페어 인수, 다이니혼 스미토모제약의 로이번트 사이언스 주식 매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대형 이슈가 배제된 2020년 1~3분기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투자 비중인 27.6%로 돌아감
- * EU 탈퇴 이슈가 작용하며 영국은 2019년부터 투자가 급감(전년대비 73.0% 감소한 75억 달러)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2020년에는 회수초과로 ▲8억 달러를 기록함
- (북미) 2019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6배에 해당하는 533억 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는 전년도의 대규모 투자회수(미국)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음. 6월의 일리노이의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9월의 도요타자동차의 텍사스 공장 투자 등 그린필드 투자도 확대됨. 2020년 들어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져 1~3분기 동안 421억 달러가 투자됐는데, 이는 해당 기간 일본의 전체 대외투자 중 29.4%에 해당함(2019년은 21.2%)
-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9년 571억 달러에 도달(전년대비 +3.5%). ASEAN(+7.1%), 중국(+11.1%), 인도(+31.0%)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ASEAN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2.7배에 해당하는 93억 달러로 확대됨. 이는 미츠비시 UFJ은행과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의 현지 금융주 매입 등이 배경임. 중국의 경우에는 11월 도요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연구개발회사 설립 발표, 4월 아이신(자동차부품)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생산회사 설립 등 자동차 부문이 투자를 주도함. 2020년 1~3분기 아시아 투자 총액은 341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전체 투자대비 비중은 2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지역별>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1~9월)
아시아	42,538	55,126	57,079	34,147
(중국)	12,417	11,196	12,438	9,200
(홍콩)	2,680	2,737	2,588	1,924
(대만)	1,202	1,582	1,162	1,506
(싱가포르)	1,830	4,366	2,372	1,247
(ASEAN)	22,569	31,927	34,185	18,619
북미	48,759	20,333	53,330	42,143
중남미	12,079	25,587	17,602	15,803
(멕시코)	1,313	1,315	916	704
(브라질)	▲1,661	1,801	2,320	2,464
오세아니아	5,448	1,864	10,963	16,057
유럽	61,131	54,767	113,827	39,629
(영국)	22,218	20,177	7,472	▲777
(네덜란드)	19,105	8,674	3,286	11,885
(독일)	4,228	5,038	12,687	1,958
(EU)	58,210	48,213	75,609	19,108
중동	2,096	766	▲12	75
아프리카	1,717	1,705	▲1,240	▲4,510

* 자료원 : JETRO 직접투자 통계, JETRO 세계무역투자보고 2020

* 일본은행(BOJ)의 국제수지통계 수치(JPY 베이스)를 분기별로 BOJ 인터뱅크 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환산한 수치임.

○ 산업별

- (제조업) 근년 들어 비제조업 부문이 투자를 견인하는 추세가 줄곧 이어졌으나, 2019년에는 샐리어 인수 등 대형 M&A 안건이 잇따르며 화학/의학, 수송기계, 정밀기계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제조업이 전년대비 89.3% 증가한 1,070억 달러를 기록함
- (비제조업) 근년 들어 통신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는 한편,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 특히 2019년에는 도/소매업 부문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전년대비 4.1배 가까운 545억 달러를 기록함

- (종합) 2020년은 상반기까지의 양상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은 식료품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438억 달러를 기록하며 '17~'18년 수준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짐. 반면 비제조업 부문은 상반기 투자총액이 198억 달러로 급감함. 특히 전년도부터 투자가 급감한 통신업 부문이 회수초과로 ▲290억 달러를 기록함. 2018년 이후 투자가 위축됐던 서비스업은 2년 만에 회수초과 상황을 벗어남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업종별>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1~6월)
제조업	55,367	56,493	106,951	43,846
(식료품)	10,143	655	5,463	14,127
(섬유)	817	1,712	779	258
(목재/펄프)	399	1,494	1,440	2,435
(화학/의학)	9,339	14,456	41,735	6,597
(석유)	188	597	391	236
(고무/가죽)	944	1,598	2,925	1,219
(유리/토석)	1,519	1,806	2,197	1,234
(철/비철/금속)	3,707	3,814	4,908	284
(일반기계)	9,242	7,321	6,918	2,525
(전기기계)	6,105	9,021	14,245	4,855
(수송기계)	8,443	10,949	20,911	8,242
(정밀기계)	2,898	1,133	2,908	1,061
비제조업	109,230	86,644	119,696	19,712
(농업/임업)	▲114	62	59	56
(어업/수산업)	51	59	54	36
(광업)	1,106	9,135	9,498	5,122
(건설업)	1,548	2,104	1,553	136
(운수업)	1,188	2,249	2,451	893
(통신업)	23,507	39,094	3,674	▲28,950
(도매업/소매업)	28,478	13,224	54,493	13,660
(금융업/보험업)	32,915	25,022	33,251	18,384
(부동산업)	6,465	4,182	10,906	1,957
(서비스업)	9,039	▲13,651	▲1,032	3,576

* 자료원 : JETRO 직접투자 통계

* 일본은행(BOJ)의 국제수지통계 수치(JPY 베이스)를 연간 BOJ 인터뱅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환산한 수치임.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20년 대한투자규모

- (과거추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17년에 전년대비 47.9%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어진 2018년에는 13.1억 달러, 2019년에는 14.3억 달러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함. 특히 2019년은 일본의 전체 대외투자가 57.0%나 늘어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무역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하며 전년대비 9.9%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최근동향) 2020년 1~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55.0% 감소한 5.1억 달러를 기록함. 1~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3분기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1.6% 감소한 0.5억 달러에 그침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1,245	1,842	1,301	1,430	727
신고건수	299	328	335	238	175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대한 투자가 반등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화공(2.7억 달러 → 0.6억 달러), 전기/전자(2.4억 달러 → 0.5억 달러)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71.4% 감소했음(9.7억 달러 → 2.8억 달러)
- 반면 서비스업(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19년에 전년 대비 80.4% 증가하여 11.4억 달러를 기록함. 도/소매가 1.2억 → 2.3억 달러로 91.6% 증가했고, 특히 금융/보험이 1.4억 → 7.1억 달러로 5배 넘게 급증했음.
-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1/14 수준인 400만 달러로 급감함
- (종합) 투자가 급감한 2020년 들어서는 제조업(1.1억 달러 / ▲51.4%)과 서비스업(4.0억 달러 / ▲55.7%)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형(3.2억 달러 / ▲45.6%)보다 인수합병형(1.9억 달러 / ▲65.4%)의 감소 폭이 더 큰 양상임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 직접투자 추이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농/축/수산/광업]	1	1	0	1
농/축/임업	1	0	0	1
어업	0	1	0	0
광업	0	0	0	0
[제조업]	663	966	662	276
식품	20	6	11	0
섬유/직물/의류	61	0	0	6
제지/목재	1	11	0	1
화학	271	262	113	63
의약	18	0	14	18
비금속 광물제품	2	0	127	3
금속/금속가공제품	4	321	63	5
기계장비/의료정밀	69	33	107	103
전기/전자	105	237	150	48
운송용 기계	62	27	15	12
기타 제조	50	68	61	17
[서비스업]	546	866	631	1,138
도/소매(유통)	237	164	119	228
숙박/음식점	29	62	82	15
운수/창고	9	18	10	4
정보통신	81	141	175	139
금융/보험	105	120	140	708
부동산	42	304	41	3
사업지원/임대	10	16	6	36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9	25	56	4
여가/스포츠/오락	4	1	1	0
공공/기타서비스	8	14	1	1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37	9	8	15
전기/가스	0	9	8	14
수도/하수/환경정화	9	0	0	0
종합건설	26	0	0	0
전문직별 공사	1	0	0	0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도쿄】

- 제조업이 모기업인 경우에는 입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이 거점이 되는 경우도 많으나, 서비스, 금융, 도/소매, IT 등의 경우에는 주로 도쿄 지역에 주요 사업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해외 전개도 활발함

【오사카】

- 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에서 증액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물류, 요식업 등 비제조업분야에서도 다소 움직임이 보임
- 제조업분야에서는 사업인프라 정비 및 증강을 위한 투자가, 비제조업분야에서는 역량강화 및 법인운영 원활화를 위한 투자가 각각 이루어짐
- * 제조업 : S社(화학), H社(자동차), G社(자동차부품) 등/ 비제조업 : S社(요식업), N社(물류)

【나고야】

- 도카이 3현, 호쿠리쿠 3현을 아우르는 일본 중부지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對韓 투자 진출이 강세를 보였음. 단 2020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 자동차부품, 기계 등의 투자도 둔화하였음
- 2020년 중 증액 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의료(콘택트렌즈), 식품분야였으며 신규로 의료(치과용품)분야 투자도 진행됨

【후쿠오카】

- 주요 투자 분야

투자가명	분야	투자금액(백만불)
P社	LED 조립 가공	20
A社	정밀기계 유지보수	5.9
I社	건축자재 제조	12

-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원료 및 부품을 수입 가공하여 일본 내수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 내 제조·물류 거점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 움직임 지속
- 정밀분야의 경우, 한-규슈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제품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점 설립 수요 존재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유망업종) 2019년 한일무역분쟁을 계기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기존 공급 관계가 해체됨. 한국의 자체 국산화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가 성과를 내는 한편, 미국 듀폰 등 제3의 외국기업이 한국 현지 생산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현지생산을 추진하기 시작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만큼, 관련된 일본 소재기업의 한국 현지생산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음
- (부진업종) 반면 소비재 부문은 한일무역분쟁에 따른 일본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음. 일본계 지분 50% 이상인 대표 소비재 기업 31개사의 2019년 실적은, 매출이 전년대비 6.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3% 급감함. 이에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GU는 한국시장으로부터 철수했고, 닛산 자동차도 2020년 7월에 철수를 결정.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며 추가적인 한국시장 철수 또는 사업 축소 가능성도 있음
- (한일관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와 일본 정부의 특정포괄수출허가 조치로 2019년 연말 이후로는 일단 양국간 무역분쟁은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조치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건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보복조치로 다시 관계 경색화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
- (코로나영향)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으로서 시간적·거리적 장벽 없이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양국간 투자·무역상에 큰 이점으로 작용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를 상실한 것은 악재임. 특히 양국 모두 2020년 12월 현재 최악의 코로나 확산세를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인적 교류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존재함(일본은 이미 12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잠정 금지 조치를 취함)
- * (사례) 코로나에 따른 인적 교류 제한으로 보류중인 프로젝트 : T社(화학제조), T社(계측기기제조), B社(서비스), A社(식품유통), K社(식품유통), D社(문화컨텐츠) 등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배경

* 일본은 해외투자관련 정부정책 부재로 대외투자증가 배경을 기술

- (내수경제) 2012년 이후 일본정부의 엔화가치 하락노력으로 환율 조건은 크게 개선되었고,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인실효세율을 29.74%로 인하)와 환경규제 측면에서 다소 기업친화적 환경으로 완화되었으나, 고령화율 28.7%(일본통계국, '20.09.15 기준)에 달하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동향) 2020년 3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2분기 하락에 대한 반동으로 +22.9%를 기록함(2차 속보치). 하지만 4분기는 자국 및 세계적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둔화되며 연간 성장률은 ▲5.3~5.4%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은 국토강인화 관련 공공투자 등을 고려하여 +3.4%로 예상됨

* 미츠이-스미토모 신탁은행/다이와 종합연구소/미즈호 연구소의 11~12월 발간 경제보고서 참조

- (대외투자증가배경) 높은 환율과 법인세, 비싼 전력가격, 지지부진한 EPA(경제동반자협정), 경직된 고용규제, 엄격한 환경규제의 6중고 조건에 처한 일본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해 나감. 1999년까지는 200억 달러 대였던 투자 규모가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2011년 이후로는 줄곧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2018년 223조 엔으로 역대 최고치(재무부 법인기업 통계)를 갱신한 일본기업의 현/예금 보유고로 상징되는 풍부한 대기자금이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 또한 2015년 세제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의 배당 수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게 되어, 본사 배당보다는 현지 재투자 및 내부 유보를 우선시

- (대내투자정책) 현재의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을 기반으로 해외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일본에 끌어 들이고 고용과 혁신의 창출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방 창생(創生)”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외국기업에 특화된 각종 우대 조치를 마련함

* 이 외 리쇼어링 및 자국보호주의 기류에 따른 “해외 서플라이 체인 개혁정책”, 행정조치 및 규제 간소화, TPP 체결 등을 기반으로 한 무역·투자의 글로벌허브 구축을 추진하며 일본경제 성장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도쿄】

-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 소재·부품 투자 지속
- 일본 VC의 한국 스타트업 지분 투자 등 신성장동력 확보형 투자 증가

기업명	분야
A社	반도체 웨이퍼 연마재 생산공장 구축
J社	반도체 패키징·디스플레이용 드라이 필름 생산
O社	위생·의료·산업용 친환경 복합소재(스핀본드) 생산
St社	바이오의료, 패션, 콘텐츠 등 한국스타트업 투자
G社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등 한국스타트업 투자

【오사카】

-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재국 내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사업도 중요하나 우선 자국 내 상황수습이 급선무, 이로 인해 해외사업계획의 추진 지연, 재검토 등의 사태가 발생
- 모 화학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가동예정이었던 공장설치가 지연되며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직의 파견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 S社 : '20년 4월부터 수차례 2~3명씩 교대로 파견, 공장가동은 빠르면 '21년도 봄을 예정

【나고야】

-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코로나 영향도 있어 소비재 및 음식점업 관련 투자가의 투자 프로젝트 보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금형제작 K社)의 경우, 코로나 영향에 따른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담 및 A/S 애로가 발생하여 국내 고객사의 주문취소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실 등으로 인해 국내 공장 철수 가능성도 내비쳤음.

【후쿠오카】

- IT, 신재생에너지, 물류, 재생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관할지역 내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환경 조사수요가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하여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내적으로 일본 내 시설투자 및 생산 활동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됨으로써 해외진출 결정 또한 동반 지연되는 상황임
- 대외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한조사 및 상담이 대부분 어렵게 되었지만,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개선이 될 경우, 적극적인 경제교류가 기대되고 있음

■ 투자유치 유망분야

【도쿄】

(1) 반도체

- 선정배경
 -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기업들은 일본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주요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을 한국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
- 관련 산업 동향
 - 2018년 이후 미중무역분쟁, 일본정부 대한국 수출 규제, 코로나 감염사태 등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의 GVC 재편을 검토할만한 환경이 조성됨
 - 기존에 한국에 생산기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수출로 공급하던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 및 생산라인 증설, 한국에 생산기반이 없는 기업 경우 생산거점 신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한일 무역분쟁 이후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한국 현지생산 추진 사례>

기업	현지 투자
도쿄 응화공업	한국 지사에서 포토레지스트 현지생산
도쿄 일렉트론	평택 기술지원 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반도체 장치 연구개발
간토 전화공업	천안 공장에서 유화 카르보닐 현지생산
타이요 홀딩스	드라이필름 솔더 레지스트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결정

* 자료원 : NIKKEI X TECH, 일본총합연구소(JRI)

(2) 2차전지

- 선정배경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2차전지 업종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투자가 다수 존재함
 - 국내 대기업 제품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기업을 잠재투자자로 분류하여 신규 및 증액투자를 적극 유도
- 관련 산업 동향
 - 2020년 4월 일본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특정 국가에 생산 의존도가 높은 제품 및 소재의 생산거점을 일본 국내복귀 또는 ASEAN 국가 등에 생산설비의 다원화를 요청

(3) 물류·유통(로보틱스/ICT)

○ 선정배경

- 온라인 쇼핑으로의 이행이 더디던 일본 시장에서도 코로나 이후로는 반강제적 시프트가 진행됨(카드 결제 내역 기준으로 약 20% 수준이던 EC 부문이 30%로 10%p 가까이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 및 그와 연동된 물류/유통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군 투자가 예상됨
- 관리 부문은 AI/빅데이터에 기반한 ICT 솔루션이, 현장 부문은 로보틱스 솔루션이 유망(미츠이스미토모카드)

○ 관련 산업 동향

- 고질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물류 업계는 로보틱스 물류에 대한 수요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2019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131억 엔 규모임
-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물류 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로보틱스 도입이 촉진되며 2020년 175억 엔을 기록할 전망이고, 2025년에는 583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후지사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 파나소닉은 지역 내 자율주행 로봇에 의한 택배 서비스 실증 실험에 들어가는 등 라스트 마일 배송 영역에서도 로보틱스 활용이 진행 중임(야노경제연구소)

【오사카】

(1) 반도체

○ 선정배경

-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식 비즈니스 활동 증가로 PC, 데이터센터 등 수요가 급증, 일본 주요 언론도 2021년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 중 하나로 반도체를 꼽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반도체제조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에 따른 제조장비 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됨

○ 관련 산업 동향

- 일본의 반도체 자체 산업은 세계에서 뒤떨어진 상황이며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은 해외기업과의 비즈니스가 불가피한 상황. 따라서 반도체 대국인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유망한 것으로 보임
- * 관내 투자가 J社は 본격적인 한국비즈니스를 위해 2020년 현지법인을 설립, 사업 확장을 위해 증액투자를 계획 중

(2) 전기전자·기계

○ 선정배경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라는 키워드로 사업환경 내 인력 절감이 요구됨. 제조현장에서의 인력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제어고도화를 활용한 기계장비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전기전자와 기계분야의 융복합 비즈니스 또한 유망한 것으로 보임
- * 반도체산업의 활기가 동 분야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산업 동향

- 언택트로 비대면 구매활동이 증가, 이로 인해 물류업의 역량이 중요함. 아이템의 수송뿐 아니라, 창고시설의 증설과 내실화도 요구되는바 설비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 * 공장(창고) 내 자동화시스템도 유망 분야로 전망됨

(3) 스타트업

○ 선정배경

- 해마다 스타트업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일본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음. 오사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어프로치를 시도해왔으며 한국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도 고조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스타트업 투자는 주로 VC/CVC가 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발굴을 통해 펀드뿐 아니라 기업투자 유치를 추진
- * 대대적으로는 아니나 기업마다 오픈이노베이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고야】

(1) 기계·소재부품

- 선정 배경
 - 일부 소재부품 관련 제품의 대한수출규제가 발효되어 기존 한국에 수출하였던 일본기업의 증액투자가 기대됨
- 관련 산업 동향
 - 중부지역에는 일본 3대 공작기계 기업 OKUMA, YAMAZAKI MAZAK, DMG MORISEIKI가 위치해 있음. 정밀 공작 기계 분야에는 한국산 부품이 상당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 이후 장기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공작기계 기업의 對韓 증액투자 가능성 존재

(2) 의료·헬스케어

- 선정 배경
 - 국내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유망시장으로 부상
 - 일본 내 고령자 양로시설, 재활기계 관련 산업의 포화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나 국가별 의료법이 상이하고 인증 등 진출 단계가 복잡하여 현지 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한 진출이 유망함
- 관련 산업 동향
 - 헬스케어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규제산업이며, 의료기기법 등 인증과 관련된 규정이 까다로워 단독 투자보다 합작법인, 지분투자를 고려하는 투자문의가 다수 있음
 - 인천, 대전, 대구 등 지자체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헬스, 헬스케어 분야를 타깃 산업으로 지정하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대한투자 관심도는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높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제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므로 폭 넓은 타깃팅이 필요

(3) M&A, 지분투자

○ 선정 배경

- 해외 신규진출 투자가의 경우, 단독 법인설립 및 공장 운영보다 동종업계 일본기업의 현지법인과의 사업협력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 밖에도 국내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기업 지분투자를 추진하거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주식매입 인콰이어리가 접수되어 한일관계 악화 영향이 적은 M&A, 지분투자 프로젝트 투자유치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산업 동향

- 지분투자의 경우 관련 산업이 폭 넓고 다양하여 업계동향 파악이 어려우나 M&A 및 지분투자를 통한 대한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 VC, CVC는 주로 도쿄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이 발달한 중부지역은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보다 현지 상장기업의 지분투자 형태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함

【후쿠오카】

(1) IT(ICT)

○ 선정 배경

- 일본정부의 행정의 디지털화 및 IT 분야 시설투자 대폭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IT 기업의 제휴 및 M&A, 직접투자가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관할지역은 반도체 등 IT 관련 실리콘아일랜드 조성 및 창업특구화 정책 등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관련 산업 동향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비즈니스 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온라인 교육 솔루션 분야 등 한국과 일본기업 업무제휴 추진 중(M사)

(2) 신재생에너지

- 선정 배경
 - 한국의 발전차액지원(FIT) 및 신재생 공급인증제도(REC)의 확립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규제의 완화 등 투자환경 양호
 - 일본의 선진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해외진출 관심 고조
- 관련 산업 동향
 -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방한조사 및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면 및 온라인을 활용한 투자 타당성 조사 진행사례(Z社)
 - 리튬이온전지의 불안전성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의 투자환경조사 사례(L사)

(3) 식품 - 바이오 소재

- 선정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SGDs) 운동 및 제도화 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대처 가능한 면역증진 소재 수요 확대
- 관련 산업 동향
 - 규슈지역은 풍부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식품-의료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함
 - 동 분야의 주요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수요에 한국시장 적합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도쿄】

- 투자유치 화상 상담회 ('21년 연중)
 - 한국 입국제한으로 기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대부분 보류되었으나 실사 필요성이 적은 VC·CVC 중심의 재무적 투자를 지원
 - 온라인 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 투자환경홍보를 실시하고 한국에 관심있는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잠재 투자프로젝트 생성 노력
- 지자체 협업 투자설명회 IR ('21.2분기)
 - 국내 지자체 별로 기존에 활성화 된 중점 산업분야 및 향후 주력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업종을 조사하여 투자유치활동에 반영

타겟분야	관련 지자체
반도체 소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2차전지(배터리) 소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충청북도, 경상북도
물류	부산시, 인천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IOT, AI	서울시, 경기도
에너지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 투자자에게 수요가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타 지자체별 주력산업 및 유치희망 산업군을 홍보하며 잠재 투자를 발굴하고 실제 유치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현지 유력 전시회 연계 투자 IR ('21년 연중)
 -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산업전시회 및 투자전문전시회에 지자체·경제자유구역 등과 공동 참가, 투자유치 홍보 활동 진행
 - * 타겟분야 : 투자전문행사 및 한국판 뉴딜 연계 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정보통신,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를 위주로 온/오프라인 공동 출전

【오사카】

- (IR)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 일부를 비대면식 세미나/설명회로 전환
- (조사) 업계동향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내용을 투자유치활동에 반영

【나고야】

- (IR) 자동차/기계 부품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의 국내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나고야 소재 CVC, VC 및 관련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IR 추진
 - * 자동차 부품 : 자율주행, 경량화 분야 스타트업
 - ** 기계 부품 : 센서류, 정밀 기계류 스타트업
 - *** 항공 우주 부품 : 소형 인공위성 및 부품 스타트업
- (조사) 국내 스타트업이 Denso, Aisin 등 일본 대기업과 협력하고 투자 유치 및 납품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 조사 추진
 - * Aichi-Nagoya Consortium Program : Jetro Nagoya가 주관하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세계 IoT 스타트업과 일본 대기업 연계 지원

【후쿠오카】

- 광주광역시 투자환경 설명회 : IT/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잠정)
- 마산자유무역관리원 투자환경 설명회 : 관할지역 내 자동차 부품 2차 벤더를 대상으로 한 제조-물류 투자환경 설명회(잠정)

18 싱가포르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년 기준 332.8억 미국 달러로, '17년 488.3억 미국 달러에서 '18년 297.6억 미국 달러로 감소한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전반적 감소 추세
 - * '19년 해외직접투자는 GDP의 약 8%를 차지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인 금융·보험서비스, 물류·유통, 부동산·관광레저개발 및 제조업(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3개년 해외직접투자금액 추이>

(단위 : SGD백만,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S\$ 63,235 (US\$ 48,830)	S\$ 38,540 (US\$ 29,761)	S\$ 43,101 (US\$ 33,283)

*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2020.6)

** 주 : S\$ 1 = US\$ 0.77 환율 적용(2021.1.12. 싱가포르 United Overseas Bank 환율 기준)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의 투자가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순으로 구성됨
 - 아시아지역 외에 유럽(18.1%), 남·중앙아메리카 및 캐리비안(13.3%), 오세아니아(6.6%), 북아메리카(3.3%), 아프리카(3.3%)의 투자가 진행
- 산업별
 - 금융·보험서비스업이 4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20.3%), 유통(8.1%), 부동산(8%) 순으로 산업별 해외투자가 이루어짐

■ 주재국/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기능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37,4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지역본부를 통해 인근 아시아지역 투자 진행

○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 역할

-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허브로서, 금융·보험 서비스 분야의 재무적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최근 홍콩의 국가보안법 및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글로벌 자본이 싱가포르로 이전, '20년 4월 싱가포르 외화예금이 4배 가까이 급증하여 270억 싱가포르 달러 기록

○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에서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 확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최근 5개년 싱가포르의 대한 투자규모는 대형 M&A 건으로 투자금액이 높았던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년 11월 기준, 대한 투자금액(신고기준) 20.15억 미국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54% 이상 증가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2,347	1,793	1,475	1,307	2,281
신고건수	180	166	213	229	208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인 금융·보험 서비스 분야의 재무적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물류·유통 및 상업부동산 분야의 투자가 뒤를 이음
-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싱가포르 투자청) 및 테마섹(Temasek Holdings)의 경우 국내 기업의 지분투자, 부동산 및 물류센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다국적 사모펀드 등을 통해 국내에 활발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에 따르면, '21년 경제성장률(GDP)은 4%~6% 수준으로 예측되며,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 서비스업, 정보통신,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
-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대한 투자규모가 20'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싱가포르 주요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올해도 증가 혹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및 정부의 '서킷브레이커'* 봉쇄조치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저치(-5.8%) 기록이 예상되나, '21년은 4%~6%대로 경제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

* 필수업종(의료, 금융, 안전 등) 외 사업장 폐쇄 및 상점 영업 중단, 건설공사 중단 등

- 해외투자 유치 관련,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특히, 지역본부, 고도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인건비지원, 외국인비자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기업과 EDB 측과의 별도 협상에 따라 결정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련 기술 성장,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핀테크 산업 등 IT 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류센터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 선정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데이터센터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인 가운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력 및 세계 최대 모바일 보급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
 - 싱가포르의 다수의 데이터센터 및 부동산 투자기업(데이터센터 리츠)이 국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산업에 높은 관심 표명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싱가포르 최대 통신·미디어·데이터 인프라 기업인 S社는 '20년 효성중공업과 합작법인 설립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관련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물류센터 및 상업용 부동산

- 선정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물류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년 7월 발표)의 일환으로 물류센터 재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싱가포르 국부펀드 및 다수의 부동산 투자기업이 국내 물류센터 및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 표명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기업 K社는 경기도 및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 1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에도 상업용 부동산 및 물류센터 투자 지속 예측

(3) 테크 - 스타트업 지분투자

- 선정배경
 -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PE/VC 및 재무적 투자가의 국내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중이며, 국내 스타트업의 진출 수요도 함께 증가 중

○ 관련 산업 동향 (대한투자 가능성 등)

- 싱가포르 현지 PE/VC의 경우, 단독투자보다 국내 PE/VC와 공동펀드 조성 및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 방식을 선호하며, 핀테크·AI 등 테크-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물색 중임
-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직접투자그룹(Direct Investments Group, DIG)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티몬 등이 있음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싱가포르 재무적 투자유치 IR

- 싱가포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PE/VC 대상 행사와 연계하여 대한 투자 홍보 및 다국적 투자가와 국내 투자기업간의 상담회 진행 예정

○ 싱가포르 핀테크 전시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 참가(11월)

- 동남아시아 최대 핀테크 전시회 및 컨퍼런스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참가, 글로벌 기업 대상 IR 피칭 및 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 확대

○ 싱가포르 거점 CVC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사업(연중)

- 국내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수요가 있는 CVC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맞춤형 투자전략 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테크-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연중)

- 싱가포르 정부기관, 기관 투자가 및 VC 대상 국내 유망 테크-스타트업 IR 피칭 행사 및 연중 1:1 매칭 상담 추진

19 호주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1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호주의 '19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누계 5,793억 USD로 OFDI에 있어서 세계 16위의 해외투자국, 전세계 OFDI의 1.7%를 차지
- '20-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과거 5개년간 호주의 해외직접투자 1위의 산업은 금융·보험업이었으나 2019년 최초로 제조업이 1위의 해외직접투자 분야가 됨
 - 호주는 제조업기반이 취약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대내외적으로 제조업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20-21년에도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최근 3개년 해외직접투자 금액(누계)>

(단위 : 십억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3.2	497	579.3	N/A

* 자료원 : 호주외교부(DFAT), UNCTAD 2020.10월 업데이트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호주의 최대 투자국(OFDI 및 포트폴리오투자 등 포함)은 전체의 28.4%를 차지하는 미국이며 영국이 2위(17.2%),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4.7%)이 3위를 차지
- 산업별
 - 2019년 기준, 호주 최대 직접투자 산업은 제조업으로 누계 1,372억 USD(1,974억 AUD)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금융·보험이 누계 1,340억 USD(1,929억 AUD)로 전체의 23%, 광산업이 누계 1,207억 USD(1,736억 AUD)로 21%를 차지하며 각각 2, 3위에 랭크됨
 - * 2019년 평균환율, 호주달러 대미환산율 0.6951 적용
 - 그 외 부동산, 도소매, 건축,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도 활발한 해외직접투자 진행

■ 호주 지역 투자유형 및 특징

【시드니】

- 금융,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5G·ICT 등 부문 강세
 - M社, 기존 인프라 투자 이외에 수소 및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 해외 투자 확대
 - A社,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 P社, 국내 저축은행 자산 증액 예정으로 '21년 증액투자 예상
 - P社, 포스코와의 리튬가공공장 JV 합작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나 '21-'22년 투자신고 예상

【멜버른】

- 자원, 스타트업, 항공우주, 첨단소재, 제약 등의 제조, IT, 바이오텍 강세
 - BHP, Rio Tinto 등 글로벌 자원개발사 해외 투자 확대(남미, 몽골 등지)
 - 디지털마켓플레이스 분야 등 스타트업 유니콘 배출(Carsales, Envato 등)
 - CSL, QuickStep 등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항공부품 제조사 본사 소재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호주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20년 1~11월까지 호주의 대한투자 금액은 약 3백만 USD(신고 13건)으로 '19년 1억 757만 USD(신고 27건) 대비 급감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저조한 투자실적임
 - 대한투자 대표 호주기업인 맥쿼리그룹은 투자자금이 주로 싱가포르 및 홍콩 등지에서 들어가며, '20년 코로나19의 타격 여파 등으로 여타 기업들(폐퍼 그룹 등)이 대한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보임

<호주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79	142	2,007	108	6
신고건수	45	26	33	27	15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시드니】

- 신재생에너지 부문 한국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및 이에 따른 투자기회 예상
 - M社, 경주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프로젝트에 투자 MOU 체결
 - 현대, 포스코 등 그린수소 산업부문 호주와 파트너링 및 사업 추진 확대
 - * 포스코 : 호주 FMG사와 그린수소사업 협력 추진, 현대차 : 호주와 협업하여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등
- IT, 5G 통신 분야 진출 가속화 전망
 - A社,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중
 - * '17년 시드니에 첫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소 후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위주로 시장 확대 중
- 한국 그린 인프라 정책에 투자가 관심 확대 예상
 -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국내 노후 인프라 대체,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 뉴딜 산업 부문에 투자유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 호주 연기금 AMP Capital, 한국의 그린뉴딜정책 및 그린인프라에 관심 증가

【멜버른】

- 바이오·화장품·의약품 등의 원료, 소재산업
 - R社 화장품, 의료 신소재 제조, 마케팅 법인 투자
 - * 한국콜마와 제조 파트너십 구축
 - * 한국, 글로벌 R&I (Research& innovation) 및 동북아 마케팅 거점화 추진
- C社 헴프 의약품 원료 R&D센터 투자
 - * 경북헴프산업특구 입주, 헴프 추출물 개발 R&D JV 설립 추진
 - * 헴프 추출 의약품 원료, 소재 개발 계획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한국에서의 기존 인프라부문(도로·항만 등) 위주 투자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증명되면서 동 분야에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탄소제로화 선언 등 적극적 정부 정책으로 맥쿼리그룹을 포함한 호주 대형기업 및 광물·자원 기업(리튬, 수소, 망간, 코발트 등)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증가 기대
-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제조, 유통기업들의 관심도 증가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20년 4월 코로나19 발병규명 촉구로 호·중 관계 악화 여파에 따라 호주의 외국인투자유치법 개정,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대호 투자 저지
 - 호주 국익(National Interest)을 최우선으로 '핵심 인프라 및 국가 주요 시스템'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승인 심사 강화
 - * 중국의 6억 호주달러 규모 호주기업(Lion-Dairy&Drinks) 인수 무산(8.25)
- 주재기업(투자가) 주요 동향

【시드니】

- A社 (화학,소재)
 - 희토류 등 희소금속 제련 공장 설립 관련 국내기업(D산업)과 금속제련 합작 MOU 체결('20.10월)
- M社 (신재생에너지)
 - '21년 수소전지연료 발전소 및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 데이터센터 설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 투자신고 예상
- P社 (금융)
 - 저축은행은 '19년말 대규모 증액투자 5천만 USD를 받아 당분간 추가 증액 투자는 어려울 전망이나, 자산을 6조원까지 증액할 계획 보유
 - * 자산 변화 : 3.0조원('19.9월) → 3.7조원('20.6월)
- P社 (자원 에너지)
 - 현재 코로나19 및 필바라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더딘 상황이며, '21년 4분기 광양 울춘산단 공장 착공 개시 예상

【멜버른】

- C社 (온라인상거래)
 - 한국 투자법인 수익증대, 그룹 성장 견인
 - * 연구개발 인력 고용확대, KOTRA 외투기업취업박람회 매년 참가
- F社 (IOT)
 - 김제시 스마트미터 IOT 사업 참가
 - * 수도, 가스 계량 등의 스마트미터 사업 점진 확장중
- C社 (바이오제약)
 - SK케미컬과 혈우병 치료제 등 신약 기술 라이선싱 협력
 - * '19년 한국 투자 법인설립 및 라이선싱 기회 등 모색

■ 투자유치 유망분야

【시드니】

(1) 금융서비스업

- 선정배경
 - 최근 5년간 호주의 해외직접투자 1순위 산업으로 호주의 대한투자 주요분야
 - * 맥쿼리그룹, 페퍼그룹 등이 활발하게 대한 투자 진행
- 관련 산업 동향
 - 맥쿼리그룹, 페퍼그룹 등 대형 호주 금융기업의 대한투자 지속 예상
 - 최근 온라인결제, 핀테크 부문 쪽에서도 한국진출 의향의 인콰이어리 증가

(2) 5G, ICT, 데이터센터 등

- 선정배경
 - 최근 1-2년 사이 호주기업의 ICT분야 및 데이터센터 아시아지역 투자 확대
- 관련 산업 동향
 - M社, A社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 * A社 아태지역(싱가폴, 홍콩) 대규모 데이터센터건립 후 서울에도 설립 추진
 - * M社 ADT캡스 인수로 ICT·스마트 보안 부문 투자 확대

(3) 신재생에너지, 자원 부문

○ 선정배경

- 호주는 기후변화 피해가 증가하며 신재생에너지부문 발전 및 투자 확대중
-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 자원부국인 호주와 기술강국인 한국간 협업 및 양방향 투자 활성화 기대
- * 호주는 세계에서 수소 Hub로 자리매김 하기위한 국가수소전략계획 수립('19년말)

○ 관련 산업 동향

- M社, 국내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에 투자 계획 및 경주시와 MOU체결
- P社, 포스코와 합작 투자로 광양에 JV 공장 설립 계획

【멜버른】

(1) 첨단제조업

○ 선정배경

- 보잉, QuickStep 등 호주 최대 항공부품 제조사 본사 소재
- * Q社 IKW2020 참가 현기차, KENCOA 등과 투자 화상상담 추진
- E社 방산 광학기기 핵심기술 보유사 대한 투자관심
- *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에 광학 레이저 센서 등을 공급하는데 한국 자체 제조공장 설립 검토, 약 100억원 투자계획

○ 관련 산업 동향

- 한국 UAM(Urban Air Mobility) 비행체 제조업 발전 가능성
- * 항공, 부품 분야 핵심부품 제조 서플라이체인 유치 필요
- 방산분야 경계 및 사격 체계 무인화 추세
- * 센서 및 광학장비 수요 증대
- * E社 관련 핵심기술 보유, 한국 투자 적극 검토

(2) 바이오텍

- 선정배경
 - 의약품 및 기능성식품 소재 투자 프로젝트 발굴
 - * 글로벌식품사 F社, (주)대상과 기능성 식품원료 개발 및 제조 JV 검토
 - * C社 헴프 추출 의약품 원료 R&D센터 투자 계획
- 관련 산업 동향
 -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소재산업 유망
 - 국내 관련기업, 파트너십 등 해외기업과 JV, 협력 관심

(3) 연기금, 글로벌 LP 유치

- 선정배경
 - IFM 등 호주 최대 글로벌 인프라투자 전문 펀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 투자 프로젝트 적극 발굴중
 - * 에너지, 도로, 항만, 공항 등 관심
- 관련 산업 동향
 - 해상풍력, LNG 등 가능성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시드니】

- 그린뉴딜 연계 신재생에너지, 미래 산업 부문 투자 IR
 - 주호한국대사관, Austrade, NSW주정부 등 협업 온라인 포럼 개최
 - * 신재생에너지, 5G·ICT, 핀테크 등 분야 양국 협력 및 양방향 투자기회 모색
- 한국 투자환경 홍보 활동 강화
 - Airport Economist사의 Korea Episode 시즌2 제작 지원 및 호주 TV 방영 추진
 - * KOTRA 투자홍보팀 및 한국관광공사 협업 모색

【멜버른】

- 2021년 Avalon Air Show 전시회 연계 투자 IR, 네트워킹 등 개최
 - 호주 최대 Air Show, 주요 항공 부품 방산기업 참가
 - 11월 23~28일 개최, 한국 공군 블랙이글팀 참가 T-50 수출 홍보

20 아랍에미리트

가 주재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실적

- '1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19년 UAE 해외 투자는 159억 달러로 집계, 이는 전년 동기(151억 달러) 대비 5.4% 증가(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 2019년 해외직접투자 20대 글로벌 국가로 선정
-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입수가능 통계 없음)
 - 2017년 이래 매년 소폭이나마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2020년에는 160억 달러 정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망
 - *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 등 경기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지속적으로 전략지역/산업 분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분기 중 무바달라(Mubadala)와 아부다비 투자청(ADIA)이 인도 지오플랫폼(Jio Platforms / 영화 스트리밍, 음악 앱, 통신사 등의 서비스를 운영, 약 3.9억 명의 구독자 보유)에 각각 USD 12억(1.85%), USD 7.53억(1.16%) 지분투자
- '21년 해외직접투자 전망
 -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및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의 경기 상승 요인에 힘입어 2021년에는 170억 달러 정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망
 - 포스트오일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국부펀드 및 국영기업 중심으로 항공, 농업, 헬스케어, IT, 제약·의료기술,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부동산·인프라 투자가 기대됨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전망>

(단위 : AED백만,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e)	2021(e)
55,341 (US\$ 15,079)	58,357 (US\$ 15,901)	58,720 (US\$ 16,000)	62,390 (US\$ 17,000)

*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2020년 및 2021년은 무역관 예측치

** 주 : 1US\$ = 3.67AED 환율 적용(고정 환율)

■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국별

- 2020년 총 136개 투자프로젝트 중 50% 이상이 상위 7개 투자대상국에 집중
- 1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18개, 13.24%), 2위 이집트(13개, 9.56%), 공동 3위 영국 및 미국(10개, 7.35%), 공동 5위 쿠웨이트, 오만, 터키(6개, 4.41%)
- 상위 7개 투자대상국 중 GCC 국가(사우디, 쿠웨이트, 오만)가 차지하는 비중이 43.48%, 아랍권 국가(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32%로 압도적임

○ 산업별

- 2020년 총 136개 투자프로젝트 중 약 50%가 상위 3개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임
- 1위 비즈니스서비스(24개, 17.65%), 2위 금융서비스(22개, 16.18%), 3위 운송 및 창고업(17개, 12.50%)
- 이어서 4위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15개, 11.03%), 5위는 호텔 및 관광업(10개, 7.35%), 6위는 식음료(9개, 6.62%), 7위는 부동산(7개, 5.15%) 등

■ 주재국 투자유형 및 특징

- 해외직접투자의 큰 흐름은 포스트 오일시대 산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조업, 농업, IT,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전략적 투자 확대
- 산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는 무바달라(Mubadala)가 주도하고, 부동산·인프라 등 지분인수를 통한 수익 확보는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주도
- GCC(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및 이집트, 터키 등 인근 아라비아 반도상 국가 내지는 아랍 문화권 국가에 투자 집중
- 그 외에는 UAE를 위임통치했던 영국, 기타 국가로 미국에 해외직접투자가 많음
- * 카타르와는 2017.6월 이래 단교 상태였으나 2021.1월 외교관계 정상화

나 2021년 주재국 대한 투자 전망

■ 주재국의 대한 투자 동향

○ '20년 대한투자규모

- 최근 5개년 대한 투자규모(신고기준)는 약 22.2억 달러('16~'20.3분기)이며, '17년과 18년 각각 10억, 5.4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신고가 이루어짐(자료원 : INSC)

< 주재국의 최근 5개년 대한직접투자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금액	36	1,014	541	261	496
신고건수	15	12	6	7	11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요 투자 분야

【물류·운송】

- 국영 항만운영사 D社의 물류회사(유니코 로지스틱스)* 지분 인수

* 외항해상 운송주선, 해운대리(컨테이너) 등 화물운송 중개, 대리 등 비선박운송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글로벌 3위로 본사 서울, 부산 지사, 해외는 UAE 포함 18개국에 26개 지사 보유

- 국영기업 외 패밀리오피스 등도 인천·부산 내지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거점으로 하는 투자 수요 있음.

【일반무역 - 중고차 및 자동차 부품】

- 일반 투자 문의는 제조업보다는 교역 분야 문의가 많은 편이며, 특히 자동차 부품 교역 관련 현지 법인설립 및 투자 문의가 대부분임.
- UAE는 인구 천만 중 외국인 인구가 90%로 인구 턴오버율이 높고, 중고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관련 중고차 및 부품 수입·교역 법인 설립 수요 높음

■ 대한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대한 투자 전망

-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의료·제약,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 인수 혹은 현지 국부펀드-우리 대기업간의 고위급 투자협의 성사시 투자유치 확대 가능
- 물류·운송, 일반교역, 부동산·인프라 분야 투자규모는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기 활성화 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주재국 경제 동향, 해외투자관련 정책

- 해외 직접투자 관련 특이한 동향 및 정책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의 큰 흐름은 포스트오일시대 산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조업, 농업, IT,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확대
- 산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는 무바달라가 주도하고, 부동산·인프라 등 지분인수를 통한 수익 확보는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주도

○ 주재기업(투자가) 동향 등

【D社】

- 세계4대 항만운영사 UAE 국영 D社가 유니코로지스틱스 지분인수
 - 유니코로지스틱스*는 한국 기업이어서라기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활용 물류분야에서 글로벌 Top3 물류회사여서 인수 결정
 - * 외항해상 운송주선, 해운대리(컨테이너) 등 화물운송 중개, 대리 등 비선박운송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지분 60% 취득, 2020년 내 투자도착 완료
- D社は 항만 뿐 아니라 물류회사 및 해운회사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및 인수를 통해 복합물류지원사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 추진
- 국내 부산신항 지분 보유뿐 아니라 유니코로지스틱스 지분 보유를 통해 아시아권 해운 물류뿐 아니라 시베리아 내륙 운송 시장까지 영향력 확대

■ 투자유치 유망분야

(1) 첨단 농업

○ 선정배경

- UAE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일반 경작이 어려운 지역으로 실내 수직 농장 등 첨단 농법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 다대

< UAE 아부다비투자청 Ag-Tech 지원 프로그램 개요 >

- 지원 분야 : 실내 경작 기술, 정밀 농업 및 농업 로봇틱스, 해조류 기반 바이오연료
- 지원 내용 : 현금지원(R&D 비용의 75%) 및 비현금 인센티브
- 지원 자격요건 : 아부다비 소재 법인, 혁신기술 보유

○ 관련 산업 동향

- 유럽, 북미 등 농업 선진국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다수 진출
- 2020.12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로 첨단 농업이 강한 이스라엘과의 협력도 예상됨
- 국내에도 실내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기업들이 급성장 중인바,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

< 국내 스마트팜 기업 투자유치 가능 사례 >

- N社は 컨테이너를 활용한 실내수직농장과 운영 소프트웨어 전문 스타트업으로 올해 1월부터 아부다비 국방호텔 부지에서 8개 컨테이너 동으로 신선 업체류 수경재배를 위한 개념검증(PoC)을 진행
- 국내에서 Series B 투자유치를 마쳤으며, 중동 국부펀드들과 투자유치 협의 중, 향후 수출 및 투자유치 기대됨.

(2) 물류·운송

○ 선정배경

- 두바이는 역내 최대 환적항이자 에미레이츠 허브 공항 소재지로 물류 산업이 발달
- 특히 세계 4대 항만사인 UAE 국영 D社가 시장점유 확대를 위해 선박/비선박(Vessel/Non-vessel)을 불문하고 유망 물류회사 인수에 관심 다대
- * 2020년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활용 물류분야에서 글로벌 3대 비선박운송(non-vessel)社인 유니코로지스틱스의 지분 60% 인수

○ 관련 산업 동향

- D社は 부산신항 PNC 터미널 지분 66.3%를 보유하고 있어 항만 분야 추가적인 지분인수 가능
- D社は 전통적인 항만 운영사와 달리 화물에 대한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물류 회사(forwarders)와 해운회사(shippers) 인수 지속

(3) 의료·제약

○ 선정배경

- UAE는 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해외 환자 송출을 통한 치료로 재정지출이 많아 국내 의료분야 육성 및 해외 병원 네트워크에 관심 다대
- 코로나19 계기 병원 유치, 의료진 육성, 제약 개발 등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이 더욱 높아짐

○ 관련 산업 동향

- 2021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시노팜(Sinopharm)*의 현지 생산을 개시하는 등 제약사와 협력 및 투자를 늘리고 있음
- * 중국국영바이오테크그룹(China National Biotech Group) 제조
- 해외 치료 및 관광을 겸할 수 있는 병원·요양·리조트 복합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도 존재

■ 2021년 투자유치 관련 사업

○ 중동지역 투자가 대상 국가 IR

- 개최 목적 : 두바이엑스포 계기 UAE를 방문하는 역내 잠재 투자가 대상 국가 IR 개최를 통해 국내 투자유치 환경 홍보 및 투자유치 저변 확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분기 초 / 두바이엑스포 부지 인근 호텔
- 주요내용 : 두바이 엑스포 연계 국가 IR 및 1:1 투자 상담회
 - * (IK) 한국 투자환경 소개, (참가기업) 혁신기술 및 프로젝트 소개
 - * 사전 수요조사에 기반한 1:1 투자유치 상담회 및 투자신고 진행
- 규모 : 국내기업 10개사, 현지 투자사 15개사(UAE 및 인근국 포함), 현지 유관기관 5개(Dubai FDI 등)

- 스마트팜 스타트업 수출 및 투자유치 설명회
 - 일시 : 2021년 상, 하반기 각 1회
 - 장소 : (상반기) 온라인, (하반기) 아부다비 농장
 - 개최 목적 : 아라비아반도의 걸프국가들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일반 경작이 어려워,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UAE 진출 성공을 바탕으로 인근국 진출 확대 가능성 다대, 현지 정부 인센티브 지원 증가
 - 주요 내용 : 스마트팜 사업 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 * (상반기) 온라인 피칭(복수 기업), 온라인 수출 및 투자상담, 국내외 언론 홍보
 - * (하반기) 현지 농장견학 및 사업모델 브리핑, 1:1 수출 및 투자 상담, 국내외 언론 홍보
 - 규모 : 국내 스마트업 기업 2~4개사, 현지 투자사(펀드, VC 포함) 5개사, 유통망 및 레스토랑 체인 3개사
 - 협업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Ⅲ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신산업	의약/헬스케어	191
	정보통신	200
기간산업	에너지/환경	210
	화학소재	217
	전기전자	223
	기계/로봇	228
	항공우주	235
	소비재	242
서비스산업	물류유통	254
	부동산/관광레저	261
	재무적투자/금융	267
	문화콘텐츠	274
	비즈니스서비스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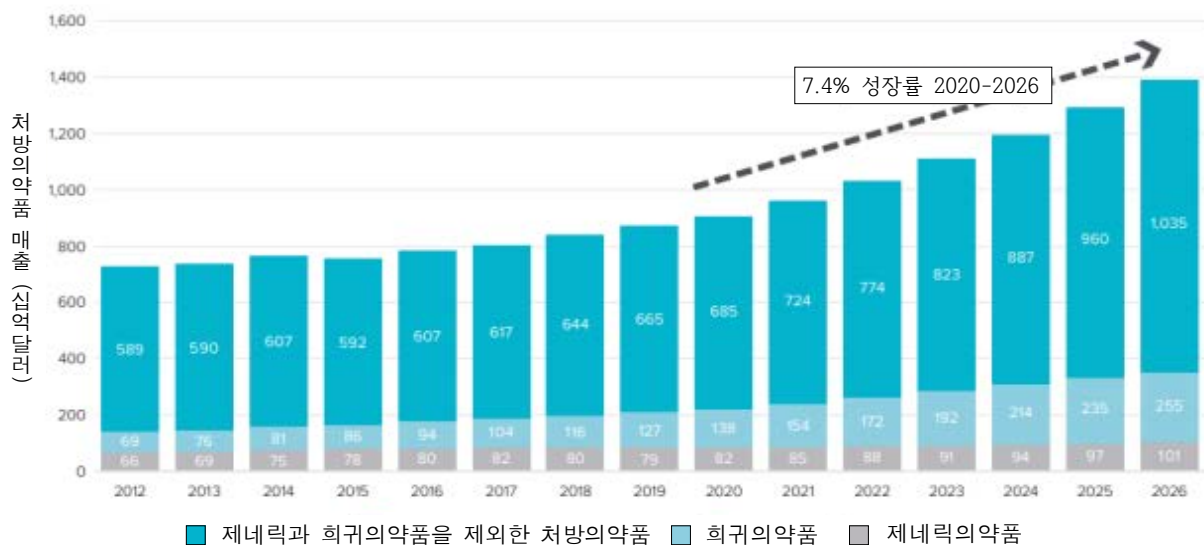


1 의약/헬스케어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의약/종합]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조 2,504억 달러이며, 최근 6년간 평균 성장률은 6.55%이지만, 2018년 2.54%, 2019년 3.78%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구 고령화 등 의약품 수요 증가로 2020~2026년 연평균 7%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26년에는 시장규모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 제약시장 규모 및 전망 (2012-2026)>



* 자료원 : EvaluatePharma -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 지역별로는 세계 시장의 약 64%를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파머징** 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6~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꾸준한 성장세와 바이오의약품의 급격한 성장세가 두드러짐

* 세계시장의 40.3%를 점유하는 미국은 연평균 4~7% 성장률을 유지하며, 2023년까지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유럽은 브렉시트와 제한된 의약품 예산 산정으로 연평균 1~4% 성장률 예상함.

** 파머징 : Pharmacy+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통상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제약시장을 지칭함.

<글로벌 제약시장 매출 상위 10개국>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2019년	2018년	'18년 대비 성장률
1	미국	501.2	475.8	4.4%
2	중국	94.9	89.8	9.1%
3	일본	79.0	76.2	2.3%
4	독일	51.9	47	6.7%
5	프랑스	35.2	35.9	2.9%
6	이탈리아	32.9	33.4	3.0%
7	영국	26.4	25.4	7.8%
8	스페인	24.3	23.6	5.1%
9	브라질	24.3	24.2	9.3%
10	캐나다	22.6	22	5.4%
상위 10개국		892.7	853.3	5.0%

* 자료원 : IQVIA MIDAS, MAT December 2019

-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항암제는 1,454억 달러의 매출, 판매점유율 16%로 1위를 기록함. 전 세계적인 암 환자의 증가 추세로 2026년까지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매출액 3,112억 달러, 판매점유율은 21.7%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항암제 분야의 매출 성장은 단일 품목 기준 세계 매출 2, 3위 블록버스터 약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와 오피디보(Opdivo)의 성장에 기반하며, 이들 제품은 2019년~2026년 연평균 20.2%의 고성장이 전망됨. 2026년 항암제 분야에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매출이 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전세계 주요의약품 매출액>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분야	2019년		2026년	
		매출액	판매점유율	매출액	판매점유율
1	암	145.4	16%	311.2	21.7%
2	당뇨	51.0	5.6%	66.9	4.7%
3	면역억제제	24.0	2.6%	61.3	4.3%
4	백신	32.5	3.6%	56.1	3.9%
5	루마티스	56.9	6.3%	49.7	3.5%
6	바이러스	38.8	4.3%	42.9	3.0%
7	감각기관	23.8	2.6%	35.1	2.4%
8	기관지	27.8	3.1%	32.2	2.3%
9	피부질환	13.8	1.5%	32.0	2.2%
10	다발성 경화증	22.7	2.5%	25	1.7%

* 자료원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2020. 7)」

- [의약/처방의약품]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액은 2020년 9,040억 달러에서 2026년 1조 3,90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헬스케어 산업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희귀의약품 시장의 2배 이상 급성장과 혁신의약품 승인 확대 등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처방의약품 분야에서 2018년에 1위였던 화이자(Pfizer)를 제치고 오크레버스(Ocrevus), 퍼제타(Perjeta), 헴리브라(Hemlibra), 티센트릭(Tecentriq) 등을 앞세운 로슈(Roche)가 2019년도 482억 달러로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 2026년도에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은 연평균 4.9%의 성장률로 2026년 매출 2위, 노바티스(Novartis)는 연평균 2.5%의 성장률로 매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주요 기업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기업명	2019년 매출액	2026년 매출액(f)	연평균 성장률	예상 변동
1	Roche (로슈)	48.2	61.0	3.4%	-
2	Johnson&Johnson (존슨앤존슨)	40.1	56.1	4.9%	△3
3	Novartis (노바티스)	46.1	54.8	2.5%	▽1
4	Merck&Co (머크)	40.9	53.2	3.8%	-
5	Abbvie (애브비)	32.4	52.7	7.2%	△2
6	Pfizer (화이자)	43.8	51.1	2.2%	▽3
7	Bristol Myers Squibb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25.2	44.7	8.6%	△3
8	Sanofi (사노피)	34.9	41.7	2.6%	▽2
9	AstraZeneca (아스트라제네카)	23.2	41.0	8.5%	△2
10	GlaxoSmithKine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1.3	40.8	3.9%	▽2
10대 기업 처방의약품 매출		366.1	497.1	4.5%	
그 외 기업 처방의약품 매출		505.8	893.1	8.5%	
전세계 처방의약품 매출		871.8	1,390.3	6.9%	

* 자료원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2020.7)」

- (희귀의약품)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2019년에 890억 3,000만 달러에서 저분자제품, 항체치료제, 재조합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5년 연평균 12.7%의 성장률로 1,834억 5,000만 달러, 한화로 약 21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 (제네릭의약품) 미국, 일본, 유럽 등 신약 개발에 앞선 의약품 선진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늘고 있음.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효능과 안정성이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데 따른 것임

<전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액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처방의약품 총매출	872	904	963	1,033	1,106	1,195	1,293	1,390
제너릭	79	82	85	88	91	94	97	101
화귀의약품	127	138	154	172	192	214	235	255

* 자료원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2020.7)」

- [의약/바이오의약품]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9%에서 2026년에는 36%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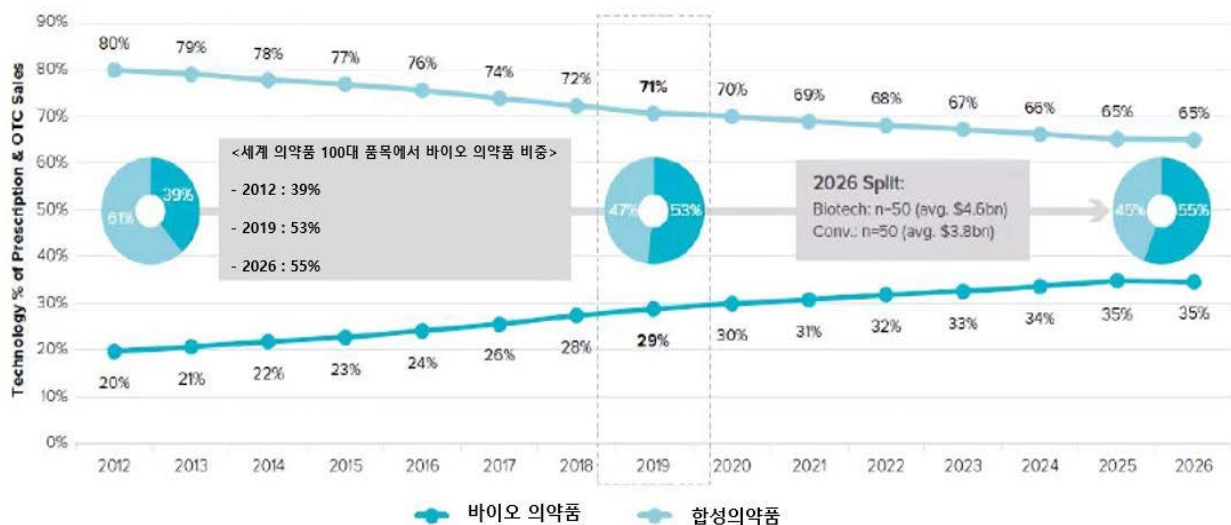
<매출 상위 100대 제품에서 의약품 종류별 비중>

구분	매출액(십억달러)			점유율(%)		
	2012	2019	2026	2012	2019	2026
전체의약품	257	318	419	100	100	100
바이오의약품	99	167	230	39	53	55

* 자료원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2020.7)」

-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에서 처방·치료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임상 중단과 공급망 변화, 치료제에 대한 수요감소로 인해 업계 전체가 다소 타격을 받고 있음

<바이오의약품 및 합성의약품 매출액 비중 비교>



* 자료원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2020. 6)」

- **[의료기기/종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2020년 의료기기 분야 시장은 3,771억 달러~4,07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1.5~8.8%로 다소 감소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적인 병원 방문을 제외한 선택적 의료서비스가 대부분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고가의 정형외과 의료기기들에 대한 수요와 심혈관 질환 수술 관련 장비의 수요가 감소함. 다만,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중환자 모니터링 및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에 의한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질 전망
 - 2021년 의료기기 시장은 점차 회복하여 6.1% 가량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후 감염 발생과 만성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의료기기/차세대 의료기기]** 현재 의료기기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환자 데이터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유의미한 임상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임상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중심 의료기기와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체외진단기기 분야도 전례 없는 급성장을 겪는 중
 - **(체외진단기기)** 2020년 체외진단 분야 시장은 782억 달러~79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9~5.3% 성장할 것으로 보여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대규모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상승으로 인한 긍정적 전망도 예측됨. 특히 코로나19 진단의 주요 방법인 분자진단의 경우 검사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체외진단 검사를 넘어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진단법도 함께 성장 중
 - **(스마트 헬스케어)** 향후 전 세계 인구구조상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매년 20% 내외의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며, 특히 해당 산업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산업과 35.3%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전망.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등이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은 상황.
 - **(원격의료)**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원격의료 분야가 대두됨.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 형태 변화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른 디지털 치료 수요가 증가하며 국가들은 원격의료 도구를 표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억 달러)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AstraZeneca (아스트라 제네카)	영국, 스웨덴	의약	243	증액	글로벌 기업 고도기술 도입, 국내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력 양성	MOU 체결 후속 조치로써 투자대상 기업 물색 지원 및 협력기회 확대
Siemens Healthcare (지멘스 헬스케어)	독일	의료기기	176	증액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기업 고도기술 도입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증액투자 유도
Boehringer Ingelheim (베링거 인겔하임)	독일	의약	129	증액	글로벌 기업 고도기술 도입	투자대상 기업 물색 지원
Prestige Biopharma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싱가포르	의약	-	증액	일자리 창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증액투자 유도
Johnson&Johnson (존슨앤존슨)	미국	의약, 의료기기	821	증액	글로벌 기업 고도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투자인센티브 지원, 국내 유망 기업과의 협력기회 확대
Celgene (셀젠)	미국	의약	112	증액	글로벌 기업 고도기술 도입	투자대상 기업 물색 지원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2020년 의약·헬스케어 산업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도 대비 21.7% 증가한 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체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2% 수준임.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PPE)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또한, 유망 국내 기업의 지분인수·합병 등 M&A 투자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스위스, 홍콩, 영국, 네덜란드 순.

<의약·헬스케어산업 세부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건,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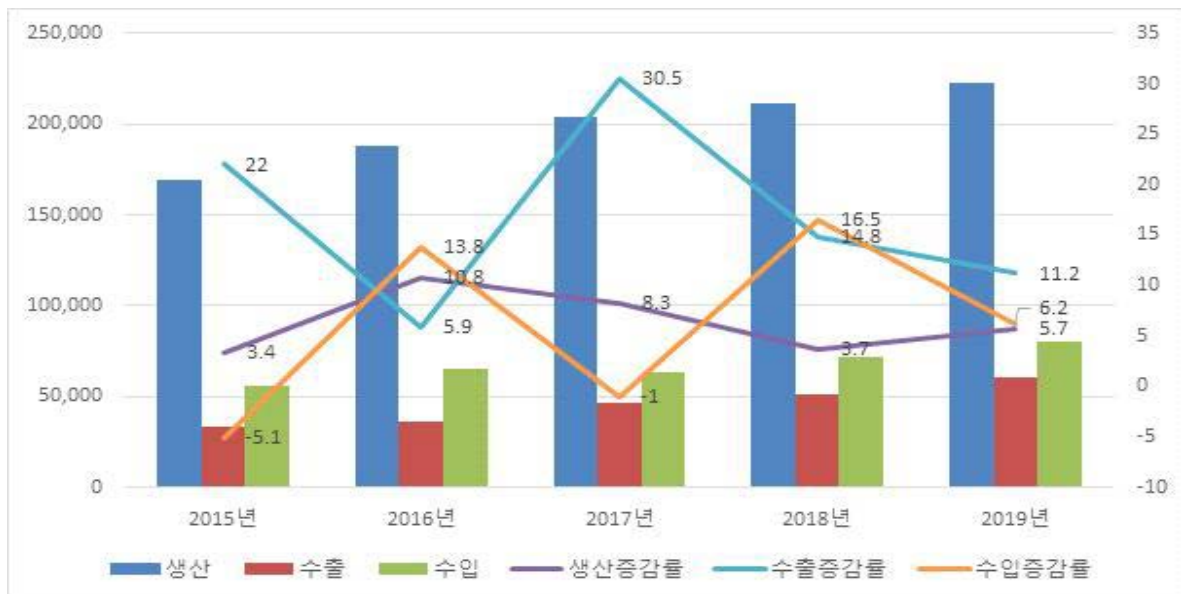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	205.5	9	321.6	4	0.9	4	182.5	2	9.5
의료용 기기 제조업	21	28.3	19	47.4	13	94.6	28	82.8	19	46.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5	8.2	7	26.3	5	9.5	9	36.4	14	441.3
의약품 제조업	7	51.0	1	4.1	3	13.6	5	109.6	4	3.3
총계	43	293.1	36	399.5	25	118.6	46	411.3	46	500.4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 파머징 지역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 시장 성장에 따른 투자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나, 중국, 인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규모 및 성장세는 다소 열위인 상황임. 2018년 아시아(일본 제외)의 점유율은 18.5%이고, 성장률이 11%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시장 성장률은 약 2~3% 내외의 정체기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인수합병 추진에 맞물려 외국인 투자 기회도 확대될 전망
-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이 이뤄질거라 전망되나, 생산설비와 같은 물리적 투자는 정체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 연구 인프라, 인력, 기업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 특성상 국내에 조성된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상 필요한 기업 유치 필요성 대두.

* 인천, 충북, 대구, 강원 등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인천 송도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 국내 의약품·의약외품 생산, 수출 및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은 5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2%로 높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산업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 2020년 의약품 수출은 72억불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음.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개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터, 배지 등 원부자재 및 장비 국산화 R&D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임
- (의료기기) 2019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8조원을 기록해 7조원을 돌파함. 2019년 수출은 4.3조원으로 약 9%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9.3% 성장해 8.5조원에 이르는 유망 분야로 전망됨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E)*	58,733	11.5	61,978	5.5	68,179	10.0	78,039	14.5
생산(A)	56,031	12.0	58,232	3.9	65,111	11.8	72,794	11.8
수출(B)	33,869	10.4	35,782	5.6	39,723	11.0	43,245	8.9
수입(C)	36,572	9.8	39,529	8.1	42,791	8.3	48,490	13.3

* 시장규모(E) : (A)-(B)+(C)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자료, (2020.6)」

- 2019년 의료기기 상위 생산품목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9조 8,423억원),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4조 7,061억원),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3조 7,793억원) 순. 2019년 수출 상위품목 순위는 생산품목 순위와 연관관계가 깊음. 삼성메디슨, GE초음파,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주로 수출하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1위로 5조 6,201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2조 6,240억원 수출을 기록함

■ 투자유치 성공사례

-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OQP)은 두올산업이 난소암치료제인 오레고보맵(Oregovomab)을 포함한 온코퀘스트의 특허, 지적재산권, 주요 계약 등을 포괄하는 무형자산 일체를 취득 후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 전문가들을 경영진으로 영입하여 바이오 회사로 재출범
- OQP는 난소암을 포함해 췌장암과 전이성 유방암 등 여러 후보물질과 기술, 특허 등 무형 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개발 중이며 향후 R&D센터 등 기능이 강화되어 아시아 지역본부 등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엑소아틀레트아시아는 러시아에서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외투기업으로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현재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글로벌 본사를 한국으로 이전할 계획임

2 정보통신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종합] 2020년 전 세계 정보통신분야 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5.4% 감소한 3.6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21년에는 4%를 상회하는 3.8조 달러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정보통신분야 투자는 통신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s)가 1.33조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도 1.37조 달러로 유사한 규모의 투자가 예상됨. 2021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7.2%로 가장 높은 성장이 예측되며, 이는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보안 및 코로나19 대응 등을 실무에 적용하는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수요에 기인함
 - * 기업용 소프트웨어 성장률 : -3.6%(2020년) → +7.2%(2021년), 특히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지출 지속 증가 예상(40%)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투자는 2020년 -3.1%의 감소세로 추정되나, 2021년 5.2% 이상 성장세 증가 예상
- 2020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부문은 13.4% 역성장이 추정되는, 디바이스 부문으로 PC, 태블릿, 핸드폰 등의 업그레이드 수요 정체가 원인이나, 2021년 4%대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
- IT서비스 역시 2020년 4.6% 역성장 추정되나, 팬데믹 대응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라, 2021년 이후 4%대의 성장세 회복을 전망

<전 세계 정보통신 시장 지출규모(2019-2021)>

(단위 : 십억 달러, %)

세부업종	2019		2020		2021(예상)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데이터센터시스템	215	1.0	208	-3.1	219	5.2
기업용 소프트웨어	477	11.7	459	-3.6	492	7.2
(디바이스)기기	712	-0.3	616	-13.4	461	4.0
IT서비스	1,040	4.8	992	-4.6	1,033	4.1
통신서비스	1,372	-0.6	1,333	-2.9	1,370	2.8
총계	2,816	2.4	3,609	-5.4	3,755	4.0

* 자료원 : Gartner (2020.10)

- [퍼블릭 클라우드] 2021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SaaS가 지속적으로 선도 성장하나, 성장세는 다소 감소하여 전년 대비 6.3% 증가한 2,579억 달러로 전망됨
- (애플리케이션서비스(SaaS)^{*})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SaaS는, 2018년 45% 성장세를 정점으로 2020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2020년 1,047억 달러를 저점으로 20%대의 성장세로 2021년 1,210억 달러, 2022년에는 1,4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SaaS(Software as a Service) :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도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IT인프라를 빌려주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Platform as a Service)등이 있음.
- (시스템인프라서비스(IaaS)) 2019년 445억 달러(전년 대비 18.3% 성장)에서 2020년 504억 달러(19.5%)에 달하고, 2022년까지 20%에 달하는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 전망임. IaaS 시장 선도 기업으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에저(Azure), 알리바바(Alibaba), 구글(Google) 등이 있음
- (애플리케이션인프라서비스(PaaS)) 2018년 264억 달러로 121.8% 성장했던 서비스로 2019년부터 하향 안정되어 2022년까지 20%대 성장 지속적 유지 전망됨(2017년 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7.3%). 2020년 매출액 435억 달러, 2022년 720억 달러 전망
-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BPaaS)) 2018년 1.2% 감소했으나, 2019년~2022년 까지 4~7% 대의 지속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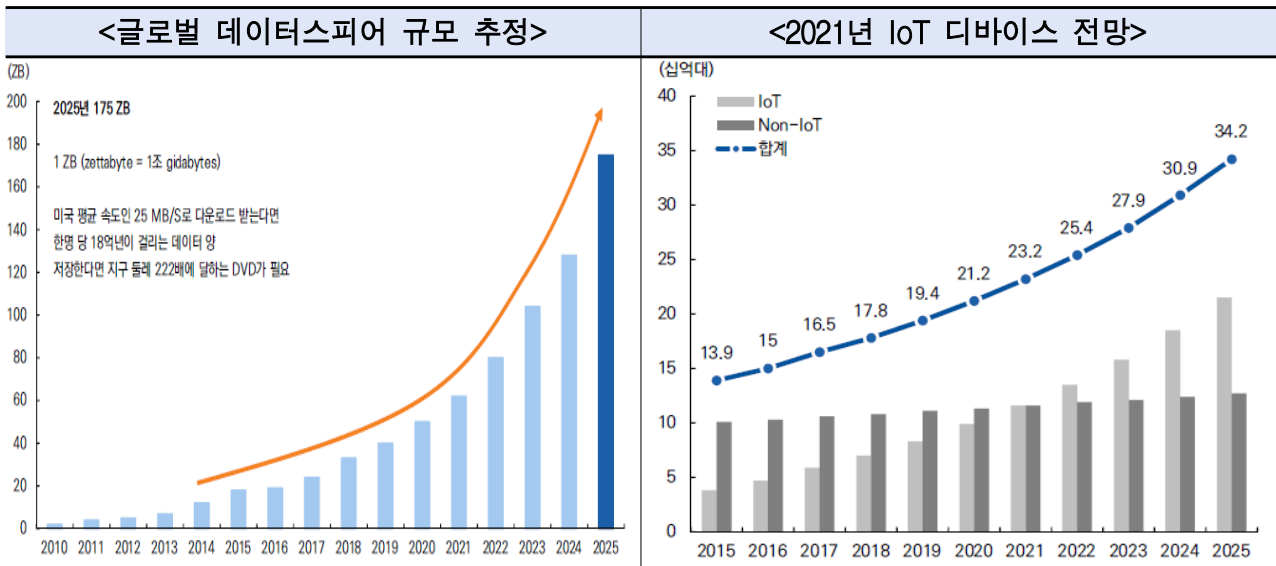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전망(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BPaaS)	41.7	45.2	43.4	46.3	49.5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서비스 (PaaS)	26.4	37.5	43.5	57.3	72.0
애플리케이션 서비스(SaaS)	85.7	102.0	104.7	121.0	140.6
관리 및 보안 서비스(CMSS)	10.5	12.1	14.7	16.1	18.4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IaaS)	32.4	44.5	50.4	64.3	81.0
총계	196.7	242.7	257.9	307.0	364.1

* 자료원 : Gartner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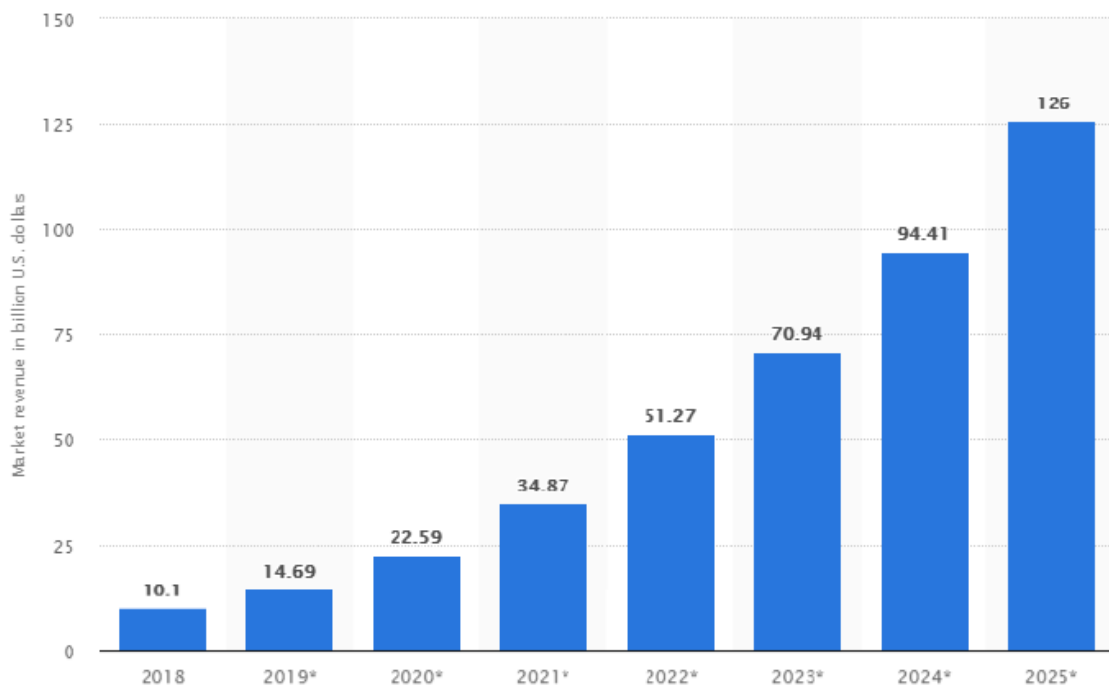
- [5G] IoT시대를 맞이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를 위해 5G 통신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2025년 전 세계 데이터는 175ZB로 10배가 증가해 전 세계 22백만 개 일자리, 12조 3억 달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 대용량 데이터 전송, 저지연 및 초연결, 데이터 용량 증대로 활용성 확장 후 자율주행차, VR /AR 및 IoT, 미디어 부문에 활용될 것을 기대



* 자료원 : 미래에셋대우 IoT Analytics

- [IoT]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인 IoT시장은 2018년 1,900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24.7% 성장하여 약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IoT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급성장해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 3,631건, 총 1,560조원이 IoT에 투자됨(건수는 2008년 160건에서 2017년 727건으로 454% 증가). 지역 기준으로는 북미(1,822건), 아시아태평양(850건), 유럽(847건), 아프리카(90건), 남미(22건)순 기록함
- 주식공모 1,292조원(비중 83%), M&A 224조원(14%) 형태가 가장 많음. 2018년 기준 IoT 최종 사용 산업 분야는 금융서비스가 21.1%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며, 소매, 공공, 의료, 제조, 운송, IT가 뒤를 따름
- [AI] 2020년 S/W, H/W 및 서비스를 포함한, 글로벌 AI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3% 성장한 1,565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19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추정되나,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909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장이 전망되어 6년 누적 연간성장율(CAGR)은 46.2% 성장이 예상됨(IDC, Grand View Research).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 (2018~2025)> (단위 : 10억 달러)



* 자료원 : Statista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단위 : 십억 달러)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Amazon (아마존)	미국	클라우드	177.8	증액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Oracle (오라클)	미국	클라우드	39.8	신규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Cisco Systems (시스코 시스템즈)	미국	클라우드	49.3	증액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Equinix (에퀴닉스)	미국	데이터센터	4.4	증액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Digital Realty (디지털리얼티)	미국	데이터센터	24	신규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Huawei (화웨이)	중국	5G R&D	92.5	증액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Intel (인텔)	미국	5G R&D	22	신규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현금 및 입지지원
Deutsche Telekom (더치텔레콤)	독일	5G 양자통신	85	신규	글로벌 동반성장	창업벤처기업 지분투자
Siemens (지멘스)	독일	스마트팩토 리	100.4	증액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디지털뉴딜
Rolls-Royce (롤스로이스)	영국	스마트팩토 리	8	신규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디지털뉴딜
GE (지이)	미국	IoT	99	증액	고도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디지털뉴딜
Unifi.id (유니파이 아이디)	영국	스마트빌딩	N/A	신규	글로벌 동반성장	IoT분야 국내기업 매칭
SST Wireless (에스에스티 와이어리스)	캐나다	IoT	0.004	신규	글로벌 동반성장	IoT분야 국내기업 매칭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 2020년 기준 정보통신 산업 FDI는 2019년도 동기 대비 17.9% 감소한 16.8억 달러가 투자신고되어, 2017년 이후 감소세 지속. 산업별로는 전통적인 분야인 게임, e-커머스, 클라우드,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 증가함

* 신규 대형 e-커머스 유치 약세 및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클라우드 프로젝트 중단으로 업종 실적 하락에 기여

** e-커머스(C社, 1.45억 달러), S/W (A社 1.44억 달러), 클라우드 (B社, 3.5천만 달러/A社, 7.1천만 달러/E社 2천만 달러) 등

<연도별 정보통신 산업 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세부업종	2017	2018	2019	2020
정보통신산업 (비중)	1,326 (8.6)	3,124 (20.0)	2,042 (13.8)	1,683 (8.2)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종합] 전자상거래와 게임 부문의 그린필드형 대형투자와 M&A형 대형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며, 4차 산업 생태계 관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정부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신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창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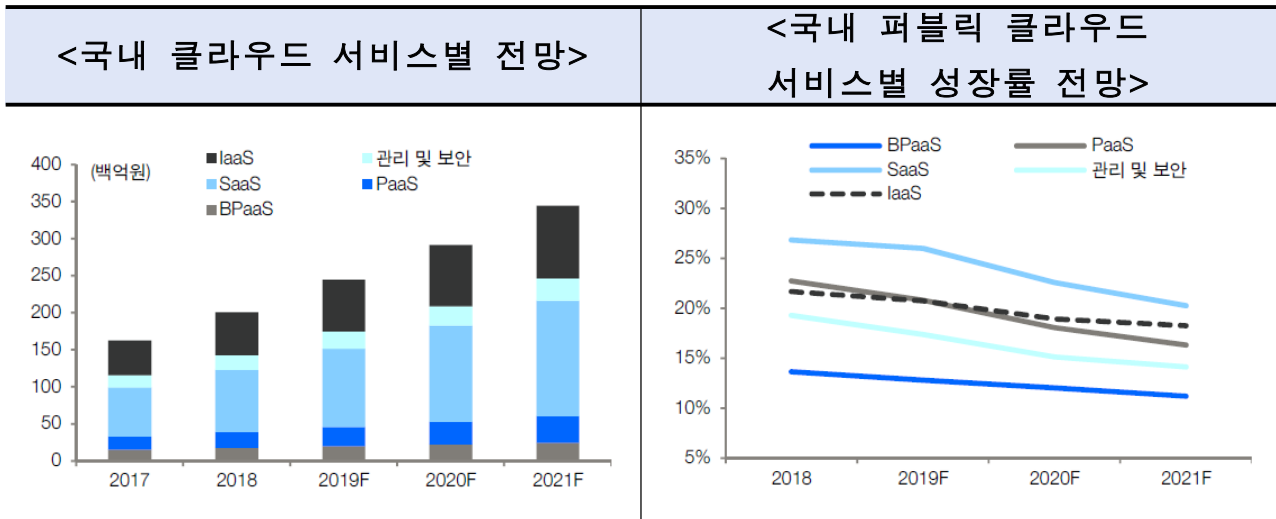
○ [투자트렌드/클라우드]

- (클라우드 시장)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21년 4.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내 입지는 미미함.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그린필드형 투자와 5G 상용화에 따른 시너지로 클라우드,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퍼블릭서버 + 프라이빗서버로, 퍼블릭서버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기업이나 개인에 서버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프라이빗 서버는 자체 서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클라우드 이용률) 2018년 국내 기업 클라우드 이용률은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10인 이상 기업의 평균 클라우드 사용률(30.6%)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9%로 33개국 중 29위를 차지함(규모의 경제 구축이 시장성장 지체의 가장 큰 원인)

- (클라우드 관련 국내기업 상생) IaaS부문 시장점유율이 AWS, KT, LG 유플러스 순이고, PaaS와 SaaS 부문에서도 외투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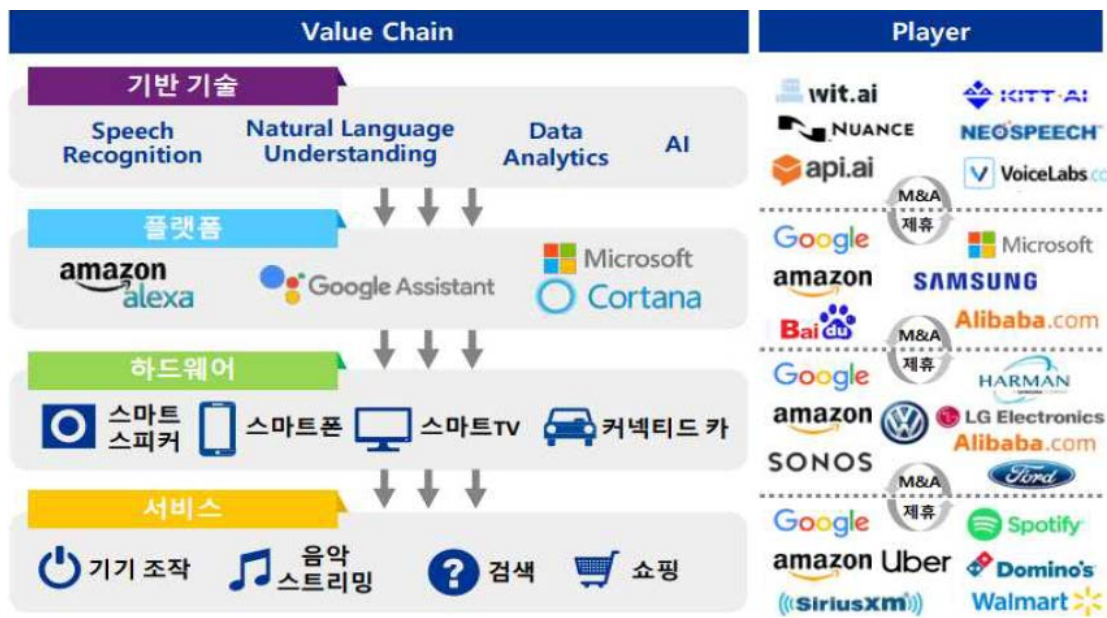


* 자료원 : Gartner, 현대차증권

○ [투자트렌드/AI]

- (AI 시장)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0년 11.1조 원으로 추정되며, 제조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AI 음성인식 및 통번역 시장 진입에 따라 급 성장이 예상됨. 혁신스타트업 지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대기업들의 신성장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안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장 추구형 투자 역시 증가할 예정임
- (AI기술 수준) 한국의 AI기술 수준은 2017년 기준 미국과 1.7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나, 한국의 AI반도체 특허 출원은 2017년까지 580건으로 세계 최고이고, 미국(182건), 일본(17건) 순으로 기록함
- (AI,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및 전송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지능형 플랫폼 시장의 밸류체인을 따라, 다양한 시장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

<대화형 플랫폼 밸류체인과 분야별 플레이어>



* 자료원 : 삼정KPMG

○ [투자트렌드/IoT]

- (IoT) 국내 IoT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1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디바이스 부문(3.4조원, 전체의 50%), 네트워크(24%), 플랫폼 (13%), 서비스(12%)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IoT 효율화 분야 투자 증대) IoT 솔루션 분야는 대기업의 전속 시장(captive market)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공정거래법의 제한에 따라 지분매각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이 기대됨. 인건비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원가 절감 수요에 따라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투자트렌드/5G]

- (5G) 5G 상용화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 특히 자율주행, 원격서비스 등의 4차 산업용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30년 42.3조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제조업과 자동차, 금융, 미디어 순으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임

- [투자트렌드/한국판 뉴딜 정책]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설정하고, 2025년까지 국비 87.5조원을 투자할 예정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로 구성됨
 - 국비 투자는 2020년 4.8조원, 2022년까지 누적 49조원, 2025년까지 누적 114.1조원 투자계획
 - * 디지털 뉴딜에 국비 44.8조원, 그린 뉴딜에 42.7조원, 안전망 강화에 26.6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함

<한국판 뉴딜의 구조>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 (단위: 조원)>			
2+1 정책 방향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산업·기술 융복합·혁신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지탄소 전환 가속화	분야	과제	'20~ '22	'20~ '25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재정 투자 新시장·수요 창출 마중물 제도 개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총 계		49.0	114.1
		합 계		18.6	44.8
		소 계		12.5	31.9
		1. DNA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발·활용 ② 1·2·3차 산업업으로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3.1 6.5 2.5 0.4
주 진 과 제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 비대면 산업 육성 4. SOC 디지털화	총 계		0.6	0.8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0.3	0.3 0.5	
	소 계		1.1	2.1	
	⑦ 스마트 의료 및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⑧ 중소기업 원격근로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2 0.6 0.3	0.4 1.0 0.7	
	소 계		4.4	10.0	
5.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업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3.7 0.6 0.1	8.5 1.2 0.3
합 계		19.6		42.7	
소 계		6.1		12.1	
6.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⑭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⑮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6 1.2 2.3	6.2 2.5 3.4
소 계		10.3		24.3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⑯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⑰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⑱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1 3.6 5.6	2.0 9.2 13.1
소 계		3.2		6.3	
⑳ 녹색 선도 융합기업 육성 및 차탄소·녹색산업단 조성 ㉑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0 1.2		3.6 2.7	

* 자료원 : 기획재정부, IBK

■ 투자 성공사례

○ 아마존웹서비스(AWS)

- 2012~2020년 국내 투자로 국내 커머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과 금융 및 공공분야 규제 완화 시장 수요 증가에 기여함
-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호스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로 매출액은 2019년 기준 256억 달러에 달함

- 국내에 3개 법인을 설립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 선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고, 경쟁 확대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기술 경쟁력을 제고함.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글로벌 고객 확보에 기여함

○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Azure)

- 인베스트코리아는 201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의 국내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다양한 입지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음. 2016년 부산 미금산단 외국인투자지역내 178,409㎡ 부지에 6개의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하나의 ‘리전’ 구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중

○ 에퀴닉스(Equinix)

- 2019~2020년 국내에 투자하여 상암동에 SL1 망중립형 데이터센터를 설립 가동 중
- 에퀴닉스는 데이터센터 인터커넥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체로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 56억 달러에 달함
- 상암 삼성 SDS내에 임대하여 데이터 센터 구축 완료(코로케이션)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도 추진 중임.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가의 국내 진입에 따라, 고객과 서비스·컨텐츠 제공사를 연결하는 미들맨의 수요 급증으로 시장 확대가 되었으며, 코로케이션 대안 제공으로 진입비용이 절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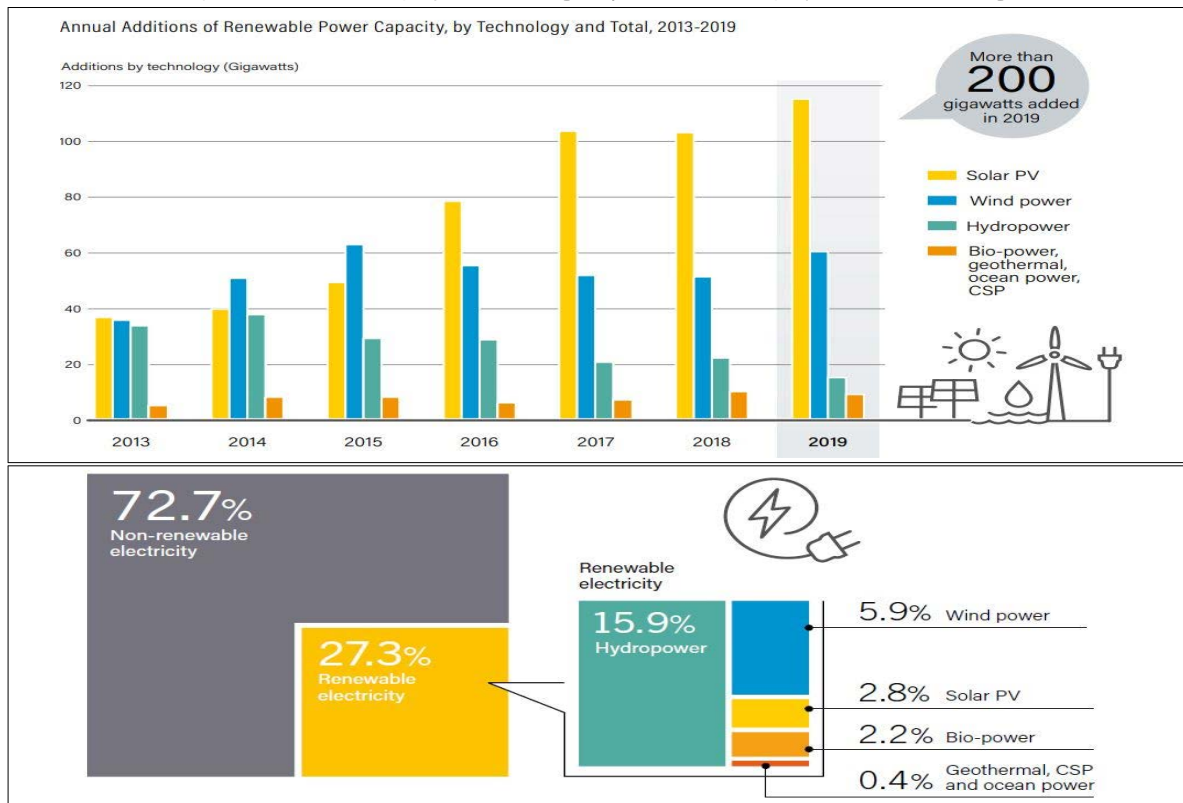
3 에너지/환경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 [에너지/개황] 2019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보급량은 200GW가 증가하여 누적 2,588GW를 기록함
 - 신규 발전설비 보급은 태양광 약 115GW(57%), 풍력 60GW(30%), 수력 16GW(11%), 기타 순으로 증가
 - 전 세계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3%까지 집계되고 있으며,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 순으로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
 - 2019년 기준 최소 32개 국가가 10G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추이 및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 자료원 : REN21,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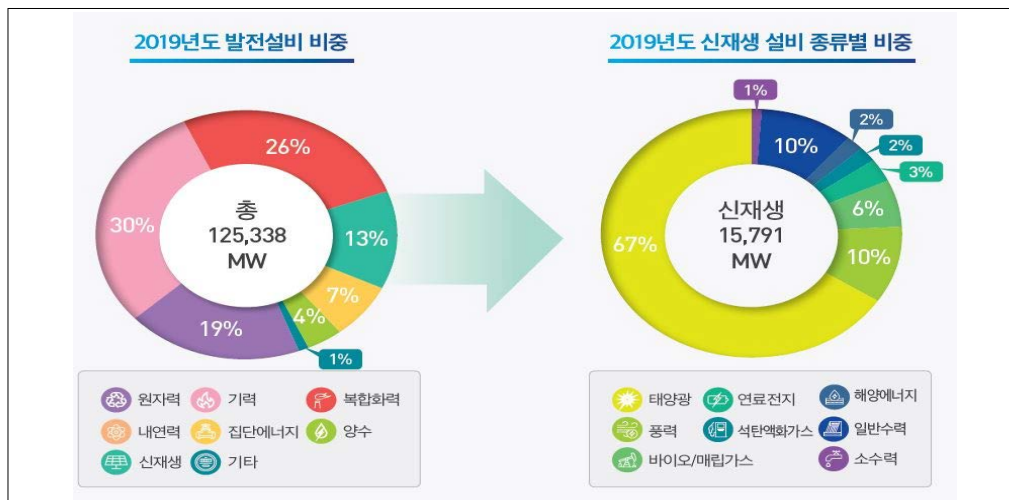
- [에너지/국가별 발전용량 보유규모] 수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설비 보유 규모는 중국(789GW), 미국(282GW), 브라질(144GW), 인도(137GW), 독일(124GW)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9년 기준)
 - 신규 발전설비 설치 역시 중국이 67GW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22GW, 인도 13GW, 브라질과 일본이 각각 8GW를 설치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감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현황

○ [에너지/발전설비 보급 현황]

- 2019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는 총 125GW를 기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의 13%를 차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운데 태양광이 67%, 태양광이 10%를 차지함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현황>



* 자료원 : 2019년도 발전설비현황(전력거래소)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은 전남(2.5GW), 전북(2.1GW), 충남(2GW)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2019년 기준)

○ [에너지/기업 및 투자 현황]

- 201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산업 관련 기업체 수는 483개로 집계되었으며, 투자액은 총 8,079억 원을 기록하였음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전체 및 주요 품목)>

(단위 : 개, 명, 억 원)

연도	기업체 수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수출액	투자액
2017	438	13,927	95,463	40,608	43,161	8,907

품목	기업체 수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수출액	투자액
태양광	118(26%*)	7,522(54%)	64,358(67%)	19,331(48%)	36,740(85%)	7,731(95%)
풍력	27(6%)	1,853(13%)	10,957(11%)	2,485(6%)	5,064(12%)	120(1%)

*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 태양광 산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수출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풍력산업은 전체 기업 수는 다소 적지만, 매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보다 수출이 큰 산업임을 알 수 있음

■ 산업별 동향

○ [에너지/태양광]

-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 중국 및 미국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개도국 등 신흥시장 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세계 태양광 수요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프로젝트 연기)** 또한,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활동 및 금융 조달이 위축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경매 예정된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으며, 총 45GW의 프로젝트가 올해 낙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가격경쟁력 향상)** ' 20년 1분기 기준 주요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모든 발전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향후 제품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태양광 발전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태양광 발전 주요 부품 기자재 가격 현황>

- **(폴리실리콘)** 2020년 4월 기준 단결정 웨이퍼용 폴리실리콘 가격은 \$8.1/kg, 다결정 웨이퍼 폴리실리콘 가격은 \$5.5/kg으로 사상 최저치 달성
- **(태양광 모듈)** 단결정 실리콘모듈 및 다결정 실리콘모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17% 하락했으며, 전월 기준으로 각각 7.2%, 3.6% 하락폭을 달성. 미국 및 유럽 등 모듈 주 수요처의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태양전지)** 2020년 4월 단결정 태양전지 가격은 \$0.10/W, 다결정 태양전지 가격은 \$0.065/W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 43%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10% 이상 하락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동향 보고서

- **(국내 태양광 산업 동향)** 2020년 3월까지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43백만 달러, 태양전지 110백만 달러, 모듈 339백만 달러를 기록함. 폴리실리콘은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62% 감소 한 수준이며,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은 ' 19년 기준 수출의 93%를 차지하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자급률 상승 및 가격 약세에 이중고를 겪고있는 상황임. 태양전지는 미국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93% 증가. 모듈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내 태양광 산업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2018년	746.4	158.2	1,446.6
2019년	476.2	358.8	1,223.3
2020년 1분기	42.9 (전년 대비 62% 감소)	110.2 (전년 대비 93% 증가)	339.3 (전년 대비 0.6% 감소)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동향 보고서

○ [에너지/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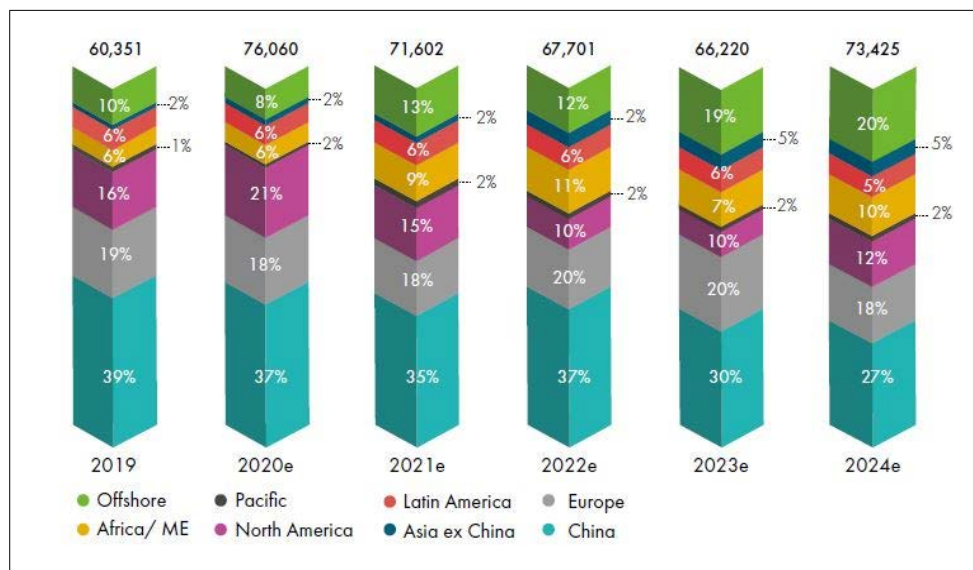
- (보급현황) 2019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60.4GW가 추가되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신규 설치의 6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 해상풍력의 경우 6.1GW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의 누적용량은 29GW를 달성

<풍력발전설비 설치 현황 추이>



* 자료원 :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Annual Report 2019

<풍력발전설비 설치 전망치>



* 자료원 :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Annual Report 2019

- (해상풍력 신규설비) 2019년 신규 발전설비 6GW 중 2.3GW는 중국이 설치하였으며, 1.8GW는 영국 그리고 1.1GW는 독일에서 증설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해상풍력 자원의 잠재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산업 전망) 전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비는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71GW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 해상풍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터빈 가격의 하락) 터빈 가격은 제조사 간 가격 경쟁으로 세계 평균 터빈 가격이 2017년 하반기 \$99만/MW로 처음으로 \$100만/MW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북미 지역의 터빈 가격은 현재 \$83만/MW, 서유럽의 터빈 가격은 \$84만/MW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터빈 가격 추세>



* 자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단위 : 달러)

투자기업명	투자기업 (국내외투법인)	프로젝트	투자 신고 시기	투자금액	투자방식	신규
Ocean Winds	오더블유 코리아(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20년 12월	1억 USD	합작	신규
Equinor	에퀴노르 사우스 코리아 후퐁(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20년 9월	12백만 USD	단독	신규
Orsted	오스테드 코리아(주)	인천 해상풍력 발전	20년 7월	18백만 USD	단독	신규
Vestas	-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 공장설립	21년 하반기 (예정)	미정	단독	신규
EDPR	-	전남 태양광 발전	21년 하반기 (예정)	미정	단독	신규
Baywa R.E	바이와알이 코리아	국내 태양광 발전	21년 하반기 (예정)	미정	단독	신규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및 전기발전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 특성상, 단계·시기별 투자금액의 규모 차이가 발생

<신재생에너지 산업 세부 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11	143	20	83	16	197	9	46	17	249
전기발전업	4	298	6	135	25	1,001	24	198	35	172
총계	15	441	26	217	41	1,198	33	244	52	420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가 맞물려 성장세 감소 예상
 - **(美 대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바이든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5년까지 환경과 청정에너지 산업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인 요인 발생
 - **(에너지 효율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글로벌 공급망은 전력산업에서의 변동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성상 '분산형 전력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린에너지)** 제로 탄소화가 국제 이슈가 되면서 주요 국가의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제시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그린 수소, 전기차, 수소차 등과 연계할 부문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투자성공사례

- **(해상풍력)** '20년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관심 대상이 되었음. 특히, 울산 및 전남 그리고 인천을 비롯한 지역에 해상풍력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Ocean Winds 및 Orsted는 해당 관할 무역관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사례임

<주요 투자 성공사례 요약>

지역	내용	투자가
울산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국내외 투자사와 MOU 체결(20.6) 및 '23년부터 단계적 착공 추진 - 전체 발전단지는 조성 이후 6GW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Ocean Winds
인천	- 인천 덕적도 서쪽 인근 해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2026년부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전단지 규모는 1.6GW가 될 것으로 전망	Orsted

4 화학소재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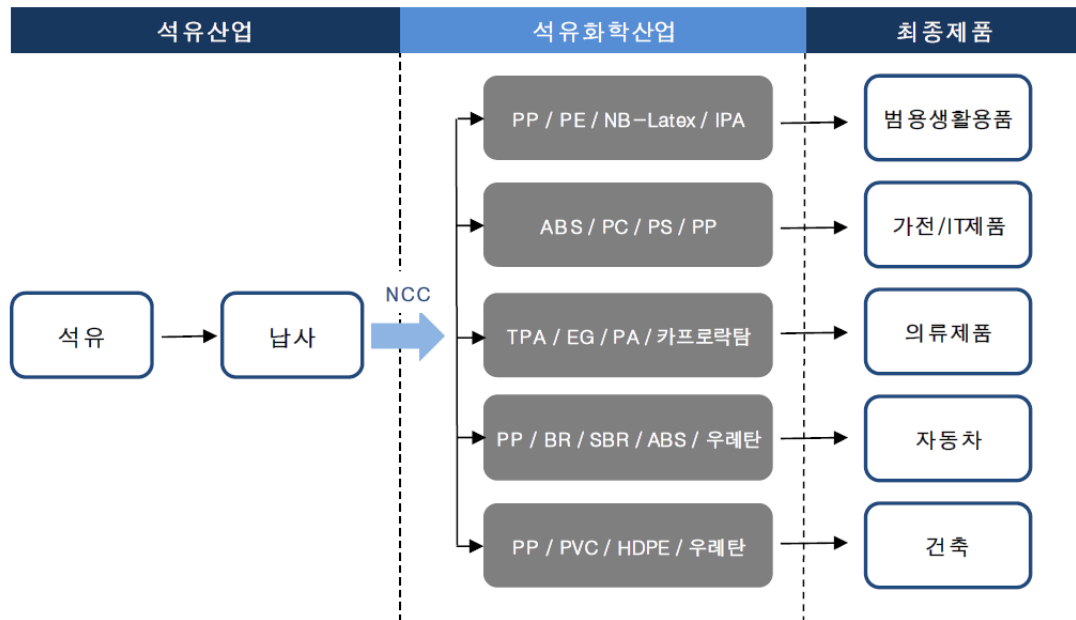
○ [화학/종합]

- '20년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침체를 맞았던 전통적인 석유화학산업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비대면 택배용 포장재(PE : 폴리에틸렌), 마스크용 부직포(PP : 폴리프로필렌), 손세정제(IPA : 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수술용 장갑(합성라텍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을 발표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임. 크게 그린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미래 모빌리티의 3개 과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각종 설비, 소재 생산기업들의 증설과 신규고용을 기대하고 있음
-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그린딜'의 경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교역,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가 도입될 경우 이는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장비, 전기/전자 장비에서 CO2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함

○ [화학/석유화학산업 불황 탈출]

-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cycle)' 사업으로 약 4~5년을 주기로 호황 2~3년, 불황 2년 등의 주기를 반복함. 석유화학설비 투자에는 워낙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 후 2~4년 뒤에 설비가 준공되는 관계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됨
- '20년의 불황 사이클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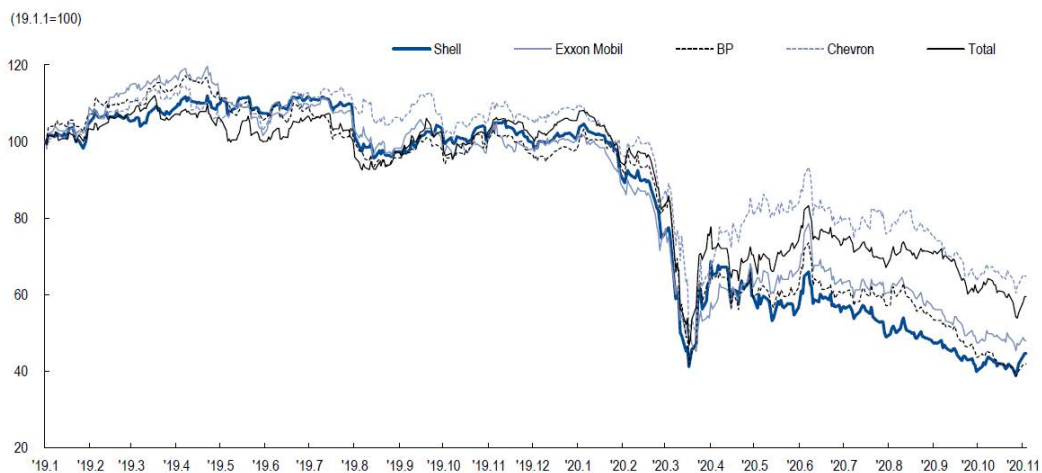
<석유화학 주요제품 종류와 사용처(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



○ [화학/저탄소 산업으로 전환]

- 기존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더이상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주가 하락(Bloomberg, NH투자증권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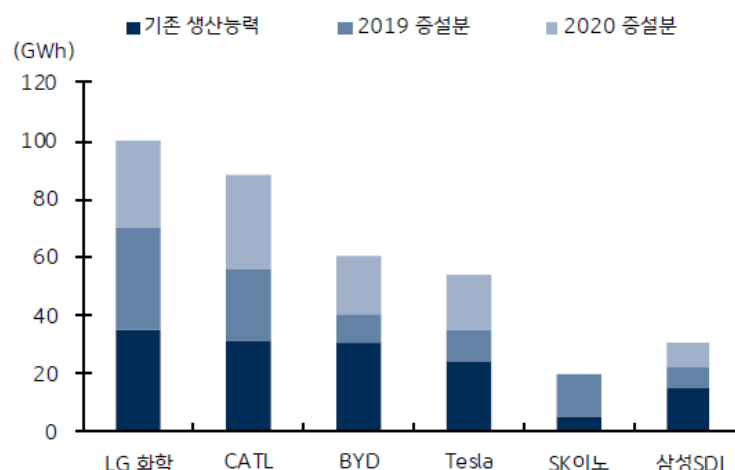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들은 저탄소 시대를 대비해 각사별 대비 전략을 발표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사업 분야 재편과 M&A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기업명	주요 전략
BP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탄소집약도 50% 감축 목표
Shell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목표 - 독일 에너지저장장치 기업 Sonnen 인수, 태양광 발전사 Silicon Ranch, ESCO Pacific의 최대 주주 - 해상풍력설비를 '30년까지 3~4GW, '40년까지 10GW로 확대 예정
Total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 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25년까지 25GW로 확대('20년 6GW) - 인도 아다니 그룹의 태양광 사업지분 50% 인수(5.1억 달러)
Equinor	2030년까지 글로벌 영업의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모든 사업 탄소집약도 50% 감축

○ [화학/자동차배터리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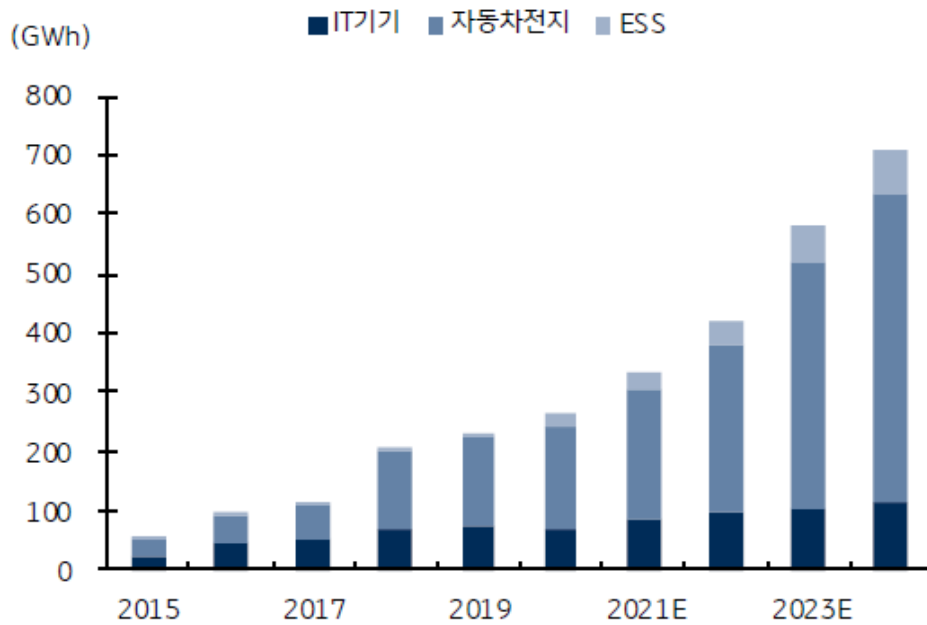
- '20년 하반기 유럽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강화 때문이며,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한 유럽 내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차(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임

<세계 2차전지 수요전망(BNEF, KB증권 추정)>



- 중국은 보조금에 의존한 전기차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이제 유럽 시장이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LG화학은 '20년 중국 CATL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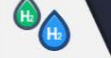
<세계 배터리기업별 생산능력 추이(자동차전지 기준)(Bloomberg, KB증권 추정)>



○ [화학/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적극 추진]

-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340억원의 수소경제펀드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국가를 목표로 관련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발표 자료>

	2018	2022	2030	2040
 H ₂ 트럭	1,800 대	81,000 대	내수 85 만대	620 만대
 H ₂ 충전소	14 개소	310 개소	660 개소	1,200 개소
 H ₂ 발전	307 MW	1.5 GW	-	15 GW
 H ₂ 저장	13 만톤 / 년	47 만톤 / 년	-	526 만톤 / 년
 H ₂ 가격	8000원 / kg	6,000 원 / kg	-	3,000 원 / kg
 H ₂ 생산	부생수소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수전해, 해외수입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수전해, 해외수입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Air Products (에어프로덕츠)	미국	수소산업	89억 달러	증액	수소경제활성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BASF (바스프)	독일	스페셜티 화학제품	593억 유로	증액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여유생산시설 적극 활용 유도
Linde	독일	수소산업	280억 달러	증액	수소경제활성화	합작투자 및 현금인 센티브
Pilbara	호주	이차전지	-	신규	이차전지소재	합작투자 및 현금인센티브
Umicore	벨기에	이차전지	34억 유로	증액	이차전지재활용 사업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M (쓰리엠)	미국	특수소재	321억 달러	증액	반도체, 수소경제 활성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 석유화학산업의 사이클적인 불황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비둔화로 공장 운영 축소 및 투자축소로 화공분야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함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화공	103	1,399	106	2,924	126	1,822	87	3,944	64	924
금속·금속가공	35	214	52	533	43	355	35	24	26	64
일차전지 및 축 전지제조업**	11	139	15	304	9	256	5	30	6	286
총계	149	1,752	173	3,761	178	2,433	127	3,998	96	1,274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이차전지제조관련신고 포함

- 기존에 한국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대표적 외국인 투자기업인 BASF, Toray, Solvay 등 전통적인 화학기업들은 사업재편 및 역내권 투자 우선 등을 이유로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회하고 있음
- 이차전지 분야는 전기자동차 관련 수요증가와 향후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투자트렌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와 높은 생산 원가 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범용 화학제품 생산지로서의 한국은 더 이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 등을 감안한 관련 스페셜티 화학 소재 분야의 투자유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수소경제, 이차전지 관련한 산업에서 한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와의 공동 투자유치가 필요
- 또한 중국기업들이 미국 등으로의 제품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 부분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

■ 투자성공사례

○ U社の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R&D 센터 투자

- '2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내유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인정하는 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화학소재 분야의 주목할 만한 투자임. 360억 원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 기존의 협소한 R&D센터를 확장 이전하면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포함 약 10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임
- 한국 정부는 금번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지정 및 현금지원을 결정함

5 전기전자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반도체] 2021년 반도체 시장규모는 4,60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0년 대비 약 6% 성장할 전망. 본격적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파운드리 연산 능력 향상 등으로 2021년 이후 약 3년간 반도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됨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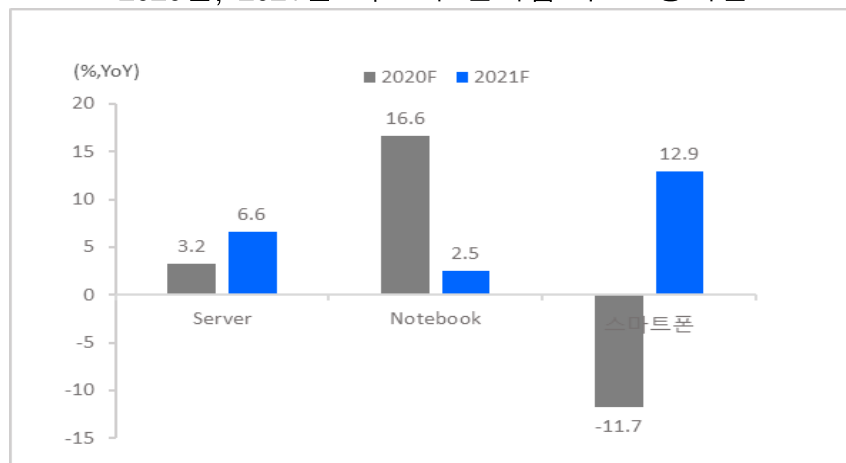
(단위 : 10억 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2021년(E)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	338.93	412.22	468.78	412.22	433	460
	매출 성장률	1.1%	21.6%	13.7%	-12%	5.1%	8.4%

* 자료원 : Statista(2020), WSTS(2020)

- (메모리 반도체) 2017년 호황 이후 서버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교체 시기가 2021년부터 도래할 예정이며, DDR5 도입,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 수요와 맞물려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 모두 상승할 전망

<2020년, 2021년 메모리 완제품 수요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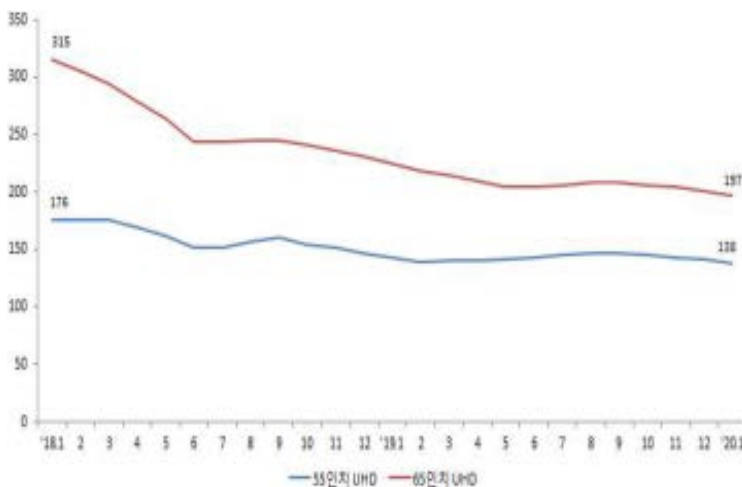
* 자료원 : DRAMexchange, 현대차증권

- (시스템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Trendforce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2021년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로 파운드리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에 13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업계 1위인 TSMC도 2023년까지 약 23조원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미세 공정 투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기준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54%, 18%로 예상되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미세공정 투자 덕분에 5~14nm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2020년 4분기 30%에서 2021년 4분기 3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디스플레이] 2020년 디스플레이 수요는 전년 대비 약 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은 약 6% 성장 전망.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성장률은 2018~2025년 연평균 1.0%로, OLED는 LCD를 대체하면서 연평균 10.6% 성장할 것으로 예상

<LCD TV 패널 가격추이('18-'20)>

(단위 : 달러)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단위 : 억 달러)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ASML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120	증액	고도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투자인센티브 지원
Applied Materials	미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146	증액	고도기술 도입	투자인센티브 지원
Teradyne (테라다인)	미국	반도체 장비	23	증액	고도기술 도입	투자인센티브 지원
Advantest (아드반테스트)	일본	반도체 장비	18	증액	고도기술 도입	투자인센티브 지원
Siltronic (실트로닉)	독일	실리콘 웨이퍼	17	증액	공급망 안정화	지속적인 F/U 및 인콰이어리 지원 등
Sumco (섬코)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웨이퍼	28	증액	공급망 안정화	투자 인센티브, 인콰이어리 지원 등
Hoya Corporation (호아전자)	일본	블랭크 마스크	55	증액	고도기술 도입, 공급망 안정화	투자 인센티브, 인콰이어리 지원 등
Cabot Microelectronics (캐봇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공정 재료	10	증액	공급망 안정화	투자 인센티브, 인콰이어리 지원 등
Merck (머크)	독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170	증액	고도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투자 인센티브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
Kanto Denka Kogyo (칸토덴카공업)	일본	반도체 가스	4.97	증액	고도기술 도입, 공급망 안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Showa Denko (쇼와덴코)	일본	반도체용 특수가스	89	증액	고도기술 도입, 공급망 안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Shin-Etsu Chemical (신에츠화학)	일본	포토 레지스트	130	증액	고도기술 도입, 공급망 안정화	지속적인 F/U 및 인콰이어리 지원 등
JSR Micro (JSR마이크로)	일본	포토 레지스트	44 *JSR Corporation 기준	증액	고도기술 도입, 공급망 안정화	지속적인 F/U 및 인콰이어리 지원 등
Tokyo Ohka Kogyo (티오케이)	일본	포토 레지스트	9.52	증액	고도기술 도입, 공급망 안정화	지속적인 F/U 및 인콰이어리 지원 등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전기전자 부문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건수 및 금액)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20년 소폭 상승하였음

<전기전자 산업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기·전자	110	1,019	118	1,509	99	1,354	84	1,089	86	1,652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

-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 첨단기술, 소재부품장비, 신성장동력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등 2022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여 소재부품장비 초격차를 목표로 육성할 계획
- (전기전자부품) 저조했던 IT 디바이스 수요가 2021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통신, 카메라 부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반도체) 2021년 본격적인 반도체 호황기가 시작됨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도체 재료, 장비 부품 수요에 발맞춰 협력사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디스플레이) 2020년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인수를 위한 중국기업의 투자 건이 다수 있었던 해로, 2021년도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중국 정부의 LCD 시장 장악, 한국의 OLED 양산 능력, QD-OLED 기술개발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디스플레이 부문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한국에서는 OLED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투자성공사례

- 일본 A社は 2019년부터 3년간 미처분이익잉여금 300억 원을 투자하여 전북 완주군에 반도체용 고유전 재료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증설하였음
 - A社は 수지첨가제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으로, 1917년 설립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곳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 '20년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외투기업 투자 신고 사례로,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미국 D社は 천안시에 포토레지스트 및 CMP 패드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28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 소재 국산화,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6 기계/로봇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종합]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 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비록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실시 및 2020년의 기저효과에 의해 세계 수요는 늘어나 전반적으로 2021년 주요 산업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기계산업] 글로벌 ICT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호황이 예상되며, 이에 반도체 제조 기계 등의 수요 증대에 따른 기계 산업의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드론, 로봇 및 무인·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 설비투자 및 기계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내외 SOC 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수요가 소폭 증가할 전망
 - 2022년 시행 예정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한 가수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유지보수 중심의 한국판 뉴딜 예산 편성으로 중대형 장비보다는 소형장비 중심의 확산세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굴착기, 지게차 등 주요 건설기계의 국내 판매는 2021년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2020년 대비 약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건설기계산업 전망>

연도	생산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무역수지 (백만불)
2016	7,431	2,095	4,623	843	3,780
2017	9,182	2,468	5,886	1,016	4,870
2018	10,005	2,201	6,910	1,050	5,860
2019	8,484	1,899	5,804	936	4,868
2020(E)	7,623	2,000	4,864	918	3,946
증가율	-10.1	5.3	-16.2	-1.9	-18.9
2021(F)	8,643	2,076	5,462	993	4,469
증가율	13.4	3.8	12.3	8.2	-18.9

* 자료원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 (기계산업 주요 현안) 2021년 기계산업은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시대,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 확대, 글로벌 로봇 강국 도약 등이 이슈로 대두
 - ①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구축 시대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바이든노믹스가 시작되는 미국은 향후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정책이 추진될 예정
 - ②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 확대 :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미-중간 무역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핵심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부품 자립화의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및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 핵심 주요 산업의 자립화 또는 공급선의 다양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기계 및 부품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됨
 - ③ 글로벌 4대 로봇 강국 도약 :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을 목표로 하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
 -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18년 294억 달러에서 2022년 724억 달러로 연평균 25.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IFR 2018)

- **[로봇산업]** 로봇산업은 자원 부족, 숙련 노동자의 부족,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로봇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제조용 로봇 글로벌 판매량은 2018년 42.2만대로 최대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2017년-2021년 연 7%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로봇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 5.8조 원에서 2025년엔 2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을 목표로 하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 2021년 로봇 예산을 전년 대비 32% 늘려 3대 제조 로봇(뿌리, 섬유, 식음료) 및 4대 서비스 로봇(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제조용 로봇 판매량 및 전망>

(단위 : 천 대)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량	400	422	421	465	.522

* 자료원: 국제로봇연맹 「World Robotics(2018)」 ** 2020-2021년은 예상치

- **(제조용 로봇)** 제조용 로봇산업은 안정화 단계에 있어 급격한 시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기존 설비의 교체나 신규 생산설비 도입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함. 2017년에는 162억 달러로 연평균 10%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설치가 용이하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의 출현으로 상용화에 따른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됨
- **(서비스용 로봇)** 2017년 86억 달러 이후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임. 정보산업의 발달,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개인서비스용 로봇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물류, 의료, 가사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의 성장이 기대됨.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활동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배달 로봇(드론) 등의 새로운 로봇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여행, 호텔, 백화점, 유통기업 등 서비스/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서비스 로봇 분야별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물류	의료	가사	농업/탐사	국방	오락	재활	기타	합계
금액	23.8	19.1	16.3	9.7	9.0	4.4	0.3	3.9	86.4
비중	27.6	22.1	18.8	11.2	10.4	5.1	0.3	4.5	100.0

* 자료원 : 국제로봇연맹 World Robotics 2018

- (기타) AI, 클라우드 활용 확대로 S/W 부문에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됨. 로봇 시장의 확대에 구동기, 제어기 분야는 공장 자동화용을 대체하는 로봇 전용 부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센서 분야는 실외배송, 물류 핸들링 등 고난도 작업처리를 위해 AI 기능이 내장된 고성능 센서 모듈로의 진화, 발전 단계에 있음

<로봇산업 품목별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1위 센서	2위 S/W	3위 구동기	4위 제어기
2017년	20	11	9	9
2023년(전망)	40	110	25	13

* 자료원 : 센서 Global Market Insights 2018, 구동기 MarketandMarkets 2019, 제어기 Mordor Intelligence 2019, S/W MarketandMarkets 2018

- [주요 로봇 제조업체] 주로 IT산업을 바탕으로 한 미국 기업이 로봇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일본과 유럽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남
- (제조업용 로봇)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과 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화낙(FANUC), 야스카와전기(YASKAWA)가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며, 유럽기업으로는 에이비비(ABB), 쿠카(KUKA) 등이 있음.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은 사람과 로봇이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 로봇인 '협동로봇' 시장을 창출함

<제조용 로봇 시장 점유율(2018)>

(단위 : 억 달러, %)

순 위	기업명 (국가)	국가	매출액	점유율
1	화낙(FANUC)	일본	78	20.4
2	에이비비(ABB)	독일	71	18.7
3	야스카와전기(YASKAWA)	일본	58	15.3
4	쿠카(KUKA)	독일	32	8.5
5	가와사키(KAWASAKI)	일본	32	8.5
	Others	-	110	28.6

* 자료원 : 국제로봇연맹 World Robotics 2018

- (서비스용 로봇) 물류, 의료, 가사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은 IT 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아마존(Amazon)은 물류센터 자동화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인 약 13만대의 운송로봇을 운영 중이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테스트 중에 있음. 전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과 후발주자인 알파벳(Alphabet),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도 모두 미국 기업임
- (기타) 로봇용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의 하드웨어는 야스카와전기(YASKAWA), 파나소닉(Panasonic)과 같이 공장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냄.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IT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이며, 아마존(Amazon)은 기존 AWS(Amazon Web Service) 플랫폼에 RoboMaker 기능을 추가하여 로봇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구글도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음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SIGMA TEK GmbH (시그마테크)	오스트리아	스마트 팩토리	63백만 유로	증액	제조설비 자동화 솔루션 설계, 개발	국내 지분인수 대상업체 물색 지원
EOS Defense Systems (이오스)	호주	무인방산 시스템	2.5억 달러	신규	한화 호주 '링스' 장갑차 옵티컬 센서 공급	'21년 최종 공급업체 선정에 따라 국내 JV 설립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전반적인 기계 산업의 투자 규모는 2016~2018년 사이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및 한·일 통상문제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2020년은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기계산업 업종별 외국인 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기계장비*	96	633	100	511	96	863	104	1,162	79	841
전기·전자	110	1,019	118	1,509	99	1,354	84	1,089	86	1,652
운송기계	53	945	68	903	65	5,110	48	872	35	788
기타제조	26	120	24	157	26	148	36	82	24	20
총 계	285	2,717	310	3,080	286	7,475	272	3,205	224	3,301

* 기계장비에는 로봇, 의료정밀 포함. 운송기계는 자동차 포함. 전기전자는 반도체 설비를 포함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 트렌드] 한국의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ICT, 클라우드, 5G와 같은 4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 아울러 전차, 수상함, 항공기, 미사일 등과 같은 방산시장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 또한 기반 산업 인프라 및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정받고 있음. 이에 따라 북미, 유럽 등의 방산 관련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한국기계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수출	181,802	186,299	184,379	137,129
수입	14,258	115,463	107,064	92,242

* 자료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무역통계

- (기계장비) 일반기계의 주력제품인 건설기계, 냉동공조기계 및 공작기계의 경우 내수 시장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유치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로봇을 비롯한 공장자동화 설비, 방산기계 등의 수요증가와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최근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전기·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및 휴대폰 부품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기계는 세계시장 수요 변동에 따라 주기적인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음. 아울러 시장의 수요가 점차 포화됨에 따라 투자금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운송기계)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등의 기술 개발로 투자 유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국내에 진출한 한국GM의 유상증자에 따라 2018년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아울러 전장품, 동력부품 등을 생산하는 외투기업의 진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기타제조) 국내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섬유·방직기계, 포장기계 등을 포함하는 경공업 분야의 투자 유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투자 성공 사례 (현대ARC코리아)

- 차량용 및 산업용 에어백 인플레이터(Inflator)를 설계, 생산하는 미국의 ARC Automotive Corp.은 약 500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Top3 기업임. 2020년 ARC는 한국의 현대글로벌모터스(HGM)와 합작으로 (주)현대에이알씨코리아를 설립하였음
- 업체명 : (주)현대에이알씨코리아
- 위 치 : 경북 김천시 공단2길 30-30 (대표 : 권성희)
- 지분구조 : 현대글로벌모터스(60%), ARC Automotive(40%)
- 투자금액 : 총 자본금 450억원 (ARC 15백만 달러 투자, 40% 지분 보유)
-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차량용 에어백의 핵심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5개 내외의 업체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요증가 및 전기차, 미래차 개발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품임. 현대글로벌모터스는 ARC의 원천기술을 3년 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향후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물론 해외 공장 설립 및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동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국내 공급 안정성 강화, 인플레이터 원천기술 이전 효과 및 국내 고용 창출 효과 등 국내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항공우주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항공우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승객 수, 운항 수 감소로 인해 민간 상업 항공 시장(항공기 제조, MRO)이 큰 타격을 입음. 반면, 국방 부분과 우주 분야는 공급망 재편, 비용감소, 일정 지연 등이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동향)** 세계 항공우주 시장은 '19년 3,424억 달러로 '15년부터 연간 약 3.1% 성장률을 보였음. 북미 시장이 전체의 49.7%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전년 대비 3.7%)을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전년 대비 승객 수는 66%** , '20년 시장규모도 2,961억 달러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년 상반기 글로벌 항공사 수입이 4,190억 달러 감소 하였으며 '24년도가 되어야 '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 자료원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Aerospace Market", 2020년 10월
- ** 자료원 : Deloitte, "2021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outlook", 2020년
- *** 자료원 : PWC, "Aerospace trends 2020", 2020년 7월 9일
- **(MRO)** 전 세계 MRO 시장은 '19년 819억 달러 규모에서 '29년 1,159억 달러로 연평균 3.4% 증가 예상되며 특히 아태지역의 경우 '19년 245억 달러에서 '29년 426억 달러로 연평균 5.6%의 고성장이 기대됨
- 한국은 세계 6위권 항공 운송 시장을 갖고 있지만, 국내 MRO 사업은 비교적 저조한 실정임. 미국과 유럽은 전체시장의 62%,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21% 점유율 대비, 한국 MRO 사업은 세계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기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 및 항공기 제작, 정비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지원 가속화를 추진
- **(드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규모가 '16년 7조 2,000억 원에서 '26년 90조 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드론은 농·임업, 공공(국방, 치안, 구조, 보건),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장기화로 드론 배송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연방항공청 (FAA)은 '20년 12월 원격 ID를 탑재한 드론의 시내 자유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전 세계적으로 2만대 가량 사용되고 있는 항공 배송용 드론이 '26년경에는 1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함
- **(공급망 안정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감소로 인해, 항공기 생산 및 부품,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 애프터 마켓의 수요가 감소함
 - 항공기 주요 1차 벤더(Tier 1)인 GE, 롤스로이즈(Rolls-Royce), 샤프란(Safran), MTU도 30% 가량 공급 역량 감소를 겪었으며, 2차·3차 벤더社의 파산도 발생함
 -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고 정비 및 운영 효율화, 정부의 추가적 지원, 기업 간 M&A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료원 : Aviation Week Network, "MRO Trends to Look for in 2021", 2020년

- **(우주)** 2020년 상반기 로켓 발사(launch)는 41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발사수(43건)와 비슷한 규모를 보임*. 위성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 강화를 위한 펀딩이 증가되고 발사 비용은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됨. 우주 발사(Space Launching) 서비스는 '21년까지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자료원 : Space Foundation, "The Space Report 2020 Q2 Analysis", 2020년 7월 30일

- **(클라우드)** 비행기, 엔진, 시스템 및 부품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에어버스, 보잉, 걸프스트림, 록히드마틴 같은 대형회사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 클라우드 플랫폼은 공급자, 시스템 통합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디자인·제조 생태계에 참여토록 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심플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음
 - '20년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가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em)의 3D Experience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기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함
- **(머신러닝)** 항공기 제조업체는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항공기 안전과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함. 예를 들어, GE 항공은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의 결함을 확인하여 부품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비용을 감소시켰으며, 보잉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항공기 디자인 및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
- **(수소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수소연료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소 드론이 '20년 4월 제주 부속 섬에 마스크를 배송했으며, 유럽의 에어버스는 수소연료 항공기를 '20년 9월에 '35년까지 수소 항공기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힘

- 빌게이츠가 설립한 에너지 펀드 BEV, 아마존, 로얄 더치셸 등이 수소 항공기 스타트업에 투자했음(세계 최초로 6인승 상업용 수소 항공기 비행에 성공한 제로에이비아(ZeroAvia)가 총 2,140만 달러 유치)
- **[무역규모]** KAIA(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항공우주산업의 '19년 수출은 2,82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 수입은 5,281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13.9% 증가함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주요 글로벌 기업)

○ [항공제조]

연번	기업명	국가	현황
1	Boeing	미국	· (사업활동) 항공우주 전반(완제기 제조사), 화물기 및 군용기 제조 강점 · (기술동향) 최근 무인화물 항공기 개발 착수 · 매출 규모 기준 미국의 가장 큰 수출업체 · 완제기 시장 점유율(제작 항공기 수 기준) 36%
2	Airbus	프랑스	· (사업활동) 항공우주 전반(완제기 제조사), 여객기 제조 강점 · (기술동향) 롤스로이스(英), 지멘스(獨)와 협업하여 전기모터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비행기 개발 중 · 유럽 최대의 항공 회사 · 완제기 시장 점유율(제작 항공기 수 기준) 29%
3	Bombardier	캐나다	· (사업활동) 항공우주 전반 · (기술동향) 시그니처 객실 디자인(ATMOSPHERE) 주력 중 · 완제기 시장 점유율(제작 항공기 수 기준) 7.4% · '18년 11월 경영난으로 인하여 프로펠러기 사업 부문 일부 및 항공기 조종훈련 사업 매각, 지난 3년간 대규모 감원 진행 중
4	Embraer	브라질	· (사업활동) 우주 시스템, 전투기 등의 군수업, 방위산업 전반에 강점 · (기술동향) 전투기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 중 · 완제기 시장 점유율(제작 항공기 수 기준) 6.4% * 완제기 시장에서 상위의 4개사 외에 5% 이상 점유율 기업 전무
5	GE Aviation	미국	· (사업활동) 엔진 제조 (Tier1) · (기술동향) 세스나(Cessna)에 장착할 ATP(advanced turboprop engine), 항공기 플랫폼용 항공 전자 공학 ·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사업영역을 확장 중
6	Spirit Aerosystems	미국	· (사업활동) 기체 구조물 및 연료 장치 제조 (Tier1) · (기술동향) '18년 12월 최초 3D 프린팅 상업 항공기 부품 유통 시작 · 열가소성복합수지 R&D 참여 중
7	Honeywell	미국	· (사업분야) 엔진, 자동제어 및 전자통신시스템 제조, 항공 우주 분야 (Tier1) · (기술동향) Whirpool과 합작하여 스마트 온도계를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기술 연구 · 매출의 60%가 미국, 그 외에 주요 수출국은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 [항공 MRO]

연번	기업명	국가	현황
1	루프트한자 테크닉	독일	· 독일 함부르크의 항공 정비 산업단지에 위치 (앵커기업) · 세계 MRO 시장의 10% 점유, 연매출 50억 달러
2	STA (Singapore Technologies Aerospace)	싱가포르	·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항공 정비 클러스터에 위치 (앵커기업) · 세계 MRO 시장의 6% 점유, 북미와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이 STA로의 아웃소싱 진행 · 군사 분야에 우위
3	AAR Corporation	미국	· 미국 오클라호마 항공정비단지에 위치, 북미 최대 랜딩기어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품 수리기업

○ [드론]

연번	기업명	국가	현황
1	DJI	중국	·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 점유율 70%로 단독 1위 ('16년 2월 기준) · '17-'18년 매출액 증가율 200% · 선도기업(first-mover)으로서 드론 관련 글로벌 표준 정립 중 · 군수용에 국한되던 협소한 드론 시장을 개인, 산업, 공공 등 민수분야로 확장 시킨 주역으로 평가
2	3DR (3D Robotics)	미국	·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 점유율 10%, 2위 ('16년 2월 기준) · '16년 10월, 취미용 드론 '솔로'의 실패로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 하드웨어 개발 및 생산 중단 계획 발표
3	패럿	프랑스	·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 점유율 2%, 3위 ('16년 2월 기준) · 미니드론이 주력 품목으로 DJI와의 제품군이 겹치지 않아 차별성 보유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승객 수 감소로 인해 전 세계 민간항공 및 항공기 제조업, MRO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신고가 지연되고 있음
- 항공우주 산업은 규모의 경제, 수직적인 밸류체인, 방위산업의 공공성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민간·군수 항공우주산업에 투자 가능한 기업 수가 한정적인 편임

<최근 5개년(2015~2019) 항공우주산업 외국인 투자 통계>

(단위 : 개,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내역	3	2	4	53	2	3	4	4	0	0	13	62

* 자료: 외국인투자통계 INSC

** 주: 산업 분류상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합계로, 기타 제조 등 다른 분야로 분류된 투자건 포함 시 5개년(2015~2019) 총 투자건수 및 금액은 15건, 62백만 달러를 상회할 수 있음

○ 투자트렌드

- (新산업) 최근 항공 분야의 미래 선도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 항공기, 드론 관련 투자 신고 건이 증가함. 모빌리티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크로스섹터(통신, 물류, IT 기업 등)의 드론 분야 투자 관심이 증가함
- 항공 MRO는 기술과 자본을 집약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항공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은 항공산업 규모 대비 MRO 산업의 발전이 저조한 단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음('17년도 기준 국내 항공사별 항공 정비 지출 비용의 전체 2조 2,973억 원 중 1조 1,733억 원(51%)이 해외 외주로 진행됨)
- MRO는 초기 높은 투자 비용 대비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항공 안전의 필수 사업인 만큼, 국내 MRO 클러스터 형성, 해외 기술업체 유치 등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항공우주 투자유치 사례>

신산업분야	기업명(국가)	투자신고금액 (백만불)	투자신고일	투자 내용
드론	I社(이스라엘)	3	'18.2	수직이착륙 기능 갖춘 유무인 항공기 개발과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
	W社(중국)	2.1	'16.7 '17.4	드론 부품 제조 및 연구를 위한 시설 투자
항공정비 (MRO)	S社(미국)	3	'17.10 '17.11	항공 부품 제조 및 정비 위한 법인 설립
	P社(미국)	3.2	'18.9	항공 엔진 정비 및 수리를 위한 증액 투자
	W社(미국)	0.2	'18.8	항공 정비용 부품의 스마트 물류창고

□ 투자성공사례

구분	Boeing UK Training&Flight Services Holding Limited (보잉코리아유한회사)	Israel Aerospace Industry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주))
기업 설명	※ 보잉사(The Boeing Company) 기준 · 설립연도 : 1916년 · 매출액 : 94,517백만 달러 · 사업내용 : 항공전반 - 완제기(민·군수), 방위, 우주, 안보 등 · 참고사항 : 항공산업 및 군용기 제조 세계 1위 기업, 미국 내 수출 규모 기준 1위 기업	· 설립연도 : 1966년 · 매출액 : 300백만 달러 · 사업내용 : 군, 상업용 항공 부품, 시스템 개발 및 생산 · 참고사항 : 이스라엘 내 유·무인 항공 산업 부분 규모 1위 기업, 생산 방위산업 제품은 전 세계 70개국으로 판매
투자 개요	· 외투기업명 : 보잉코리아 유한회사 · 투자내용 :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설립 · 고용 규모(예상) : 100명 이상(연구인력 94명 포함)	· 외투기업명 :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주) · 투자내용 : 군용과 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유·무인 항공기의 개발과 생산 계획
성공 사유	· 보잉은 미국 내 5개 및 러시아, 브라질 등 7개 국가에 7개의 BR&T(Boeing Research&Technology) 센터를 운영 중이며,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는 보잉의 12번째 BR&T 센터 · 항공전자공학, 자율비행, 스마트캐빈 등 최첨단 항공우주 및 4차 산업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설립	· 국내 기업과의 분업 원할 : 국내 산업용 복합소재(LNG운반선용 단열패널 등) 제조사인 (주)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 양사 간 합의('16년 1월)에 의해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음
파급 효과	· 외화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를 비롯한 4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IAI가 개발한 무인 항공기의 경우 설계는 IAI가, 한국카본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제어부, 배터리, 무인기 소재 공급을 담당하여 글로벌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됨

8 소비재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종합]** 온라인 쇼핑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옴니채널)해지고 있으며 제조, 유통, 물류의 프로세스가 브랜드 이미지로 인식되고, AI와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간 경계 해체(빅블러) 및 온라인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재택근무와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유통·제조업계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 및 디지털 마케팅이 강화되었음
 - 빠른 배송 실현, 친환경 패키징 같이 배송(물류)의 영역도 유통 및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로 인식됨에 따라 긍정적인 소비자경험(CX)을 위한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음
 - 딥러닝 기술과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 고객의 피부 상태, 체형, 스타일 분석을 통해 구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소비재 스타트업이 등장, 대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 코로나19로 인한 홈다이닝이 늘면서 밀키트 및 간편식 수요 증가함. 푸드테크(Food-Tech) 도입을 통해 식물성 기반 대체식품 개발, 신선 제품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기술 등이 주목을 받음
- **(동향)** GlobalData(영국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식품 시장은 7.7조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2022년까지 8조 8,8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대체 육류)** 동물복지, 건강,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자 비건 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리듀스테리언(Reducetarian)이 등장하며 대체 육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첨단기술과 원료를 도입해 고기의 맛, 텍스처와 비슷한 대체 육류를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미국의 비욘드미트(Beyond Meat)와 임파서블푸즈(Impossible Foods) 등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유로모니터는 ' 23년까지 글로벌 대체육류 시장이 2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네슬레의 스위트어스(Sweet Earth) 인수, 타이슨푸드의 레이즈드&루티드(Raised &Rooted) 대체육 브랜드 론칭 등 글로벌 식품 기업의 활발한 M&A, 신규 브랜드 론칭을 통한 활발한 사업 확장 추세를 보임

* 자료원 : Samjong KPMG 2020년 6월 호

- **(신선배송)** 코로나19로 인해 집밥 섭취 증가, 면역력 향상 및 활동량 저하에 따른 체중 증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늘면서 신선 식품 언택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한국의 경우 스타트업계가 콜드체인 인프라 도입을 통한 새벽 배송을 2016년경 시작하였으며,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매장 매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월마트, 인스타카르트(Instacart), 아마존프레쉬, 홀푸즈(Whole Foods) 등을 중심으로 신선 제품 24/7 당일 배송 서비스 사업이 확장 중임.
- **(밀키트)** 밀키트는 식사(meal)와 키트(kit)가 합쳐진 용어로,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하고도 건강한 식사를 추구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인기가 있음
- 한국 밀키트 시장은 ' 19년 400억 원 규모에서 ' 24년 7,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밀키트 시장은 ' 18년 1,362백만 달러에서 ' 27년 19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산업전망

** 자료원 : Grand View Research, Global Meal Kit Delivery Services Market Report 2020-2027

- **(잠재시장)** 중국, 인도, 동남아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힘입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식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식품시장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E)	2020년(E)	2021년(E)	2022년(E)
세 계	7,654.6	7,944.8	8,234.6	8,552.2	8,882.0
대 륙 별					
유럽	2,254.1	2,307.5	2,352.5	2,395.7	2,436.8
아시아·태평양	2,897.6	3,045.0	3,193.4	3,356.8	3,526.7
북미	1,350.1	1,383.2	1,420.7	1,467.6	1,511.6
중남미	741.1	764.8	789.9	815.0	839.4
중동·아프리카	411.8	444.4	478.1	517.0	567.5
시 장 구 분 별					
식품시장	3,955.6	4,105.5	4,246.8	4,414.3	4,589.8
음료시장	2,986.8	3,101.1	3,225.2	3,350.3	3,483.1
담배시장	712.2	738.2	762.5	787.5	809.1

* 자료원: aTFIS 2020 식품 외식 산업 주요 통계 (원자료: '20.05 GlobalData)

** 포함된 제조업은 Food, 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및 식품 무역액이 포함된 합계임. 2019~2022년은 추정치

○ **[화장품]** 각종 환경문제와 스트레스, 마스크 착용 등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외부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클린 뷰티’, ‘홈 케어’ 트렌드가 부상함.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로 라이브 스트리밍, 옴니채널, 구독형 뷰티박스·픽업서비스와 같은 비대면 마케팅 채널이 확산됨

- **(동향)** 글로벌 뷰티&퍼스널 케어 전체 시장규모는 '19년 약 4,996억 달러로 미국(928억 달러), 중국(691억 달러), 일본(388억 달러)이 상위 3개 시장임.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중국(13.8%), 인도(7.9%)이며, 급격한 경제 성장과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성장 요인으로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재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기존 온라인 커머스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있는 뷰티 시장은 다른 소비재 시장보다 충격이 덜한 편임. '20년도 시장은 전년 대비 하락한 4,960억 달러, '24년에는 5,60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자료원 : 유로모니터, 2019년 뷰티 & 퍼스널케어 시장 분석

- **(클린 뷰티)**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니즈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클린 뷰티(화장품 성분, 친환경 패키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화장품 유통업체의 클린 뷰티 제품 대상 앰블럼 증정(미국 세포라 ‘클린 엡 세포라’ 18년~), 한국 올리브영의 ‘클린뷰티(’20년~)’ 등) 및 △비건 프렌들리 브랜드 론칭(마이클라랑스, 아워글래스, 벨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프 프로젝트 등), △친환경 패키지(로레알, 이솝, 록시땅, 프리메라 등)등이 화장품 R&D 분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함

- **(온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에 온라인 판매 채널 및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됨. 미국은 봉쇄 조치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세포라의 미국 온라인 매출은 '20년에 전년 대비 30% 증가, 로레알 미국 백화점 사업부 럭스는 '20년 10월 미국 오프라인 매장 일부 폐쇄 계획 밝힘)*
- 한국의 경우 샤넬뷰티의 카카오톡 입점, 시코르닷컴 및 아모레퍼시픽몰을 오픈했으며, 중국의 경우 83%의 백화점이 옴니 채널을 향후 유통사업의 핵심으로 진단, 70% 이상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시함*. 전 세계적으로 유통 채널의 디지털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자료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0 Global Cosmetics Focus no.10

- **(라이브 커머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튜토리얼, 사교 모임, 피부 관련 상담,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는 디지털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간의 협업 및 자체 플랫폼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 라이브 스트리밍 사례 : 미국 아마존의 뷰티 하울 라이브 행사, 크레도 뷰티, 데시엠, D2O 트레스티크의 뷰티 마스터 클래스, 글로우 레시피의 해피아워, 클리닉의 스킨 스쿨 라이브, 중국 타오바오, 한국 올리브영의 올라이브 등

- **(비스포크·IoT)** 뷰티 디바이스와 인공지능기술 등의 발전으로 개개인의 피부를 측정하고 분석한 솔루션 제공, 맞춤형 화장품 제작이 인기를 얻고 있음
- IT와 피부 전문 지식의 결합으로 피부 안면 인식 기술과 분석 알고리즘이 고객의 피부를 분석, 데이터화 하여 제작한 커스터마이징 화장품, 주기적으로 고객의 피부를 측정하고 피부 관리 팁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스킨 케어 서비스의 비스포크 시대가 도래함
- **(퍼스널 케어)**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념이 높아지면서 바디케어 및 위생용품 수요와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로 인해 홈 스킨케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제품 수요가 증가함
-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정서적 웰빙 및 퍼스널 케어 루틴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DIY(Do It Yourself) 키트를 통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아로마 요법, 마스크팩, 앰플 등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마스크네 퇴치)** 공공장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많아지면서, 마스크네(Maskne,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여드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마스크네 키워드에 맞춰 기존 트러블 케어 및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피부 소독, 진정, 보습, 흉터 관리 등 체계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무역 수치) KCA(대한화장품협회)에서 고시한 한국 화장품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19년도 수출은 6,52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 수입은 1,58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감소함
- [패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이지웨어, 홈웨어 등 캐주얼 웨어 수요가 증가함. 맥킨지는 지속 가능성, 신소재, 다양성에 대한 포용, 디지털 리테일을 주요 2020년 패션 산업 키워드로 선정
- (동향) '19년 세계 의류 시장규모는 약 1조 9천억 달러였으며, '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의류 시장 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15.2%인 2,970억 달러로 전망됨*.
-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년 한국 패션 시장 추정 규모(KFI, Korea Fashion Index)를 전년 대비 2% 감소한 40조 8천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고용시장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 제약 요인으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자료원 :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 Impact of Coronavirus on the Global Apparel Industry('20년 8월)

- (에코패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패스트 패션 산업의 책임론이 부상됨에 따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 패션이 인기를 얻고 있음
- '19년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소싱 하는 미국 및 유럽 섬유 패션 기업 최고 구매 책임자들은 '25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 소싱 비중을 50%로 확대할 의향을 보임*

* 자료원 : BoF-Mckinsey, The State of Fashion 2020

- 나이키 역시 '20년 리사이클 섬유 사용 비중을 50%로 아디다스는 '22년까지 10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움. PET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섬유뿐만 아니라 대나무, 옥수수를 비롯한 생분해성 섬유의 혼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컬렉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F/W 컬렉션을 발표하는 밀라노
 - 파리 패션위크 행사가 취소 혹은 무관중 패션쇼로 전환됨
 - 이어, '21년 S/S 런던을 시작으로 역사상 최초 디지털 패션위크가 시작됨. 증강현실(AR), 360도 회전 카메라, SNS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특정 소수만 누렸던 럭셔리 패션쇼의 프론트 로우(패션쇼 앞자리) 경험이 누구나 손안의 핸드폰으로 동 시간대에 볼 수 있는 대중화된 경험으로 확장됨

- 6개월 앞선 컬렉션을 선보이는 기존 패션쇼의 관행을 깬 ‘씨 나우 바이 나우 (See Now Buy Now)’ 를 도입한 몇몇 브랜드처럼, 기존의 형식을 뛰어 넘어 고객의 편의성과 니즈를 고려한 디지털 쇼, 쇼룸의 등장이 예상됨
 - (옴니채널) 오프라인(핏 · 사이즈 · 소재 확인)과 온라인 매장(가격 비교, 시간 절약)의 장점을 결합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리딩 브랜드들이 옴니 채널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온라인구매-매장 픽업, 당일 배송, 착용 뒤 무료로 교환 · 반품 정책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경계를 허물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가 채택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글로벌 패션 기업 및 스타트업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텍스트 및 시각 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미국 스티치픽스, 한국 오드 컨셉), AI 사이징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체형에 맞는 테일러링 서비스(독일 H&M과 ZyseMe) 등
 - (잠재시장)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패션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향후, 선진국들의 인구 증가율이 낮아질수록 30세 이하 인구(잠재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동남아, 브라질 등이 ‘비욘드 차이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 자료원 :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 2017년 ** 자료원 : BoF-Mckinsey, The State of Fashion 2020
- (무역규모) 세계 섬유 의류 수출입통계(WTO)에 따르면 ' 19년 기준 섬유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7,988억 달러, 수입은 1% 감소한 8,71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한국의 섬유 의류 수출은 7.1% 감소한 110억 달러이며, 수입은 0.2% 감소한 163억 달러임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겟 기업

(단위 : 억 달러)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Unilever (유니레버)	영국, 네덜란드	위생 생활용품	600	증액	카버코리아 인수와 같은 빅 딜 기대	기업 매물 정보 제공
Beiersdorf AG (바이어스도르 프)	독일	화장품	89	신규	스타트업 투자 기대	국내 시장 및 관심 기업 정보 제공
LVMH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프랑스	패션	14	증액	국내 명품 시장 호조로 인한 증액투자 가능성 존재, 일자리 창출	지속지원으로 추가출점 유도, 자사 브랜드 한국 법인 설립 유도
Nestle (네슬레)	스위스	식품	934	증액	일자리 창출	지속지원으로 자회사 블루보틀 추가출점 유도
L'Oreal (로레알)	프랑스	화장품	45	증액	스타일난다 인수와 같은 빅 딜 기대	기업 매물 정보 제공
Inditex (인디텍스)	스페인	패션	190	증액	일자리 창출	지속지원으로 추가출점 유도
Mars (마즈)	미국	식품, 반려동물	370	증액	김제공장 증설 기대, 일자리 창출	투자경과 주시 및 애로사항 발생 시 밀접 지원
Sephora (세포라)	프랑스	화장품	19	증액	일자리 창출	지속지원으로 추가출점 유도
Dyson (다이슨)	영국	가전제품	52	증액	국내 홈뷰티시장 확대로 인한 증액투자 가능성 존재	시장정보 제공 및 증액투자가능성 타진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20년 식품 및 패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제조업 역시 과거 빅딜이 있었던 점('19년 에스티로더의 해브앤비 인수, '17년 로레알의 스타일 난다 인수)을 고려시 중소 규모의 안정적 투자가 지속되는 형세를 보임
- [화장품] 한류 붐, 인디뷰티브랜드 및 더마코스메틱스의 부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산업 M&A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5개년('15~'19)간 화장품 시장에서 이뤄진 M&A 거래 규모는 1,271억 달러로 전 기간('10~14)의 443억 달러 대비 2.9배 확대*됨
 - 최근 10년간('10~19) 화장품 기업의 M&A 거래를 살펴보면, 글로벌 Top3 기업인 미국의 P&G(9건, 44억 47백만 달러), 영국의 유니레버(26건, 36억 34백만 달러), 프랑스의 로레알(33건, 40억 71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함. 한국 기업 중에는 LG생활건강이 동기간 동안 24건, 11억 47백만 달러로 두각을 나타내었음*.
 - '17년부터 한국 화장품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 인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 세계 화장품 크로스보더 M&A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살펴보면, 최근 5개년('15~19)간 피인수국으로서 한국은 세계 상위 8위였으며 전 세계 건수의 5.7%, 규모의 3.7%를 차지함. 이는 전 기간('10~14) 거래 대비(16위, 전 세계 건수 1.6%, 규모 0.8%) 상당히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화장품 기업에 대한 크로스섹터 투자, M&A가 증가함. 티몬, 카카오페이지, 투썸플레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도 '20년에 더마팜과 와우벤처스에 투자하며 화장품 사업에 관심을 드러냄. 아울러, '19년 한국형 사모펀드 파인트리파트너스는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를 2,000억에 인수하는 등 화장품산업 투자에 대한 PE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유니크함과 제품성을 갖춘 인디 뷰티 브랜드가 밀레니얼 세대 및 GenZ의 인기를 끄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 화장품 대기업은 성장성 높은 인디 브랜드 투자를 확장해가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18년 프랑스 로레알(L' Oreal) 그룹이 한국 스타일 난다(Nanda Co.)를 인수하며 스타일 난다가 지닌 3CE(쓰리 컨셉아이즈)를 통해 아시아권에서 색조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함

- 전염병, 환경오염의 확산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 화장품 기업은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 19.11월 미국 에스티로더 그룹은 한국의 대표적인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중 하나인 닥터자르트를 소유한 해브앤비(Have & Be) 지분 100%*를 약 11억 3천 3백만 달러에 인수*함

* 자료원 : 삼정KPMG, 화장품산업 9대 트렌드 및 글로벌 M&A 동향, 2020년

- [식품] 상품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소비자의 건강식·간편식·대체식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수요 증가로, ' 20년 전 세계적으로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의 수입이 전년 대비 76.5% 증가*하며 HMR·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자료원 : Statista, Food Worldwide, Revenue Growth, 2020년

- 1인 가구 및 맞벌이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용기 및 음식 품질 등 제품·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 20년 2분기 대부분의 한국 식품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하는 등 간편식 식품 산업은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Nestle)는 중국에서 네스큐노(NesQino), 빌드유(Build U), 옵티파스트(OPTIFAST)와 같은 간편 대체식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미국에서는 간편식(HMR) 배달 업체 프레슬리(Freshly)를 인수함. 한국에서도 디캠프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털 NLVC(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와 코리아 푸드 라이프 스타일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발굴에 힘쓰고 있음
- 국내 간편식 전문 벤처기업 I社は ' 18년 1월 소프트뱅크벤처코리아와 동아쏘시오 그룹에서 38억 원 투자를 받음. CJ제일제당, 이마트 등 국내 식품 제조·유통 대기업의 투자도 활발함
- 다이어트 및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리얼·건강스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20년 유기농 코코넛 등 활용한 그라놀라 형태의 과자를 제조하며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에 납품하는 캐나다의 I社は 향후 5년 이내 급격한 아시아 사업 확장을 예상하고 한국에 허브오피스를 세우기 위해 투자함
-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식품 제조 방법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곤충 사육 및 공정 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동물 사료 혹은 음식물쓰레기 가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P社 등 인콰이어리, 투자 신고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음

- [패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생활 양식 변화로 오프라인 판매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의 전환 및 생산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줌. 집콕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콘텐츠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패션 유통 및 제조업계의 온라인·라이브 커머스, D2C(Direct to Consumer)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디지털 기반으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D2C)을 통해 얻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혁신 유도 및 더 나은 고객 경험 창출을 위해,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능력 관련 테크 업체 인수가 증가함. 예를 들어, '20년 한국 AI 기반 패션 테크 기업 '오드 컨셉'의 60억 규모 시리즈 B 투자유치, 미국 나이키의 조디악 및 인버텍스('18), 셀렉트('19) 인수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패션에 적용한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의류 소비가 확산되고, 패션콘텐츠·트렌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대한 MZ세대 선호도 증가에 따라, 패션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19년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VC)인 세쿼이아 캐피털에서 2,000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년에 약 1조 4,000억 원 거래액 달성이 예상되고 있음(전년 대비 50% 성장). 아울러 '20년 1월 쇼퍼블 콘텐츠 기업 스타일 셰어는 스톤브릿지캐피탈 등으로부터 250억 규모 투자를 유치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패션 섬유 기업의 실적이 저조했으나, 국내 수출벤더사(OEM, ODM)의 '20년 3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보임. 채택근무 확산에 따른 홈웨어, 라운지웨어, 애슬레저, 레깅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질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개인 보호 장구(PPE)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설비를 PPE 분야에 집중 투자 하는 등 호조를 보임

<소비재 산업 세부업종별(제조업 한정)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식품(제조)	59	156	40	162	35	222	28	553	24	926
패션(제조)	16	46	16	88	7	3	16	10	21	144
화장품(제조)	21	370	26	1,239	45	338	33	1,853	25	547
총계	96	572	82	1,490	87	564	77	2,416	70	1,617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주1) 식품의 경우 표준산업코드 10~11(식품·음료제조업) 분류

*** (주2) 의류의 경우 표준산업코드 13~15(섬유·의복·신발제조업) 분류, 단 화학섬유방직업(13103) 제외

**** (주3) 화장품의 경우 표준산업코드 20423(화장품제조업) 분류

- [투자트렌드] 환경오염, 질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일상생활에 큰 반향을 초래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재 및 제조 방법, 위생과 웰빙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MZ세대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커머스, 비스포크 및 인디 제품이 소비재 시장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최근 주요 FDI 투자 사례를 보면 K-푸드, K-뷰티 등 한국 브랜드에 기능성·웰빙을 더한 소비재 분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통이식품의 웅진식품 인수’, ‘에스티로더의 해브앤비 인수’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M&A 사례가 있음
- 소비재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판매, 유통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들어온 비중이 크며 제조공장 설립 비중은 낮음

■ 투자성공사례

- [투자성공사례 1] Estee Lauder의 국내 화장품 기업 해브앤비 인수
 - 투자자 : Estee Lauder Cosmetics Limited
 - * 미국 소재, 1946년 설립, 매출액 140억 달러, 48,000명 종사
 - 투자 형태 : 지분인수, 증액 투자
 - 대한투자 배경 : 에스티로더는 '15년 해브앤비의 지분 일부를 투자 방식으로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
 - 투자 결과 : 국내 화장품 기업의 넓어진 해외 시장 진출 영역, 주춤했던 K-뷰티에 대한 긍정적 신호
 - 특이사항 : 에스티로더의 아시아 뷰티 브랜드 최초 인수 사례. 뷰티 업계에서는 드문 빅딜로 평가됨
- [투자성공사례 2] 홍콩계 사모펀드 Anchor Equity Partners의 (주)더마팜 및 더블유랩(와우벤처스) 투자
 - 투자자 : Daily Lifestyle Holdings*(더마팜), Wow Holdings Ltd.(더블유랩)
 - * 몰타 소재, Anchor Equity Partners의 SPC

- 대한 투자 배경 : 아시아 시장에서의 K-뷰티의 영향력,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음. 화장품 업계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최근 크로스보더·크로스섹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 결과 : Anchor Equity Partners의 첫 화장품 관련 포트폴리오 투자로 주목 받음. 병원 전용, 고기능성 화장품을 주력 생산하는 더마팜과 기초화장부터 색조화장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춘 더블유랩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성공사례 3] L' OREAL의 국내 패션 기업 주식회사 난다 인수 프로젝트
 - 투자가 : L' OREAL S.A.
 - * 프랑스 소재, 1963년 설립 매출액 45억 달러, 7,500명 종사
 - 투자 형태 : 지분인수, 신규 투자
 - 대한투자 배경 : 스타일난다의 화장품 브랜드 3CE가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인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됨

9 물류/유통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물류산업 동향

- **(중장기 세계 항만물동량 증가세 유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에서의 고관세 기조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중장기 세계 '컨'물동량은 증가세로 관측
 -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7억 84백만 TEU) 이후 2.3% 증가하며 2019년에 8억 2백만 TEU를 기록, 2020년은 8억3천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¹⁾
 - 또한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등의 이슈로, 콜드체인이 물류산업의 주류로 급변, 추후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시장재편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
- **(물류부동산의 활발한 거래)**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시장포화 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물류부동산이 대체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²⁾
 - * 코로나19로 인한 e-Commerce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류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으며, 그중 중국, 호주, 한국이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³⁾
 - 경기침체 국면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등을 선호하게 만들고 온라인 리테일 관련 물류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
 - 물류센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3자 물류기업보다 2자 물류기업 위주로 대형 물류센터 계약에 나서고 있음
- **(물류창고 대형화·고도화·스마트화 가속)** 수송규모 확대와 소량·다품종 처리 시설 도입 등에 따른 물류창고의 대형화 및 고도화 지속
 - M&A를 통한 화주기업의 대형화, 거점 집중화 진행됨
 - 코로나19 이후 폭등한 온라인 주문과 배달 수요로 인해 도시 지역과 근교 위주 소규모 물류창고 증가 추세
 - * '20.09 아마존 미국 전역 도시, 교외에 1,500개 소규모 물류 창고 세울 계획.
 - 무인창고 등 스마트물류센터도 물류산업의 대세로 자리잡을 예정

1) Cargotec Oy; Drewry, 2020, Statista

2) 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 Asia Pacific 2018 survey, ULI

3) 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 Asia Pacific 2019, PWC

■ 유통산업 동향

- (글로벌 250대 기업 주요 통계)⁴⁾
 - 5년간('13-'18) 연평균 매출액 증가 : 5.0%
 - 총 매출액 4.74조 달러 (2018회계연도 기준)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 4.1%
- (세계최고수준 디지털역량 강화) 온오프라인간 디지털 상호작용
 - '00년도 글로벌 186위 유통업체였던 아마존은 '20년 현재 3위로 자리매김. 이는 지속적 신규시장 진출, 상품 범위 확대, 신기술 접목, 풀필먼트 센터 설립 등의 결과
 - 세계 1위 유통업체인 美월마트의 경우 옴니채널 전략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를 주요분야로 설정, 식료품 등의 온라인 구매서비스와 방대한 매장 네트워크를 결합, 경쟁우위 확보 집중
- (비점포 유통의 가파른 상승세) 전체 유통방식 중 점포유통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모바일, 인터넷 쇼핑 등 비점포유통의 성장세는 연평균 30%를 기록하며 지속됨. '20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6.7% 성장⁵⁾
 - '19년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체 소매판매의 14% 차지하였고, '24년 전체 소매 매출 중 온라인 점유율이 22% 차지할 전망⁶⁾
- (업계 간 인수합병을 통한 유통업계 지각변동) 글로벌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서로의 영역으로 확장,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붕괴된 新유통 선도
 -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체험, 그리고 물류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의 개념 탄생
 - * 아마존(미국) : Jet.com, Shoebuy, ModCloth, Bonobos 등 온라인 유통업체 대거 인수, WholeFoodsMarket 인수, PillPack 온라인 처방약 유통업체 인수
 - * 알리바바(중국) : 네이즈의 자회사인 해외 상품 직구 플랫폼 '카오라닷컴' 인수(2019), 중국 최대 배달어플 '어러머' 인수(2018), 스위스 면세점 업체 '듀프리' 인수(2020)
 - * 월마트 : 전자상거래업체 '제트닷컴' 인수(2016), 패션쇼핑몰 '슈바이', '무스조' 인수 (2017), 인도 이커머스 플랫폼 '플립카트' 지분 77% 인수(2018)

■ 물류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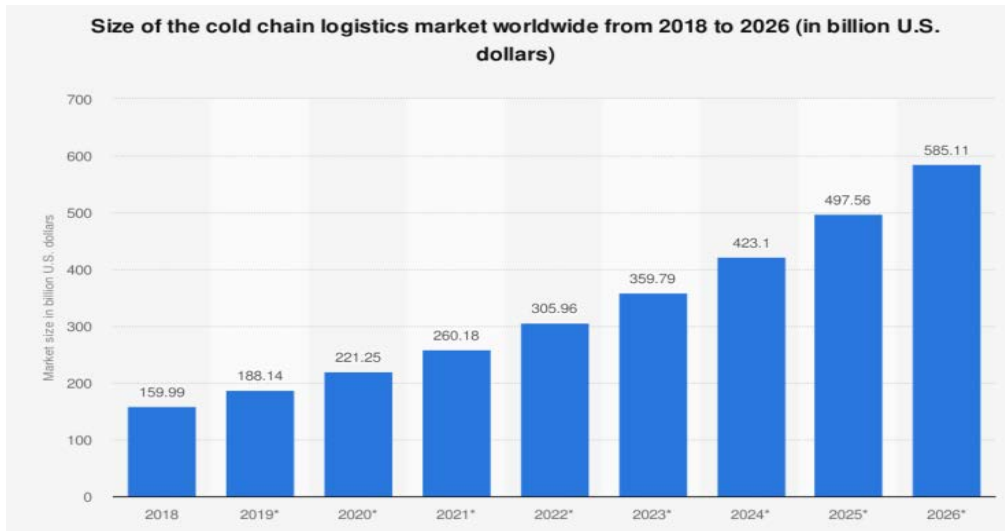
- (세계경기 점진적 둔화와 연동) '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4) Global Powers of Retailing 2020, Deloitte

5) Monthly Retail Trade, 2020, US Census Bureau

6) The Future of Retail: How to Succeed in the Next Five Years, 2020, Euromonitor

- 세계경제 성장률은 -4.4%로 전망('19년 2.8%)하며 개도국의 경우 -3.3%('19년 3.7%)⁷⁾
-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예측⁸⁾
-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콜드체인 물류 시장의 부상)** '25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약 4,970억 달러(추정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⁹⁾ 고도 성장세 지속, 코로나19 백신 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기술 중요성 확대
 - 2025년 중국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5,220억 RMB(추정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¹⁰⁾
 - 인도의 경우 시장규모가 '22년 7,230백만 달러로 확대 예측
 - 이들 국가의 콜드체인 시스템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성장 잠재력 높음



* 자료원 : Statista (2020)

- **(4차 산업혁명과 물류의 결합)**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아마존은 물류센터로봇 '키바(Kiva)'를 도입 운영비 20% 이상 절감
 - * 키바 도입후 물류순환속도 대폭 개선(75분->15분), 공간활용도 50% 이상 확보
 - IoT 활용형 물류시스템 : IoT 센서가 정보를 사람 대신 파악,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모니터링 하는 방식
 -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1) 리드타임↓ 2) 산업구조 변화, 3) 물류의 개인화 4) 공간의 재활용 5) 저비용, 고효율 6) O2O & 온디맨드 딜리버리 강화를 추구하는 추세
 - O2O(Online to Offline) 기반 서비스 고도화

7) World Economic Outlook, 2020, IMF

8) World Trade and GDP, 2019-20, WTO

9) Statista: Allied Market Research, 2020

10) China Cold Chain Logistics Industry Report, 2019-2025

■ 유통산업 전망

- **(아시아 태평양 시장 중심 식품 시장 확장)** 신흥국 중산층 구매력 향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유통 시장의 지속 확대 전망¹¹⁾
 - 세계 식품시장은 2020년 6조1,111억달러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한 성장률(2019년 대비 2.9%). 지역 중에서는 아시아 태평양(42%), 북미(22%)가 규모가 큰 식품시장¹²⁾
 - 관련시장의 2가지 키워드는 1)편의성과 2)건강으로 콜드체인 시장 규모 성장세와도 연계
- **(글로벌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성장)**
 - 2020년 온라인 소매매출 성장률은 16.5%로 전년(20.2%) 대비 감소
 - 영국, 한국, 미국 등 일부 선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성장률이 15%를 초과하였으며 신흥시장(필리핀,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의 경우 이보다 더 높았음
 -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산업 성장 분포를 보면, 아태 지역이 2020년 42.3%를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이 62.6%를 담당¹³⁾
 - 향후 2021년까지 글로벌 전자 상거래 물류시장은 15.4%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아태지역 연평균성장률 : 21.4%)
 - 글로벌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Facts and Factors에 따르면 2019년 7,800억 달러에서 2026년 4조8,2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예상¹⁴⁾
-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확대)**
 - 스마트태깅, 스마트체크아웃 등의 기술이 쇼핑의 표준으로 정착
 -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소셜미디어의 상호 활용 가속화, 소규모 브랜드 생성 및 창업 유인
 - 증강 및 가상현실(AR/VR) 유통업장 적용
 - * Amazon Echo, Echo Dot, 구글홈 등
 - 무인매장 증가(美 Amazon Go, 中 빙고박스, 中 Sunning 가전매장, 덴 Coop)

11) 2019년도 식품외식산업 주요 통계, 통계청, 2019.04

12) Food and Beverages Global Market Report 2020-30 : COVID-19 Impact and Recovery

13) Global Ecommerce 2020, Ethan Cramer-Flood, eMarketer

14) Cross-Border B2C E-Commerce market By Category, 2020, Fact and Factors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기업명/국가	현황
Deutsche Post/DHL (디에이치엘)/독일	· 주요사업분야 : 항공특송, 물류 · 설립년도 : 1969년 · 매출액 : 750억 달러 (2019년) · 종업원수 : 380,000명 (2019년) · 특이사항 - BMW와 DHL의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개념증명(PoC) 시행 (2019.12) - 아부다비공항자유무역지역(ADAFZ)에 DHL센터 건설 (2019.12) - 2020년 9월 인천국제공항 신규 물류센터 착공
FedEx(페덱스)/미국	· 주요사업분야 : 항공특송/물류 · 설립년도 : 1971년 · 매출액 : 690억 달러 (2019년) · 종업원수 : 460,000명 (2019년) · 특이사항 : 아마존과의 계약 중지 선언 (2019.06)
AMAZON(아마존)/미국	· 주요사업분야 : 온라인유통/물류 · 설립년도 : 1994년 · 매출액 : 2,805억 달러 (2019년) · 종업원수 : 1,000,000명 (2020년) · 특이사항 - 연내 인천공항공사 측과 同투자가 유치를 위한 TF 실시 예정 - 2020년 11번가를 통해 한국 시장에 우회 진출 예정
Americold(아메리콜드)/미국	· 주요사업분야 : 냉동물류센터 운영/콜드체인 물류 · 설립년도 : 1997년 · 매출액 : 14억 달러 (2019년) · 종업원수 : 11,000명 (2020년) · 특이사항 - 세계 최대 콜드체인 물류업체 - 동북아 콜드체인 구축을 위해 다각도의 투자 프로모션 요망
IKEA(이케아)/스웨덴	· 주요사업분야 : DIY가구양판점 · 설립년도 : 1943년 · 매출액 : 413억 유로 (2019년) · 종업원수 : 211,000명 (2019년) · 특이사항 - B2B에 스마트계약과 전자화폐 활용 (2019.10) - 2020년부터 소규모 도심형 매장 구축(20.03 현대백화점에 처음 선보임)
UPS(유피에스)/미국	· 주요사업분야 : 항공특송 · 설립년도 : 1907년 · 매출액 : 741억 달러 (2018년) · 종업원수 : 528,000명 (2019년) · 특이사항 :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배송 첫 승인 (2019.10)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 '19년 우리나라 물류 유통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9.26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도·소매(유통)는 116.7%, 운수/창고는 32.4% 증가, '20년 3분기까지 물류 유통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1.51억 달러로 감소¹⁵⁾

* 물류산업 특성상 제조업 및 도소매 유통업, 부동산 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FDI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최근 5년간 물류유통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유형은 그린필드 투자 유형이 높은 비중(76%)을 차지

<최근 5년간 對한국 유통·물류산업 투자유형>

(단위 : 백만 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 금액	증감율	신고 금액	증감율	신고 금액	증감율	신고 금액	증감율	신고 금액	증감율
도· 소매 (유통)	전체	1,492	17.7	2,040	36.8	1,601	-21.49	3,470	116.7	1,199	-65.45
	그린필드	1,238	13.4	1,574	27.1	922	-41.42	2,536	175.0	1,137	-55.17
	M&A	253	44.5	466	84.0	679	45.8	934	37.4	62	-93.36
운수/ 창고	전체	349	-47.69	294	-15.75	344	17.1	456	32.4	632	38.73
	그린필드	50	-92.41	184	270.5	337	83.2	441	30.8	561	27.39
	M&A	299	2180.8	110	-63.22	7	-93.27	15	102.9	71	371.42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KSIC 분류 : 도소매(유통), 운수·창고(물류))

○ [투자트렌드]

- 온라인 유통업계의 대약진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예 : 이마트 등 하이퍼마켓의 부진 심화) 퇴조
-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온라인유통 및 이에 따른 하위 산업(물류)의 재편은 글로벌한 현상
- 이와 관련, 기존의 재래식 물류센터를 대체할 거점형 초대형 물류센터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케아 등의 근교 대규모 점포 구축이 주된 투자 방식인 투자행태도 도심내 쇼윈도우형 소규모 다점포 출점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누계 기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요 투자국

15) 외국인투자통계, 2020,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5년간 對한국 물류산업 주요투자국가(신고기준)>

(단위 : 천 달러)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미국	6,846	114,935	173,524	305,415	325,824	926,544
네덜란드	224,786	217	13,095	0	0	238,098
싱가포르	70,890	105,352	18,920	6,928	89,163	291,253
일본	9,371	18,186	10,240	3,642	235	41,674
중국	6,623	1,613	101,553	90,074	101,061	300,925
물류투자 총계(B)	318,516	240,303	317,332	406,059	516,283	1,798,494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SIC 분류 : 운수·창고(물류))

■ 투자성공사례

○ S社(싱가포르)

- 2014년 한국법인 설립 이래 수십건의 전국단위 초대형 물류센터 개발 -> 제3자 물류기업에 임대 운영으로 수익 창출
- 2019년의 경우 총 2억 6천 2백만 달러 투자신고
- 물류부동산 개발임대가 주업종인 특성상 직접 고용창출이 일어나진 않지만 연면적 기준 9만평 이상의 메가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통상 주변에 150개 이상의 원룸이 구축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고용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 IK 산업PM이 다년간 밀착 지원, 2021년도에도 공격적 투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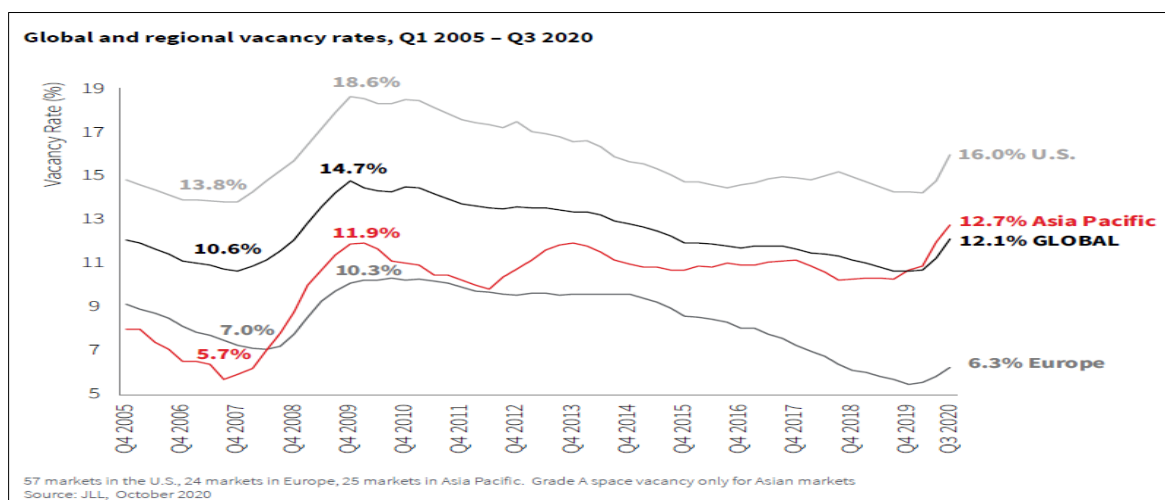
○ E社(미국)

-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약 500백만 달러 규모 LNG Cold Storage 시설 설립 추진
- 첫 번째 한국투자 프로젝트인 평택 오성산단內 초저온 물류단지 시설은 지난 2019년 1월 완공, 운영중
- 2020년의 경우 총 3억 4천 1백만 달러 투자신고
- 현재 한국에 집행했거나 계획중인 총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약 20-30억 달러 (아시아 콜드체인 허브 구축 전략의 일환)
- 상기 클러스터를 필두로 전국단위 콜드 스토리지 5-6개 구축, 시장 점유율 25% 목표

10 부동산/관광레저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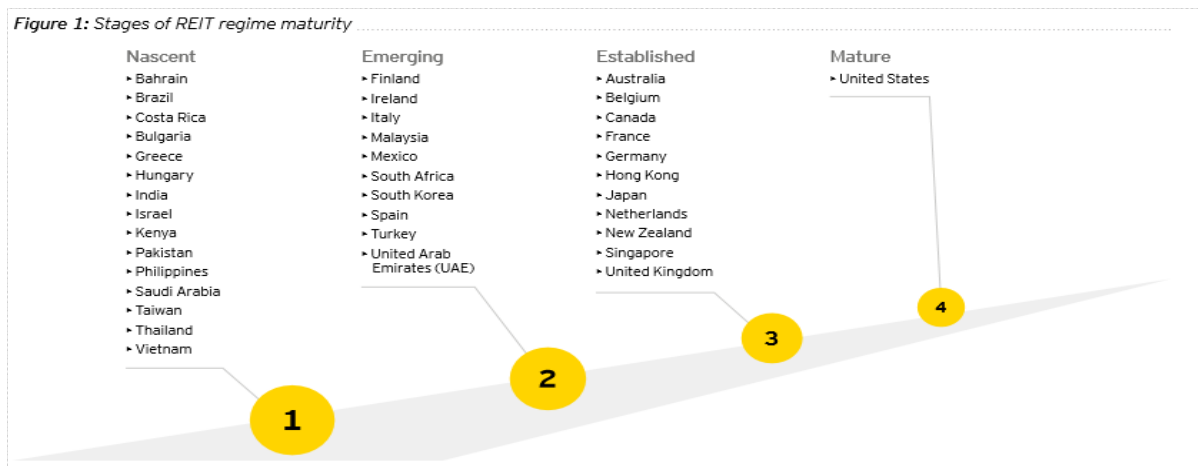
- **[종합]**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분야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투자를 지향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관광레저 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전년대비 70% 감소 하였으며, 2021년에도 시장 감소폭이 이어질 것
 - 세계 경기의 둔화에 따른 이자율 하락 및 글로벌 투자 시장의 축소는 투자가들로 하여금 수익보다 안전한 자산으로의 이동을 부추기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3저(저수익, 저금리, 저투자) 현상에 맞추어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물류부동산, 리츠, 상업용부동산, 국가 주도 SOC 등에 투자가 편중될 것으로 보임
 - 관광레저 산업의 경우 UNWTO(세계관광기구)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호텔, 음식, 레포츠 분야 등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부동산]** 2020년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택근무, 공유오피스의 위기 등의 영향으로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오피스빌딩)** 최근 5년간 리스크가 적은 시장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오피스빌딩 투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공실률 기준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하락세가 전망됨



* 자료원 : JLL, Global Real Estate Perspective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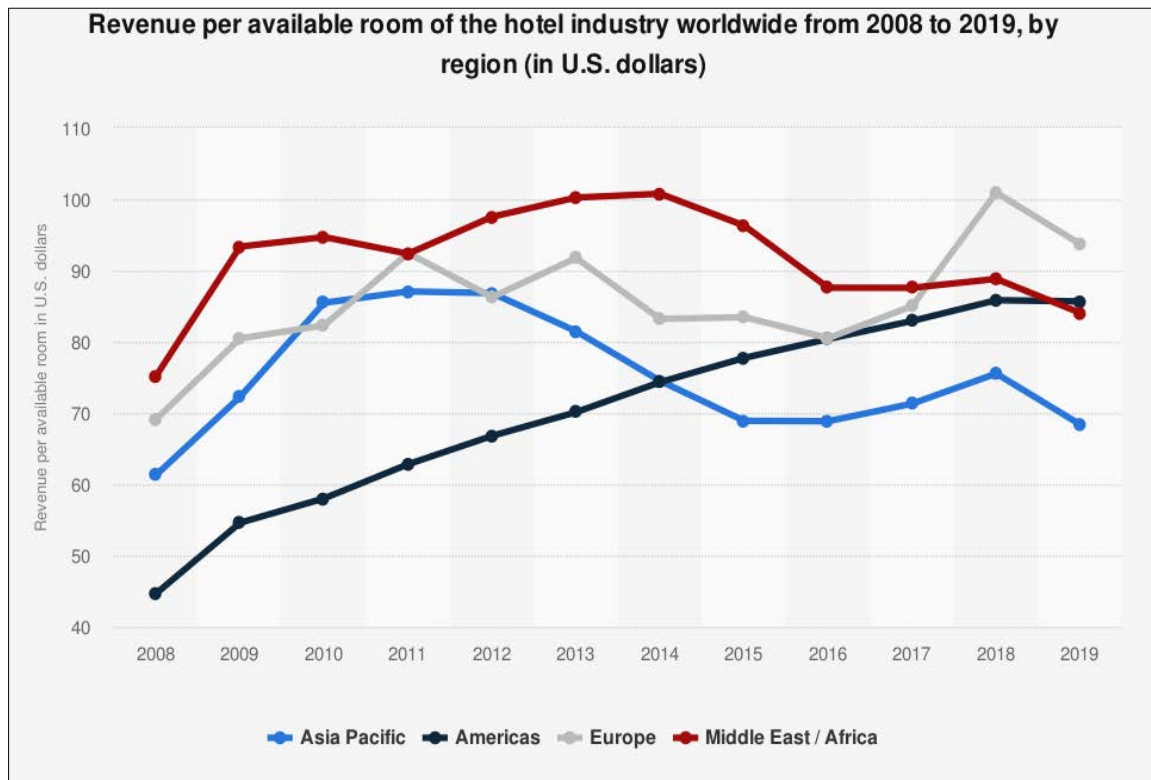
- **(리테일)**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2020년 상위 250개 글로벌 리테일 기업의 총 수익은 4.74조 달러, 연 평균 수익은 190억 달러였음. 전통적인 오프라인 쇼핑 시설의 매출 성장세는 감소된 반면, 온라인 쇼핑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매년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함
- **(리츠)** 글로벌 리츠(REITs)는 'Real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임. 2020년 기준 세계 37개 리츠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달러임

<국가별 REITs 시장 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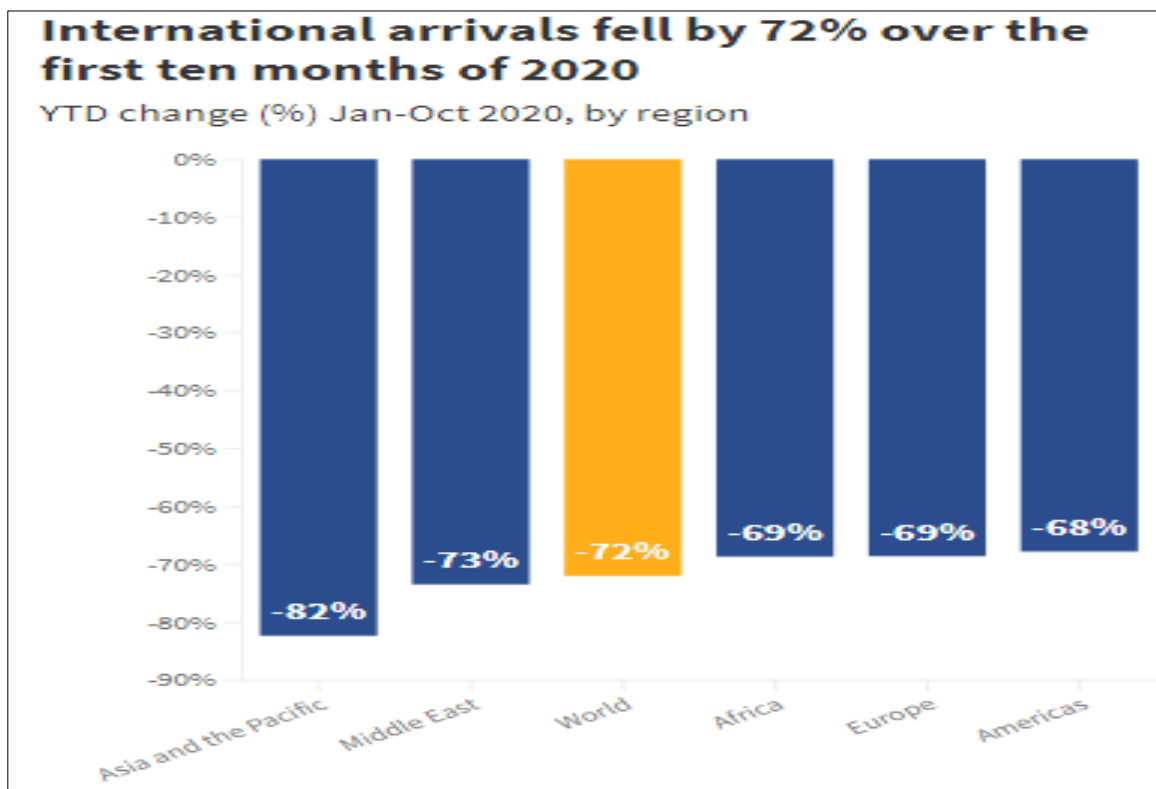


* 자료원 : EY, Global REIT markets

- **[관광레저]**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말까지 1억 9천 7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예상됨. UNWTO에 따르면 2020년에 관광객 소비가 9,000억 달러에서 1.2조 달러가 줄었다고 조사 되었으며, 2020년 글로벌 관광시장의 규모는 2019년 약 9천 5백억 달러 기준 70% 감소됨.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관광분야의 세계 GDP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2.9조 달러, 3억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테마파크)** 2019년 글로벌 상위 10개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는 약 1억 5천만 명에 이르며, 세계 1위 테마파크인 월트 디즈니의 매직 킹덤(플로리다)에는 연간 약 2,000만 명이 방문하였음
- **(호텔)** 2019년 기준 글로벌 호텔시장은 객실당 수익이 미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폭 감소하였음. 거래 규모는 약 672억 달러였으며, 2019년 아시아 지역은 전년대비 14% 감소, 유럽 지역은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19년 전세계 글로벌 호텔시장규모는 5천 700억 달러였음)



* 자료원 : STR Global (2019.12)



* 자료원 : UNWTO (2020.11)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단위 : 억 달러)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GIC Real	싱가포르	부동산	N/A	신규	비수도권개발	해당 지자체협의 지원
Merlin Entertainment	영국	관광	N/A	증액	일자리창출	해당 지자체협의 지원
오리엔탈 만다린	홍콩	관광	31 (’19)	신규	일자리창출	해당 지자체협의 지원
Taubman	미국	부동산	N/A	신규	일자리창출	해당 지자체협의 지원
Marina bay sand	중국	관광	N/A	증액	일자리창출	해당 지자체협의 지원
Fraser Hospitality	싱가포르	관광	20 (’19)	신규	일자리창출	해당 지자체협의 지원
Disney World	미국	관광	N/A	신규	일자리창출	해당기관 및 지자체협의지원
Universal Studios	미국	관광	N/A	신규	일자리창출	해당기관 및 지자체협의지원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2020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약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고, 관광레저 분야의 경우 약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음. 이는 세계 경기의 둔화(저성장, 저금리, 저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부동산 세부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부동산	219	2,362	182	4,431	198	3,863	190	3,981	171	3,270
임대사업	105	142	85	159	65	407	80	119	56	222
건설업	34	271	12	20	20	220	18	130	14	10
총계	358	2,775	279	4,610	283	4,490	288	4,230	241	3,502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관광레저 세부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숙박업	33	518	41	1,508	28	509	31	258	25	40
음식업	149	299	156	60	107	267	118	400	80	113
여가·스포츠·오락	28	70	32	201	12	70	26	240	25	241
총계	210	887	229	1,769	147	846	175	898	130	394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2020년은 11월 기준 누계

- [투자트렌드] 부동산시장의 경우 오피스빌딩 투자와 물류 부동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안전수익 자산의 수요 및 선호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관광레저 산업에서는 국내 관광객의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복합리조트, 마리나, 크루즈 등 고부가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3분기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총 23개이며, 거래금액은 4조 8,829억원, 거래 면적은 약 649,000m²임. 매수자의 35%가 법인, 39%가 펀드, 17%가 리츠, 9%가 개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자산 매각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관광레저 산업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 관광객 위주의 리쇼어링이 진행되며 안전함을 중시하는 관광객 수요로 투자유치는 감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 투자로 선호도가 변하고 있음

■ 투자성공사례

- 제주 랑정(Landing International)의 복합리조트 투자 프로젝트
 - 2013년 9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L社와 싱가포르 G社의 합작기업으로 '리조트 월드 제주'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FDI 20억 달러가 신고 및 도착되었으며 3차 에코파크(2020년 하반기 완공) 및 4차 테마파크도 계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는 25억 달러의 개발비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카지노,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리테일이 있는 복합형 리조트로 현재 1,200명(2020년 기준)의 직원을 2,500명으로 확대 고용할 예정으로 지역경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Inspire Entertainment)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 투자주체인 M社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카지노, 호텔, 리조트 개발 및 운영기업이고 특수목적법인 (주)인스파이어를 100% 보유, 리조트 건설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IBC-III)에 4단계에 걸쳐 사업비 6.5조원의 거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인천공항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만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프로젝트로 약 17,000명-2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1 재무적투자/금융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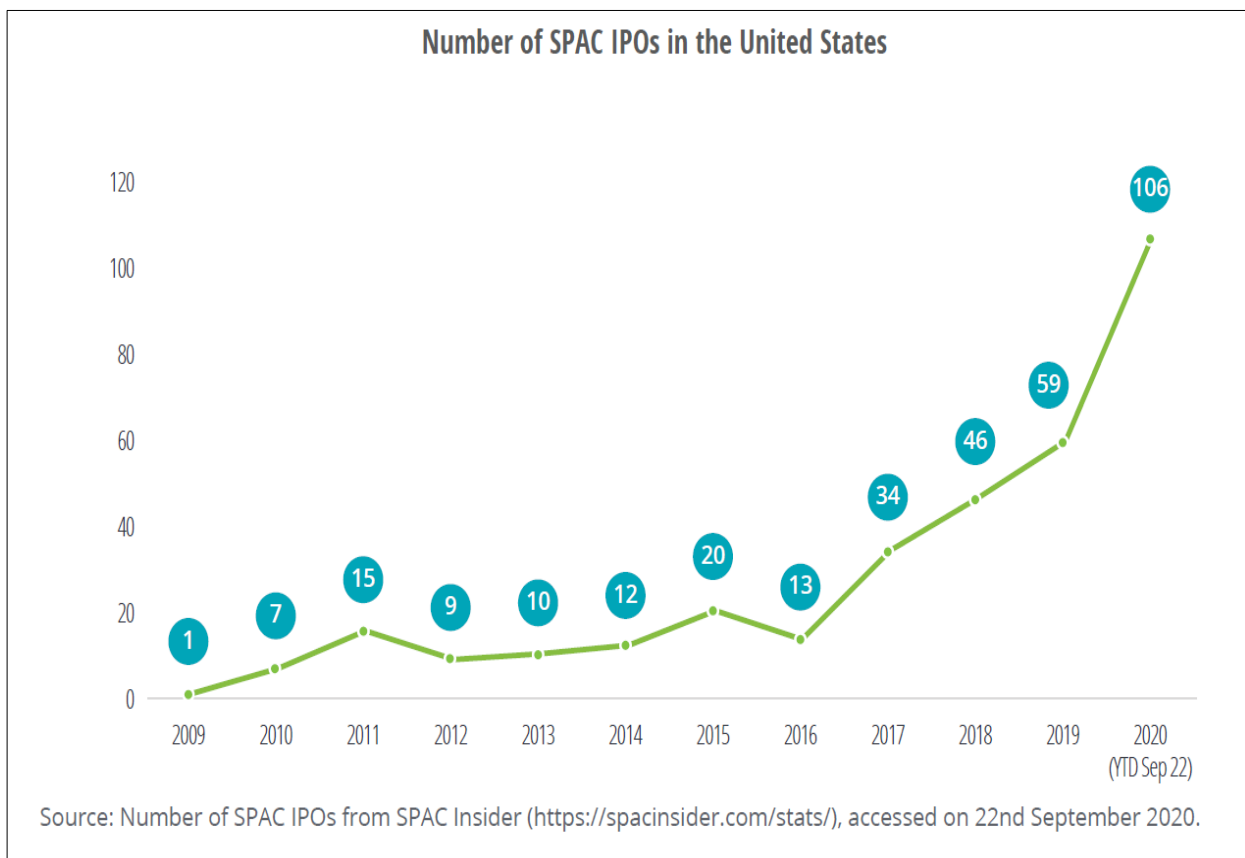
■ 재무적 투자

- [재무적투자/동향] 2020년 글로벌 재무적투자가(Private Equity Fund[PEF] 및 벤처캐피탈 기준) 자금모집은 호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근래들어 PEF가 상장주식 등 전통 고수익 자산군(asset class)대비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한 데 기인. 실제로 2019년 12월 기준 PEF Buyout 평균수익률은 지난 10년간 연 14%를 상회하였음. 대체 고수익 자산인 PE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PEF 업계는 누적 기준 2,260건에 3,827억 달러 규모의 바이아웃(buyout) 투자를 집행하였음.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1%, 12% 포인트 줄어든 규모인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반적인 부정적 경제 영향에 기인. 현재 아직 집행이 가능한 PEF 대기투자자금(dry powder)은 1.5조 달러에 달하며, 마땅한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재무적투자/전망] 2020년말 기준으로 글로벌 재무적투자 업계는 PEF와 벤처 캐피탈 자산을 포함하여 4.5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1천억 달러가량 증가한 수치
 - Deloitte사는 글로벌 PEF 업계의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 AUM) 규모가 2025년까지 최대 6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글로벌 PEF 업계의 호황은 우수한 운용 수익률에 힘입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PEF

- [PEF/동향]
 -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아시아 PEF 업계는 누적 기준 80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 포인트 증가하였음. 아시아 업황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주요 이유로 아시아지역 PEF 딜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꼽을 수 있음

- 2020년도에 글로벌 PEF 업계에 두각을 나타낸 화두는 ESG임. ESG란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말함. 투자 의사결정시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을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예컨대, PEF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운용사에 ESG 도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2018년에 ESG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결성된 Investor Leadership Network의 운용자산은 6조 달러에 이룸
- 2020년도에 글로벌 PEF 업계에 두각을 나타낸 또 다른 화두는 스펙(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ies-SPACs)임. 스펙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하며, 비상장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 명목회사임. 통상적으로 PEF는 SPAC를 주식시장에서 공모를 통하여 상장시키면서, 20%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함. PEF는 SPAC의 상장을 통하여 당초 자체 보유자금의 5배 더 큰 규모로,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음
- 글로벌 PEF업계를 선도하는 미국에서 SPAC이 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2016년에 13개에 불과했던 SPAC 상장 건수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06개로 늘어나, 현 추세라면 연간기준으로 10배가량 늘어날 전망



- 2020년도에도 PEF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 자산군(asset class)은 사모부채(private debt)임. 이는 사모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의 형식을 띄면서 순수 자기자본(equity) 투자형태보다 투자위험을 낮춰주었기 때문임. 2000년도에 400억 달러 초반 대에 불과했던 사모부채 시장 규모는 현재 8천억 달러 이상으로 20배가량 늘어났음
- **[PEF/전망]** 글로벌 PEF 업계는 투자자금모집에 있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데에는 집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
 - 이는 주로 이익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캐시카우(cash cow) 비즈니스 매각을 꺼려하기 때문임. 이에 PEF 업계는 보유 투자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예컨대, 근래 들어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일부 PEF들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소유자들로부터 경영권 유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수지분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고 있음
 - PEF 투자자들은 생명과학과 같은 성장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막대한 대기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PEF들이 전통 buyout 시장에서 투자할 마땅한 대상자산을 찾기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체고수익자산을 물색하고 있기 때문임
 - 거시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불투명한 세계경기 전망 및 미중간 글로벌 패권다툼 등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벤처캐피탈

- **[벤처캐피탈/개황]** 벤처캐피탈 투자는 PEF와 같이 비상장기업 재무적투자의 한 분류인데, 전통적으로 PEF는 경쟁지위 및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반면에, 벤처캐피탈은 신생기업에 주로 투자함
 - * 벤처투자는 Seed/Angel, Early-Stage 및 Late-Stage 등 크게 3분류로 나뉘는데, 통상 Seed/Angel 투자는 건수로는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나, 금액 기준으로는 10%에도 못 미침. 반대로, Late-Stage 투자는 건수로는 10% 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2020년에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선방하였는데, 이는 금융(핀테크 포함), 헬스케어, 유통, 운송, 물류 등 다양한 혁신분야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에 기인. 특히, 투자자금은 SpaceX (19억 달러 자금모집), Flipkart(13억 달러 자금모집)등과 같이 10억 달러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였음
- 글로벌 하위산업 투자배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30% 이상의 자금이 집행되면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상업서비스(commercial services) 산업과 제약/바이오테크 산업이 그 뒤를 이었음.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 근래들어 AI,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벤처캐피탈/전망]** 2020년 Snowflake사의 332억 달러 밸류에이션 IPO 등 공모 시장 활황에 힘입어 벤처캐피탈의 성공적인 투자회수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2021년에도 벤처캐피탈 업계에는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핀테크, 운송, 모빌리티, 헬스케어 산업 등에 특히 투자가 쏠릴 전망이며, 기술측면에서는 AI가 주요 포커스가 될 전망이다. 거시적으로는 불투명한 세계 경기전망 및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정세(중동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가 중요 변수로 작용

■ 금융서비스

- 2021년에 글로벌 은행·보험산업은 주로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제한된 수익 성장을 보일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경기불안 및 미중 무역분쟁 등의 지정학적 불안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은행업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보험업은 자연재해 손해를 상승 및 정부 규제 강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은행업)** 2021년에 글로벌 은행산업은 급격한 경기하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상 하에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은행산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안전성이 유지될 전망. 그러나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여파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장은 제한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는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및 일본은행의 경우에는 수익압력이 가중될 전망. 중국은행들에게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큰 리스크로 작용

- **(보험업)** 2021년에 글로벌 보험산업은 역사적으로 낮은 저금리 기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손해를 상승 및 정부 규제강화 등의 여파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래 들어 투자수익이 글로벌 보험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저금리 기초는 보험산업의 수익 전망에 치명적임. 보험업계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적용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및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해 보험업 전망의 중요 변수로 작용
- **(핀테크업)**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등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현재 핀테크 산업이 가장 급속히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는 은행의 전통업무 영역인 페이먼트(payments)분야임.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핀테크 확산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 페이먼트 스타트업들은 발빠르게 은행들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송금 및 지불 업무를 수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과거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을 위협하고 있음. 더 나아가, 우월적인 서비스로 탄탄한 고객기반을 확보한 페이먼트 스타트업들은 자사 앱에서 보험, 대출, 카드,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함. 반면에, 전통적으로 정부의 규제 및 보호 아래, 관료적인 영업을 해온 기득권 은행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도전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임
- . 페이먼트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서,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가 대표적임. 미국에서는 PayPal이 3억명 이상의 활동 계정 등록자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Apple Pay 등이 가입자를 발빠르게 늘려가고 있음. 한국에서는 토스(Toss), 카카오페이(KakaoPay) 등이 간편한 페이먼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수익업무 영역을 급격히 넓혀가고 있음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 글로벌 주요 PEF

기업명/국가	현황
Blackstone/ 미국 뉴욕	· 1985년 설립, 운용자산 5,540억 달러 (PEF 1,739억 달러)
Apollo/ 미국 뉴욕	· 1990년 설립, 운용자산 3,230억 달러 (PEF 770억 달러)
Carlyle/ 미국 워싱턴DC	· 1987년 설립, 운용자산 2,220억 달러 (PEF 840억 달러)
KKR/ 미국 뉴욕	· 1976년 설립, 운용자산 1,995억 달러 (미주 PEF 360억 달러)
TPG/ 미국 포트워스	· 1992년 설립, 운용자산 1,190억 달러 (PEF 620억 달러)
Bain Capital/ 미국 보스턴	· 1984년 설립, 운용자산 1,050억 달러 (PEF 650억 달러)
CVC Capital/ 영국 런던	· 1981년 설립, 운용자산 805억 달러 (PEF 전문운용사)
Warburg Pincus/ 미국 뉴욕	· 1971년 설립, 운용자산 790억 달러 (PEF 전문운용사)

○ 국내 주요 PEF

기업명	현황
MBK파트너스	· PEF 운용금액 220억 달러, 아시아 1위 · 2005년 설립, 북아시아(한·중·일)를 중심으로 투자 진행중 · 2018년도 CGI홀딩스 인수 등
한앤컴퍼니	· PEF 운용금액 60억 달러 이상 · 2010년 설립, 주로 한국의 전통 및 '굴뚝산업'에 투자 · 2020년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인수 등

○ 투자유치 타깃 해외 재무적투자가

투자가명/국가	현황
Temasek/싱가포르	· 1974년 설립, 운용자산 1,970억 달러
GIC/싱가포르	· 1981년 설립, 운용자산 3,590억 달러
중국투자공사(CIC)/중국	· 2007년 설립, 운용자산 9,410억 달러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미국	· 1932년 설립, 운용자산 3,749억 달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미국	· 1913년 설립, 운용자산 2,421억 달러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AP)/스웨덴	· 1960년 설립, 운용자산 1,800억 달러
Australian Future Fund/호주	· 2006년 설립, 운용자산 1,110억 달러
Australian Super/호주	· 1999년 설립, 운용자산 1,070억 달러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PEF의 금융지주사 증자 등 대형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년대비 신고금액 확대

<재무금융 세부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금융업	165	6,187	114	3,156	119	4,591	132	2,507	123	5,564
보험업	5	239	5	845	1	208	1	17	1	2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1	130	33	292	16	86	28	331	29	251
총계	191	6,556	152	4,293	136	4,885	161	2,855	153	5,838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 2020년에 대한민국 PEF 산업은 자금모집, 투자 및 회수 측면에서 호황기를 누렸음
 - 대형 바이아웃 딜(Buyout deal) 성사 등 기업 M&A 시장에서 PEF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
 -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PEF에 LP로 참여하는 경우가 활발해지고 있음. 특히 MBK파트너스, Hahn & Company와 같이 실적(track record)이 쌓인 국내 대형 PEF가 결성하는 펀드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
 - 해외 주요 PEF가 이미 국내 M&A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주요 대형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자로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12월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학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은 국내 BHC 치킨社에 3억 달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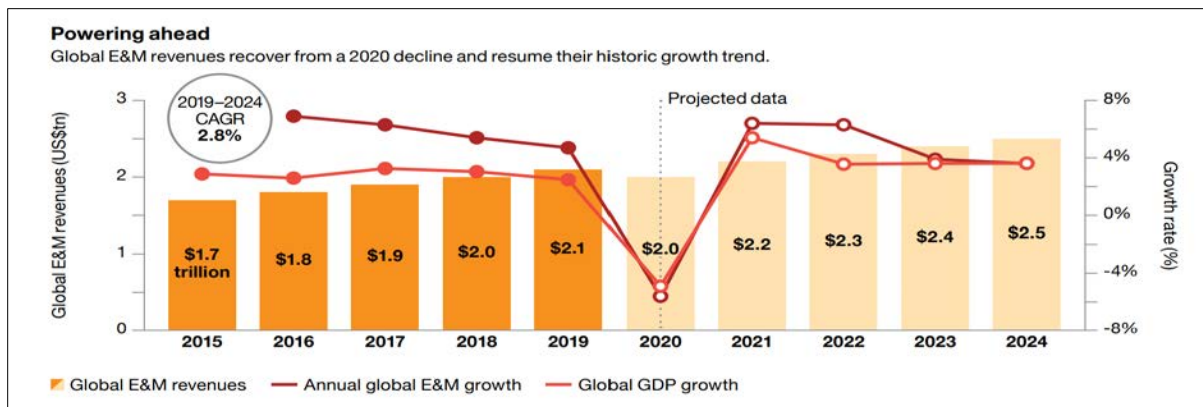
■ 투자성공사례

- 국내 대형금융지주사 증자 참가
 - 홍콩계 글로벌 PEF가 국내 대형금융지주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되어있다고 판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상증자에 참가

12 문화콘텐츠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종합] 세계 경제의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콘텐츠 분야 수요 증가
 - 콘텐츠산업 각 분야에서 디지털 비중이 높아지며 글로벌 OTT시장 확대, 만화, 출판 및 음악 등 기존 일반 콘텐츠 분야의 디지털화 촉진
 - PwC의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에 따르면 E&M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을 극복하고 2021년부터 4%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
 - 코로나19로 분업화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제작, 유통, 소비를 자체 수행하는 복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발전 예상
 -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유형 콘텐츠 기술 확산 가속화 및 이에 대한 활발한 투자 전망



* 자료원 : PwC의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0-2024

- [게임] 모바일게임 사용자가 PC게임, 콘솔게임 등에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 2020년 모바일 게임 규모는 전년대비 13.3% 성장, 게임시장 전체 9.3% 성장(Gameindustry.biz)
 - 모바일게임 개발 프로세스의 상대적인 단순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개발 지연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음
 - 5G의 확대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성공 공식으로 떠오른 모바일 게임이 더 많이 출시될 전망

- 북미와 남미 시장의 경우 게임시장이 정체중이나, 중국이 세계 2위의 게임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아시아권 게임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한국 게임 시장과의 교류가능성 또한 높아짐
- 대표적인 비대면 콘텐츠인 게임은 앞으로도 산업 확장세를 유지하며 제작 및 배급업 시장 투자유치 가능성 예상
- **[방송]** OTT(Over The Top)서비스의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를 따라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공격적인 진출국 확대
 - 구독경제 서비스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인식됨에 따라 2019년 시장규모 816억 달러에서 연평균 14%의 고속 성장 전망
 - * 출처 : OTT Services Market(2019), MarketsandMarkets
 -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의 국내 론칭 가능성 증대로 초기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 왓챠 등 기존 국내 OTT 서비스도 시리즈D 투자유치 등 점유율 확보에 총력
- **[음악]** 빅데이터에 기반한 초맞춤화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Spotify 등 사용자 맞춤형 음악 제공 서비스 확대 전망
 - 음악 소비형태로 스트리밍 형태가 주를 이루며 독점 음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Spotify, Apple Music, Amazon Music, Tencent Music 등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실감콘텐츠]** 한국,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5G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VR·AR 디바이스 시장의 급성장 예상
 - VR 콘텐츠 제작 시장은 가상현실 HMD를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AR 시장규모는 '18년 111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40.29%로 성장하여 2023년까지 6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VR 시장규모 역시 '18년 7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33.95%로 성장하여 2023년까지 3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출처 :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market 2015-23, MarketsandMarkets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단위 : 억 달러)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ALPHA GROUP	중국	게임	100	증액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소개
FUNCELL123	중국	게임	15	신규	중국내 판호 허가	유망기업 소개
A&E Television	미국	방송	5	증액	일자리 창출	협력가능기업 소개
Spotify	스웨덴	음악	53	증액	국내시장 독 과점 해소	서비스형 외투기업 지정 지원
Aceville	싱가포르	게임	-	증액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소개
DaDi Media	중국	영화	-	증액	일자리 창출	투자인센티브 관련 안내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게임 스타트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국내 서비스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문화콘텐츠 세부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11	4	5	4	7	29	2	1	2	9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37	168	16	34	18	108	12	48	15	1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87	1	0	11	10	5	4	7	178
창작 및 예술관련	12	38	14	28	6	2	8	34	14	7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4	1	6	10	2	28	3	0	3	2
스포츠 서비스업	6	16	9	157	1	0	10	205	5	17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6	14	3	6	3	40	5	1	3	215
총계	84	328	54	239	48	217	45	293	49	438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 문화콘텐츠 사업 중 OTT서비스의 확대에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신고액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카카오엠) 정보통신 및 게임 산업은 문화콘텐츠 투자유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 지역별로는 아시아, 미국이 각 45%,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홍콩 등 중화권의 투자가 많은 편
 - W社(엔터테인먼트)가 '20년 4백만 달러 증액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류 타깃의 전략적 투자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쿠안텀스포츠코리아가 PC·모바일 게임의 E스포츠 경기화 및 모바일게임리그 활성화 관련 중국에서 7백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고 디지털화 촉진, 5G의 상용화 등으로 E스포츠 리그 관련 해외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성공사례

- 미국 KSVeSport 투자사례
 - KSVeSport(이하 KSV)는 2017년 설립된 미국계 E스포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주요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팀을 국내에서 운영
 - KSV는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의 국내 리그, LCK(League of Legend Champions Korea) 운영사인 라이엇 게임즈와의 프랜차이즈 참여를 위해 국내 선수 육성, 시설 투자 및 인력 고용 등 신사업 확정을 위해 국내 증액 투자
 - '20년 투자 신고, 추후 약 200억 이상 투자 예정이며 약 30명 이상의 추가 인력고용을 계획하고 있음
 - 리그 참여 관련 다수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 싱가포르 에이스빌(Aceville) 투자사례
 - 중국 Tencent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Aceville은 국내 온라인/모바일게임 스타트업 약 8곳에 2020년 투자신고
 - 한국 콘텐츠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국내 기업과 제휴로 게임 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
 - 한국 중견 게임기업, ICT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도 투자 관심 보임
- 스웨덴 스포티파이(Spotify) 투자사례
 - 스웨덴 Spotify社의 한국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2020년 한국 법인 설립
 - 2021년 서비스 오픈 예정, 국내 음원 저작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 협상 진행 중이며 저작권료 등 시장진입에 필요한 초기비용 투자신고 예상
 - 국내 음원 독과점시장 해소 및 자체 팟캐스트 제작 등 신규 플랫폼을 창출하며 시장에 긍정적 영향 전망

13 비즈니스서비스

가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전망

- [종합] 글로벌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은 '16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8년 이후 회복세를 보임
- 국가별 글로벌기업 시장규모는 '15년 7.1조 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16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2,300억 달러씩 꾸준히 증가함
-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글로벌기업 시장규모는 미국(약 40%), 유럽(약 26%), 중국(약 14%)을 중심으로 성장함
-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시장규모는 '14년 1,500억 달러에서 '19년 1,954억 달러로 빠른 속도로 증가함
- 그러나 '19년 한국 비즈니스서비스가 글로벌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중국(약 14%)과 일본(약 7%)에 비하면 낮은 편임
-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기 축소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서비스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 전망, '22년부터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Statista '20년)

<국가별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글로벌기업 시장규모(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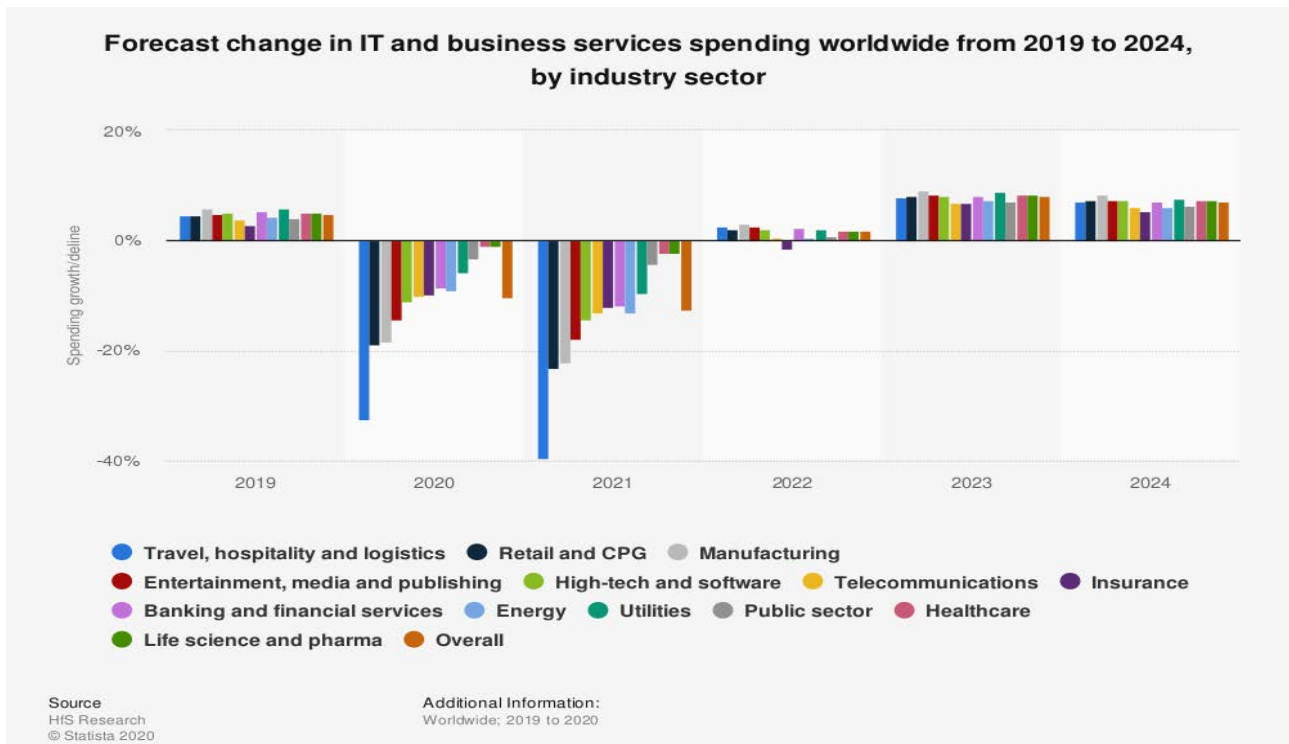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국	886.6	955.0	959.4	1,049.7	1,168.7	1,219.1
인도	62.8	62.6	66.8	93.6	98.5	99.4
인도네시아	36.2	36.9	41.0	45.7	47.8	53.4
일본	556.1	493.3	558.1	549.9	559.9	570.6
한국	153.6	160.7	165.7	179.7	198.1	195.4
호주	243.9	214.4	224.3	252.0	260.8	258.2
러시아	176.1	126.9	129.6	160.9	158.4	165.7
브라질	206.2	150.3	147.3	160.6	148.9	145.5
멕시코	96.0	85.4	78.0	82.5	86.5	94.6
사우디아라비아	13.8	14.0	14.2	14.5	16.0	16.7
캐나다	215.4	192.4	187.6	197.9	204.8	206.9
미국	2,568.2	2,693.0	2,793.3	2,963.6	3,164.1	3,319.3
프랑스	587.3	507.0	522.3	549.9	610.0	609.8
독일	630.2	547.9	611.0	649.0	707.9	697.2
이탈리아	256.8	223.4	224.6	229.8	245.4	236.3
스페인	142.8	128.8	133.4	143.5	160.8	158.0
터키	65.5	64.3	67.2	67.1	53.8	53.3
영국	522.0	499.9	455.8	455.4	490.2	489.7
합계	7,419.5	7,156.2	7,379.6	7,845.3	8,380.6	8,589.1

* 자료원 : Passcord (2020)

<IT 및 비즈니스서비스 세부항목별 소비 전망(2019-2024)>

(단위 : %(지출성장률))



* 자료원 : Statista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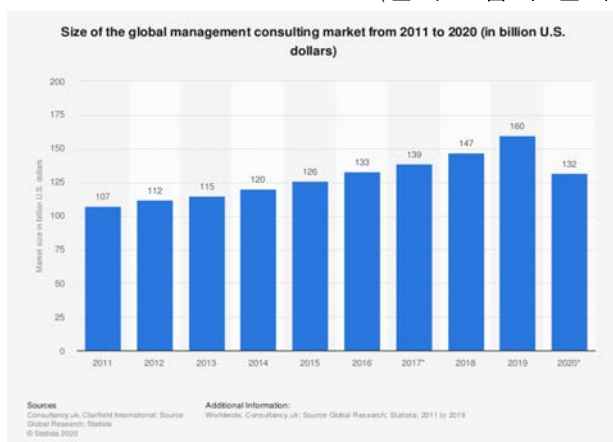
○ [비즈니스컨설팅] '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 여파로 1,320억 달러 규모로 축소

- '19년 비즈니스컨설팅 시장규모는 1,600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11년부터 매해 평균 70억 달러씩 증가함

* 국가별 시장규모 : 1위 미국(712억 달러), 2위 영국(108억 달러), 3위 독일(104억 달러)

<컨설팅 시장규모(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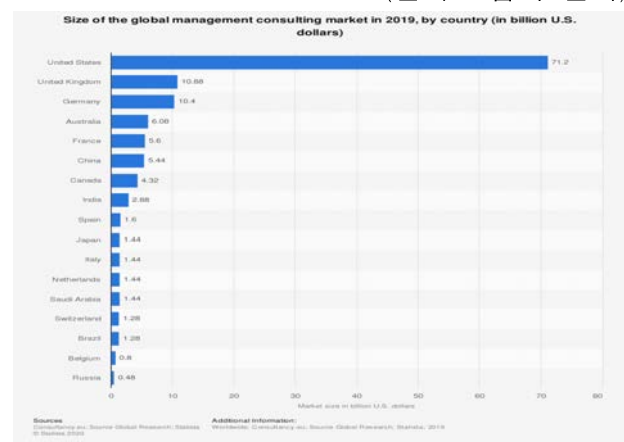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 자료원 : Statista('20년)

<국가별 컨설팅 시장규모(2019)>

(단위 : 십억 달러)



* 자료원 : Statista('20년)

- 국내 데이터 컨설팅* 시장규모는 '15년 대비 '19년 4.1% 증가함

* 데이터 컨설팅 : 데이터 설계 컨설팅, 데이터 품질 컨설팅, DB 성능개선 컨설팅, 데이터 거버넌스 컨설팅, 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의미(「2019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9년)

<데이터 구축/컨설팅 시장규모(2015-2019)>

(단위 :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증감률 (‘17-‘18)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데이터구축	54,142	97.9%	54,571	97.7%	57,207	97.1%	58,993	96.3%	62,576	96.4%	3.1%
데이터컨설팅	1,138	2.1%	1,279	2.3%	1,687	2.9%	2,297	3.7%	2,346	3.6%	36.1%
합계	55,280	100.0%	55,850	100.0%	58,894	100.0%	61,290	100.0%	64,922	100.0%	4.1%

* 자료원 : 「2019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9년

- [연구개발(R&D)] 글로벌 R&D시장은 '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함

- 미국 : R&D 시장 비중 '18년 24%대에서 '20년 25%대로 증가
- 중국 : “China 2025” 정책 추진과 함께 R&D 시장 비중은 '18년 21%대에서 '20년 23%로,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
- 일본 : '18년부터 시장규모 조금씩 축소, '20년 최저점 기록

<국가별 연구개발(R&D) 지출>

(단위 : 십억 달러, %)

Share of Total Global R&D Spending						
국가	2018 GERD	Global Share	2019 GERD	Global Share	2020 GERD	Global Share
미국	565.8	24.7	596.6	25.2	609.7	25.0
중국	499.6	21.8	532.8	22.5	563.7	23.2
일본	189.5	8.3	190.6	8.0	191.0	7.8
독일	126.6	5.5	128.3	5.4	130.0	5.3
인도	89.2	3.9	95.8	4.0	96.5	4.0
한국	89.5	3.9	90.3	3.8	92.2	3.8
총계	1,560.2	68.2	1,634.4	68.9	1,683.1	69.1

* GERD(Gross Expenditures in R&D), billion USD)

** 자료원 : R&D World Online('20년 3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9년 총 연구개발비는 '18년 대비 3조 3,184억원 증가한 89조 471억원 (약 764억 달러)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

* 1위 미국, '18년 기준 5,816억 달러

-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전년 대비 0.12%p 증가한 4.64%로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 '16년 2위 → '17년 2위 → '18년 2위 → '19년 2위(수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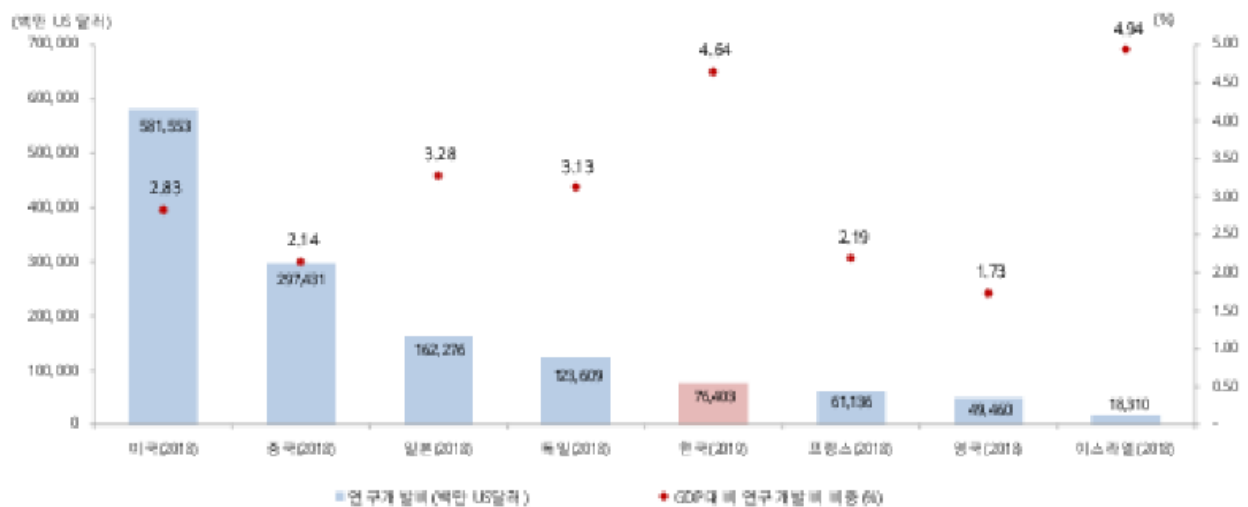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 자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년)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 자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년)

나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타깃 기업

(단위 : 억 달러)

기업명	국가	사업 영역	연매출	구분 (신규/증액)	투자 필요성	유치전략
Amazon Web Services	미국	온라인서비스 (클라우드)	—	증액	기술도입, 일자리 창출	투자인센티브 지원 모색
KPMG US	미국	컨설팅	—	신규	일자리 창출	국내 유망기업 협력 기회 확대
Mott MacDonald	싱가포르	컨설팅	—	신규	지역개발	유관기관 협력 기회 제공
Traveloka	싱가포르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	신규	기술도입,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협력기회 지원
Neuron Mobility	싱가포르	공유스쿠터 서비스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인센티브 지원 모색
Eurofins	프랑스	연구개발 서비스	—	증액	일자리 창출	국내 유망기업실사와 협력기회 확대

■ 투자유치 동향

○ [투자규모]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분야 비즈니스서비스 투자유치 증대, 반면 숙박·음식점과 같은 대면 서비스 제공 분야는 '20년 투자규모 감소

* 전년대비 '20년 투자유치 증가 업종 : 사업지원·임대, 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 공공·기타 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세부업종별 외국인투자동향(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건)

세부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서비스업	2,377	15,512	2,173	15,369	2,069	15,583	2,139	14,758	1,731	14,354
숙박·음식점	182	816	197	1,569	135	777	149	658	105	153
사업지원·임대	105	142	85	159	65	407	80	119	56	222
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	243	1,625	235	981	217	364	214	790	185	926
공공·기타서비스	54	77	36	75	28	147	33	148	22	190
총계	584	2,660	553	2,784	445	1,685	476	1,715	368	1,491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현존 외국인투자기업(총 14,991 개사) 중 비즈니스서비스 외투기업은 1,700여 곳으로 파악
- 비즈니스서비스 투자신고 규모는 전체 서비스업 투자신고액의 9.3%*로, 작년(7.1%) 대비 소폭 증가

*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투기업을 “사업지원·임대”, “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 “공공·기타서비스”로 제한시켰을 경우

<비즈니스서비스 외투기업 현황('21년 1월 기준)>

(단위 : 개사, 억 달러, 총 투자신고액 대비 %)

구분	기업 수	투자신고액	투자신고 비율
사업지원·임대	414	2.51	1.03
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	1105	7.08	2.90
공공·기타서비스	185	2.56	1.05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INSC)

○ [투자트렌드]

- 정부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부상에 따라, 관련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증대 예상

* 정부는 디지털 뉴딜 즉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5G·인공지능 활용·융합 가속화를 목표,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 5천억원을 투자, 일자리 56만7천개 창출을 계획

-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치료제 공급으로 '21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풀리면서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21년 투자유치 회복 예상

■ 투자성공사례

○ 채용 컨설팅 분야 국내기업 지분인수 프로젝트

- 투자신고 성공요인 : ①(정책적 요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입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기업 지분인수 ②(KOTRA 지원내역) 비대면 B2B 화상상담 및 자가격리면제 지원

○ 국내 모바일 금융지원 서비스 플랫폼 제공 프로젝트

- 투자신고 성공요인 : (정책적 요인) ①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서비스 6대 중점분야* 육성 ②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의 확대
* 핀테크, 디지털서비스, 에듀테크,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 빅데이터 기반 공유주방 국내진출

- 투자신고 성공요인 : ①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안내, ②관심 지자체 관계자 소개 및 상담지원, ③IKW 2020 연계 온라인 IR 지원





IV Invest KOREA 투자유치 사업

투자유치 기반조성	287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293
외투기업 고충처리	296
외국인 투자 종합행정지원	299





1 투자유치 기반조성

■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 (내용) 글로벌 FDI 동향, 국가별(20개)·산업별(13개) 투자유치 전략, 국내 지역별(13개) 투자유치 전략, IK 투자유치 사업
- (활용)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연간 투자유치 방향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 대응 투자유치 전략 재편 및 정부 정책지원 강화

- (전략 재편) 코로나19 영향, GVC 재편 등 환경변화와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을 연계한 외국인 투자의 역할과 방법 등 전략 구체화
 - * 외투정책 2030 전략 수립('21.1월),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 대응 현안보고서(연 8회) 등
- (정책지원 강화)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활용, 정책의 효과분석, 개선방안 연구 및 외투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확대
 - * 산업부-외국인투자유치 정책센터 주관 TF 활동(격주 1회) 강화

■ 외국인투자유치 디지털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잠재투자가 타기팅 시스템 구축) 첨단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잠재투자가 발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투자수요 선제 대응 체계 구축
 - * 관세청 통계 활용 잠재투자가 타기팅 시스템 개발 추진('21.3월~'21.12월)
- (외투기업 현황분석 시스템 구축)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현황(매출·무역·고용 등)을 파악하여 외투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21년 Invest KOREA Week(외국인투자주간) 개최

- (목적) 대대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개최
- (시기/장소) 2021.11.3.(수)~5(금) (잠정) / 온오프라인 병행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아리랑TV
- (프로그램) 혁신성장포럼, 지역중점산업포럼, 산업특화포럼(소부장, 디지털·그린뉴딜), 외신간담회, 투자유치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등
- (참가대상) 정부, 투자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지자체, 일반시청자 등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센터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리

- (목적)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및 관리
- (지원대상)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산업, R&D, 대규모고용창출 외국인투자 등
- (지원예산) 600억 원으로 확대
- (운영내용) 투자발굴, 현금지원 신청지원, 심사·의결, 협상 및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 2021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사업

- (목적) 경제자유구역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을 통한 경자구역 내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및 실적 확대
- (주요사업) 전시회 연계 온·오프라인 IR, 경제자유구역 통합 IR, IKW 연계 홍보, 온라인 투자유치교육 등

■ 외국인투자유치 통합교육 실시 (연 2회)

- (투자유치 역량 강화) 외국인투자유치 실무(제도·법규·기법 등), 산업별·국가별 투자유치 전략 등 FDI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 및 유관기관의 전문역량 제고
- (교육 효율성 제고) 외투 PM 양성과정, 실무자교육, 투자전담관 교육 통합

■ IKP(Invest KOREA Plaza,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운영

- (운영내용) 초기 투자가 인큐베이팅 서비스 및 회계·법률·세무 등 전문서비스 일괄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업무 편의성 제공
- * 피칭라운지, 대내외 개방 및 활용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정책센터 운영

- (목적) 외국인투자 현안 및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 (기능)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 외국인투자 통계 분석, 각종 투자유치 정책 지원 보고서 발간, OECD 등 국제기구 지원 등

■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및 애로 조사

- (경영실태 조사) 주요 외투기업의 재무현황 및 경영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효과와 경영현황 분석, 국제투자통계 작성
- (애로 조사) 외투기업의 경영·생활·투자환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 레드카펫 서비스 운영

- (내용) 입국지원(게이트 픽업, CIQ 수속지원) 및 차량지원, 상담주선, PM수행 지원 등

■ IK 홈페이지 운영

- (운영 대상) IK 홈페이지 및 지자체 10개 다국어(국·영·중·일) 운영
 - * 홈페이지 위탁 운영 지자체 :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제주, 대구, 충북, 충남, 전북, 대전
- (주요 내용) IKMP, 투자 환경, 주요 산업, 투자 관련 뉴스, 투자가이드 등

■ IK 홈페이지 고도화

- 지자체·FEZ 등 협업 하에 온라인콘텐츠 보강 및 투자가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 투자비용 계산 프로그램 개발로 초기 투자에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 및 전체 예산 추산
- 빅데이터 기술 적용, 홈페이지 접속자 로그 심층 분석 시스템 개발
- 무역·투자 데이터·시스템 연계로 IK접속 투자가 대상 구매·조달·제휴 전환 유도

■ 온라인콘텐츠 제작·업데이트

- IK 홈페이지 內 한국 투자환경 홍보 콘텐츠 지속 업데이트
 - * 국가·산업·입지·기업 다국어 콘텐츠 정기제작 및 업데이트 추진

<주요 업데이트 콘텐츠>

구분	내용	주기
투자환경	한국 투자 강점 (경제안전성, 인프라, 시장경쟁력 등)	연 1회
산업정보	① 18종 주요 산업 동향·정책·한국진출 사례·유관 기업 및 기관 등	연 1회
	② 한국 유망산업 동향 및 전망	월 1회
입지정보	정부 주요정책 연계 지자체·FEZ 입지 정보	월 1회
국내기업	정부 주요정책 연계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 국내 유망기업 심층 정보	월 1회
성공사례	주한 외투기업 인터뷰	월 1회
기타	투자가이드, 투자뉴스 등	수시

■ 해외언론 홍보사업

- KOTRA 사업 연계 해외 언론사 초청,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 강점 홍보
 - * (예) Invest KOREA Week 연계 해외언론 팸투어, 기자간담회, 개별인터뷰 지원 등

■ 국가 투자유치 홍보자료 발간

자료명	주요 내용	발간 예정 시기/언어
2020년 FDI 동향	2020년 對韓 FDI 동향 분석	3월 / 국영중일
한국 투자환경	한국 투자환경 및 경쟁력	7월 / 국영중일
투자환경홍보 특집 프로그램	외투기업 CEO 대담, 입지·스타트업 소개 * 아리랑TV 협업	6월 / 영어
한국 투자환경 홍보 브로슈어	한국 투자환경, 산업별 동향 등	12월 / 국영중일
외투기업성공사례집	對韓투자 사례 및 성과	12월 / 국영중일
Invset KOREA	공사 대표 무역투자 영문 월간지	매월 / 영어

■ 지자체·FEZ 통합 국가 투자홍보관 운영

- (목적) 해외 유력전시회 연계 공동 홍보관 운영으로 FEZ 투자프로젝트 홍보
- (내용) 전시회 참가기업-무역관 발굴 타겟 투자가 1:1 상담 및 투자설명회 추진
 - * 코로나19 확산 감안, 전시회 온라인 상담 플랫폼 활용 IR 추진 예정

■ 한국 투자홍보대사 운영

- (홍보대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UAE 등 8개국 10명
 - * 해외 지한파 인사 및 국내 인사 위촉
- (내용) 대내외 유력인사를 활용, 투자홍보 및 기 진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FDI 국민경제기여도 對국민 홍보

- (내용) 국내 언론, 광고 매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인식 제고
 - (국내 언론) 유력 일간지, 경제지 대상 외투 관련 광고
 - (광고 매체) 인천공항, 지하철역사, KTX/SRT 객차 등에 스폷 영상 송출

■ 외투기업 채용지원주간 웨비나 개최

- (시기/장소) 4월 (잠정) / 온라인
- (내용) 산업별/국가별/직무별 등의 기준으로 테마를 선정하여 복수의 외투기업(약 5개사)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을 병행하여 웨비나 진행
 - * '20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직자 호응이 가장 높은 콘텐츠 및 강사 선별하여 내용 구성, 내실 강화 도모

■ 제16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시기/장소) 11월 (잠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개최
- (주요내용) 외투기업 110여개사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외투기업 채용박람회로 기업홍보, 기업-구직자 상담, 기업설명회, 취업특강 등 진행
- (특기사항) 하반기 코로나 확산 추이 모니터링 후 온·오프라인 여부 및 행사장 대관 여부 확정

■ 잡코리아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전용관 운영

-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시채용 전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력 채용알선 포털(잡코리아)에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마련, 외투기업 구인 홍보효과 제고
- (운영기간) 2021년 연중 운영
 - * 채용전용관 주소 : www.jobkorea.co.kr/theme/kotra

■ 월별 외투기업 만남의 날 개최

- (시기/장소) 매월 1회씩 연간 11회 예정 (2월~12월) / KOTRA IKP 1층
- (절차) 매월 참가 희망 외투기업 1개사 가량 섭외 및 관심구직자 모집(외투기업채용지원팀) → 참가 구직자 소규모로 선별(외투기업) → 행사 개최
-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외투기업 1-2개사와 구직자(소규모) 간 오프라인 만남 주선, 질의응답을 포함한 심도 있는 교류 진행
 - * 거리두기 2.5단계에 의거, IKP 1층 회의실 사용가능 인원 (25명) 준수

■ 대학 순회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 (시기/장소) 매월 1회씩 연간 약 10회 예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절차) 지역별 거점 대학 선정(지방지원단) → 참가 기업 및 참여 희망 대학 섭외
(외투기업채용지원팀) → 참가 구직자 모집(지방지원단/대학교)
- (주요내용) 외투기업 취업전략, 기업 인사담당자의 자사소개 및 취업전형 안내 등
 - * 대학교·외투기업의 수요 및 반응에 따라 개최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외투기업 취업 성공 사례집 발간

- (주요내용) 기존 채용지원 사업 (박람회, 상담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의 사례를 공모, 사례집 발간 및 블로그 게재
- (향후계획) 외투기업 홍보와 연계하여 추진, 월별 외투기업 만남의 날 등의 '21년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방안 모색

2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 (해외) 국가 투자유치 IR

- (시기) 연간 5회 내외
- (내용) 해외 주요투자가 대상 국가 IR 산업부 공동개최

지역 *잠정	시기	타겟분야
북미	상반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환경·신재생에너지 등
일본	상반기	첨단소재, 미래차, 기타 제조업 등
유럽	하반기	첨단소부장, 미래차, 수소경제, AI 등
중국	하반기	AI, 데이터, 기타 제조업, 금융 등
동남아대양주	하반기	금융·재무적투자(CVC, VC), 바이오헬스 등

■ (국내) 외투기업 카라반 IR

- (시기) 연간 5회 내외
- (내용) 국내 권역별 외투기업 증액투자 유도, 애로청취 및 해소지원,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FEZ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권역 *잠정	시기	타겟분야
동남권	상반기	물류, 항만개발, 핀테크 등
호남권	상반기	인공지능, 바이오·제약, 기타 제조업 등
충청권	하반기	소부장, 반도체 등
수도권(인천·경기)	하반기	소부장, 화학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수도권(서울)	하반기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등

■ (디지털뉴딜) 디지털경제 신속전환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

- 비대면 비즈니스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유망분야 투자유치 집중
 - (DNA) 국내 우수 ICT 인프라를 레버리지로 활용, 선진기술 보유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 지원
 - (바이오헬스) 코로나 진단·치료제·백신 3개 분야 및 스마트의료 시장확대를 위한 핵심기술기업 유치 및 우리 스타트업 투자유치 강화
 - (스마트물류) 공항 및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 투자유치
 - (핀테크)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 (그린뉴딜) 친환경산업 투자유치 강화

- 친환경 선진기술 보유업체 투자유치 및 국내 IT 인프라 기술력과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그린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핵심부품, 부유식 해상풍력 등 국내기술 성숙도가 낮은 분야 유치 확대
 - (스마트그리드) 미래차 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리드 핵심부품 선진기술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친환경제조) 정부정책 수반 스마트 공장 확대 구축, 폐기물 재사용 등 제조업 분야 스마트·그린 제조공정 확대를 위한 선진 타겟기업 투자유치

■ (중소·중견기업) 국내기업 성장지원 투자유치 활동

-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공급망 진입 지원
 - (CVC) 대한투자수요 보유 글로벌CVC DB 확대 및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의 연중수시 매칭 상담회 개최, 글로벌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 (IKMP)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리 혁신벤처·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및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전략적·재무적 투자유치 확대
 - * 참가업체 확대(250개사) 및 월간 온라인 1:1 상담회 개최
 - (GAPS) 첨단소재,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글로벌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간 투자유치, 공동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진입 등 협력수요 발굴 및 지원
 - * 對한국 전략적투자 수요보유 글로벌대기업 맞춤형사업 연 2회 수행

■ (비수도권 투자유치 지원) 국가균형발전 견인

- 지자체·지역별클러스터·FEZ 연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전개
 - (지자체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연중 투자희망 지자체 협업 온라인 투자설명회(상담회) 개최 및 오프라인 TFT 파견
 - (지자체 연간협력사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거점무역관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사업 시행
 - * 경북도, 제주시, 부산시 등 3개 지자체 투자유치 지원사업 시행

-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지자체, 경자청, 공공기관의 유망 프로젝트 중 투자유치 전략수립, 주요 타겟 도출, 해외 IR 활동지원을 통한 상품화 지원
 - * 상품화 프로젝트 참여지자체 연간 공모(1회) 및 프로젝트(2건) 선정
- (경자청 IR)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확대 지원
 - * 광주·울산 신규지정 경자청 공동 IR 사업 개최(상·하반기 각 1회)
- (지자체 투자유치 지원) 온라인 투자유치 IR 동영상 제작지원, 상시 투자유치 1:1 화상상담 지원을 통한 코로나 여파 최소화 및 지자체 투자유치 활성화 협력

■ 통상이슈 대응 및 제도 활용

- GVC 재편대응 및 미중분쟁 연관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탈중국, 중국+1 등 글로벌공급망 변화에 따른 글로벌기업 대한국 투자유치 수요 모니터링, 대한국 투자유치 홍보 강화
- 美신정부출범 모니터링 및 투자유치 수요 지속 발굴
 - * 美바이든 신정부 출범 친환경산업(자율주행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강화
- 정부의 규제개선책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기관·지자체 협업으로 특례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투자가 대상 제도 홍보

3 외투기업 고충처리

■ 외투기업 고충처리 활동

- 지역별·기업별 고충처리 전담요원(홈닥터) 지정, 상시 One-Stop 서비스 제공
 - 북미, 일본, EU, 중국 등 주요 투자국별, 기업별 1:1 전담요원 배정
- 법률, 회계, 금융, 노무분야 전문위원을 통한 분야별 고충 대응

<최근 5년간 외투기업 고충처리 실적>

연도	제도개선	행정처리	자체처리	합계 (증감)
2016	16	106	287	409 (△11.5)
2017	12	90	187	289 (△29.3)
2018	6	108	155	269 (△6.9)
2019	22	234	78	334 (24.2)
2020	17	240	93	350 (4.8)

[참고] 고충처리 유형구분

- * 제도개선 : 현행 법규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고충처리
 - * 행정처리 :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유권해석 등 행정조치나 해석을 수반하는 고충처리
 - * 자체처리 : 전문지식을 활용한 홈닥터 자문 등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 ※ 지원유형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처리'를 '자체처리'로 용어 변경함.

- 전문분야 지원 고도화를 위한 별도 외부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 심층조사, 해외법제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관리
 - 외부전문가 자문·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추진
-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 방문을 통한 후속지원 및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투기업 CEO간 직접 소통으로 국내투자 환경 홍보
 -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저해요소를 선제 발굴·지원하여 증액투자 유도
 - * '21년 모기업 방문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하반기 1회 추진 또는 전면보류 예정
- 미디어 활용 옴부즈만제도 및 외국인투자효과 홍보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과 공동으로 홍보 프로그램 제작, 고충처리성공사례 및 옴부즈만 제도를 전파하고 잠재 투자가 대상 인지도 제고를 모색
 - 언론 인터뷰, 정기칼럼 기고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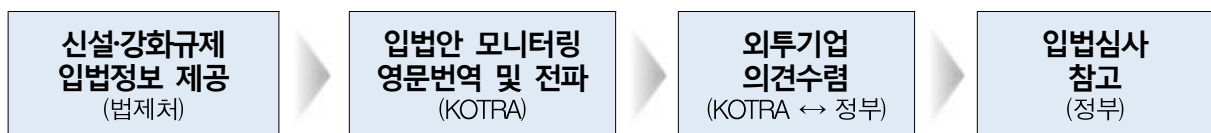
■ 선제적 고충발굴 및 지원 활동

- (분야별 외투간담회) 전문분야별 현안 관련 정책소통 및 고충 선제발굴
 - 금융, 조세, 노무, 환경 등 전문분야 중 규제·정책도입 이슈가 있거나 외투기업의 제도개선 수요가 높은 분야를 주제로 간담회 기획
 - 외투기업, 유관기관간 정책토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고충을 선제 발굴
- (지방간담회) 홈닥터-지자체 전담관 협업을 통한 지역소재 외투기업 심층 지원
 - 수요기준 연간 2~3개 지역을 선정, 지방출장 또는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
 - 제도개선, 대정부건의 등 지자체 지원이 불가능한 유형의 고충 집중지원
- (화상지원 확대) 비대면 고충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 기존 간담회를 화상회의 형태로 전환하여 진행
- (수출형 외투기업지원) 외투기업 GVC內 거래를 수출사업화하여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성과를 동시 제고 (중소중견기업본부 유망기업팀 공동 추진)
 - 외투기업 수출이력을 바탕으로 「수출형 외투기업 DB」 구축
 - 화상설명회,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사화·해외공동물류 서비스 안내 후 지원

■ 규제입법 참여지원 사업

- (목적) 외투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입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규제입법 형평성과 정책 투명성을 제고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외국인 투자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정보 모니터링
 - 신설·강화 규제입법(안) 번역, 옴부즈만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전파
 - 외투기업 의견 수렴, 한글 재번역 및 對정부 전달

<신설·강화규제 입법안 의견수렴 절차>



-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선 지원확대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업무권한 활용, 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공동 추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

- 대표 홈페이지 활용 옴부즈만제도 안내, 고충접수 및 규제정보 전파
 - 코로나 장기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1년 중 전면 개편 예정
- (개편계획) 옴부즈만 홈페이지 소통기능을 강화, 비대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 홈닥터 지정, 온라인 상담신청, 지원이력관리 등 핵심기능 추가 구현
 - 신규 시스템은 향후 비대면 고충지원사업 기획의 기반으로 활용 예정

<개편사업 단계별 과업 및 완료시기>

진행 단계	세부과업	완료시기
사전컨설팅	▪ 現시스템 분석 및 세부과업설계	'21.2月 중순
홈페이지 개편	▪ 비대면 소통기능 구현 (신규)	'21.7月 중순
	▪ 사용자 편의성 및 디자인 개선	
	▪ 웹 접근성·보완 취약성 개선	
서비스 시작	▪ 테스트 완료 후 본서버 반영	'21. 7月 하순

4 외국인 투자 종합행정지원

■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파견관 협업 외국인투자 One-roof 서비스

- (투자상담) 외투신고·인센티브·법률·세무·회계·노무 등 초기 투자 컨설팅 및 맞춤형 심층 투자 상담 진행
 - 고용노동·환경 등 각 분야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지원
 - 중앙부처-지자체-KOTRA간 투자 상담 협업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
 - * 파견 현황 : 중앙부처(6개), 지자체(9개), 유관기관(2개) 파견관 운영('21년 총남도 추가)
- (민원처리) 외측법령에서 정한 직접처리민원사무(16종) 행정서비스
 - 비자발급(법무부), 현물출자완료확인(관세청), 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등 직접·일괄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 (화상) 해외무역관 연계 투자자 상담수요에 따른 맞춤형 비대면(화상) 전문상담
 - (실적) '20년 프랑크푸르트, 뉴욕, 싱가포르 등 14개 무역관과 총 17회 추진
 - (수요발굴) 투자거점무역관 대상 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 (진행방식) 투자가 사전질의에 따른 분야별, 언어별 전문상담그룹 구성
 - * 분야 : 투자요건·절차·신고·인센티브·회계·세무·입지·비자·노무 등/ 언어 : 한·영·중·일
- (국내·외) 해외투자가 및 외투기업의 신규·중액 투자를 위한 현장방문 종합컨설팅
 - (개최횟수) 해외 2회 / 국내 5회 내외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화상상담과 병행하여 개최

■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영문화서비스

- (외투법령)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 대한민국 영문법령(<http://elaw.klri.re.kr>) 홈페이지 내 법령 번역본 대국민 제공
 - (실적) '20년 외측법 개정사항,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등 총 7건 수행
 - * 2013년 첫 외투관련 법령 영문화 사업 이후 누적건수 총 81건
 - (절차) 투자거점무역관·IK·옴부즈만 대상 외투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법령영문화 대상 선정(법제처 협업)→법령 번역(법제연구원 협업)→결과물 감수
 - * 주로 노무·환경·세제 등 외국투자가 및 외투기업의 상담수요가 많은 분야의 법령 선정

- (외투 법령정보) 법제처 협업을 통한 외투기업 관심 사례(판례, 해석례 등) 발굴 및 투자홍보팀 협업 IK 홈페이지 및 Express 잡지 내 수록
- 외투기업의 주요 상담분야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하여 매월 2~3건의 투자 관련 법령 정보들을 발굴하여 번역 제공 (연간 총 20건 발굴 목표)

■ 외국인투자종합가이드 시리즈물 발간

- 책자명 : 외국인투자가이드, 분야별 투자실무가이드(5종), 한국생활가이드
- 추진시기 : 연중
- 주요내용

자료명	주요 내용	발간 예정 시기/언어
외국인투자가이드	- 외투정책, 투자요건 및 절차, 인센티브, 경영 활동 등 - 주요 정책, 법률 개정안 등 분기별 업데이트 사항 모니터링 및 데이터 현행화	1분기 / 국영중일
분야별 투자실무가이드 (노사, 환경정책, 조세, 통관, 입지 등 4종)	- 외국인투자 실무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노사, 환경, 조세, 통관, 입지 분야별 국내제도 및 정책, 근거법, 인센티브 등 - 중앙부처·지자체 파견협력관의 전문성과 소속 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신 정책 및 유용한 정보 반영	연중 / 국영
한국생활가이드	-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편리한 앱정보 신규추가 - 외국투자가 및 동반가족들의 국내 생활정착을 위한 필수정보(교통, 의료, 교육 등) 수록	4분기 / 국영중일

* 기존 발간물 업데이트 및 투자가 수요에 따라 신규분야 추가 가능

■ 발간물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외국인투자를 위한 오프라인 발간자료를 동영상/e-Book 형태로 제작하고 배포하여, 실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 (시기) '21년 상반기
- (분야) 외국인투자FAQ, 비자, 법인설립, 생활정착 안내 등
- (동영상) 투자가 공통 관심주제들을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 제작 및 SNS홍보
- (E-book) 키워드 검색·분야별 챕터 추출기능이 강화된 모바일·웹버전 가이드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개편을 통한 기능개선 사업

- (목적) 외국인투자신고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정책 지원 및 데이터 활용 수준 제고
 - (추진시기) '21. 6월~12월
 - (주요 개편 내용)
 - ① 통계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메뉴로 개편
 -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산업부 홈페이지의 통계 정보 메뉴를 개선하여 사용자 접근성 및 가독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편
 - ② 분류체계를 재정의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유의미한 통계 자료 생산
 - 매출액·수출액 등 외투기업의 분류기준을 다양화하여 투자통계 활용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등 업종분류 강화 등
- * 소재부품장비산업법('19.12.31.개정/'20.4.10.시행) : 소재부품에 장비산업 추가

[참고] INSC 정보화추진전략계획(ISP) 추진사업

- * 목적 : INSC 기능개선을 위한 사전컨설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체계 마련
- * 사업기간 : '20.12월~'21.2월 (2개월간)
- * 주요내용
 - 기존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통계 기능 강화 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4.0」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정의 등





[첨부] FDI 통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305

UNCTAD FDI 통계 319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연도별 투자 유치실적

(단위 : 건,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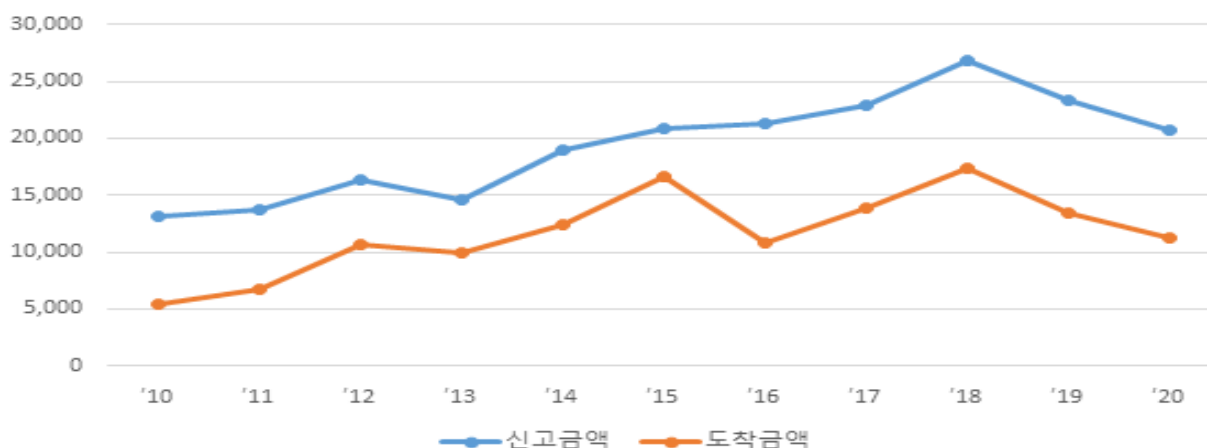
구분	신고기준			도착기준		
	건수	금액	증감 (전년비)	도착 업체수	금액	증감 (전년비)
'62-'69	195	150		210	130	
'70-'79	1,912	1,420	846.7	1,223	1,065	719.2
'80-'89	2,750	5,505	287.7	2,606	3,781	255.0
'90-'99	8,954	42,008	663.1	7,132	27,892	637.7
'00-'09	32,769	111,442	165.3	23,060	75,315	170.0
'10	3,110	13,073	13.8	2,106	5,450	△92.8
'11	2,710	13,673	4.6	1,878	6,656	22.1
'12	2,865	16,286	19.1	1,993	10,719	61.0
'13	2,607	14,545	△10.7	1,847	9,889	△7.7
'14	2,462	19,000	30.6	1,684	12,346	24.8
'15	2,695	20,909	10.0	1,745	16,671	35.0
'16	2,987	21,295	1.8	1,848	10,849	△34.9
'17	2,774	22,948	7.8	1,716	13,805	27.2
'18	2,669	26,901	17.2	1,731	17,320	25.5
'19	2,674	23,328	△13.3	1,735	13,394	△22.7
'20	2,191	20,747	△11.1	1,377	11,293	△15.7
누계	76,324	373,230		53,891	236,575	

* 자료원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 1962년부터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누계'는 1962년부터의 누적치임

* 총 누적 도착업체수는 중복업체를 제외한 것으로, 연도별 합계와 상이할 수 있음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0-20)>

(단위: 백만 달러)



■ 산업별 투자 유치실적

○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건수	금액	비중	부품소재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155	118	78.7	115	69	46.0	30	27	18.0	10	5	3.3
70-79	1,592	951	67.0	1,149	718	50.6	215	388	27.3	105	80	5.6
80-89	2,032	3,057	55.5	1,448	2,184	39.7	632	2,281	41.4	86	167	3.0
90-99	4,077	22,263	53.0	2,872	14,375	34.2	4,638	18,289	43.5	239	1,456	3.5
00-09	6,549	36,552	32.8	5,073	27,304	24.5	25,522	69,041	62.0	698	5,849	5.2
'10	610	6,673	51.0	467	5,285	40.4	2,423	6,000	45.9	77	400	3.1
'11	601	5,596	40.9	477	4,831	35.3	2,044	7,217	52.8	65	860	6.3
'12	553	5,992	36.8	410	3,964	24.3	2,263	9,600	58.9	49	694	4.3
'13	455	4,645	31.9	356	3,273	22.5	2,107	9,847	67.7	45	54	0.4
'14	501	7,575	39.9	384	4,620	24.3	1,905	11,223	59.1	56	203	1.1
'15	548	4,554	21.8	408	3,399	16.3	2,095	14,731	70.5	52	1,623	7.8
'16	538	5,014	23.5	369	3,316	15.6	2,377	15,512	72.8	72	769	3.6
'17	550	7,237	31.5	395	3,844	16.8	2,173	15,369	67.0	51	342	1.5
'18	521	10,049	37.4	350	5,358	19.9	2,069	15,583	57.9	79	1,269	4.7
'19	466	8,219	35.2	311	4,094	17.5	2,139	14,758	63.3	69	351	1.5
'20	400	5,970	28.8	255	3,798	18.3	1,731	14,354	69.2	60	422	2.0
누계	20,148	134,465	36.0	14,839	90,432	24.2	54,363	224,220	60.1	1,813	14,544	3.9

○ 도착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도착 업체수	금액	비중	부품소재			도착 업체수	금액	비중	도착 업체수	금액	비중
				도착 업체수	금액	비중						
62-69	174	92	70.8	109	42	32.3	25	33	25.4	11	5	3.8
70-79	1,039	713	66.9	746	522	49.0	130	331	31.1	54	22	2.1
80-89	2,055	2,313	61.2	1,493	1,670	44.2	499	1,406	37.2	52	63	1.7
90-99	3,232	16,427	58.9	2,394	11,257	40.4	3,780	10,427	37.4	136	1,038	3.7
00-09	4,508	28,912	38.4	3,472	21,334	28.3	18,151	44,676	59.3	418	1,727	2.3
'10	397	2,372	43.5	314	1,787	32.8	1,661	3,003	55.1	49	76	1.4
'11	424	3,002	45.1	340	2,247	33.8	1,418	3,605	54.2	39	48	0.7
'12	427	4,288	40.0	325	2,831	26.4	1,539	6,287	58.7	29	143	1.3
'13	357	4,328	43.8	278	3,082	31.2	1,462	5,523	55.8	29	39	0.4
'14	391	5,004	40.5	299	4,044	32.8	1,272	7,284	59.0	32	58	0.5
'15	383	5,090	30.5	277	2,236	13.4	1,331	10,250	61.5	33	1,332	8.0
'16	348	2,858	26.3	245	1,846	17.0	1,462	7,793	71.8	40	198	1.8
'17	361	5,610	40.6	270	3,102	22.5	1,331	8,024	58.1	30	171	1.2
'18	330	7,015	40.5	229	2,667	15.4	1,351	10,194	58.9	55	110	0.6
'19	321	4,939	36.9	219	1,895	14.1	1,379	7,681	57.3	44	774	5.8
'20	274	2,127	18.8	191	1,765	15.6	1,074	8,824	78.1	33	342	3.0
누계	15,021	95,087	40.2	11,201	62,326	26.3	37,865	135,343	57.2	1,084	6,147	2.6

■ 업종별 투자 유치실적

○ 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전체 결과	14,545	19,000	20,909	21,295	22,948	26,901	23,328	20,747	373,230
농·축·수산·광업	6	15	6	55	21	24	9	40	681
(비중)	(0.04)	(0.08)	(0.03)	(0.26)	(0.10)	(0.09)	(0.04)	(0.19)	(0.18)
제조업	4,645	7,575	4,554	5,014	7,237	10,049	8,219	5,970	134,465
(비중)	(31.9)	(40.0)	(21.8)	(23.5)	(31.5)	(37.4)	(35.2)	(28.8)	(36.0)
식품	133	160	226	166	163	222	553	927	7,417
섬유·직물·의류	50	30	319	72	72	1	10	144	2,117
제지·목재	4	25	2	3	11	0	111	4	2,881
화학	867	3,178	1,760	1,399	2,924	1822	3,944	992	32,161
의약	507	59	123	265	352	24	328	454	4,080
비금속광물	976	2,109	35	178	100	149	43	48	7,648
금속·금속가공제품	57	152	78	214	533	355	24	64	6,340
기계장비·의료정밀	510	971	641	633	511	863	1,162	841	14,091
전기·전자	394	536	1,012	1,019	1,509	1,354	1,089	1,660	33,822
운송용 기계	1,105	319	327	945	903	5,110	872	817	22,246
기타 제조	42	31	32	120	157	148	82	20	1,660
서비스업	9,847	11,223	14,731	15,512	15,369	15,583	14,758	14,354	224,222
(비중)	(67.7)	(59.1)	(70.5)	(72.8)	(67.0)	(57.9)	(63.3)	(69.2)	(60.1)
도·소매(유통)	657	1,058	1,267	1,492	2,040	1,601	3,470	1,199	38,213
숙박·음식점	937	742	655	816	1,569	777	658	153	14,812
운수·창고	85	412	667	349	294	344	456	632	7,698
정보통신	775	1,693	986	2,024	1,326	3,124	2,042	1,683	22,979
금융·보험	3,227	3,585	6,582	6,556	4,293	4,885	2,855	5,838	75,743
부동산	2,530	2,610	2,686	2,362	4,431	3,863	3,981	3,270	38,966
사업지원·임대	61	163	83	142	159	407	119	222	2,378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430	674	615	1,625	981	364	790	926	12,363
여가·스포츠·오락	58	152	1,101	70	201	70	240	241	8,904
공공·기타서비스	88	133	88	77	75	147	148	190	2,167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47	188	1,617	714	321	1,246	341	382	13,863
(비중)	(0.3)	(1.0)	(7.7)	(3.4)	(1.4)	(4.6)	(1.5)	(1.8)	(3.7)
전기·가스	2	137	189	320	144	1001	198	172	6,430
수도·하수·환경정화	1	37	8	123	156	25	14	200	1,688
종합건설	34	10	1,412	218	20	215	126	7	5,411
전문직별 공사	9	3	7	53	0	5	4	3	333

○ 도착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전체 결과	9,889	12,346	16,671	10,849	13,806	17,320	13,394	11,293	236,575
농·축·수산·광업	7	2	7	56	6	9	5	40	686
(비중)	(0.07)	(0.02)	(0.04)	(0.52)	(0.04)	(0.05)	(0.04)	(0.35)	(0.29)
제조업	4,328	5,004	5,090	2,858	5,610	7,015	4,939	2,127	95,088
(비중)	(43.8)	(40.5)	(30.6)	(26.3)	(40.6)	(40.5)	(36.9)	(18.8)	(40.2)
식품	40	88	173	55	138	40	265	17	4,186
섬유·직물·의류	83	117	305	40	90	1	9	43	1,899
제지·목재	3	15	2	2	11	0	1	3	1,530
화학	807	1,305	3,239	965	2,181	1,273	3,125	923	25,041
의약	345	67	93	61	235	17	236	29	2,646
비금속광물	1,026	2,204	3	2	100	88	11	29	6,086
금속·금속가공제품	105	155	85	83	490	109	49	37	4,397
기계장비·의료정밀	263	375	359	429	379	302	351	250	8,852
전기·전자	375	415	580	627	1,219	517	525	391	22,364
운송용 기계	1,252	231	232	551	673	4,598	291	384	17,062
기타 제조	29	31	18	43	94	70	76	22	1,025
서비스업	5,523	7,284	10,250	7,793	8,025	10,194	7,681	8,824	135,340
(비중)	(55.9)	(59.0)	(61.5)	(71.8)	(58.1)	(58.9)	(57.4)	(78.1)	(57.2)
도·소매(유통)	698	900	1,033	1,095	1,092	1,307	2,098	567	23,632
숙박·음식점	350	595	585	485	833	359	402	53	6,213
운수·창고	45	161	471	308	174	146	60	212	4,786
정보통신	596	1,480	919	1,681	899	2,854	1,540	1,253	19,450
금융·보험	2,284	2,841	5,652	2,748	3,234	3,407	2,129	4,831	59,757
부동산	397	512	614	1,029	1,015	1,266	980	1,104	10,874
사업지원·임대	61	160	73	86	74	393	59	97	1,87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032	581	608	250	668	209	308	488	6,776
여가·스포츠·오락	22	35	216	53	16	239	37	58	994
공공·기타서비스	37	21	79	58	20	13	67	160	986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32	56	1,325	142	165	101	769	302	5,460
(비중)	(0.3)	(0.5)	(8.0)	(1.3)	(1.2)	(0.6)	(5.7)	(2.7)	(2.3)
전기·가스	20	40	39	25	9	83	748	75	2,324
수도·하수·환경정화	1	3	1	66	149	3	3	201	651
종합건설	2	9	1,279	17	6	10	15	24	2,319
전문직별 공사	8	3	6	34	0	5	3	3	167

■ 지역별 투자 유치실적

○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미국			EU			일본			전통투자국의 합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96	63	42.0	9	17	11.3	72	51	34.0	177	131	87.3
70-79	252	298	21.0	77	86	6.1	1,538	895	63.0	1,867	1,279	90.1
80-89	745	1,565	28.4	363	694	12.6	1,447	2,621	47.6	2,555	4,880	88.6
90-99	2,494	13,084	31.1	1,706	14,686	35.0	2,501	4,552	10.8	6,701	32,322	76.9
00-09	5,271	26,782	24.0	3,773	41,006	36.8	5,243	15,779	14.2	14,287	83,567	75.0
'10	383	1,975	15.1	398	3,196	24.4	423	2,084	15.9	1,204	7,255	55.5
'11	306	2,372	17.3	375	5,192	38.0	502	2,289	16.7	1,183	9,853	72.1
'12	316	3,674	22.6	327	2,731	16.8	564	4,542	27.9	1,207	10,947	67.2
'13	266	3,525	24.2	337	4,799	33.0	447	2,690	18.5	1,050	11,014	75.7
'14	306	3,606	19.0	318	6,504	34.2	352	2,488	13.1	976	12,598	66.3
'15	389	5,479	26.2	348	2,495	11.9	313	1,663	8.0	1,050	9,637	46.1
'16	375	3,873	18.2	369	7,396	34.7	299	1,245	5.8	1,043	12,514	58.8
'17	409	4,710	20.5	387	7,030	30.6	328	1,842	8.0	1,124	13,582	59.2
'18	368	5,879	21.9	321	8,921	33.2	335	1,301	4.8	1,024	16,101	59.9
'19	404	6,849	29.4	348	7,131	30.6	238	1,430	6.1	990	15,410	66.1
'20	368	5,301	25.6	336	4,719	22.7	176	727	3.5	880	10,747	51.8
누계	12,748	89,035	23.9	9,792	116,602	31.2	14,778	46,199	12.4	37,318	251,836	43.6

구분	중화			중동			기타			신흥투자국의 합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10	5	3.3	1	-	-	7	14	9.3	18	19	12.7
70-79	38	28	2.0	6	28	2.0	1	85	6.0	45	141	9.9
80-89	126	243	4.4	14	9	0.2	55	373	6.8	195	625	11.4
90-99	1,415	6,686	15.9	47	63	0.1	791	2,937	7.0	2,253	9,686	23.1
00-09	8,262	13,622	12.2	674	742	0.7	9,546	13,511	12.1	18,482	27,875	25.0
'10	872	1,594	12.2	102	171	1.3	932	4,053	31.0	1,906	5,818	44.5
'11	701	1,939	14.2	73	92	0.7	753	1,789	13.1	1,527	3,820	27.9
'12	759	3,988	24.5	83	52	0.3	816	1,299	8.0	1,658	5,339	32.8
'13	672	1,998	13.7	102	78	0.5	783	1,455	10.0	1,557	3,531	24.3
'14	933	4,054	21.3	65	225	1.2	488	2,123	11.2	1,486	6,402	33.7
'15	1,139	6,308	30.2	67	1,381	6.6	439	3,583	17.1	1,645	11,272	53.9
'16	1,281	6,730	31.6	74	397	1.9	589	1,654	7.8	1,944	8,781	41.2
'17	1,021	4,617	20.1	70	1,066	4.6	559	3,683	16.0	1,650	9,366	40.8
'18	1,026	5,977	22.2	69	594	2.2	550	4,229	15.7	1,645	10,800	40.1
'19	1,045	4,307	18.5	56	756	3.2	583	2,855	12.2	1,684	7,918	37.3
'20	825	5,459	26.3	67	547	2.6	412	3,994	19.3	1,304	10,000	48.2
누계	20,125	67,556	18.1	1,570	6,203	16.6	17,304	47,635	12.8	38,999	121,394	32.5

○ 도착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미국			EU			일본			전통투자국의 합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61	49	37.7	9	18	13.8	114	40	30.8	184	107	71.3
70-79	124	185	17.4	38	69	6.5	746	693	65.1	908	947	66.7
80-89	430	1,178	31.2	212	392	10.4	859	1,782	47.1	1,501	3,352	60.9
90-99	1,424	6,041	21.7	933	12,453	44.6	1,534	3,396	12.2	3,891	21,890	52.1
00-09	2,645	12,838	17.0	1,840	34,780	46.2	3,031	10,668	14.2	7,516	58,286	52.3
'10	244	329	6.0	267	2,779	51.0	320	1,434	26.3	831	4,542	34.7
'11	207	432	6.5	271	2,702	40.6	397	1,468	22.1	875	4,602	33.7
'12	214	1,230	11.5	246	3,072	28.7	466	3,847	35.9	926	8,149	50.0
'13	182	1,603	16.2	268	3,555	35.9	363	2,889	29.2	813	8,047	55.3
'14	208	1,807	14.6	262	4,611	37.3	266	2,269	18.4	736	8,687	45.7
'15	227	2,363	14.2	269	4,549	27.3	228	1,226	7.4	724	8,138	38.9
'16	200	1,517	14.0	260	3,856	35.5	232	813	7.5	692	6,186	29.0
'17	210	1,248	9.0	272	6,711	48.6	246	1,278	9.3	728	9,237	40.3
'18	243	3,833	22.1	233	5,478	31.6	233	1,035	6.0	709	10,346	38.5
'19	260	1,402	10.5	233	7,150	53.4	185	1,190	8.9	678	9,742	41.8
'20	254	1,030	9.1	213	3,915	34.7	126	518	4.6	593	5,463	26.3
누계	5,878	37,085	15.7	4,215	96,090	40.6	7,230	34,548	14.6	17,323	167,723	44.9

구분	중화			중동			기타			신흥투자국의 합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9	3	2.3	-	-	-	17	20	15.4	26	23	17.7
70-79	16	22	2.1	3	28	2.6	296	68	6.4	315	118	11.1
80-89	59	142	3.8	9	15	0.4	1037	272	7.2	1,105	429	11.3
90-99	864	4,184	15.0	25	33	0.1	2352	1,785	6.4	3,241	6,002	21.5
00-09	5,395	8,781	11.7	408	260	0.3	9,741	7,988	10.6	15,544	17,029	22.6
'10	588	601	11.0	72	20	0.4	615	287	5.3	1,275	908	16.7
'11	454	842	12.7	47	21	0.3	502	1,191	17.9	1,003	2,054	30.9
'12	449	1,637	15.3	61	40	0.4	557	893	8.3	1,067	2,570	24.0
'13	432	881	8.9	67	36	0.4	535	925	9.4	1,034	1,842	18.6
'14	573	2,474	20.20	48	90	0.7	327	1,095	8.9	948	3,659	29.6
'15	728	5,173	31.0	49	1,322	7.9	244	2,038	12.2	1,021	8,533	51.2
'16	771	3,687	34.0	54	151	1.4	331	825	7.6	1,156	4,663	43.0
'17	634	2,811	20.4	48	20	0.1	306	1,737	12.6	988	4,568	33.1
'18	636	3,189	18.4	45	22	0.1	341	3,763	21.7	1,022	6,974	40.3
'19	668	2,186	16.3	38	16	0.1	351	1,450	10.8	1,057	3,652	27.3
'20	484	2,968	26.3	52	567	5.0	248	2,295	20.3	784	5,830	51.6
누계	11,231	39,581	16.7	904	2,641	1.1	24,433	26,630	11.3	36,568	68,852	29.1

■ 국가별 투자 유치실적

○ 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전체결과	14,545	19,000	20,909	21,295	22,948	26,901	23,328	20,747	377,970
미주지역	4,552	5,014	8,446	5,257	6,303	7,834	8,582	8,757	118,326
(비중)	(31.3)	(26.4)	(40.4)	(24.7)	(27.5)	(29.1)	(36.8)	(42.2)	(31.3)
미국	3,525	3,606	5,479	3,873	4,710	5,879	6,849	5,301	89,035
캐나다	388	572	1,268	326	389	411	635	1,847	11,384
버뮤다	4	338	136	361	727	14	51	28	3,460
케이만군도	450	220	282	415	264	737	731	1,549	8,843
버진아일랜드	100	264	1,277	259	197	169	313	20	4,307
기타	84	14	3	23	17	624	3	12	1,300
아주지역	5,008	6,788	8,355	8,144	8,238	9,355	6,624	6,504	126,435
(비중)	(34.4)	(35.7)	(40.0)	(38.2)	(35.9)	(34.8)	(28.4)	(31.3)	(33.5)
일본	2,690	2,488	1,663	1,245	1,842	1,301	1,430	727	46,199
중화	1,998	4,054	6,308	6,730	4,617	5,977	4,307	5,459	67,556
싱가포르	431	1,673	2,521	2,347	1,793	1,475	1,307	2,281	22,516
홍콩	976	1,061	1,516	2,118	1,792	1,503	1,912	1,117	18,343
말레이시아	55	28	90	90	189	22	97	38	8,035
중국	481	1,189	1,977	2,049	809	2,743	975	1,991	16,677
대만	55	103	204	125	34	234	16	32	1,986
기타	321	246	384	169	1,779	2,077	887	317	12,680
EU	4,799	6,504	2,495	7,396	7,030	8,921	7,131	4,719	116,602
(비중)	(33.0)	(34.2)	(11.9)	(34.7)	(30.6)	(33.2)	(30.6)	(22.7)	(30.8)
독일	360	230	536	312	703	466	399	517	14,643
영국	113	432	259	360	2,218	1,172	2,088	727	19,353
프랑스	530	208	103	194	280	687	147	201	8,772
벨기에	1	79	67	92	58	178	70	1	3,982
네덜란드	618	2,380	476	1,547	1,715	1,364	1,666	588	32,033
아일랜드	78	448	19	297	341	312	239	6	4,661
기타	3,098	2,727	1,035	4,594	1,715	4,742	2,523	2,678	33,159
기타 지역	186	694	1,613	499	1,377	791	992	767	11,867
(비중)	(1.3)	(3.7)	(7.7)	(2.3)	(6.0)	(2.9)	(4.3)	(3.7)	(3.1)

○ 도착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전체결과	9,889	12,346	16,671	10,849	13,806	17,320	13,394	11,293	236,575
미주지역 (비중)	2,308 (23.3)	2,594 (21.0)	4,075 (24.4)	2,185 (20.1)	2,693 (19.5)	5,457 (31.5)	2,535 (18.9)	3,183 (28.2)	55,438 (23.4)
미국	1,603	1,807	2,363	1,517	1,248	3,833	1,402	1,030	37,085
캐나다	307	29	902	76	284	257	115	1,065	4,904
버뮤다	4	377	120	1	748	182	37	38	3,245
케이만군도	217	202	382	339	219	481	689	1,019	6,386
버진아일랜드	95	165	307	230	178	145	290	22	2,703
기타	81	12	0	22	15	559	2	8	1,115
아주지역 (비중)	3,910 (39.5)	4,895 (39.6)	6,575 (39.4)	4,566 (42.1)	4,164 (30.2)	6,249 (36.1)	3,510 (26.2)	3,522 (31.2)	78,647 (33.2)
일본	2,889	2,269	1,226	813	1,278	1,035	1,190	518	34,548
중화	881	2,474	5,173	3,687	2,811	3,189	2,186	2,968	39,581
싱가포르	454	1,647	2,334	2,113	1,149	1,065	1,131	1,833	16,933
홍콩	131	410	855	938	1,282	1,083	800	842	8,307
말레이시아	55	47	9	19	147	21	55	35	6,717
중국	229	315	1,774	479	202	791	188	227	6,502
대만	12	55	202	138	31	228	12	31	1,124
기타	140	152	176	66	74	2,025	134	36	4,518
EU (비중)	3,555 (35.9)	4,611 (37.3)	4,549 (27.3)	3,856 (35.5)	6,711 (48.6)	5,478 (31.6)	7,150 (53.4)	3,915 (34.7)	96,090 (40.6)
독일	249	291	296	205	411	103	452	328	11,168
영국	99	369	288	207	1,939	285	1,996	442	15,641
프랑스	300	229	119	136	279	639	92	124	7,305
벨기에	25	3	32	5	65	14	11	1	3,122
네덜란드	768	557	2,298	1,083	1,462	294	2,323	532	28,522
아일랜드	77	444	19	293	242	310	174	20	4,341
기타	2,039	2,718	1,497	1,927	2,314	3,834	2,101	2,467	25,990
기타 지역 (비중)	115 (1.2)	245 (2.0)	1,472 (8.8)	242 (2.2)	238 (1.7)	135 (0.8)	199 (1.5)	674 (6.0)	6,400 (2.7)

■ 투자유입액 순위

○ 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1	미국 (3,525)	미국 (3,606)	미국 (5,479)	몰타 (4,059)	미국 (4,710)	미국 (5,879)	미국 (6,849)	미국 (5,301)	미국 (89,035)
2	일본 (2,690)	일본 (2,488)	싱가포르 (2,521)	미국 (3,873)	영국 (2,218)	중국 (2,743)	영국 (2,088)	싱가포르 (2,281)	일본 (46,199)
3	몰타 (1,785)	네덜란드 (2,380)	중국 (1,977)	싱가포르 (2,347)	일본 (1,842)	몰타 (2,564)	홍콩 (1,912)	몰타 (2,014)	네덜란드 (32,032)
4	홍콩 (976)	룩셈부르크 (1,920)	일본 (1,663)	홍콩 (2,118)	싱가포르 (1,793)	호주 (2,007)	네덜란드 (1,666)	중국 (1,991)	싱가포르 (22,516)
5	룩셈부르크 (712)	싱가포르 (1,673)	홍콩 (1,516)	중국 (2,049)	홍콩 (1,792)	홍콩 (1,503)	몰타 (1,495)	캐나다 (1,847)	영국 (19,353)
6	네덜란드 (618)	중국 (1,189)	버진 아일랜드 (1,277)	네덜란드 (1,547)	네덜란드 (1,715)	싱가포르 (1,475)	일본 (1,430)	케이만군도 (1,549)	홍콩 (18,343)
7	프랑스 (530)	홍콩 (1,061)	캐나다 (1,268)	일본 (1,246)	몰타 (1,051)	스페인 (1,420)	싱가포르 (1,307)	홍콩 (1,117)	몰타 (17,993)
8	중국 (481)	캐나다 (572)	사우디 (1,127)	케이만군도 (415)	인도네시아 (1,051)	네덜란드 (1,364)	중국 (975)	일본 (727)	중국 (16,677)
9	케이만군도 (450)	아일랜드 (448)	몰타 (746)	버뮤다 (361)	아랍 에미리트 (1,014)	일본 (1,301)	케이만군도 (731)	영국 (727)	독일 (14,643)
10	싱가포르 (431)	영국 (432)	독일 (536)	영국 (360)	중국 (809)	영국 (1,172)	캐나다 (635)	네덜란드 (588)	캐나다 (11,384)

○ 도착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1	일본 (2,889)	일본 (2,269)	미국 (2,363)	싱가포르 (2,113)	몰타 (1,963)	미국 (3,833)	네덜란드 (2,323)	몰타 (2,077)	미국 (37,085)
2	미국 (1,603)	룩셈부르크 (1,922)	싱가포르 (2,334)	몰타 (1,541)	영국 (1,939)	몰타 (2,230)	영국 (1,996)	싱가포르 (1,833)	일본 (34,548)
3	몰타 (1,100)	미국 (1,807)	네덜란드 (2,298)	미국 (1,517)	네덜란드 (1,462)	호주 (2,004)	몰타 (1,541)	캐나다 (1,065)	네덜란드 (28,522)
4	네덜란드 (768)	싱가포르 (1,647)	중국 (1,774)	네덜란드 (1,083)	홍콩 (1,282)	스페인 (1,389)	미국 (1,402)	케이만군도 (1,019)	싱가포르 (16,933)
5	룩셈부르크 (722)	네덜란드 (557)	일본 (1,226)	홍콩 (938)	일본 (1,278)	홍콩 (1,083)	싱가포르 (1,131)	미국 (1,030)	영국 (15,641)
6	싱가포르 (454)	몰타 (460)	몰타 (1,221)	일본 (813)	미국 (1,248)	싱가포르 (1,065)	일본 (1,190)	홍콩 (842)	몰타 (14,509)
7	캐나다 (307)	아일랜드 (444)	사우디 (1,136)	중국 (479)	싱가포르 (1,149)	일본 (1,035)	홍콩 (800)	네덜란드 (532)	독일 (11,168)
8	프랑스 (300)	홍콩 (410)	캐나다 (902)	케이만군도 (339)	버뮤다 (748)	중국 (791)	케이만군도 (689)	일본 (518)	홍콩 (8,307)
9	독일 (249)	버뮤다 (377)	홍콩 (855)	아일랜드 (293)	독일 (411)	프랑스 (639)	독일 (452)	쿠웨이트 (465)	프랑스 (7,305)
10	중국 (229)	영국 (369)	케이만군도 (382)	버진 아일랜드 (230)	캐나다 (284)	바베이도스 (546)	헝가리 (312)	영국 (442)	말레이시아 (6,717)

■ 투자방식별 실적

○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M&A형			Greenfield형								
				공장설립형			사업장설립형			소 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	-	0.0	47	35	23.3	148	115	76.7	195	150	100.0
70-79	-	-	0.0	692	261	18.4	1,220	1,159	81.6	1,912	1,420	100.0
80-89	-	-	0.0	872	1,548	28.1	1,878	3,957	71.9	2,750	5,505	100.0
90-99	623	10,949	26.1	1,282	6,597	15.7	7,049	24,461	58.2	8,331	31,059	73.9
00-09	3,215	36,580	32.8	2,311	15,423	13.8	27,246	59,439	53.3	29,554	74,862	67.2
'10	249	2,015	15.4	296	5,066	38.8	2,565	5,992	45.8	2,861	11,058	84.6
'11	245	1,971	14.4	191	4,177	30.5	2,276	7,525	55.0	2,466	11,702	85.6
'12	247	3,749	23.0	169	3,612	22.2	2,449	8,925	54.8	2,618	12,537	77.0
'13	241	4,979	34.2	132	1,558	10.7	2,235	8,008	55.1	2,366	9,567	65.8
'14	266	7,981	42.0	155	1,873	9.9	2,041	9,146	48.1	2,196	11,019	58.0
'15	307	6,804	32.5	154	1,675	8.0	2,234	12,429	59.4	2,388	14,104	67.5
'16	312	6,274	29.5	152	2,281	10.7	2,525	12,740	59.8	2,675	15,021	70.5
'17	323	7,244	31.6	143	1,561	6.8	2,309	14,143	61.6	2,452	15,704	68.4
'18	281	6,891	25.6	144	6,275	23.3	2,244	13,735	51.1	2,388	20,009	74.4
'19	277	7,417	31.8	105	3,321	14.2	2,292	12,590	54.0	2,397	15,911	68.2
'20	297	6,232	30.0	141	2,778	13.4	1,753	11,736	56.6	1,887	14,514	70.0
누계	6,883	109,086	29.2	6,986	58,041	15.6	62,464	206,100	55.2	69,436	264,142	70.8

○ 도착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M&A형			Greenfield형								
				공장설립형			사업장설립형			소 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	-	-	-	-	-	210	130	100.0	210	130	100.0
70-79	-	-	-	-	-	-	1,223	1,065	100.0	1,223	1,065	100.0
80-89	-	-	-	7	7	0.2	2,600	3,774	99.8	2,607	3,781	100.0
90-99	145	1,293	4.6	178	652	2.3	6,912	25,948	93.0	7,132	26,600	95.3
00-09	2,064	30,643	40.7	1,348	9,004	12.0	20,444	35,668	47.4	23,060	44,672	59.4
'10	190	1,901	34.9	192	846	15.5	1,777	2,703	49.6	2,106	3,549	65.1
'11	187	1,503	22.6	148	1,713	25.7	1,600	3,440	51.7	1,878	5,153	77.4
'12	203	3,479	32.5	141	2,157	20.1	1,717	5,082	47.4	1,993	7,239	67.5
'13	188	4,131	41.8	120	1,283	13.0	1,593	4,475	45.3	1,847	5,758	58.3
'14	225	5,515	44.7	128	975	7.9	1,412	5,856	47.4	1,684	6,831	55.3
'15	246	8,862	53.2	116	1,063	6.4	1,463	6,746	40.5	1,745	7,809	46.9
'16	247	3,381	31.2	89	844	7.8	1,588	6,623	61.1	1,848	7,467	68.8
'17	270	6,801	49.3	97	753	5.5	1,422	6,251	45.3	1,716	7,004	50.8
'18	237	5,227	30.2	78	4,180	24.1	1,494	7,912	45.7	1,731	12,092	69.8
'19	235	6,800	50.8	76	754	5.6	1,499	5,840	43.6	1,735	6,594	49.2
'20	224	5,271	46.7	82	645	5.7	1,145	5,377	47.6	1,377	6,022	53.3
누계	3,650	84,810	35.8	2,153	24,877	10.5	36,215	126,889	53.6	52,514	151,766	64.1

* 연도별 도착 업체 수는 중복 업체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누계의 도착 건수와 상이함.

■ 투자규모별 실적

○ 신고기준

(단위 : 달러, %)

구분	1백만 미만		1백만~1천만		1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62-69	36	24.0	103	68.7	11	7.3	-	-	150
70-79	379	26.7	603	42.5	438	30.8	-	-	1,420
80-89	631	11.5	2,295	41.7	2,279	41.4	301	5.5	5,505
90-99	1,524	3.6	5,954	14.2	13,820	32.9	20,710	49.3	42,008
00-09	3,695	3.3	13,238	11.9	34,599	31.0	59,910	53.8	111,442
'10	341	2.6	1,141	8.7	4,141	31.7	7,451	57.0	13,073
'11	417	3.0	1,689	12.4	5,349	39.1	6,218	45.5	13,673
'12	427	2.6	1,297	8.0	6,295	38.7	8,268	50.8	16,286
'13	406	2.8	1,411	9.7	5,396	37.1	7,332	50.4	14,545
'14	401	2.1	1,785	9.4	7,003	36.9	9,812	51.6	19,000
'15	414	2.0	1,648	7.9	6,905	33.0	11,942	57.1	20,909
'16	451	2.1	1,878	8.8	7,105	33.4	11,861	55.7	21,295
'17	386	1.7	1,974	8.6	7,555	32.9	13,033	56.8	22,948
'18	384	1.4	1,725	6.4	7,376	27.4	17,415	64.7	26,901
'19	394	1.7	1,479	6.3	7,746	33.2	13,710	58.8	23,328
'20	327	1.6	1,357	6.5	7,424	35.8	11,639	56.1	20,747
누계	10,612	2.8	39,577	10.6	123,441	33.1	199,600	53.5	373,230

○ 도착기준

(단위 : 달러, %)

구분	1백만 미만		1백만~1천만		1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62-69	37	28.5	82	63.1	11	8.5	-	-	130
70-79	261	24.5	441	41.4	363	34.1	-	-	1,065
80-89	910	24.1	1,854	49.0	1,018	26.9	-	-	3,781
90-99	1,659	5.9	5,745	20.6	10,894	39.1	9,594	34.4	27,892
00-09	3,413	4.5	13,303	17.7	28,173	37.4	30,426	40.4	75,315
'10	322	5.9	1,148	21.1	2,652	48.7	1,328	24.4	5,450
'11	411	6.2	1,613	24.2	3,146	47.3	1,486	22.3	6,656
'12	393	3.7	1,537	14.3	5,229	48.8	3,560	33.2	10,719
'13	377	3.8	1,525	15.4	5,369	54.3	2,618	26.5	9,889
'14	392	3.2	1,654	13.4	5,294	42.9	5,005	40.5	12,346
'15	407	2.4	1,636	9.8	4,862	29.2	9,767	58.6	16,671
'16	409	3.8	1,568	14.5	4,925	45.4	3,946	36.4	10,849
'17	360	2.6	1,606	11.6	5,364	38.9	6,475	46.9	13,805
'18	374	2.2	1,668	9.6	4,979	28.7	10,299	59.5	17,320
'19	394	2.9	1,444	10.8	4,431	33.1	7,124	53.2	13,394
'20	294	2.6	1,397	12.4	4,348	38.5	5,254	46.5	11,293
누계	10,415	4.4	38,221	16.2	91,057	38.5	96,882	41.0	236,575

■ 투자형태별 실적

○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166	143	95.3	29	7	4.7	-	-	-
70-79	1,234	891	62.7	678	529	37.3	-	-	-
80-89	1,690	2,335	42.4	1,060	3,170	57.6	-	-	-
90-99	5,556	22,230	52.9	3,293	17,988	42.8	105	1,790	4.3
00-09	22,059	47,721	42.8	10,298	58,516	52.5	412	5,205	4.7
'10	2,160	5,418	41.4	890	6,868	52.5	60	787	6.0
'11	1,731	6,125	44.8	913	6,939	50.7	66	609	4.5
'12	1,909	6,962	42.7	898	7,411	45.5	58	1,913	11.7
'13	1,636	6,609	45.4	855	6,530	44.9	116	1,407	9.7
'14	1,450	6,287	33.1	867	9,661	50.8	145	3,052	16.1
'15	1,605	10,679	51.1	922	8,688	41.6	168	1,541	7.4
'16	1,740	8,012	37.6	1,054	11,671	54.8	193	1,613	7.6
'17	1,706	12,526	54.6	876	8,318	36.2	192	2,104	9.2
'18	1,615	12,134	45.1	871	13,900	51.7	183	867	3.2
'19	1,585	12,937	55.5	884	9,518	40.8	205	873	3.7
'20	1,260	9,802	47.2	778	9,259	44.6	154	1,686	8.1
누계	49,102	170,811	45.8	25,166	178,973	48.0	2,057	23,447	6.3

○ 도착기준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62-69	1	0	0.0	209	130	100.0	0	0	0.0
70-79	0	0	0.0	1,223	1,065	100.0	0	0	0.0
80-89	5	4	0.1	2,602	3,778	99.9	0	0	0.0
90-99	1,299	2,391	8.6	5,956	25,491	91.4	3	10	0.0
00-09	16,924	23,312	31.0	7,748	48,517	64.5	217	3,361	4.5
'10	1,601	1,210	22.6	598	3,420	63.9	41	720	13.5
'11	1,326	1,679	25.3	643	4,435	66.8	42	521	7.9
'12	1,411	2,204	20.9	688	6,884	65.2	47	1,467	13.9
'13	1,313	2,942	30.0	615	5,028	51.3	64	1,826	18.6
'14	1,133	3,028	24.7	614	6,333	51.6	77	2,922	23.8
'15	1,188	6,712	40.3	640	8,569	51.5	76	1,371	8.2
'16	1,250	2,688	24.8	679	6,907	63.7	90	1,253	11.6
'17	1,147	5,599	40.6	619	6,265	45.4	106	1,941	14.1
'18	1,194	4,474	25.8	605	11,847	68.4	104	999	5.8
'19	1,198	5,202	38.8	586	7,532	56.2	111	659	4.9
'20	912	2,961	26.2	510	6,720	59.5	75	1,612	14.3
누계	31,902	64,406	27.3	24,535	152,921	64.8	1,053	18,662	7.9

* 투자형태별 실적은 신고와 도착의 매칭이 2005년부터 시스템에 반영되었음. 도착 통계는 1962-2004년 및 누계 실적 집계 불가함

■ 지자체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6		'17		'18		'19		'20		누계	
	신고	도착	신고	도착	신고	도착	신고	도착	신고	도착	신고	도착
전체	21,295	10,849	22,948	13,805	26,901	17,320	23,328	13,394	20,747	11,293	373,230	236,576
수도권	14,168	8,282	13,350	9,982	16,858	14,428	13,328	10,235	13,680	9,426	240,471	172,912
서울시	10,484	6,329	6,882	6,668	8,826	7,729	10,076	8,003	10,193	7,459	144,049	126,589
인천시	2,337	857	1,848	980	5,039	4,855	894	213	971	254	28,269	17,126
경기도	1,347	1,096	4,620	2,334	2,992	1,844	2,359	2,020	2,516	1,713	48,153	29,197
비수도권	4,758	2,565	6,212	3,821	5,871	2,890	3,985	3,133	2,261	1,863	109,619	62,985
부산시	615	431	367	241	331	178	298	33	301	324	7,489	5,155
대구시	14	45	113	99	860	773	52	57	99	19	3,152	2,389
광주시	14	13	8	8	9	6	6	6	68	4	1,271	1,010
대전시	28	25	12	9	8	8	33	7	102	24	3,804	2,603
울산시	273	165	417	456	1,568	622	806	355	176	493	11,378	8,534
세종시	4	4	5	5	68	14	0	0	1	1	737	411
강원도	333	200	1,393	225	1,066	256	61	66	4	27	7,472	1,735
충북도	532	136	353	352	122	114	90	238	85	57	7,374	5,510
충남도	684	162	1,130	794	742	249	1,653	1,753	305	254	16,042	11,299
전북도	748	81	158	89	173	19	112	34	32	3	5,247	2,041
전남도	81	59	204	115	140	110	59	60	156	98	6,705	3,173
경북도	293	224	474	448	119	139	26	117	108	74	16,730	9,646
경남도	139	114	488	80	387	44	373	94	460	89	8,386	4,728
제주도	1,001	907	1,089	900	278	357	417	314	363	396	13,832	4,753
미정	2,369	2	3,386	2	4,172	2	6,015	26	4,806	4	43,141	678

2 UNCTAD FDI 통계

■ FDI Flow

(단위 : 백만달러, %)

FDI Flow		금액(비중)						
		'13	'14	'15	'16	'17	'18	'19
한국	Inward	12,767 (0.89)	9,274 (0.68)	4,104 (0.20)	12,104 (0.63)	17,913 (1.20)	12,183 (0.82)	10,566 (0.67)
	Outward	28,318 (2.06)	27,999 (2.16)	23,687 (1.41)	29,890 (1.93)	34,069 (2.39)	38,220 (3.84)	35,531 (2.70)
선진국	Inward	694,848 (48.55)	669,561 (45.91)	1,274,405 (62.38)	1,265,245 (62.42)	950,150 (50.71)	761,391 (42.93)	800,239 (51.97)
	Outward	892,147 (64.81)	848,356 (60.02)	1,275,585 (73.90)	1,103,818 (71.29)	1,095,155 (64.92)	534,028 (55.06)	916,879 (69.79)
개도국	Inward	652,551 (45.60)	677,400 (49.91)	729,889 (35.84)	651,979 (34.21)	700,636 (46.12)	699,306 (54.43)	684,723 (44.47)
	Outward	408,699 (29.69)	446,188 (34.41)	400,401 (24.19)	414,234 (27.09)	467,357 (32.39)	414,747 (41.17)	373,102 (28.40)
세계	Inward	1,431,164	1,403,865	2,041,770	1,983,478	1,700,468	1,495,223	1,539,830
	Outward	1,376,642	1,366,900	1,708,088	1,543,239	1,600,984	986,351	1,313,770

■ FDI Stock

(단위 : 백만달러, %)

FDI Stock		금액(비중)						
		'13	'14	'15	'16	'17	'18	'19
한국	Inward	180,860 (0.73)	179,441 (0.69)	179,544 (0.68)	188,877 (0.67)	229,399 (0.70)	237,238 (0.72)	238,553 (0.65)
	Outward	238,812 (0.96)	260,502 (1.00)	285,932 (1.09)	310,218 (1.12)	360,566 (1.11)	405,219 (1.29)	440,147 (1.27)
선진국	Inward	16,081,249 (65.18)	16,958,476 (65.43)	17,172,899 (65.26)	18,405,228 (65.17)	21,496,490 (65.89)	20,789,577 (64.42)	24,285,679 (66.60)
	Outward	19,990,881 (80.51)	20,546,751 (79.04)	20,419,807 (77.76)	21,225,403 (76.85)	24,716,345 (76.32)	23,049,237 (74.41)	26,223,359 (75.85)
개도국	Inward	7,780,422 (31.54)	8,335,269 (32.16)	8,541,117 (32.46)	9,087,389 (32.18)	10,303,717 (31.58)	10,678,872 (33.09)	11,311,557 (31.02)
	Outward	4,408,397 (17.75)	5,065,350 (19.49)	5,500,006 (20.94)	6,002,697 (21.73)	7,227,297 (22.32)	7,523,731 (24.29)	7,899,906 (22.85)
세계	Inward	24,670,591	25,917,817	26,312,743	28,243,023	32,623,558	32,272,043	36,470,162
	Outward	24,831,614	25,994,355	26,259,583	27,620,616	32,383,049	30,974,931	34,571,124

■ 국가간 M&A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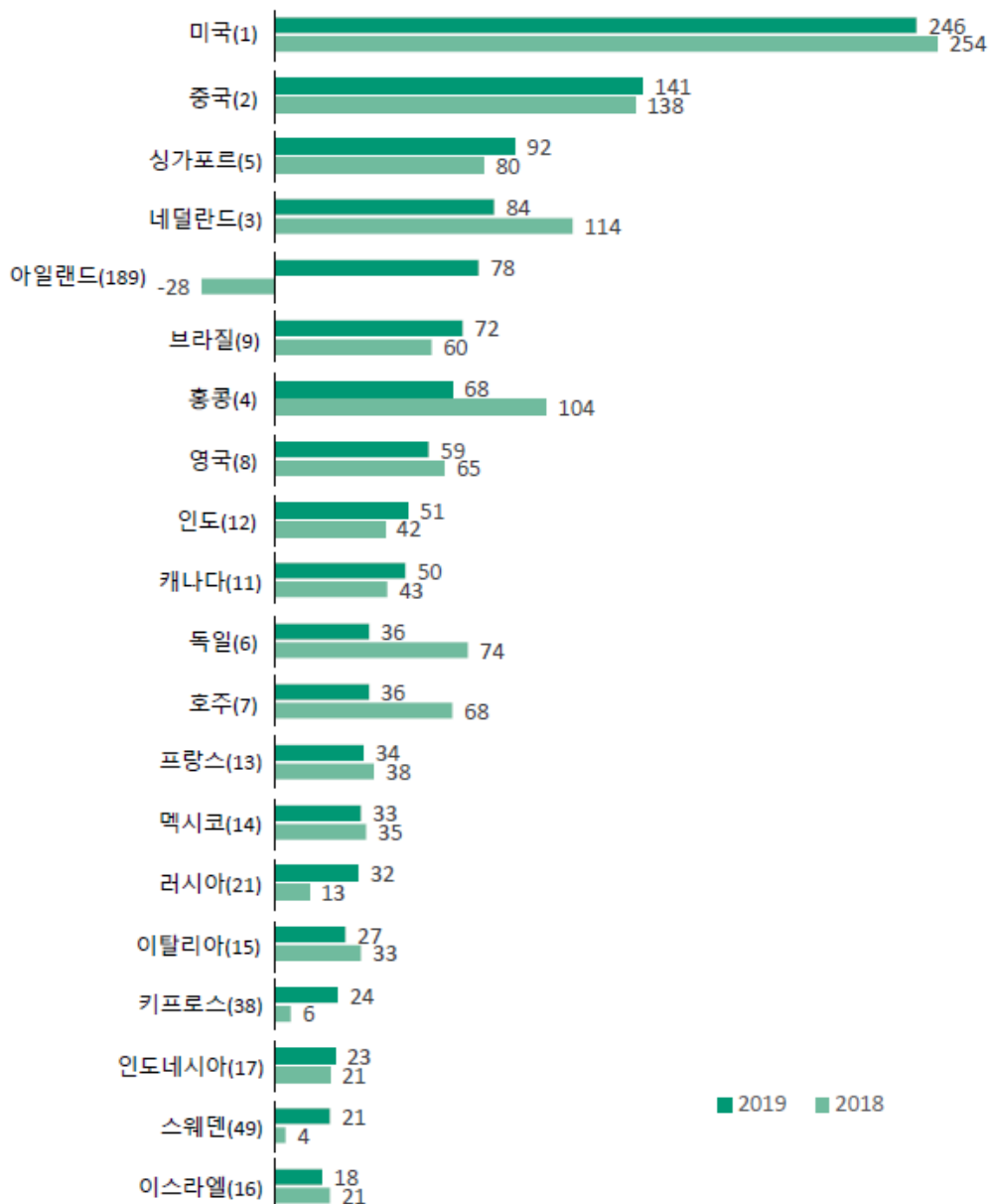
구분	매각(Net sales)(비중)							인수(Net purchases)(비중)						
	'13	'14	'15	'16	'17	'18	'19	'13	'14	'15	'16	'17	'18	'19
한국	-652 (-0.25)	6,013 (1.40)	-3,770 (-0.51)	-333 (-0.04)	6,824 (0.98)	117 (0.01)	3,523 (0.71)	4,027 (1.53)	3,503 (0.82)	909 (0.12)	4,596 (0.52)	12,646 (1.82)	4,443 (0.54)	7,726 (1.57)
세계	262,517	428,126	735,126	886,901	693,962	815,726	490,778	262,517	428,126	735,126	886,901	693,962	815,726	490,778

■ 세계 FDI 유출입 상위 20개국

○ Inward FDI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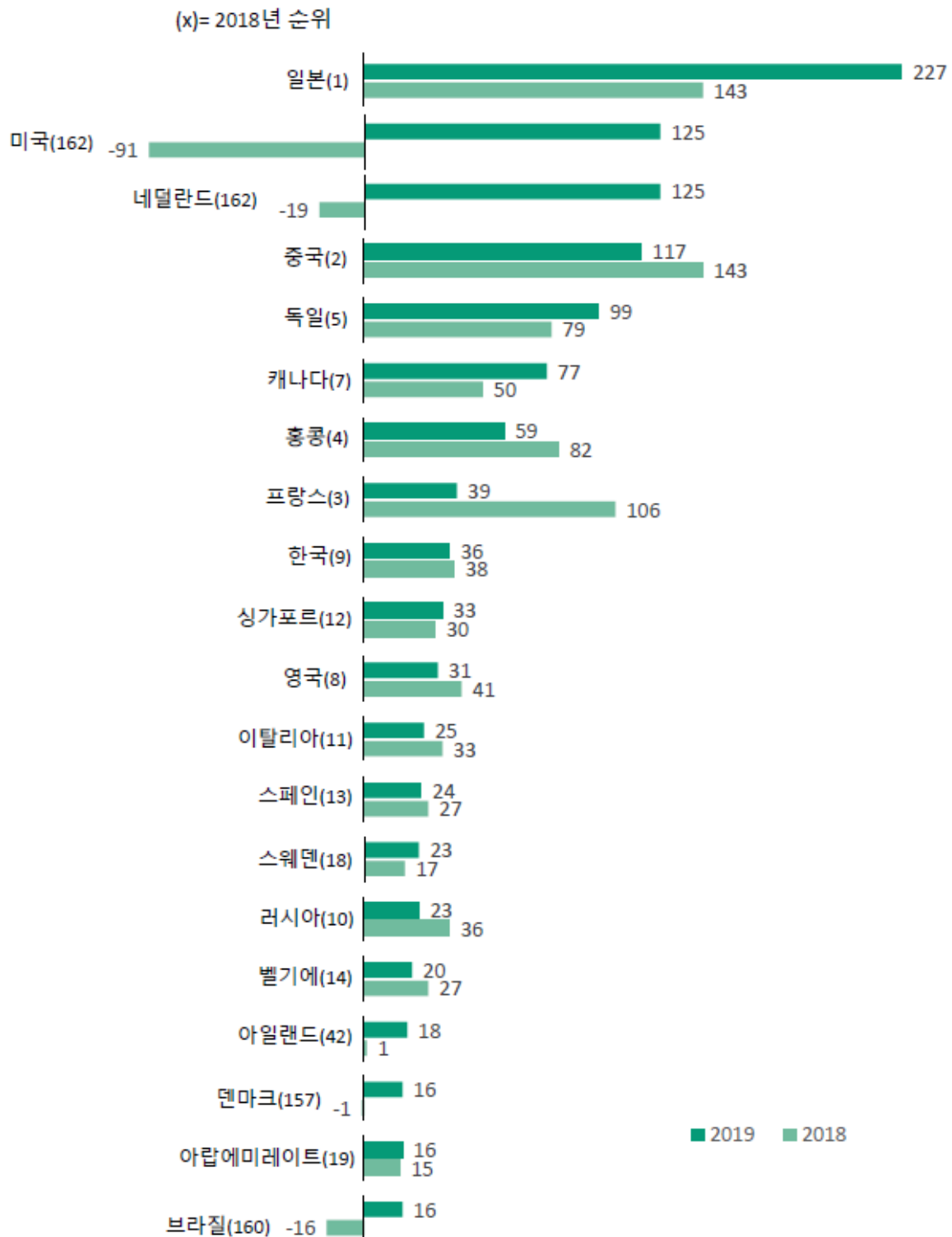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x) = 2018년 순위



○ Outward FDI Flow

(단위 : 십억 달러)



■ 세계 Inward FDI(Flow)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13	'14	'15	'16	'17	'18	'19	'19 비중
전 세계	1,431,164	1,403,865	2,041,770	1,983,478	1,700,468	1,495,223	1,539,830	100.00
선진국	694,848	669,561	1,274,405	1,265,245	950,150	761,391	800,239	51.97
유럽	351,947	329,804	719,505	674,829	569,780	363,658	429,213	30.72
프랑스	34,280	2,673	45,365	23,077	24,833	38,185	33,965	2.21
독일	12,777	-3,204	30,541	15,633	60,354	73,570	36,359	2.36
아일랜드	50,596	48,248	217,869	39,414	52,835	-28,089	78,234	5.08
이탈리아	24,273	23,254	19,635	28,469	24,047	32,886	26,569	1.73
네덜란드	51,105	45,034	178,990	30,698	60,478	114,306	84,216	5.47
스페인	37,436	22,601	8,558	31,569	38,807	45,010	12,406	0.81
영국	51,676	24,690	39,186	258,699	101,241	65,300	59,137	4.37
스위스	1,155	9,340	75,283	88,592	107,322	-53,151	-21,740	-3.56
북미	270,784	260,738	511,461	507,848	303,780	297,020	296,547	19.27
캐나다	69,391	59,005	43,836	36,056	26,522	43,459	50,332	3.27
미국	201,393	201,733	467,625	471,792	277,258	253,561	246,215	16.96
기타선진국	72,867	79,019	43,439	82,568	76,590	100,714	74,479	4.84
호주	56,765	58,507	29,580	48,294	45,403	68,048	36,156	2.35
일본	2,304	12,030	2,976	19,359	10,977	9,858	14,552	0.95
개발도상국	652,551	677,340	728,889	651,979	700,636	699,306	684,723	44.47
아프리카	52,127	53,908	57,564	46,023	41,535	50,577	45,368	2.95
중남미카리브	185,432	160,943	156,412	136,610	156,193	148,920	164,236	10.67
브라질	59,089	63,846	49,961	53,700	66,585	59,802	71,989	4.68
멕시코	48,504	30,434	35,352	30,989	34,165	34,764	32,921	2.14
아시아	415,405	460,182	514,308	468,403	302,002	498,560	473,898	33.62
중국	123,911	128,502	135,577	133,711	136,315	138,305	141,225	9.17
홍콩	74,294	113,038	174,353	117,387	110,685	104,246	68,379	4.44
한국	12,767	9,274	4,104	12,104	17,913	12,183	10,566	0.67
대만	3,598	2,828	2,391	9,261	3,291	6,998	8,213	0.53
인도	28,199	34,582	44,064	44,481	39,904	42,156	50,553	3.28
인도네시아	18,817	21,811	16,641	3,921	20,579	20,563	23,429	1.52
말레이시아	12,115	10,877	10,082	11,336	9,399	7,618	7,650	0.50
싱가포르	56,672	73,287	59,700	68,818	83,604	79,738	92,081	5.98
베트남	8,900	9,200	11,800	12,600	14,100	15,500	16,120	1.03
남동유럽/CIS	4,749 / 77,995	4,631 / 52,332	4,937 / 32,539	4,647 / 61,607	5,529 / 44,152	7,426 / 27,099	7,213 / 47,705	0.47 / 2.68
러시아	53,397	29,152	11,858	37,176	25,954	13,228	31,735	2.06

■ 세계 Inward FDI(Stock)

(단위 : 십억 달러, %)

지역	'14	'15	'16	'17	'18	'19	'19 비중	'19년 GDP 대비 FDI(stock) 비율
전 세계	25,918	26,313	28,243	32,624	32,272	36,470	100.00	41.77
선진국	16,958	17,173	18,405	21,496	20,790	24,286	66.60	48.73
유럽	9,584	9,727	9,870	11,482	11,309	12,596	38.37	61.40
프랑스	700	687	695	818	825	869	2.38	32.11
독일	860	782	795	957	939	953	2.61	24.96
아일랜드	430	890	841	893	910	1,120	3.07	289.89
이탈리아	353	341	353	428	431	446	1.22	22.35
네덜란드	1,425	1,370	1,394	1,688	1,674	1,750	4.80	193.25
스페인	587	538	554	645	659	752	2.06	54.39
영국	1,582	1,531	1,476	1,806	1,890	2,075	6.04	73.63
스위스	813	887	1,082	1,155	1,063	1,351	3.70	190.32
북미	6,452	6,538	7,552	8,917	8,359	10,503	25.15	45.12
캐나다	995	806	966	1,073	894	1,037	2.84	59.84
미국	5,457	5,731	6,586	7,844	7,465	9,466	20.84	43.93
기타선진국	923	908	983	1,097	1,122	1,187	3.25	16.8
호주	583	566	606	689	683	714	1.96	51.02
일본	172	174	197	200	214	223	0.61	4.37
개발도상국	8,335	8,541	9,087	10,304	10,679	11,312	31.02	32.27
아프리카	732	760	814	891	895	954	2.74	37.70
중남미카리브	1,882	1,746	1,894	2,041	2,116	2,263	6.16	41.91
브라질	601	430	564	623	684	641	1.76	35.33
멕시코	492	502	473	491	486	628	1.72	49.69
아시아	5,696	6,010	6,354	7,344	7,639	8,066	25.16	26.47
중국	1,085	1,221	1,355	1,489	1,628	1,769	4.94	12.44
홍콩	1,496	1,592	1,626	1,944	1,997	1,868	5.96	506.64
한국	179	180	189	229	231	239	0.65	14.34
대만	68	65	83	94	101	101	0.28	16.42
인도	253	283	318	377	386	427	1.17	13.95
인도네시아	217	222	250	231	226	233	0.64	20.50
말레이시아	136	117	122	147	153	169	0.46	46.07
싱가포르	1,027	1,090	1,113	1,393	1,481	1,698	4.66	469.31
베트남	91	103	115	129	145	161	0.35	60.98
남동유럽/CIS	54/556	54/532	55/115	68/129	72/145	78/776	0.21/1.89	/32.98
러시아	290	263	394	441	407	464	1.27	27.27

* 주: <'18년 GDP대비 FDI(stock)비율>에서 GDP는 IMD에서 발표한 수치 활용

■ 세계 Outward FDI(Flow)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13	'14	'15	'16	'17	'18	'19	'19 비중
전 세계	1,376,642	1,366,900	1,708,088	1,543,239	1,600,984	986,351	1,313,770	100.00
선진국	892,147	848,356	1,275,585	1,103,818	1,095,155	534,028	916,879	69.79
유럽	389,705	365,798	833,754	599,329	574,033	455,229	498,775	37.97
프랑스	20,369	49,849	53,218	64,848	35,985	105,636	38,663	2.94
독일	42,270	84,076	99,025	63,661	104,087	78,813	98,700	7.51
아일랜드	29,169	41,235	168,480	30,086	-2,048	727	18,103	1.37
이탈리아	25,134	26,361	21,644	16,181	24,531	32,692	24,934	1.90
네덜란드	69,704	59,435	247,737	156,621	46,902	-18,843	124,652	9.48
스페인	12,823	36,790	41,926	43,946	52,349	27,074	24,135	1.84
영국	40,486	-151,286	-66,821	-37,606	117,547	41,425	31,480	2.40
스위스	38,539	-47	88,751	122,065	30,145	60,782	11,097	0.85
북미	360,844	393,285	331,799	358,768	378,726	-40,774	201,501	15.33
캐나다	57,381	60,271	67,440	69,507	78,348	49,879	76,602	5.83
미국	303,432	333,014	264,359	289,261	300,378	-90,623	124,899	9.51
기타선진국	141,629	154,145	137,737	173,050	176,954	156,034	240,384	18.3
호주	1,441	18,185	-9,337	2,267	5,932	6,362	5,397	0.41
일본	135,749	130,843	136,249	155,937	164,683	143,161	226,648	17.25
개발도상국	408,699	446,188	400,401	414,234	467,357	414,747	373,102	28.40
아프리카	11,119	8,188	6,444	3,953	12,025	8,157	5,337	0.41
중남미카리브	34,707	25,628	21,703	10,818	38,249	127	41,598	3.17
브라질	-478	-3,261	-11,643	-5,901	19,040	-16,336	15,515	1.18
멕시코	15,490	6,911	10,663	482	3,919	7,712	10,228	0.78
아시아	362,731	412,228	372,364	399,357	416,980	406,741	327,588	42.84
중국	107,844	123,120	145,667	196,149	158,290	143,040	117,120	8.91
홍콩	80,773	124,092	71,821	59,703	86,704	82,201	59,279	4.51
한국	28,318	27,999	23,687	29,890	34,069	38,220	35,531	2.70
대만	14,285	12,711	14,709	17,946	11,552	18,058	11,861	0.90
인도	1,679	11,783	7,572	5,072	11,141	11,447	12,104	0.92
인도네시아	6,647	7,077	5,937	-12,215	2,077	8,053	3,380	0.26
말레이시아	14,107	16,369	10,546	8,011	5,638	5,114	6,304	0.48
싱가포르	45,279	52,477	45,223	39,968	48,830	29,761	33,283	2.5
베트남	1,956	1,150	1,100	1,000	480	598	465	0.06
남동유럽/CIS	501/74,759	482/71,874	525/31,576	239/24,948	313/38,159	589/36,988	568/23,221	0.04/1.70
러시아	70,685	64,203	27,090	26,951	34,153	35,820	22,530	1.71

■ 세계 Outward FDI(Stock)

(단위 : 십억 달러, %)

지역	'13	'14	'15	'16	'17	'18	'19	'19 비중
전 세계	24,832	25,994	26,260	27,621	32,383	30,975	34,571	100.00
선진국	19,991	20,547	20,420	25,994	24,716	23,049	26,223	75.85
유럽	10,934	11,384	11,501	11,702	13,293	12,972	14,324	42.60
프랑스	1,325	1,294	1,268	1,285	1,467	1,508	1,533	4.43
독일	1,507	1,399	1,369	1,368	1,645	1,645	1,719	4.97
아일랜드	535	619	910	857	860	912	1,085	3.14
이탈리아	536	491	468	469	557	549	558	1.62
네덜란드	1,147	2,031	2,000	2,184	2,523	2,427	2,565	7.42
스페인	550	25,994	487	511	583	563	607	1.75
영국	1,796	1,681	1,605	1,492	1,774	1,697	1,949	6.39
스위스	1,197	1,077	1,123	1,233	1,263	1,263	1,526	4.42
북미	7,385	7,446	7,172	7,664	9,314	7,800	9,374	27.12
캐나다	1,131	1,126	1,113	1,252	1,485	1,325	1,652	4.78
미국	6,254	6,320	6,059	6,412	7,829	6,475	7,722	24.01
기타선진국	1,672	1,717	1,747	1,859	2,109	2,277	2,525	7.30
호주	457	467	415	432	496	491	579	1.68
일본	1,118	1,152	1,229	1,315	1,495	1,665	1,818	5.26
개발도상국	4,408	5,065	5,500	6,003	7,227	7,524	7,900	22.85
아프리카	189	210	221	246	353	318	285	0.83
중남미카리브	572	596	571	608	687	659	763	2.21
브라질	204	210	185	203	242	229	224	0.65
멕시코	144	150	145	146	173	153	230	0.67
아시아	3,646	4,258	4,707	5,146	6,185	6,545	6,849	25.52
중국	660	883	1,098	1,357	1,809	1,939	2,099	6.07
홍콩	1,241	1,450	1,531	1,547	1,813	1,870	1,794	5.19
한국	239	261	286	310	361	388	440	1.27
대만	268	297	303	309	322	340	362	1.05
인도	120	132	139	144	155	166	427	0.52
인도네시아	19	25	29	59	66	72	79	0.23
말레이시아	128	135	136	126	130	119	119	0.34
싱가포르	622	680	739	794	962	1,021	1,106	3.20
베트남	6	7	9	10	10	11	11	0.03
남동유럽/CIS	4 / 427	4 / 376	4 / 334	4 / 386	5 / 432	6 / 394	6 / 439	0.02/1.25
러시아	385	330	283	334	380	344	387	1.12

■ 산업별, 국가간 M&A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산업	매각(Net Sales)				인수(Net Purchases)			
	'16	'17	'18	'19	'16	'17	'18	'19
전체	886,901	693,962	815,726	490,778	886,901	693,962	815,726	490,778
1차산업	82,965	24,482	39,089	33,516	9,324	-2,174	29,612	52,743
농업, 임업, 어업	4,134	1,954	796	1,479	125	-1,011	-860	-1,578
광업	78,832	22,528	38,294	32,038	9,199	-1,163	30,471	54,321
제조업	405,883	326,811	307,097	242,538	398,243	270,808	242,276	166,054
식료품, 음료, 담배	138,041	87,765	54,861	19,393	121,471	75,237	40,314	14,251
섬유, 의복, 가죽	2,448	857	2,564	1,354	3,405	2,055	1,223	3,806
목재, 나무제품	38	196	82	610	-20	52	999	440
종이 제품	2,709	3,831	2,873	9,110	3,241	5,630	1,543	8,175
인쇄, 기록매체복제	316	57	20	889	50	1,370	295	446
코크스, 석유제품, 핵연료	-119	1,644	1,435	6,792	67,771	-10,310	-3,249	-11,191
화학물질, 화학제품	25,724	58,513	119,325	35,028	38,486	68,915	111,265	23,527
의약품	104,597	78,169	57,519	97,757	107,795	23,869	46,732	94,19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095	2,998	348	3,948	2,948	2,983	2,581	2,826
금속 및 금속제품	9,036	3,593	2,170	12,594	-2,603	-3,236	4,737	8821
전기 및 전자	75,036	25,584	42,197	20,783	31,843	43,712	10,513	192
자동차 및 운송장비	-1,201	5,935	6,631	6,448	-9,442	2,511	4,613	2,605
비금속 광물제품	6,409	3,905	3,830	6,218	8,895	2,288	6,575	3,309
기계 및 장비	31,551	51,580	4,399	5,545	15,395	53,428	7,983	4,314
가구	566	33	1,390	-26	3,389	768	444	170
기타제조	5,637	2,151	7,452	16,096	5,618	1,538	5,708	10,169
서비스업	398,054	342,669	469,433	214,723	479,334	425,328	543,838	271,981
전기, 가스, 수도	66,434	54,161	38,047	12,157	42,363	7,911	8,887	-792
건설	5,327	4,278	7,117	5,001	365	1,025	3,180	5,141
도소매	50,346	12,015	34,617	13,082	18,553	13,895	30,809	5,294
숙박, 음식점	10,609	20,451	7,788	12,217	5,708	1,048	3,936	265
운수, 창고	44,106	22,270	46,356	20,080	46,895	52,435	26,354	6,885
정보 통신	44,421	78,275	116,087	20,859	37,481	43,062	89,980	-9,922
금융	97,102	58,861	108,394	48,488	264,825	247,165	337,003	262,913
비즈니스서비스	11,694	19,212	21,884	13,596	32,593	29,403	24,990	11,321
공공행정 및 국방	625	96	44	N/A	690	-2,131	-4,146	-6,437
교육	450	545	314	428	- 348	25	122	-770
보건 및 사회복지	14,099	9,080	7,819	10,311	13,600	8,315	299	95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7,296	11,442	15,293	5,973	1,589	973	11,280	1,034
기타서비스	1,155	3,223	766	571	143	3,945	275	-25



202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001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1.1
21-002	2020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2021.1
21-003	일본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	2021.2
21-004	러시아의 팬데믹 방역 · 보건 산업 : 코로나19 방역	2021.2
21-005	한·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2021.2
21-006	美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2
21-007	미국-EU 정부의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동향 및 전망	2021.3
21-008	코로나19 이후 신북방지역 소비시장 변화	2021.3
21-009	美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전망	2021.3
21-010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 동향과 추진 전망	2021.3
21-011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2021.3
21-012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과 주요국 동향	2021.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2021.1
21-002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일본	2021.1
21-003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2021.1
21-004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서남아	2021.1
21-005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동	2021.1
21-006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유럽	2021.1
21-007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CIS	2021.1
21-008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2021.1
21-009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남미	2021.1
21-010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아프리카	2021.1
21-011~090	2021 국별 진출전략 (80개국)	2021.1
21-091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1
21-092	2020년 외국인투자주간(IKW 2020) 결과보고서	2021.1
21-093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온오프라인 가이드북	2021.1
21-094	외국인투자가이드 2021	2021.1
21-095	外国人投資ガイド 2021	2021.1
21-096	外商投資指南 2021	2021.1
21-097	KOTRA와 함께하는 수출기업화 성공스토리 2020	2021.1
21-098	제15회 외국인투자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결과보고서	2021.1
21-099	Business in Korea 2021	2021.1
21-100	외국투자자를 위한 조세가이드	2021.1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101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	2021.1
21-102	한국생활가이드 2021	2021.1
21-103	2019/20년 KSP 정책자문보고서 모잠비크 :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	2021.2
21-104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Mozambique : Modernization to Improve the Driving License and Driving Practice System in Mozambique	2021.2
21-105	Pesquisa de Política e Consultoria para a Modernização do Sistema de Treinamento para Carta de Condução em Moçambique	2021.2
21-106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Final Report Brazil : Policy Consultation for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mprovement in Brazil	2021.2
21-107	2019/20 Relatório Final da Consulta da Política de KSP : Consulta de Política para Otimização do Sistema de Automação da Propriedade Industrial no Brasil	2021.2
21-108	2019/20 Ecuador KSP Final Report : Policy Consultation for Strengthening Export Capability and Promoting Exports to Asia, Ecuador	2021.2
21-109	Programa de Transferencia de Conocimientos (KSP) Ecuador 2019/20 Informe Final : Recomendación de Política para Fortalecer la Capacidad de Exportación y Promover la Exportación a Asia, Ecuador	2021.2
21-110	2019/20년 KSP-ADB 공동컨설팅 인도 : 인도 항만 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기술 강화 방안 컨설팅	2021.2
21-111	2019/20 KSP-ADB Joint Consultation Report India : Skill Enhancement to Improve Port Operations in India	2021.2
21-112	페루 파나마맥스 및 포스트 파나마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및 전략수립	2021.2
21-113	Modernización y Expansión de las Capacidades de Construcción y Reparación Naval de Buques Panamax y Post-Panamax en Peru	2021.2
21-114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Shipbuilding and Repair Capacity of Panamax and Post-Panamax Vessels in Peru	2021.2
21-115	2020년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일일동향보고	2021.2
21-116	KOTRA 도쿄 IP-DESK 2020년 정보레터 모음집	2021.2
21-117	포커스 on 코리아	2021.2
21-118	2021 KOTRA 서비스 가이드북	2021.2
21-119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2021.2
21-120	외국투자자를 위한 입지가이드	2021.2
21-121	외국투자자를 위한 노사가이드	2021.2
21-122	외국투자자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2021.2
21-123	2020년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이슈리포트	2021.2
21-124	K-방역, 위기를 뚫고 희망을 열다	2021.3
21-125	싱가포르 진출 기업들을 위한 싱가포르 노무 가이드	2021.3
21-126	KOTRA, 해외 진출의 희망이 되다	2021.3
21-127	해외 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수주 활성화 전략 보고서	2021.3
21-128	Taxation in Korea 2021	2021.3
21-129	Customs Clearance in Korea 2021	2021.3
21-130	Industrial Sites in Korea 2021	2021.3
21-131	Labor Laws in Korea 2021	2021.3
21-132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2021	2021.3
21-133	한국 스마트팜 디렉토리북 2021 = Directory of Korean Smart-Farm Solutions	2021.3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134	2020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전략 보고서	2021.4
21-135	Living in Korea 2021	2021.3
21-136	韓国生活ガイド 2021	2021.3
21-137	韓国生活指南 2021	2021.3
21-1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1	2021.3
21-139	20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2021.4
21-140	2020 수출애로 우수상담 사례집	2021.4
21-141	2020 해외 전문인력 정보조사 보고서	2021.4
21-142	2020 IP-DESK 백서	2021.4
21-143	2020년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 베트남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2021.4
21-144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Advancing Energy Safety Managemnet	2021.4
21-145	2020년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 베트남 농산물 국내시장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	2021.4
21-146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Promoting Viet Nam's exports of key agro products to Korea	2021.4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글로벌 신통상포럼 자료집	2021.5

작성부서

투자전략팀
신산업유치팀
기간산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베이징무역관 등 투자거점무역관

KOTRA자료 21-147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발 행 인 ■ 유정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1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investkorea.org
문 의 처 ■ 투자전략팀(02-3460-7852)

ISBN : 979-11-6490-108-1 (93320)
979-11-6490-109-8 (95320) (PDF)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